1085~4

安應模知事演說文選集

第 3 輯

忠 淸 南 道

安應模知事演說文選集

第 3 輯



忠 淸 南 道



道 政 口 號

으뜸 忠南 우리가 만들자

道 政 方 針

1. 信賴받는 奉仕行政

2. 빈틈없는 地域安定

3. 福祉로운 均衡開發

4. 얼이깃든 文藝暢達



△忠南大學校 大學生 特別 心身修鍊會 特講(86. 3. 15)



△汎國民 交通安全 促進大會(86. 4. 9)



△第15回 全國 少年體育大會 選手團 凱旋 歡迎大會(86. 5. 10)



△第16回 忠淸南道 美術大展 施賞式(86. 5. 23)



△第3次 藝總 全國 代表者大會(86. 6. 13)



△6.25 36周年 反共 및 安保 蹶起大會(86. 6. 25)



△大田市 勤勞青少年 賃貸아파트 開館(86. 7. 24)



△福祉農道院 天原 푸른겨레研修院 竣工(86. 8. 26)



△第10回 아시아競技大會 聖火奉送 出發式(86. 9. 17)



△第10回 아시아競技 蹴球 豫選大會 開會式(86. 9. 20)



△세540돌 한글날 기념식(86. 10. 9)



△第27回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 開會式(86. 10. 17)



△國際로타리 368地區 第9年次大會(86. 10. 18)



△第13回 大日飛虎大賞 施賞式(86. 11. 7)



△青石修練院 新築廳舍 竣工式(86. 11. 15)



△第30回 忠清南道 文化賞 施賞式(86. 12. 15)



△1986年末 大統領閣下 下賜品 傳達式(86. 12. 24)



△1986年 下半期 停年退任式(86. 12. 26)



△1986年度 終務式(86. 12. 31)



△安應模 道知事 離任式(87. 1. 5)

發 刊 辭

지금 우리는 300萬 道民의 슬기와 力量을 한데 모아 새로운 忠南年代의 創造를 위한 前進과 跳躍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이는 온 國民이 熱望하는 21世紀의 繁榮된 先進祖國, 살기 좋은 福祉社會 建設의 國家的 命題를 實現하는 歷史的 途程에서 우리 忠南이 「으뜸」의 先導役割을 해야겠다는 確固한 意志와 信念의 實踐이며 努力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때에 「으뜸 忠南 우리가 만들자」라는 道政口號를 提唱하시고 1萬 7千餘 公務員은 勿論 300萬 道民의 能動的인 參與와 呼應속에 道政을 이끄신 安應模 知事님의 「으뜸」意志와 哲學은 積極的이고 進取的인 忠南道政의 새로운 座標를 提示하였다 할 수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指導理念의 實踐은 알찬 結實을 맺어 全國單位 各種事業 評價 및 地域開發 등 道政全般에 빛나는 成果들 남기었고 道內 곳곳에 忠南讚歌의 우렁찬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읍니다.

이제 知事님께서 2年9個月 동안 道政을 指導하시면서 이와 같은 「으뜸」의 哲學과 成果, 높은 經綸을 確認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서 행하신 말씀들을 모아 「安應模知事님 演說文 選集」을 마무리 發刊함은 知事님의 哲學과 經綸을 되새겨 보다나은 忠南道政의 契機로 삼고 道政의 생생한 歷史를 記錄保存한다는 점에서 同僚公務員은 勿論 道民 全體와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무쪼록 이 조촐한 冊子가 「새로운 忠南年代의 創造」에 同參하는 모든 분들에게 뿌듯한 衿持와 슬기로운 智慧, 그리고 힘찬 勇氣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87. 5. 20

忠淸南道 副知事 이 봉 학

차 례

1986年	3月 10日	'86 社會淨化 推進委員 教育 入校式 人事	29
〃	〃 11日	地域安保力量 强化에 대한 談話文	31
〃	〃 12日	'86 社會淨化 推進委員 教育 修了式 人事	33
〃	〃 14日	32師團 安保對策 報告會 人事	35
〃	〃 15日	忠南大學校 大學生 特別 心身修鍊會 特講	37
〃	〃 18日	忠淸南道 醫師會 第37次 定期 代議員總會 祝辭	46
〃	〃 28日	反共聯盟 基幹要員 教育 兼 團合大會 激勵辭	48
〃	〃 29日	第4回 忠淸南道 演劇祭 激勵辭	50
〃	4月 1日	4月 月例朝會 訓示	52
〃	〃 2日	'86 女性團體 指導者 教育 激勵辭	63
〃	〃 3日	名譽退任式 致辭	65
〃	〃 8日	忠淸南道 行政同友會 定期總會 人事	69
〃	〃 9日	自然保護 活性化大會 激勵辭	79
〃	〃 9日	第13回 忠淸南道 用達貨物組合 定期總會 激勵辭	81
〃	〃 9日	汎國民 交通安全 促進大會 致辭	83
〃	〃 10日	'86 忠南地方 技能競技大會 開會式 激勵辭	85
〃	〃 16日	'86 忠南地方 技能競技大會 施賞式 致辭	87
〃	〃 16日	忠淸南道 體育會 代議員總會 致辭	89
〃	〃 16日	第30回 버스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 激勵辭	91
〃	〃 20日	第3回 民族和合 民主統一 새마을 自轉車大行進 致辭	93
〃	〃 21日	'86 女性 社會淨化委員 教育 入校式 人事	95
〃	〃 27日	第9回 國際라이온스 忠南地區 協議會 年次總會 祝辭	97
〃	5月 1日	第23回 法의 날 紀念辭	99
〃	〃 1日	孝行手記集 發刊辭	101

1986年 5月 2日	第16回 忠淸南道 工藝品 競進大會 施賞式 致辭	102
〃 〃 3日	第15回 全國 少年體育大會 選手團 結團式 致辭	104
〃 〃 5日	第15回 全國 少年體育大會 開會辭	106
〃 〃 10日	第5回 道知事旗 및 大統領下賜旗 爭奪 忠南豫選 새마을	
〃	蹴球大會 致辭	108
〃 〃 10日	第15回 全國 少年體育大會 選手團 凱旋 歡迎大會 歡迎辭	110
〃 〃 14日	佛誕 2千530周年紀念法會 奉祝辭	112
〃 〃 15日	스승의 날 紀念式 祝辭	114
〃 〃 15日	故鄕에 송아지보내기 運動 參與人士에 대한 書翰	116
〃 〃 17日	道內 各級 職場民防衛隊員에게 보내는 書翰	118
〃 〃 23日	第16回 忠淸南道 美術大展 激勵辭	120
〃 〃 23日	示範 營農育兒院 開院 激勵辭	121
〃 〃 24日	第28次 國際 와이즈멘 韓國 西部地區大會 祝辭	123
〃 〃 27日	以北5道 代議員總會 祝辭	125
〃 〃 28日	第5回 忠南開發賞 施賞式 祝辭	127
〃 〃 29日	「忠南年鑑」册子 發刊 激勵辭	129
〃 〃 30日	地域經濟協議會 人事	131
〃 〃 30日	忠淸南道 美術大展圖錄 發刊 激勵辭	134
〃 〃 31日	靑少年 健全娛樂 發表會 致辭	135
〃 6月 2日	6月 月例朝會 訓示	137
〃 〃 5日	輿論 모니터에게 보내는 書翰	142
〃 〃 5日	瑞山 A·B地區 開發에 따른 漁場被害 漁民 收拾 聲援人士에 대한 書翰	144
〃 〃 8日	第3回 스카웃 큰 잔치 致辭	145
〃 〃 11日	새마을 指導者에게 보내는 書翰	147
〃 〃 13日	第3次 藝總 全國 代表者大會 祝辭	150
〃 〃 14日	第17次 忠南地區 J·C 會員大會 祝辭	152

1986年	6月 17日	第3回 忠淸南道 女性團體協議會 主管 女性大會 激勵辭	154
〃	〃 18日	第67回 全國 體育大會 選手團 結團式 致辭	156
〃	〃 18日	牛乳消費 勸奬을 위한 公翰	157
〃	〃 19日	市長, 郡守, 區廳長, 邑·面·洞長에게 보내는 書翰	159
〃	〃 23日	大屯山地區 警察戰勝地 勝戰塔 除幕式 致辭	162
〃	〃 24日	'86 上半期 停年退任式 致辭	164
〃	〃 25日	反共 愛國志士 追慕塔 竣工式 追念辭	167
〃	〃 25日	6.25 36周年 反共 및 安保 蹶起大會 激勵辭	169
〃	〃 25日	參戰勇士 午餐 致辭	171
〃	〃 26日	第4回 全國 消防王 忠南 豫選大會 大會辭	173
〃	〃 26日	第67回 全國 體育大會 參加選手團 道民 歡迎大會 歡迎辭	175
〃	7月 1日	7月 月例朝會 訓示	177
〃	〃 1日	全國 大學 代表學生 反共씨클 修鍊大會 激勵辭	185
〃	〃 9日	韓國映畵 포스타展 激勵辭	187
〃	〃 12日	第1回 忠南 觀光文化 産業 슬라이드 公募展 激勵辭	188
〃	〃 14日	水防機動隊 發隊式 激勵辭	189
〃	〃 15日	第1回 道知事旗 爭奪 柔道大會 및 第29回 道內團體 柔道大會 激勵辭	191
〃	〃 21日	海洋少年團 忠南聯盟 發隊式 및 여름學校 開設 激勵辭	193
〃	〃 24日	大田市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 開館式 激勵辭	195
〃	〃 24日	靑少年 善導誌「善導」 第2號 發刊에 즈음한 祝辭	197
〃	〃 29日	大學生 平和統一 硏修大會 歡迎辭	200
〃	8月 1日	8月 月例朝會 訓示	202
〃	〃 1日	'86 乙支演習訓練 慰問者에 대한 書翰	208
〃	〃 7日	忠淸南道 親切王 施賞式 式辭	209

1986年 8月 10日 職場 및 企業, 社會團體 貯蓄運動 强調 書翰 …… 211
〃 〃 12日 長期 勤續 公務員 懇談會 訓示 …… 213
〃 〃 15日 防衛誠金 寄託人士에 대한 書翰 …… 224
〃 〃 26日 福祉農道院 天原 푸른겨레硏修院 開院 祝辭 …… 225
〃 〃 30日 教育公務員 停年 및 名譽退任式 致辭 …… 227

〃 9月 1日 韓國美術協會 忠南支部 會員展 激勵辭 …… 229
〃 〃 6日 金河紡織工場 移轉 起工式 祝辭 …… 230
〃 〃 9日 共通民願 處理對策委員會議 人事 …… 232
〃 〃 11日 '86 家畜 品評會 大會辭 …… 247
〃 〃 12日 保寧 水產種苗 培養場 竣工式 祝辭 …… 249
〃 〃 13日 道知事旗 爭奪 새마을 테니스大會 致辭 …… 251
〃 〃 15日 反共 綜合教育會館 竣工 祝辭 …… 253
〃 〃 16日 86, 88 스포츠科學 學術大會 歡迎辭 …… 255
〃 〃 16日 第25回 大田市民의 날 및 第4回 한밭祭 致辭 …… 258
〃 〃 16日 86 아시안게임 스포츠科學 學術大會 午餐 人事 …… 260
〃 〃 16日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 聖火奉送 安置式 歡迎辭 …… 261
〃 〃 17日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 聖火奉送 出發式 歡送辭 …… 263
〃 〃 20日 第10回 아시아 競技 蹴球 豫選大會 開會辭 …… 265
〃 〃 26日 第32回 百濟文化祭 致辭 …… 267
〃 〃 27日 '86 忠南文化市民賞 施賞式 祝辭 …… 269

〃 10日 1日 「社會淨化 消息誌」 寄稿 …… 271
〃 〃 2日 望鄕의 동산 合同慰靈祭 追悼辭 …… 273
〃 〃 9日 第21回 全國 技能競技大會 出戰選手團 結團式 激勵辭 …… 275
〃 〃 9日 제540돌 한글날 기념사 …… 277
〃 〃 10日 林允洙의 著書「玄琴譜」 發刊 祝刊辭 …… 279
〃 〃 10日 道內 農組職員 體育大會 激勵辭 …… 281

〃 〃 10日 民統 促進大會 및 統一 學生 文藝作品 施賞式 激勵辭 …… 283
〃 〃 11日 勤勞者 體育大會 致辭 …… 285
〃 〃 15日 아시아 競技大會 參加選手 歡迎大會 歡迎辭 …… 287
〃 〃 15日 汎國民 올림픽 推進 忠淸南道協議會 結成總會 祝辭 …… 289
〃 〃 17日 第27回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 大會辭 …… 291
〃 〃 18日 第27回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 出演人事 …… 293
〃 〃 18日 第27回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 閉會辭 …… 294
〃 〃 18日 國家有功者 記章 授與式 激勵辭 …… 296
〃 〃 18日 國際로타리 368地區 第9年次大會 祝辭 …… 298
〃 〃 22日 佛教人 懇談會 人事 …… 300
〃 〃 23日 反共 建國 靑年 運動 紀念塔 竣工式 追念辭 …… 311
〃 〃 25日 社會淨化委員의 勞苦에 대한 書翰 …… 313
〃 〃 25日 第19回 大統領旗 爭奪 全國 登山大會 激勵辭 …… 316
〃 〃 27日 第30回 忠淸南道 새마을 靑少年 競進大會 施賞式 致辭 …… 318
〃 〃 28日 林 允洙出版記念會 祝辭 …… 320
〃 〃 28日 第23回 貯蓄의 날 紀念辭 …… 323
〃 〃 30日 反共犧牲者 合同慰靈祭 追悼辭 …… 325

〃 11月 1日 '86 불조심 行事의 날 致辭 …… 327
〃 〃 3日 11月 月例朝會 訓示 …… 329
〃 〃 6日 安保情勢 報告會 人事 …… 334
〃 〃 7日 第13回 大日飛虎大賞 施賞式 祝辭 …… 335
〃 〃 7日 民防衛行政 硏究 發表會 致辭 …… 337
〃 〃 10日 수당선생 순절기 …… 339
〃 〃 11日 實業體育팀 創團을 勸誘하는 書翰 …… 341
〃 〃 13日 基督敎 聖職者 세미나아 人事 …… 342
〃 〃 14日 온 國民이 함께 부르는 노래 忠淸南道 合唱競演大會 大會辭 …… 345
〃 〃 15日 靑石修練院 新築廳舍 竣工式 祝辭 …… 347

1986年 11月 17日 김장菜蔬 消費處 斡旋 勸奬을 위한 書翰 ····· 349
〃 〃 20日 忠南 壽石 聯合展示會 圖錄 發刊 祝辭 ····· 351
〃 〃 23日 새마을 蹴球大會 致辭 ····· 352
〃 〃 25日 道政諮問委員會 人事 ····· 354
〃 〃 25日 '86 鄕軍 安保 講演會 激勵辭 ····· 361
〃 〃 28日 安保情勢 報告會 人事 ····· 363

〃 12月 4日 韓國 어린이財團 慈善晩餐會 激勵辭 ····· 374
〃 〃 8日 大學進學子女를 둔 公務員에게 보내는 書翰 ····· 376
〃 〃 8日 養豚經營 安定 決意大會 激勵辭 ····· 378
〃 〃 12日 主婦가 뽑은 親切한 택시技士 施賞式 致辭 ····· 380
〃 〃 12日 '86 地域새마을 綜合評價 施賞式 致辭 ····· 382
〃 〃 12日 大田環境支廳 開廳式 祝辭 ····· 384
〃 〃 15日 第30回 忠淸南道 文化賞 施賞式 式辭 ····· 386
〃 〃 17日 '86全國 技能競技大會 入賞者 施賞式 致辭 ····· 389
〃 〃 17日 第5回 大韓民國 建築大展 第2回 地方巡廻展 祝辭 ····· 393
〃 〃 18日 ㄴ忠南 警察史ㄱ 册子 序文 ····· 394
〃 〃 18日 道政 聲援人士에 대한 書翰 ····· 396
〃 〃 19日 '86 平統 活動 評價報告會 人事 ····· 398
〃 〃 19日 이웃돕기 誠金 募金에 대한 談話文 ····· 403
〃 〃 19日 4/4分期 共通民願 處理對策委員會議 人事 ····· 404
〃 〃 21日 새마을 指導者에게 보내는 書翰 ····· 410
〃 〃 23日 忠南體育會 理事會 致辭 ····· 412
〃 〃 23日 忠南體育會 代議員總會 人事 ····· 416
〃 〃 24日 1986年末 大統領閣下 下賜品 傳達式 人事 ····· 422
〃 〃 26日 '86 下半期 停年退任式 致辭 ····· 429
〃 〃 27日 溫陽 室內水泳場 竣工式 祝辭 ····· 433
〃 〃 31日 '86年度 終務式 式辭 ····· 435

1986年 11月 31日 '86年度 送年辭……439

1987年 1月 1日 '87年度 新年辭……440
〃 〃 5日 離任辭……441

'86 社會淨化 推進委員 教育 入校式

1986년 3월 10일

人 事

오늘 새봄과 더불어 社會淨化 推進委員 여러분이 올 한해보다 큰 活動과 成果를 위한 所定의 教育課程에 入校하시게 된 것을 衷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먼저 平素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밝고 바른 社會를 建設해 나가는데 獻身的으로 參與해 오신 淨化推進委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와 慰勞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第五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點火된 社會淨化 運動은 깨끗한 政府, 秩序있는 社會, 健全한 國民意識을 바탕으로 「先進祖國」을 創造하려는 全斗煥 大統領閣下의 統治哲學과 國民모두의 所望을 實現하는데 그 根本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意識과 社會 속에 累積되었던 갖가지 不合理와 삐뚤어진 일들이 지난 5年 동안 우리가 꾸준히 推進한 社會淨化 運動에 힘입어 構造的인 不正이나 社會惡이 눈에 띄게 줄어든 反面에 밝고 明朗한 氣運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과 더불어 自負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지난날과 같이 不正이나 不合理는 이제 통하지도 않으며 우리 社會로부터 멀리 사라져야 한다는 國民的 共感帶를 形成해 놓은 것이 가장 값진 成果라고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國民所得 2千$을넘은 成熟한 時代를 살아가는 國民들로서 民族繁榮의 分水嶺이 될 80年代 後半의 첫해에 우리가 서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88年 봄까지 民主憲政史上 처음으로 國家元首가 任期를 마치고 政府를 平和的으로 移讓하는 새로운 傳統을 세우고 또 한 便으로는 兩大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치뤄냄으로써 우리 겨레의 力量을 世界에 보여 주어야할 召命을 안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至上課業을 바로 「先進祖國」의 創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해서 國民的 和合의 根本이 되는 國論의 統一과 社會의 安定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할 것입니다. 더우기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石油값의 下落과 「엔貨」의 上昇 그리고 國際金利의 引下 등 이른 바 3低時代의 經濟的 絶好의 好期에 우리의 社會가 不安定하게 된다면 우리는 先進化를 앞당길 수 없거나 進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 委員님들은 道民들에게 알려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親愛하는 社會淨化의 旗手 여러분!

비록 짧은 사흘 동안의 硏修課程입니다만 여러분은 이처럼 가장 重要하고 急迫한 轉換期의 時代的인 認識도 함께 다지는 敎育이 되기를 本人은 期待합니다.

아무쪼록 硏修期間 동안 健康하시고 有終의 美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地域 安保力量 強化에 대한

1986년 3월 11일

談 話 文

300萬 道民 여러분!

地域防衛와 安定의 責任을 遂行하고 있는 본 協議會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昨今의 對內外 安保情勢가 우리의 生存과 安寧을 威脅하는 緊迫한 狀況에 처하고 있음을 直視하고, 이 忠南地域에서부터 뻗쳐오른 決然한 安保意志가 全國으로 擴散되어 國家安保의 터전이 더욱 튼튼히 다져질 수 있는 起爆劑가 되도록 道民 여러분의 全幅的인 理解와 參與와 實踐意志를 促求하고자 합니다.

最近 "와인버거" 美 國防長官과 "리브시" 駐韓유엔軍 司令官의 公式的인 警告에 이어 世界의 軍事專門家들의 一致된 見解는 앞으로 3年 동안이 韓半島에서 戰爭이 勃發할 危險이 가장 높은 時期라는 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86, '88大會를 成功的으로 치르고 經濟跳躍을 이룩할 境遇 經濟力의 壓倒는 勿論 軍事力에 있어서도 北傀와 均衡을 이루게 되어 北傀의 對南 赤化野慾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北傀는 앞으로 2－3年內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對南侵攻을 敢行하여 우리를 破滅시키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分明한 이 危機와 難局을 現實로 認定하지 않거나 怠慢할 때 그 뒤에 오는 結果를 누가 責任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時點에서 가장 切實히 要請되는 것은 우리의 힘을 한데 모아 安定을 確固히 이룩하는 일입니다.

安定이 튼튼히 다져져 있어야 그 속에서 成長의 活力도 發展의 熱氣도 솟구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道民 여러분!

때마침 우리는 國運 上昇의 好機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86 亞洲競技大會와 '88 올림픽은 우리 民族의 5千年 歷史에 처음으로 아시아 및 世界의 中心舞臺로 떠오르게 될 絶好의 機會일 뿐만 아니라, 이 兩大會는 外交, 經濟, 祖國의 統一 등 各 分野에 있어서 跳躍의 轉機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南北競爭에 있어서도 決定的인 優位를 차지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1964年 東京 올림픽으로 日本이 先進國으로 跳躍할 수 있었던 歷史的 事實은 바로 우리의 未來를 提示해주고 있다 하겠읍니다.

더우기나 昨年末부터 原油價 下落, 日本 엔貨强勢, 國際金利 下落 등 世界 經濟與件의 好轉으로 우리는 지금 絶好의 好機를 맞고 있읍니다.

이러한 좋은 機會를 슬기롭게 活用할 때 우리는 名實共히 80年代 後半에 先進祖國 創造라는 우리 時代의 目標를 기필코 達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道民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오랜 歷史중에서 國家指導者들의 對立이나 分裂, 그리고 國民精神의 解弛가 어떠한 結果를 가져 왔는지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分裂과 混亂 그 뒤에는 반드시 國難과 恥辱의 歷史가 있었다는 事實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時代는 달라도 歷史의 敎訓은 똑같이 適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都市, 우리의 農村, 우리의 海岸地域別로 確固한 自衛力量을 極大化하고 住民申告體制를 徹底히 하여 北傀의 어떠한 後方攪亂策動이나 妨害工作에도 卽刻的으로 對應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競技場 및 主要施設物의 爆發物 또는 테러에 대한 徹底한 對備策도 아울러 講究해야 하겠읍니다.

또 虎視眈眈 우리의 分裂과 混亂을 노리는 北傀의 어떠한 挑發에도 물샐틈없이 對備하면서 모처럼 맞은 經濟跳躍의 好機를 最大限 活用하여 國運隆盛의 新起原을 이룩할 수 있도록, 300萬 道民 여러분!

우리 모두 同參해 나갑시다.

'86 社會淨化 推進委員 敎育 修了式

1986년 3월 12일

人 事

오늘 여러 社會淨化 推進委員님들의 健康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不便한 가운데서도 2泊3日間의 硏修敎育을 履修하여 주신데 대하여 致賀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敎育期間이었지만 專門的인 識見을 가진 人士들의 意見을 들어보고 隔意없는 討論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時代的 召命에 따라 成就해야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共感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硏修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진 산 知識과 理論을 實生活에 適用하시고 淨化活動에 活用해 나갈 때 그 眞價를 發揮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硏修課程을 마치신 여러 淨化委員님들께서 우리 道民들에게 일깨우실 社會淨化 運動의 成果야말로 크게 期待가 된다고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社會淨化 運動은 短時間內에 結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一時的이고 一回的인 우리의 事業이 아니기에 비록 期待한 만큼의 成果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中斷하지 말고 꾸준한 努力을 기울여 나가야 할 우리의 精神運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來日 地球에 終末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말처럼 날마다 나 自身을 淨化하고 내 周邊을 健實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生活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고 秩序있는 社會, 다시 말해서 "先進社會"가 到

來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展開하여야 할 社會淨化 運動이나 "先進祖國"을 向한 우리의 모든 努力들도 社會의 安定과 國民的인 和合과 團結 속에서만 可能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 社會淨化委員님들의 硏修教育 入校 때에도 말씀 드린 바 있읍니다만 지금 우리는 兩大 올림픽의 着實한 準備와 더불어 石油價와 國際金利의 下落, "엔貨"의 强勢라는 經濟的인 好機를 맞고 있읍니다.

이 絶好의 機會에 우리가 쓸데없는 空理空論이나 國民的 和合과 團結을 沮害하는 意見 對立에 時間과 努力을 浪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나 지금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今年의 아시안게임과 來後年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의 虛點을 노리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가 저들에게 毁謗이나 侵略의 口實을 만들어 준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親愛하는 社會淨化 推進委員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國力 跳躍의 轉機를 마련해도 모자랄 지경인 이때 모처럼만에 저절로 찾아온 先進祖國의 成就, 그리고 民族繁榮의 好機를 우리 自身들로 하여금 저버리게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道民을 啓導해 주시고, 地域社會의 安定과 國家 安保의 保衛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社會의 어두운 면을 밝히기 爲해 社會淨化 運動에 率先 參與하시며 獻身하고 계신 여러 委員님들의 愛國的인 信念과 勞苦에 대하여 다시한번 敬意를 표하면서 아무쪼록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뜻하시는대로 成就하시고 여러분 家庭에 언제나 밝은 웃음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여러 委員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읍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3월 14일

人 事

오늘 새봄과 더불어 모든 것을 씨뿌리고 가꾸어야 할 때 우리의 鄕土安保도 새롭게 가꿈으로써 보다 큰 成熟과 結實을 거두려는 道單位 安保對策 報告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어느 고장보다도 긴 海岸線과 島嶼 등 地域防衛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32鄕土師團이 平素 對共作戰 任務와 더불어 이처럼 安保對策會議를 마련해 주신 金相浩 師團長님을 비롯하신 將兵 여러분에게 本人은 讚辭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安保 報告會는 그 어느 때보다도 地域安定과 鄕土安保, 더 나아가서는 國家安保의 重要性이 切實한 이때 우리 고장의 指導級 人士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셨다는 點에서도 매우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本人이 이 자리에서 우리 安保力量의 所重함과 그 優先課題를 굳이 說明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認識하실 줄로 압니다.

지금 北韓 共產集團은 機會만 있으면 今年 9月에 있을 아시아人의 一大祝典과 바로 그 後에 있을 서울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毁謗 놓을 수 있는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겠읍니다.

이제 國民的인 熱望과 世界人의 注視 속에서 兩大 올림픽의 準備를 마무리지어가는 마당에 지금 國內에서는 一部 人士들의 政治的인 主張과 學生들의 無分別한 行動으로 因하여 자칫하면 北韓 共產集團에게 우리 安保上의 虛點이나 誤判의 口實을 줄 수 있는 憂慮가 없지 않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道民들은 모두 健全한 常識과 確固한 國家觀, 그리고 時局觀을 가지고, 祖國의 先進化에 呼應하고 精進해 나가고 있음을 매우 洽足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自己主觀이 뚜렷하지 못하고 善良한 小數의 住民을 對象으로 一部 人士들이 그럴듯한 理論이나 能熟한 煽動으로 自己들 主張에 呼應토록 하고 社會混亂을 造成한다면, 우리의 굳건한 安保基盤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點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指導級 人士 여러분은 平素 鄕土師團의 地域防衛 任務에도 聲援을 보내 주시고 將兵들의 士氣도 북돋워 주시지만 이러한 地域安定의 脆弱要素에도 깊은 關心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地域安定이나 鄕土安保는 어찌 생각하면 서로 別個의 問題인 것 같으나 實際로는 손등과 손바닥같은 相互聯關이 있다는 것은 本人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軍의 對共防衛態勢가 完璧하다 하더라도 地域住民이 動搖하거나 地域社會가 不安하다면 決코 鄕土의 安保를 期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鄕土師團의 安保對策 報告會가 올 한해 軍·官·民의 完璧한 3位 1體 安保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3월 15일

特　　講

내가 지금까지 34年間의 公務員生活을 지내면서 오늘같이 보람있는 자리에 와서서 보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이선우 院長님으로부터 忠南大學校 學生들이 3泊4日 동안 熱心히 教育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感銘깊게 생각을 했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흐뭇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마는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學生들이 各者 맡은 바 本分에 忠實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學生들은 履歷書를 쓸 때 職業을 學生으로 쓸 것입니다. 그 職業이 學生이면 바로 職業意識이 透徹해야 합니다.

自己가 어떤 職業을 가졌든간에 職業人이 職業에 透徹하다는 것은 自己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正確하게 아는 것이고 또한 自己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 分明히 實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學生 여러분들이 福祉農道院에서 새마을 教育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內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入校한 그 自體만으로도 學生으로서의 本分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어쨌든 學生들은 眞理를 探究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立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배우기 위해 努力한다는 것을 나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激勵를 보내고싶습니다.

비록 3泊4日 동안의 짧은 期間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金科玉條와

같은 좋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면서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이랄까 몇 가지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道知事란 職業은 자기 職業을 遂行하기 위한 工夫 以外의 다른 工夫를 할 수 없기 때문에 歷史學者가 될 수도 없고 經濟學者도 될 수 없읍니다.

그러나 行政管理者로서 管理能力을 培養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努力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行政管理者로서의 公職生活 34年을 지내면서 느낀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 나의 個人的인 履歷을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胎生이 休戰線 以北 黃海道입니다. 解放以後 6·25전에 三八線을 넘어와서 定着해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지금까지 公職生活을 하면서, 國家의 構成員의 한사람으로, 느낀점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매우 平凡한 이야기입니다만 첫째는 國家存在의 必要性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나라의 所重함을 切實하게 느꼈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라라는 것은 當然히 存在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나라가 없는 狀況에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나라가 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없다고 봅니다.

勿論 여러분들이 歷史工夫를 통해서 나라의 所重함을 알 수 있겠지만 直接 體驗하지 못한 여러분 世代보다는 더욱 切實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幸福한가를 느낍니다. 家庭에서 우리 애들과 對話時間을 가질 때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幸福한 時代에 태어났읍니다.

主權이 있는 大韓民國의 國民으로 태어났고 또한 우리 말로서 工夫를 하고 能力만 있으면 얼마든지 發展할 수 있는 自由民主主義 體制下에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幸福을 누리지 못하고 苦惱에 빠졌던 時期가 있었읍니다.

우리 나라가 日帝에 의해 支配받던 그 時代에 내가 國民學校에 入學했읍니다.

그러나 國民學校 2學年 때 創氏改名을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日本 사람들이 우리의 民族魂을 抹殺하기 위해 創氏改名을 强要했는데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께서는 그래도 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安字는 그대로 쓰고 강字를 덧붙여 改名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우리 14代祖인 安賢의 號가 설강으로 그분의 號를 빌어 쓴 것입니다.

비록 日帝時代였지만 左議政을 지낸 그분을 본받아 民族魂을 잃지 말라는 그런 意圖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創氏改名할 때의 설움, 悲哀를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學校에서도 우리 말을 朝鮮語로 定하고 日本말을 國語로 定했읍니다.

學校에서는 一切 朝鮮語를 使用할 수가 없었읍니다.

말도 빼앗기고 姓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어린 時節의 그 가슴 속에서도 悲痛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工夫를 하다가 解放을 맞았읍니다.

이렇게 나라없는 설움 主權이 없는 狀況에서의 民族이란 悲慘하기 이를데 없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은 2千年 동안의 流浪生活을 하다가 2次大戰 後에 나라를 形成하게 되었읍니다.

繼續 重複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나라없는 설움과 悲哀란 엄청난 苦痛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日本이 어느 程度, 酷毒한 政治를 했는가 하면, 勿論 얘기를 들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日本은 2次大戰을 일으키고도 準備가 안 돼있고 資源이 不足했기 때문에 韓國으로부터 사람과 物資를 收奪해 갔읍니다.

지금 사할린의 僑胞와 60萬 在日僑胞가 모두 그때 徵兵과 徵用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女子들도 挺身隊로 끌려가고 物資는 勿論 소나무 뿌리까지 모두 收奪해 갔읍니다.

이러한 설움 속에서 자라며 工夫한 나는 이 나라의 所重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되겠읍니다.

學生 여러분들께서도 이 나라의 未來의 主人公들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긴 歷史를 더듬어 보면 여러 가지 理由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으면 나라만은 維持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理論이 整然하고 境遇가 밝더라도 아무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힘센 놈이 와서 덮쳐버리면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日帝 36年間 植民統治를 받은 것도 事實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韓半島의 半萬年 歷史 동안에 931回라는 엄청난 外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처럼 많은 外侵을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命脈을 維持해 온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勿論 우리 祖上들의 슬기도 있었겠지만, 더 큰 要因이라면 그것은 外侵의 主要나라인 中國이나 滿洲, 蒙古勢力들이 日本과 같은 酷毒한 同化政策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萬若 日本과 같은 政策을 썼더라면 나라의 存在가 위태로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大韓民國, 錦繡江山만은 꼭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고 또한 나의 素朴한 愛國觀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또하나 내가 느낀 것은 나라를 지키되 自由民主主義體制를 維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는 絕對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解放後 45年부터 내가 越南을 한 49年까지 約 4年 동안 北傀 共產黨體制下에서 生活을 해 본 사람으로서 共產主義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맑스의 資本論이라든가, 볼세비키革命史 같은 共產主義에 關한 書籍을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實際 共產主義를 體驗한 사람이기에 느끼는 바입니다.

共產主義란 個人의 個性을 無視하고, 集團만이 存在하는 社會입니다.

내가 北韓에서 生活한 이야기를 暫時 紹介하면 北韓에서는 市場機能이 없읍니다.

모든 物資는 國家가 모두 所有하고 있읍니다.

市場機能이 없다는 것은 想像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居住移轉의 自由가 없고 生活의 사소한 일까지 統制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共產主義입니다.

生地獄이 따로 없어요. 내가 그곳에서 살면서 느낀 것은"共產主義란 정말 人間을 抹殺하는 主義구나„하고 느꼈읍니다.

金日成이가 解放後 40年間이나 統治를 하고 있는데, 좋든 나쁘든간에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長期執權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겠느냐?

裁判도 없고 節次도 없이 無條件 黨이 反對하는 勢力은 人民裁判이나 肅淸이라는 名目으로 除去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共產主義社會는 잘사는 사람을 全部 없애 버리고, 못사는 사람만으로 平等을 이루는 社會인 것입니다.

個人의 自由가 全的으로 抹殺되어 있고 아무리 能力있는 사람이라도 自己의 能力을 開發할 수 있는 餘地가 없는 社會가 共產主義社會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學生들이 主張하는 좀 더 많은 自由를 누리기 위해서 人權을 擁護하고, 또한 鬪爭을 繼續해야 한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 보는데 이것은 北韓 共產黨과 比較해보면 전혀 比較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이 地球上에서 아무리 좋지않은 制度라 할지라도 共產主義보다 못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定義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 다음에 내가 切實하게 느낀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때의 가난이란 想像도 못할 程度입니다.

내가 國民學校에 다닐 때에는 고무신도 신어본 적이 없고, 짚신이나, 나막신을 신고 다녔읍니다.

쌀밥은 求景도 할 수가 없는 程度입니다.

勿論 내가 자란 家庭은 貧寒한 家庭은 아니었어요.

所謂 地主家庭이었기 때문에 내 自身은 밥을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안했지만 周圍의 내 學友들은 정말 慘酷할 程度였읍니다.

그러나 내가 넉넉하게 살았더라도 고무신도 못 신어보고 衣食住 以外의 다른 것은 전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읍니다.

人間이 果然 生命만 維持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대로 人權의 尊重을 받으면서 사람다운 生活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必要한 것은 무엇보다도 經濟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난은 결코 자랑도 아니며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없는 설움에 가난의 설움마저 겹치면서 살던 時代가 있었읍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는 歷史가 있었던 것입니다.

經濟는 힘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것도 어떻게 보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解放이 되고, 또 願하지않는 三八線이 그어져서 반쪼가리의 땅이 되었읍니다.

南韓에서는 自由民主主義體制가, 北韓에서는 共產主義 政權이 樹立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獨立된 以後 6·25가 날 때까지의 樣相을 살펴보면 얼마나 和合을 못하고 團結하지 못했으면, 그나마 어렵게 찾은 祖國을 半으로 갈라 놓았겠읍니까?

그러다 보니 有能한 人的 資源과 쓸모있는 物的 資源은 戰爭으로 죽고 없어진 것입니다.

資源이 不足하여 美國의 援助를 받고 살았읍니다.

이것도 모두 힘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기릅시다. 經濟를 키웁시다. 그것이 바로 愛國이요 나라 發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서서히 國力을 成長시키기 始作한 것이 60年代입니다.

李承晩 博士가 물러나고 張勉 政權이 들어섰다가 5.16軍事革命이 일어났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軍事革命 그 自體에 큰 拒否感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의 國力이 伸長된 것은 그때부터 입니다.

60年代에 우리 나라 國民所得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5年度에 約 60 $, 60年度에 約 80 $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成長을 했읍니까?

71年度에 새마을 運動을 始作해서 그때부터 漸進的으로 發展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의 位置는 상당한 것입니다.

國民所得 2千$, 貿易國家中 世界 13位, 우리가 解放되어서 우리 나라보다 훨씬 앞섰던 印尼, 馬聯, 泰國 등 東南亞의 여러 나라들을 앞서고 中進國의 先頭走者로 浮上했읍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다 克服하고 오늘날과 같은 이 時點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3泊4日 동안에 成功事例를 몇분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先輩가 그렇게 뼈아프게 일을 하고 努力을 하여 成功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錦繡江山을 위해서 努力하십시요.

다시는 가난을 맞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난은 悲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난을 克服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絶對貧困에서 脫皮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滿足해서는 안되고 先進國을 향해서 힘찬 前進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歷史를 살펴보면 外勢가 侵略할 때나 나라가 어려울 때는 恒常 나라의 分裂이 있었읍니다.

壬辰倭亂 때에도 朝廷의 分裂로 因하여 일어났읍니다.

小利를 탐내기 위해서 大義를 忘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時間關係上 두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읍니다.

우리는 事實을 보는 눈이 正確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自由民主主義를 威脅하는 共產政權이 우리를 侵犯할 것이냐? 이것을 아니다. 또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싶은 僥倖心理가 問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豫防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豫防이란 痕迹이 없읍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또한 일어날 可能性도 100%는 아닙니다.

勿論 때에 따라서는 30 %, 50 %, 90 %의 可能性도 있고 10 %의 可能性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10 %밖에 안되는 이 可能性을 미리 미리 防止해야만 나라가 發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先進國이 될려면 豫防觀念과 事態에 대한 分析能力이 正確해야 할 것입니다.

安保에 대한 認識이 正確해야 하며 그 밖에 國力이 强해져야만 나라가 發展되며 先進國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國力이 强해질려면 經濟와 人材가 必要합니다.

島山 先生께서 나라의 將來를 위해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人材를 기르자"였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獨立國家가 되고 主權國家가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人材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工夫해라. 工夫해라 하고 强調하셨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意味에서 工夫를 하셔야 합니다.

現代 知性人은 抵抗과 批判을 하여야만 人氣가 있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果然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가끔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民族이 李朝 500年을 통해서 壬辰倭亂과 日帝 36年의 治下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힘없는 民族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抵抗밖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職業이 學生입니다.

學生은 歷史를 바로 工夫해야 합니다.

歷史에 대한 認識, 先祖에 대한 認識, 批判을 分明히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成熟하기위한 하나의 課程이고 工夫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이 現實에 參與하고, 責任지고, 解決할 解決士가 되기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2千年代의 主役을 맡을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가 좋든 나쁘든 내 나라요, 내가 살아 나가야 할 땅인 것입니다.

先輩들이 하나씩 쌓아올린 오늘날의 發展이 그 課程에 矛盾도 많이 있고 고쳐야 할 것도 많지만,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矛盾과 어려움을 고치고 改善해야 할 2千年代의 主役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見聞과 實力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工夫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學生들입니다.

工夫하십시요.

데모를 할려면 정말 깨끗하게 學生답게 하고 各者의 本分을 잊지 않도록 努力하십시요.

또 하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勇氣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自己가 判斷했을 때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것으로 分明히 定立하십시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定立되면 果敢하게 實踐하십시요.

제 이야기는 中間에서 優柔不斷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時間이 다 된 關係로 結論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어떤 分野에 있는지 自己가 맡은 分野에서 最善을 다하고 여기에 權威者가 될 때 이 나라는 分明히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여러분들이 3泊4日 동안 여기에서 갈고 닦고 느낀 것을 여기 나가시더라도 오래오래 간직하고 어떤 整理가 됐다면 그것을 꼭 實踐에 옮겨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忠南의 보배들입니다.

앞으로 忠南의 發展은 勿論 祖國의 發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힘을 發揮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뵙고 내 所見을 發表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앞날에 無窮한 發展이 있기를 祈願합니다.

1986년 3월 18일

祝 辭

오늘 忠淸南道 醫師會 第37次 定期總會에 즈음하여 祝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趙炳得 會長님과 代議員 여러분께서 平素에 道民 保健向上에 寄與하시고, 아울러 道政發展에도 獻身하신 勞苦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會員 相互間의 和合과 結束으로, 이 고장 醫學界의 發展을 가져왔으며 또한 이 地域社會의 참된 指導者로서 默默히 奉仕해 오심을 本人은 잘알고 있읍니다.

지난 乙丑 한해는 그야말로 多事多難이란 말을 우리가 實感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고장이 發展하고 國力이 무럭무럭 伸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한해였음을 여러분과 더불어 眞心으로 慶賀하는 바입니다.

特히 우리 道政에 있어서도, 으뜸忠南의 道民意志를 드높이고 宣揚한 뜻깊은 한해였으며 醫學界에서도 水準높은 硏究와 努力으로 世界 尖端의 位置를 찾이한 分野도 많았고, 地域保健을 體系化 하는데에 많은 땀을 흘려 주셨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고장에는 醫療의 地域間, 階層間의 不均衡이 남아 있으며, 醫療의 손길을 목마르게 기다리면서도 無知와 가난때문에 充分한 醫療의 惠澤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남아 있읍니다.

勿論, 이와 같은 醫療의 死角地帶를 解消하기 위한 政府와 地域社會의 努力도 끊임

없이 硏究. 補完되고 있으나 이땅에 完全한 醫療福祉가 實現될 때까지는 醫療人 여러분의 값진 犧牲과 奉仕가 무엇보다도 切實하고 所重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忠南의 醫療界 指導者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300萬 道民의 貴重한 生命을 지키고, 疾病의 苦痛으로부터 그들을 救援하는 참으로 崇高한 社會的責任을 지니고 계십니다.

나는 늘 醫療人 여러분을 單純한 職業人이라기보다는 人間의 尊貴한 生命을 管理하는 聖職人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診療를 통하여 베푼 참된 奉仕와 그윽한 사랑은, 어려운 處地에 있는 患者들에게 더할 수 없는 勇氣를 주게 될 것이며, 그들의 全生涯를 통하여 人生의 값진 資産으로 기리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모임에서 醫療界의 發展과 權益伸張은 勿論, 이 고장에 보다 밝고, 信賴받는 先進醫療風土를 깊이 심어주는 보람찬 契機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特別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고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86亞細亞競技"가 開催되는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民族의 잔치. 아시아의 祝典에 우리의 水準높은 醫療界를 자랑할 수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自負心과 肯持를 가지고, 서로 和合하여 國運上昇期의 大事를 잘 치르기 위하여 모든 力量을 기우려서, 國力伸張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그 동안의 聲援과 協助에 感謝드리며, 貴會의 無窮한 發展과 代議員 여러분의 健勝하심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反共聯盟 基幹要員 敎育 兼 團合大會

1986년 3월 28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鄕土安保와 反共組織의 核心要員인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敎育과 더불어 團合을 誇示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激勵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反共의 旗手 여러분이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에게 安保의 切實함과 國民的 團合이 要請되는 時點이라서 本人은 자못 마음든든한 바 있읍니다.

反共指導者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겨레와 國家發展의 가장 重要한 갈림길에서 이 時機를 잘 利用하면 民族興隆의 一大轉機를 마련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國家發展의 挫折은 勿論 우리의 生存權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고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國家安保의 重大한 狀況은 本人이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요 며칠 전 이 나라 國防의 最高責任者가 內外信 記者들과의 特別會見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들 北韓 共產集團은 兵力의 數에 있어 우선 우리보다 30% 가 넘는 正規軍을 가지고 있으며 戰車는 두倍, 野砲와 航空機도 두倍, 戰鬪艦은 세倍의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읍니다.

이처럼 엄청난 軍事力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의 自由大韓을 武力으로 삼키고 赤化統一의 野欲을 이루려 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니 우리는 毛骨이 竦然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읍니다.

이토록 착잡한 安保의 危機를 등 뒤에 두고 政權移讓의 時期問題로 우리가 甲論乙駁할 수 있을런지 저으기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하겠읍니다.

이러한 安保의 危機가 아니더라도 國家發展의 與件造成에 있어 最優先的으로 要求되는 것이 國內政治의 安定임은 두말의 餘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一部 政治人과 社會의 一角에서 主張하고 있는 政治的인 要求는 國民和合의 沮害要因임은 勿論 社會安定의 直接原因이 되어 하마터면 우리의 歷史는 國家發展의 가장 좋은 時機를 瓦解시킬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미 우리는 政治的 不安과 社會의 混亂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影響을 미쳤는가는 光復直後와 6.25直前, 그리고 不過 몇해전인 80年 初에 뼈저리게 우리가 體驗한 바 있읍니다.

親愛하는 一線의 反共 指導者 여러분!

여러분은 오로지 오늘 이 뜻깊은 反共教育을 兼한 團合大會를 통해서도 우리를 둘러싼 國家的인 難關과 時代의 意識에 透徹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 의하여 일깨워지는 道民의 自覺과 安保意識이 鄕土安保와 國運展開의 妨害要素 拂拭에 最善의 寄與를 당부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教育에 聲援을 보냅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3월 29일

激 勵 辭

이번에 우리 고장의 演劇藝術을 북돋우기 위하여 마련한 忠淸南道 演劇祝典이 어느듯 4回를 거듭하게 되었읍니다.

어려운 處地에서도 鄕土文化 藝術의 振興과 道民情緖 淳化를 위해서 꾸준히 努力해 오신 이 고장 演劇人 여러분의 勞苦를 激勵하면서 모든 藝術을 先導하는 이 봄의 한마당 演劇잔치를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한 나라의 참된 富强과 隆盛은 그 나라의 文化 藝術이 활짝 꽃피고 結實될 때 비로소 可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先進祖國」을 創造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맡은 바 力量을 한데 모아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知慧와 力量을 샘솟게 하는 것이 바로 藝術이며, 여러분 演劇人의 豊盛한 創作의 熱氣는 鄕土文藝의 振興뿐만 아니라 이 社會와 國家發展의 原動力으로 昇華된다고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演劇人 여러분의 使命과 役割의 所重함이 認識되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우리는 한때 燦爛하게 꽃피워졌던 百濟文化의 精髓를 간직한 이 땅의 後孫으로서 그 自負와 矜持를 되살려 우리의 後孫에게 다시 물려 줄 莫重한 責任도 아울러 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해를 거듭하는 이 演劇祝典이 날로 多樣해지고 向上되어 이 고장 演劇界는 勿論 國內演劇界에도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例年에는 여러 團體들이 出演하여 치루던 行事를 올해에는 이 고장 中堅 演劇人들의 結集인 「한밭劇會」와 「劇團 季節」의 두團體로 集約하여 公演한다고 들었읍니다.

이것은 곧 外形보다는 內實을 期하려는 이 地方 演劇人들의 思慮라고 믿어 크게 歡迎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技倆을 이번 演劇잔치에서 보다 높은 次元의 모습을 道民들에게 보여 주리라 믿으며 뜨거운 聲援을 보내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4月 月例朝會

1986년 4월 1일

訓 示

오늘이 벌써 今年度 2/4分期가 始作되는 날입니다.

3個月이 지나고 이제 本格的으로 道政을 推進해야 할 4月이 된 것 같읍니다.

3月 28日날로 내가 就任한지 2周年이 됐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가 赴任한 以後에 여러분들이 本人의 뜻을 받들어서 忠南道政을 잘 遂行해 주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뛰어난 實績을 擧揚했고, 이것이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으뜸忠南 우리가 만들자"는 우리의 道政目標에 道民들도 共感을 하고, 또 많이 參與를 해 주었기 때문에 相當히 좋은 成果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行政實績을 거두고, 또 어떤 分野든 市·道 對抗業務에 있어서 努力을 많이 하는 것이 他 市·道에도 많이 알려져, 어떻게 하면 보다 더 國政을 地方的으로 具現하고 심어나가는데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좋은 善意의 競爭風土가 造成되었다고 나는 自負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 忠南은 우리 道의 發展뿐만 아니라 全國의 行政發展을 위한 先導的인 役割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 勞苦를 다시 한번 致賀하고 今年度에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쌓아올린 터전, 成果, 位置, 이것을 잘 지켜서 定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努力을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달 들어서 내가 몇가지 부탁을 할 것은 大統領閣下께서 4月 5日부터 21日까지 유럽 4個國 巡訪을 하시도록 計劃이 發表가 됐읍니다.

大統領閣下께서 就任하신 以後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頂上外交를 積極 펼쳐서 國際的으로 우리 나라의 地位를 向上시킨 것은 勿論이고,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 많은 成果를 거둔 것이 事實입니다.

이번에 韓國 國家元首로서 처음 유럽을 公式訪問하게 됐고 이어서 英國의 대처 首相이 우리 나라를 訪問하도록 計劃되어 있읍니다.

巡訪國은 政治的으로 그 동안 우리하고 友邦國家이었기 때문에 紐帶가 깊었던 것은 事實이지만 友誼가 密度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됩니다.

特히, 유럽은 社會主義體制가 있어 北傀 活動舞臺로서 많이 利用이 되고 있는 地域이기 때문에 이번에 大統領閣下께서 유럽을 巡訪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나라의 政治的, 經濟的인 目的達成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分析이 됩니다.

우리 모든 國民은 大統領閣下께서 많은 成果를 거두어 돌아 오실 것을 祈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國家元首가 外國에 나들이 할 때 國內的으로 조그마한 虛點도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勿論 軍은 國防을 잘 해야 하겠고, 警察은 治安維持를 잘 해야 하겠지만, 行政公務員은 行政面에서 조금도 虛點이 없고 事故가 發生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豫防措置가 잘 이루어져서 外國巡訪길에 登程하시는 國家元首에게 조그마한 걱정도 끼쳐드리지 않도록 倍前의 努力을 해 주기 바랍니다.

勿論, 國家元首가 國內에 계실 때도 우리는 最善을 다해 일을 해야겠지만 特히 안계신 동안에는 各級 指揮官은 勿論이고, 脆弱部署에 대한 點檢을 徹底하게 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完璧한 事故豫防과 安全維持, 그리고 國政의 推進이 조금도 蹉跌없이 遂行되도록 여러분께서 일을 잘 해야 되겠읍니다.

懇曲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보고 듣고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時局이 相當히 시끄러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전에 國防部長官과 文公部長官이 北傀의 戰略이라든가, 現在 動態 등 우리나라의 安保現實에 대하여 昭詳하게 發表해 주셔서 모든 國民들이 잘 알고 있는 터이지만 우리 公務員들은 보다 더 正確하게 時局을 내다보고 對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우리가 時局을 보는 方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專門家의 分析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무런 根據도 없이 남의 말을 안 믿는 그러한 不信風潮는 고쳐야 될 行態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韓國의 安保는 世界 有名한 軍事專門家들, 軍事戰略家들이, 또 國防問題硏究所의 著名한 사람들이 分析하여 發表하고 있는데, 그 發表에 한결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86年부터 '88年 사이 3年間이 韓國에서 가장 安保的으로 脆弱時期다"하는 共通點이 있고, "北傀가 '88올림픽을 妨害하리라고 보는 것"이 共通된 見解입니다.

이런 狀況을 國民들이 안 믿을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요즘 周邊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國防部長官이나 文公部長官이 發表한 것은 흔히 얘기하는 政權維持 次元에서 安保를 强調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時局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安保, 安保 한다고 反論을 提起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美國의 國防長官, 美國의 軍事專門家, 英國의 軍事專門家, 불란서의 軍事專門家, 日本의 防衛專門家들이 共通的으로 分析하고 있는 것은 北傀가 蘇聯과 密着을 해서 많은 援助를 받고 昨年 年末에는 秘密裡에 金日成이가 中共에 가서 登小平이를 만났고, 그리고 軍部隊의 約 65 %가 一線으로 前進配置가 되었고, 아울러서 飛行場이 새로 休戰線 附近에 생기고 後方의 飛行場에서도 發進準備를 完了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各種 裝備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大韓民國에서 開催되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妨害하겠다는 底意가 明確한 것입니다.

이것은 僞裝된 것이 아니라 金日成이가 公言을 하고 있는 現實입니다.

그런데 이런 事實을 놓고 外國 專門家들은 3年이 가장 危險하고 韓國에는 戰雲이

감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만, 아무리 와도 自滅 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하는 結論이 날 때에는 안 올 것입니다.

安保는 國民들이 싫증을 내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0年間 安保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恒常 安保, 安保하니 호랑이 나온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韓國 사람들의 意識構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31回의 外侵을 받았고, 또 남의 나라의 支配를 받고 發展을 못한 것입니다.

安保狀況이 事實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政府에서 安保, 安保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個人의 健康 하나를 維持하기 위해서도 每日 아침 6時에 일어나서 산책을 4키로미터 程度하면 70이 될 때까지도 感氣가 안들고 잘 살아요

健康管理 잘 안하면 30代 靑年도 하루 아침에 죽을 겁니다. 病이 난 다음에 健康걱정하면 뭐 합니까? 미리미리 對處하여 豫防하니까 維持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維持될 수 있겠읍니까?

安保의 狀況이 나쁜 與件에서 政府가 安保를 안외치면 누가 安保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30年이 아니라 300年이라도 우리의 現在 狀況이 維持되는 한 安保는 一義的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國民들이 이것을 언제나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한시라도 우리 머리 속에서 安保를 第一義的으로 생각하는 그런 意識이 없는 한 우리 安保는 危殆로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歷史를 回顧해 봅시다.

日本놈이 쳐들어 올려고 準備하고 있는데 分明히 제눈으로 보고 와서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고 報告하고 便安하기를 바라는 그런 意識 속에 살다가 壬辰倭亂이 勃發하여 임금이 두번씩이나 開京으로 떠나야 되는 悲慘한 꼴을 당하였읍니다.

栗谷이 10萬 養兵 얘기할 때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平和스러운 時代에 戰爭雰圍氣를 造成하여 民心을 흉흉하게 만드느냐 語不成說이다 하고 一言之下에 默殺하고 平和를 사랑했지만 그 平和라는 것이 나만 願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 周邊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勢力이 가만히 있고, 平和를 尊重해 줄 때 平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健康한 몸에는 病魔가 侵入을 못하고 弱한 몸에는 病魔가 와서 사람의 生命을 앗아가는 原理와 똑 같읍니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零細中立國家는 民防衛 態勢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地下鐵 하나 파더라도 50미터까지 파서 建設하여 核戰을 對備할 수 있는 準備를 하고, 地下道나 다리를 만들 때에도 戰爭때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荷重을 생각해서 놓고, 집을 하나 짓더라도 반드시 戰爭이 날 때 待避할 수 있는 待避壕를 만들고 對備하고 있읍니다.

우리하고 比較해 볼 때 安保狀況은 우리가 100이라면 스위스나 스웨덴은 하나 程度인데 反하여 民防衛에 대한 態勢를 갖춘 것을 보면 거꾸로 우리가 劣勢해 그 사람들 100이라면 우리는 하나밖에 안 돼요.

社會 一角에서 일어나는 左傾勢力, 社會를 混亂으로 몰겠다는 黨利黨略, 내 欲求充足을 위해서 法을 無視하고 나라가 亡하건 興하건 民族의 進運이 어떻게 되든 말든, 歷史的인 轉換期가 到來했건 안했건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나라가 무슨 必要가 있느냐 하는 그런 非愛國的이고 賣國的인 思考에 사로잡힌 一部 사람들에 의하여 現時局이 誤導되고 있읍니다.

이 現實을 우리들은 直視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의 存立이 危殆로와집니다.

우리가 金日成의 장난을 막지 못한다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은 고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自由民主主義는 송두리채 없어지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子息, 내 子息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고, 自由, 民主라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그러한 狀態로 우리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民主라는 말은 共產主義 國家에서 더 자주 使用하고 있읍니다.

世界에서 가장 獨裁國家인 蘇聯은 人民民主主義 國家라 自稱하고 北傀共產黨이 밤낮 얘기하는 것도 人民民主主義라 하는데 어떠한 民主主義입니까?

民主라는 글자 백성민자, 주인주자라 하여 民主主義라는 말을 使用할 수 있읍니까?

民主主義는 그런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一部 狀況을 우리가 정말 深刻하게 判斷을 하고 對處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共産主義 治下에서의 나라는 300年 後 千年 後에는 나라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自由民主體制에 있는 나라만을 우리는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自由民主主義를 信奉을 하고 自由民主體制下에서 國家와 民族의 發展을 期하기 위해서 努力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니면 生命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社會一角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의 體制와 制度를 抹殺시키려는 不純行動들이 恣行되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하고 沈默으로써 남이 해주려니 기다리는 그런 姿勢는 있을 수 없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正確하게 對處를 해야 됩니다.

所信을 갖고 對處를 해야 합니다.

過去의 우리 나라가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社會指導層들의 曖昧模糊한 思考方式, 마치 册이라도 몇권 더 본 사람은 現實에 대해서는 批判이나 하고 外面하고, 앉아서 딴 짓거리 해야 待遇를 받는거로 錯覺을 하고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못난 사람이 나가서 다 앞장서서 處理하고 잘난 놈은 뒤에서 구경이나 하다가 재미나 보는 것으로 錯覺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선 우리가 對處를 못합니다. 6.25때 이 나라를 지킨 것이 누구냐 이런 視覺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고 權力있는 사람 子弟는 싸우지 않았다.

다 안싸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野黨에서 떠들고 있는 指導者란 사람도 兵役忌避해서 軍隊도 안갔다 온 사람도 있읍니다.

6.25때 남은 戰爭터에 가서 피흘려가며 죽는데 높은 사람 밑에서 庇護를 받아 가며 딴 짓거리하는 것이 愛國입니까?

우리 나라를 지킨 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庶民大衆이 지킨 겁니다.

過去의 兩班이 다 그랬읍니다.

國家에 가장 큰 惠澤을 받는 階層이 國家의 存立과 國家의 發展을 外面하고, 危機

가 있을 때는 가장 惠澤을 못 받는 사람이 앞장을 서는 그런 社會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읍니까?

잘못하면 共產主義 思想이 侵透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公職者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國家의 惠澤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中產層 以上이 精神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는 勢力을 우리가 制壓을 해야지 누가 制壓을 해 줄 것입니까?

그러한 制壓을 해야 할 階層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果然 이 나라 將來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그러한 時局에 대한 判斷을 正確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積極的으로 對處할 때입니다.

그러나 無謀하게 아무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合理的으로 說得力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우하고 몰려 다닌다고 해서 世上이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國家의 危機管理라는 것은 어떤 狀況에서도 지켜야 할 線을 分明히 지키는 것이 國家의 危機管理인 것입니다.

混亂을 일으켜가지고 世上이 뒤집어지고 國家가 잘못된다고 생각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나라가 亡하는 結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眼目에서 이 時局을 보고 公職者의 位置를 正確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주어진 範圍內에서 時局에 대한 對處를 責任지고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4月달에 力點을 두어서 推進해야 할 몇가지를 强調하면 첫째, 道民 安保意識鼓吹입니다.

내가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을 中心으로 여러분들이 消化를 해서 道民들과의 對話過程에서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周邊에서 不必要한 副作用이 일어날 때에는 積極的으로 對處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農事準備인데, 4月달이 苗板을 設置하고 管理해야 할 季節입니다.

忠南道가 農事일에서 全國에서 가장 權威가 있는 道이기 때문에 特別히 强調해야 할 必要가 없을지 몰라도 내가 2年間 現場을 쫓아 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되었읍니다.

農事는 뭐가 第一 重要하냐 하면 一週日間 또는 5日間 앞당겨서 모내기하는 것인데 그 基礎가 못자리입니다. 못자리만 빨리 하면 빨리 내지 말래도 모가 웃자라서 그냥 두는 農民이 없읍니다.

그런데 모를 늦게 내는데 가 보면 못자리를 늦게 합니다.

今年度 못자리는 모를 며칠날까지 낼거냐, 昨年에는 우리가 一毛作을 6月 5日 二毛作을 6月 15日까지 끝낸 것으로 記憶이 되는데 今年度에도 長期 氣象豫報를 正確하게 分析을 해서 二毛作은 며칠까지이고 一毛作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끝나느냐에 맞추어서 못자리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내로 볍씨 浸種, 消毒하는 作業이 始作하는 것 같은데 今年度 못자리는 地域別로 日字를 定하여 完璧하게 끝내겠다는 日程表를 市·郡別로 받아서 知事에게 提出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蹉跌이 나면 안됩니다.

아무리 모를 빨리 내고 싶어도 못자리가 안되면 안되니까 못자리를 일찍 만들고 管理를 하면 잘 될 것으로 압니다.

再昨年에 雜草가 많이 난 것을 얘기를 했더니 昨年에는 볍씨를 아주 잘 골라서 잘 했는데, 今年에는 特히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昨年에 늦장마가 들어가지고 논에다 벼를 베 놓은 것이 다 싹이 나가지고 種子벼 求하는데 事實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미리 求한 것으로 알지만 特別히 種子를 잘 選擇을 해서 今年에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4月은 나무심는 달입니다. 3月 20日부터 4月 20日까지 한달간을 植樹期間으로 定하였는데 今年度에도 計劃된 造林計劃에 의해서 精誠껏 나무를 심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活着이 잘 되도록 事後管理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또 4월달은 每年 統計를 보면 산불이 제일 많이 났는데 今年에 特히 내가 豫防行政을 아주 强調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特히 神經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불이 나지 않도록 어제 幹部會議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手段을 講究해서 豫防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불이 나고 난 뒤에 理由를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왜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不拘하고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했는데도 不拘하고 이렇게 됐읍니다."

그것은 아주 쑥스러운 辨明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豫防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런 成果가 나서, 今年에는 산불이 한件도 없었읍니다"라는 報告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86 아시아 競技大會 準備입니다. 내가 요전에 道의 計劃을 各 室局別로 받았는데 計劃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짜임새있게 하나 하나 實踐에 옮겨야 됩니다.

얼마전에 2百 며칠이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 오면서 보니까 171日이든가 벌써 이렇게 아주 歲月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제는 붐 造成 같은 것도 重要하지만 그것보다는 內實있게 주어진 일을 하나 하나 整備해서 다지고 넘어가야 할 일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세워진 計劃대로 알차게 잘 推進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아마 下級職員에 대한 人事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今年初 들어서 人事雰圍氣랄까 여기에 좀 들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大統領閣下 年短巡視 때문에 上位職 人事가 늦어졌고, 또 그 以後에 後續人事도 道에서 道知事決裁로 끝나는게 아니라 內務部를 가서, 總務處에 가서 이런 節次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地方人事의 어쩔 수 없는 事情입니다.

오늘까지 下位職 人事가 끝나면 이제 人事關係에 대한 들떴던 雰圍氣를 착 가라앉히고 새로 자리를 옮긴 사람도 많고 昇進한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意慾을 갖고 舊發해서 아주 職場 雰圍氣가 明朗하고 그러면서 發展的인 雰圍氣로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人事라는 것은 多少 不滿足스러운 사람이 있고, 더 좀 滿足스러운 사람도 있고 한 것이 어쩔 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게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잘 안되는 것이 人事라고 생각이 됩니다.

特히 이번에는 새로운 制度를 우리가 試圖한 人事이었기 때문에 多少의 定着을 할려면 여러분들의 正確한 理解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後에 副知事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해줄 것으로 아는데 우리 公職者든 또 社會生活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하면 좀 餘裕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切迫한 생각 갖지 말고 이 世上 살아 가는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같이 살고 同僚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도 國際社會에서 孤立되면 存在할 수가 없읍니다.

全部가 外國과 關係가 있어서 輸入, 輸出, 모든 經濟活動, 政治活動, 文化, 外交活動 모든 것이 다 外國과 連繫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社會生活에서 나를 中心으로만 解釋하면 이 世上 살 수 없읍니다.

全體的인 眼目에서 制度가 잘 되어 있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綜合的인 眼目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또 人事權者가 어떤 理由에서 이런 制度를 만들어 냈느냐,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한가지만 내가 얘기를 하면 어제도 事務官 試驗을 쳤는데 試驗치고 審査하고 이렇게 이렇게 規制하면 여러분들이 좀 不便하고 要領껏 살고싶은 사람에게는 그 機會가 많이 줄어 들 것을 압니다.

第一 답답한 것은 속된 表現으로 第一 損害보는 건 누구냐 人事權者입니다.

幅을 넓혀 놓고 裁量權을 많게 해 놓으면 내가 第一 좋읍니다.

너도 하나 먹어라, 너도 하나 먹어라, 다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눈딱 감고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한 裁量權의 幅을 줄임으로써 보다 公正하고 有能한 사람이 拔擢되고 全體가 共感하는 人事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人事制度를 强化하고 公正한 人事를 위한 制度的인 裝置를 해 나간다는 것은 道知事가 損害보고 市長, 郡守가 損害보는 겁니다.

그 以外 사람들은 損害보는 거 하나도 없읍니다.

보는 것은 利益밖에 없읍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正確하게 알고 이 制度改善에 대한 內容을 把握을 하고, 協調를 해 줘야 합니다.

내가 당장 損害 조금 보니까 와글와글하고 그저 世上이 다 좋더래도 내가 좋아야지 딴 사람 좋으면 뭐해 世上이 다 亡해도 나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나도 犧牲하고 우리 後輩가 利益을 보면 되는 거다"라는 그런 次元에서 생각을 해야 問題가 쉽게 풀리고 理解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試圖하고 있는 이미 施行에 들어간 새로운 人事改編 作業이랄까, 制度는 우리 地方公務員 人事制度의 不合理한 점, 矛盾點, 바람직하지 못했던 점 이것을 하나 하나 고치기 위해서 만들은 制度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副知事의 解說을 듣고 잘 理解해 주기를 바랍니다.

4月은 싱그럽고 아주 신기가 감도는 달입니다.

추위도 이제 정말 다 가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맑은 空氣 쐬이고, 健康管理를 잘 해서 病에 대해 豫防하고 職務를 잘 遂行해서 事故를 豫防하고 意識을 튼튼히 해서 우리 나라의 危機를 豫防하는 基礎가 잘 다져지는 4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껏 일해주기 바랍니다.

1986년 4월 2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女性 指導者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女性 運動을 模索하고 約束을 다짐하는 硏修教育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激勵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地域社會 女性들의 意識을 先導하고 모든 分野의 女性活動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意慾은 곧 우리 道內 女性의 意慾이 되고 이 社會와 國家에 대한 여러분의 寄與는 곧 이 고장의 모든 女性들의 寄與와 業績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本人의 確信과 더불어 지난 1年 동안 여러분이 家庭이나 社會活動, 그리고 道政施策에 대한 女性들의 갖가지 숨은 功勞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致賀하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努力을 倍加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女性 指導者 여러분의 내 고장 發展과 나라에 대한 寄與는 무엇이든지 努力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個人이나 組織의 事業, 그리고 國家의 政策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優先 우리가 處한 現實부터 正確히 把握하고 分析하여 이를 認識한 然後에 目標를 세우고 努力하는 것이 順序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세워진 우리의 目標는 누가 뭐라고 하던 所信껏 推進하고 成就해 나감으로서 우리가 當初 目標로 했던 個人과 團體 그리고 國家의 窮極的인 目標들을 收穫하고 享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누가 뭐라고 하던 우리의 目標는 先進祖國의 創造임을 女性 指導者 여러분

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先進祖國의 創造라는 우리의 至上課業이 國家의 目標뿐만 아니라 우리들 個個人의 目標요 女性團體 모두의 目標이며, 우리 道政의 最終目標라는 包括的인 意味라는데 우리는 注目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 「先進祖國」의 成就 속에서만이 個人과 社會의 福祉, 겨레의 隆盛 더 나아가서는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土臺를 構築하고 結實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不過 160餘日 남짓한 今年의 「아시안게임」이나 그 뒤에 있을 88 서울 올림픽도 모두 우리의 「先進祖國」創造를 成就해 나가는 하나의 過程이며 크나큰 里程表라고 볼 때, 이런 國家的 大事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가는 女性 指導者 여러분의 知慧가 必要할 줄 압니다.

요즈음 一部 政治人과 分別없는 大學生들 그리고 社會人들이 나라의 進運이 달린 이 숨가쁜 時期에 이 社會와 國家의 基盤이 흔들리는 用語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 女性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女性들은 우리의 傳統的인 女性의 志操와 깊은 思慮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날 우리가 가장 必要로 했던 愛國을 實踐한 女性의 先驅者들처럼, 이 時代의 가장 必要한 愛國을 實踐해 주시고, 이 고장 女性들을 啓導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말로 激勵에 代합니다.

感謝합니다.

名譽退任式

1986년 4월 3일

致 辭

오늘 봄향기가 그윽한 아주 좋은 季節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적게는 20餘年間, 많게는 30餘年間 同苦同樂을 한 同僚 세분과 惜別의 情을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되었읍니다.

며칠 전에 제가 赴任한지 滿2年이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떠나시는 우리 梁 院長, 그리고 朴 所長, 또 趙 課長 이 세분은 最少限 저하고 滿2年을 같이 일을 하면서 情이 듬뿍 들은 同志입니다.

略歷 紹介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功績牌에도 담았읍니다마는 세분이 一生을 公職에 몸담아서 하신 功績이라던가 忠南道 發展을 위해서 寄與하신 功勞는 自他가 公認하는 바대로 아주 높이 評價가 되겠읍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2年前 제가 道知事로 赴任을 할 때 우리 梁 院長께서 內務局長을 맡아 주셨고, 朴鍾植 所長께서 道路管理事業所長, 趙南湊 課長께서는 環境衛生業務를 担當해주셨는데 事實上 제가 赴任하면서 道政 目標를 「으뜸충남 우리가 만들자!」는 口號를 내걸고, 地方行政에 아무 經驗도 없는 사람이 거창한 慾心을 부리는게 아니냐 할 程度로 目標를 내걸었는데 當時에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重要한 核心分野를 도와준 분이 바로 梁 院長이고 또 朴 所長과 趙 課長께서 重要한 職責에서 일을 도와 주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2年間에 거둔 忠南의 業績, 그리고 으뜸충남이 어느 程度 位置를 達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梁 院長을 비롯한 두분 이 세분의 功이 至極히 컸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梁 院長님의 그 人品이나 그 經綸에 대해서는 제가 紹介할 必要없이 우리 忠南道에 勤務하는 公務員 모두가 잘 아는 바고 또 道民들 가운데도 아주 여러 有志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느꼈읍니다.

梁厚錫 同志를 對하며는, 제가 性質이 좀 急해요, 그런데 아무리 急하다가도 梁 院長과 딱 마주 앉으면 마음이 탁 가라앉고 安定이 됩니다.

그마만큼 우리 梁厚錫 同志는 그야말로 人格이 高邁하고 性品이 아주 차분하셔서 周邊에 있는 사람까지도 마음에 安定을 가져다 주는 아주 이런 그 厚한 人品을 가진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처럼 급해서는 큰 소리를 안치고 조용하면서도 德을 가지고 部下를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統率力, 그리고 該博한 知識을 가지고 여러 重要한 職責을 거치면서 우리 忠南道政을 빛낸 분입니다.

朴鍾植 所長 제가 가서 뵈니까 年歲는 우리보다 위같은데 그 迫力과 執念 정말 놀라웠읍니다.

道路管理事業所를 제가 처음 訪問을 했을 때 道路管理事業所의 經營關係를 아주 力說을 하고 發展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創案事項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道路事業所의 事業實績을 어떻게 하든지 黑字로, 그리고 정말 보람있게 向上을 시키겠다 하는 다짐을 해주셨읍니다.

그 結果 말과 行動이 같아서 84年, 85年度 道路管理業務分野에서 우리가 最高의 賞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 저는 朴 所長님을 볼때마다 아! 萬年 靑年이구나! 정말 오래 우리와 같이 일을 해서 無妨한 분이다 생각을 했읍니다.

趙南湊 課長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環境衛生業務에는 忠南의 代表的인 人物입니다.

그 자리에서 勿論 오래도록 일을 하셨지만 아주 專門的인 知識을 갖고 그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指向하고 있는 國際行事를 앞둔 손님맞이準備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部署가 環境衛生分野입니다.

外國사람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간에 第1 먼저 接하는 것이 空港에 내리면 택시를

타야 되고 들어가면 旅舘에서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다른거야 비슷하다 하지만 그 飮食, 이거는 나라마다 다 風習이 다릅니다.

바로 이 分野, 環境衛生分野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文化의 尺度를 가름할 수 있고 水準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大田地域의 重要性, 忠南의 重要性을 勘案해서 한 段階 높이기, 生活 水準 向上 運動을 再昨年부터 展開를 했읍니다.

여기에 가장 重要한 部署의 하나인 環境衛生分野 水準이 올라가야 事實上 우리는 人間다운 삶의 水準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趙南湊 課長이 맡았던 일, 여기에서 趙課長께서 緻密한 計劃과 그 各分野에 대한 指導를 잘 해주어서 우리 大田을 비롯한 忠南의 環境衛生分野의 水準은 가히 全國에서 으뜸이고 模範이 되서 모든 他都市의 行政關係者들이 우리 大田을 와서 見學을 하고 간 바가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忠南의 保健行政은 名實共히 全國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 同僚를 오늘 이렇게 退職의 자리에서 惜別의 情을 나누게 되니 정말 感懷가 깊고 다시한번 세 분의 力量과 그 力量에 대해서 아쉬운 感을 느끼고 있읍니다.

하지만 우리 人生 自體가 그러하듯이 有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有限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세 同志와 함께 勤務할 수는 없읍니다.

勿論 法上으로는 多少 몇 年間을 더 같이 服務할 수 있었지마는 이 세 분은 組織의 活性化를 위해서 後輩들에게 門을 열어주기 위해서 名譽退職을 自請을 하셔서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後輩들은 이 세 분의 뒤를 이어서 昇進도 하고 榮轉도 해서 組織은 組織대로 아주 活性化가 됐읍니다.

이렇게 이 세 분은 本人이 寄與한 功도 많지만 마지막 公職을 떠나면서까지도 組織과 後輩들에게 큰 보람과 希望을 안겨 주는 큰 일을 하고 떠나시는 분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마는 세 분이 그대로 公職을 떠나서 노시는 것은 아니고 세분이 다

앞으로도 繼續 우리 國家에 어느 分野에서든 重要한 役割을 繼續 맡아 주실 計劃이기 때문에 多小 慰安이 된다고 하겠읍니다.

어디를 가시나 세 분의 지닌 人品이나 그 經綸, 그리고 努力하시는 그 成熟한 이런 것은 繼續 發揮가 돼서 亦是 우리 나라의 發展에, 그리고 忠南道政에 寄與해 주실 것으로 저는 確信을 합니다.

비록 道政에 直接 參與하시는 隊列에선 떠나셨다 하더라도 亦是 여러분은 永遠한 忠南道廳 公務員입니다.

때문에 떠나시더래도 앞으로 繼續 前現職間에 先後輩間에 紐帶를 鞏固히 하셔서 좋은 말씀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을 때 느꼈던 좋은 經綸, 그리고 나가서 바라다보는 道政에 대해서 좋은 助言을 繼續해 주실 것을 付託을 드리고 여러분 앞날에 그야말로 健康과, 그리고 幸運과 多福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읍니다. 아울러서 세 분의 오늘이 있기까지에 功을 세워주시고 內助해주신 師母님들께 그間의 勞苦와 內助에 대해서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고 우리 1萬7千 道傘下公務員의 함께 느끼는 惜別의 情을 제가 代身 말씀을 올립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4월 8일

人 事

今年들어서 우리 行政同友會 會員님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昨年 12月 18日에 우리 同友會가 發足된 以後에 沈春澤 會長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和氣愛愛하게 이 모임을 잘 發展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優先 感謝를 드립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事實 公職을 떠나시고 나며는 첫째 그 生活의 리듬이 좀 變化한달까요 出動도 제時間에 안하시고 또 그렇게 바쁜 일도 없으시고 하니까 多少 그 意氣도 銷沈하기가 쉽고 健康마저도 잘못하면 나빠질 境遇가 많타고들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여러분 한결같이 이렇게 아주 健康하게 아주 참 健康管理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優先 뵙기에도 반갑습니다.

오늘 모이셔서 行政同友會의 앞으로 여러 가지 進路라든가 發展策에 대해서 많은 論議들을 하셨고 또 저희 道政에 대해서는 企劃官이 報告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한 家庭이 發展하는데도 그렇고 또 한나라가 發展하는데도 事實은 갑자기 이루어지는게 별로 없읍니다.

저희 道政報告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忠淸南道의 여러 가지 實績이 過去 여러 분들이 奉職하시던 그 時節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發展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으로 압니다.

豫算의 規模로 보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各 分野別로 보아도 많은 發展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을 勤務하는 우리들이 잘해서 그러냐? 勿論 現在 奉職을 하고 있

는 現職公務員들 저희들이 熱心히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하지마는 그 發展의 母胎는 바로 여기에 앉으신 行政同友會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거쳐가시면서 벽돌 한장 한장 쌓아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繼續해서 우리가 쌓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라의 發展이나 道의 發展도 一朝一夕에 現在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繼承發展을 해서 오늘과 같이 發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우리 國家의 發展이나 忠南道의 發展도 오늘의 發展된 그 발자취와 마찬가지로 우리 後輩들이 우리들을 이어서 繼續的으로 努力을 해 주면 더욱더 發展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큰 敎訓이라고 한다면 時間만 흘러가면 發展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分明히 時間과 함께 그 時代에 일하는 사람들의 精誠어린 努力이 뒤따르고 創意力이 發揮가 돼야 發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時間이 흐르더라도 努力을 안하거나 創意性을 發揮안하면 踏步狀態를 免할 수가 없는 것이 또 事實입니다.

우리 周邊 國家를 보면 60年代에 우리와 비슷하던 나라들이 아직도 그 60年代 時節과 비슷한 狀態로 그대로 있는 나라가 많이 있읍니다.

한가지 例를 들어서 東南亞의 境遇 비율빈이나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泰國 또 共產化가 된 越南은 아주 나라마저 송두리채 없어져 버렸지마는, 이런 나라들이 60年代는 우리보다는 훨씬 잘살던 나라고 國民所得이 宏壯히 높았던 나라들입니다.

제가 64年度에 말레이지아를 訪問했을 때 그 말레이지아는 現在 우리 基準으로 하면 地方道까지는 全部 鋪裝이 되 있었읍니다.

郡道까지도 거의 鋪裝이 돼 있었다 저는 이렇게 記憶을 하는데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뒤진 나라로서 모든 면에서 우리 나라를 배우고 있읍니다.

방글라데시같은 나라는 60年度에 우리가 國民所得 個人當 79$ 이었는데 當時 100 $이었읍니다.

오늘 現在 방글라데시의 個人當 國民所得이 350 $, 우리는 2千32 $입니다.

우리는 그 當時보다 平面的인 比較로 해서 貨幣價値, 인플레는 제쳐놓더라도 無慮 23培의 伸張을 가져온데 比해서 그 사람들은 3.5培 밖에 못가져왔읍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지알하커 大統領이 우리 나라를 訪門했을 때 바로 率直하게 털어놓은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60年代에 近代化를 위해서 出發을 했는데 너희 나라는 이렇게 많이 發展을 했느냐,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踏步狀態에 있느냐?

이것을 어떤 形態로든지 分析을 해서 우리가 당신네가 發展한 그 政策 또는 國民들의 參與 이것을 배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實吐를 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新聞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 時間이 흐른다고 發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資源이 있다고 해서 發展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資源이야 인도네시아나 비율빈, 말레이지아, 우리보다 엄청난 資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資源이 땅에 묻혀 있는 自體로써 發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資源을 제대로 活用하는 民族만이 제대로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證明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地下資源이 거의 없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며는 資源 가운데 가장 貴重한 것이 人的 資源이라는 게 證明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 大韓民國 사람들이 정말 없는 살림에도 子女를 工夫시키고 教育水準을 높히고 모든 知識을 習得하는데 아주 熱心히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는 海外 어떤 分野에 어디를 進出하더라도 技術人力이 確保가 돼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 自體에서 生産되는 資源은 적지마는 남의 資源을 갖다가 여기에 加工을 해서 輸出하는 輸出實績에 있어서 우리가 世界 13位라는 輸出貿易國으로 發展을 한 겁니다. 아무리 땅 속에 좋은 資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活用할 수 있는 그런 技術開發과 人的資源이 確保가 안되며는 그 資源은 事實上 크게 發展을 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도 하나의 事實입니다.

하지만 源泉的으로는 資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發展한 것은 정말 우리 4千萬 國民 모두가 團結을 하고 熱心히 일한 結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게 있을 것입니다마는 2千$ 때 고비 즉 2千年을 향해서 우리 나라가 靑寫眞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그 先進國으로 향하는 고비에서 陳痛

을 겪고 있읍니다. 具體的인 說明이야 必要가 없겠지마는 事實上 우리가 지난날 20年前 우리의 生活 모습을 뒤돌아보고 오늘의 이 生活現實을 보며는 우리 世代는 不滿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正確한 判斷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다보고만 있을 수가 없읍니다. 앞을 향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來日을 위해서 오늘이 存在하고 來日의 發展을 위해서 우리가 努力을 하기 때문에 不滿이 없을 수 없읍니다.

2千年代 우리의 指標는 個人所得 5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時點에서 생각을 해보며는 貧富의 隔差도 커졌으며 相對的으로 貧困感을 느끼는 層도 많아졌고 하고싶은 欲求가 宏壯히 커졌어요. 그런데 그 欲求를 充足시키는 것은 무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經濟的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充足이 되는 겁니다.

國民皆保險의 問題만 하더라도 事實은 國家에서 庶民이 負擔해야 할 醫療保險料를 다 負擔을 할때 國民의 皆保險은 可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뭐 그냥 漢江에서 모래파다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經濟發展을 해야 되고 나라가 富者가 되야 되는데, 나라가 富者가 되는 길이 무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團合을 하고 모든 면에 安定을 갖고 熱心히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해온 거와 마찬가지로 熱心히 일을 해야 나라가 富者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欲求를 充足할 수가 있고 보다 더 나은 福祉社會를 福祉國家를 建設할 수가 있는게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요즈음 그런 不滿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잘살게 됐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무얼 했느냐?" 本人은 할 이야기가 많을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이 社會가 이렇게 잘살고 모든 면이 다 發展을 했는데 굳이 發展을 못한 탓을 國家나 社會에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反省을 통해서 自己自身에게서 무엇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남보다 努力을 덜 했다던가 또 남보다 참 運이 나빴다던가 어떤 形態든 自己에 대한 問題를 찾아서 이거를 보다더 發展할 수 있는 方向으로 努力을 하겠다는 資勢가 더 重要하지, 내가 오늘 不滿을 갖게 된 것이 國家의 政治가 잘못됐다, 社會制度가 나빴다 하는데로 責任을 돌려서 果然 어떤 所得이 있겠는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付託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分明히 2千年代 福祉國家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86年부터 88年까지 3年 동안이 정말 그러한 그 國家의 經濟를 크게 伸張시키고 國家의 地位를 높이고 政治的인 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契機를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契機를 우리가 제대로 活用을 해서 정말 跳躍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것을 우리가 性急하게 좀더 빠른 欲求充足을 위해서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좋은 機會를 놓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두려움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3低時代라고 하지마는 그 3低時代가 그냥 놔둬도 우리 經濟發展을 가져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3低時代를 생각하기 전에 3高時代를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79年度에 기름값이 19$에서 30$로 껑충 뛰었읍니다. 國際金利가 8%에서 10%로 뛰었읍니다. 달러貨가 强勢를 보였읍니다. 그때에 우리 나라의 經濟形便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기름값이 1年에 70億$인데 만약에 19$ 그대로 있었다면 50億$이면 됩니다. 20億이라는 돈을 每年 追加負擔할 수 밖에는 없었읍니다.

또한 國際金利 上昇에 따른 追加負擔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75年부터 85年까지 우리가 똑같은 物量의 기름을 쓰고 또 外資를 들여 왔지마는 또 外債를 썼지마는 여기에서 追加負擔된 것이 200億$입니다.

그래서 79年度 外債가 203億$에서 85年度現在 450億$이 된 겁니다. 그 200億$이라는 것 우리가 갖다가 道路를 닦은 것도 아니고 橋梁을 놓은 것도 아니고 產業工場을 진 것도 아니예요. 純全히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負擔한 것입니다.

純全히 國際金利가 올라갔기 때문에 負擔한 것이 200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3低時代가 됐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 기름값으로 인해서 年間 利得보는 것이 지금 12億$에서 15億$로 보고 있읍니다.

또 國際金利로 해서 利得을 봅니다. 한 20億$가량 利得을 보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5年 그대로 가면 100億$이라는 돈을 그대로 우리는 利를 보게 되는 겁니다.

例를 들어서 우리가 輸出을 해서 돈 100億$을 벌려며는 輸出物量 100億$을 해서 10%의 마진이 있어야 10億$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100億$ 輸出하는데 얼마큼 힘드느냐, 今年에 輸出目標가 330億$ 아닙니까 얼마만

큼 이 經濟發展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고 엔貨가 저렇게 强勢를 보이고 달러貨가 弱勢에 있고 國際金利가 下落을 할때 우리는 이 機會를 정말 活用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機會를 놓치거나 우물우물 國論이나 分裂시켜서 政爭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社會混亂을 가져오면 정말 이 黃金을 눈앞에 두고도 내것을 못만드는 그런 愚를 犯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國際金利나 엔貨의 强勢가 繼續될 것이냐?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國際專門分析家들 얘기를 들어보면 엔貨 强勢는 7個國 頂上會談이 7月달에 日本에서 있는데, 7月이 지나가며는 엔貨强勢에 대한 自救策을 講究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今年 下半期부터는 엔貨 强勢로 인해 貿易條件이 좋던 것이 또한 減縮되어간다고 分明히 알아야 되고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우리 希望대로 하면야 참 한 자리 數字로 해서 한 5 $까지라도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產油國들이 그렇게까지 放置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벌써 美國의 부시 副統領이 中東을 旅行하면서 기름값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떨어지는 것이 美國으로 보아서는 푸라스도 되고 마이나스도 될 수 있읍니다.

올리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지마는 그러나 떨어지는 것만이 반드시 世界經濟에 좋은 影響을 주는 것이 아니다하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境遇 하루에 우리가 60萬배럴을 쓰는데 1 $만 올라가며는 60萬 $을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1 $이 떨어지면 60萬 $을 아끼는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虛妄된 일이냐 이거에요. 여기에 左右된다 이거예요.

우리 經濟는 그러니까 언제 또다시 기름값이 急騰할지 모르는 狀況, 언제 엔貨가 强勢에서 弱勢로 되돌아설지 모르는 이런 狀況에서, 卽 純全히 우리 나라의 힘이나 作用이나 影響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形便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는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 經濟가 影響을 받아서 한번 울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國際經濟動向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아야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時期에 정말 節約하고 정말 團合하고 和合을 해서 國力을 蓄積해놓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이걸 克服할 수 있도록 힘의 蓄積이 絶對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同友會 여러분들이야 公職을 平生 동안 맡으셨던 어른들이고 누구보다도 國家와

民族의 將來를 念慮하시는 분들입니다.

制度나 道政 政策에 있어서는 勿論 不足한 것도 있고 補完해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國內的으로 "팥이 풀어져도 솥 안에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國內問題는 그렇게 多急한 것이 아닙니다.

1年이 그렇게 問題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없이 좋은 國際的인 與件 속에서 우리 나라의 發展을 期할 수 있는 契機라는 것은 두번 다시 찾아오질 않습니다. 하니까 大統領閣下께선 88年까지는 모든 政爭을 덜어두고 이 좋은 機會를 정말 國運隆盛의 轉換期로 삼기 위해서 熱心히 일하고 89年에 가서 모든 걸 論議하자, 그게 얼마나 當然하고 適切한 提案이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86年에 當場 改憲하자„ 改憲이 밥을 먹여줍니까?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制度가 나라를 富强하게 만들었느냐, 勿論 制度가 重要합니다.

그러나 어떤 制度든 그 나라의 여러가지 文化背景, 民族性, 民族의 教育程度 이런 것이 다함께 고루 均衡發展이 될 때 제대로 制度가 심어지고 定着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많은 先進國의 좋은 制度라는걸 다 따라 해봤잖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成功이 아니라 全部 失敗를 했어요. 그래서 分明히 알아야 할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東南亞의 모든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 나라들의 政治指導者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過去에 그런 指導者들 때문에 政治的으로 소용돌이를 많이 쳤지만는 永久執權을 全部 꾀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거요.

우리 나라 指導者도 統治權을 行事하고 權座에 올랐을때 自己意思대로 물려주고 나가겠다고 한 사람 있읍니까? 지금 全 大統領閣下께서 單任制를 꼭 實現하겠다고 公約하고 이걸 實踐하는 問題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政治現實로 보아서는 엄청난 發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0年 다시 말해서 朴正熙 大統領이 그런 그 悲劇的인 일이 있고 난 以後에 그 當時에 國民들의 渴望하는 事項이 무엇이었느냐?

1人 長期執權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熱望이었음에 틀림 없고 腐敗를 몰아 내는게 所望中의 하나였읍니다. 이런게 벌써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읍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아진 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不滿스러운 事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것은 世上을 살 재미가 없읍니다.

진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이렇게 좋은 世上에 살게 됐구나.

美國에 電話를 거는데 버튼만 뚝 뚝 뚝 앉아서 누르면 美國 어느 곳이든지 電話가 나옵니다. 過去에 우리가 靑色電話, 自色電話해가지고 國內에서 電話 한台만 놀려고 해도 꼭 푸레미엄이 따르고 다 經驗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몇年 안됐어요.

요즘은 申請하면 이틀이면 電話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진 것이 몇년 안됩니다.

그런데도 그저 不滿스럽게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自家用을 갖게 됐읍니다.

車가 이제 100萬台가 넘었어요. 大田市內에도 駐車場이 없어서 不平을 많이 할 程度로 車가 많이 늘었읍니다.

先進國이 거진 됐어요.

이제 自動車있고 冷藏庫있고 텔레비전놓고 電話놓고 잘사는 사람 많찮습니까? 그렇게 잘 살면서도 자꾸 不滿을 털어놓아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나라의 政治發展도 한段階 한段階 段階를 거쳐 發展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몇年 전에도 "交通秩序 바로 잡자"고 밤낮 뇌까렸어요

안됐읍니다.

요즘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요

저 驛前通을 가다 보면 버스 停留場에 죽 줄을 서서 한가롭게 기다리는 乘客들을 볼 수 있읍니다. 얼마나 마음에 豫裕가 생기고 秩序意識이 向上됐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努力해서 온 겁니다.

조금 더 不足한 것은 우리가 繼續 努力해 가면서 하나 하나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없읍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重大한 데에 우리는 精神을 못쓰고 있

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分明히 自主獨立國家가 돼야 되고 國家의 形態는 自由民主主義國家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自由民主主義를 威脅하는 勢力이 막 表出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勢力에 대해서 무어 설마 그렇게 될라구 하는 安逸한 생각에 關心들을 안갖는 境遇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指摘을 해드립니다.

큰 일나요.

우리가 6.25를 겪었고 解放後 共產黨과도 많이 싸웠지마는 이 共產勢力이라는 게 이게 浸透해 들어오기 始作하면 이거 不知不識間에 社會는 病들고 이 社會가 정말 큰 일난다는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分明히 우리가 지켜야 할 祖國, 建設하여야 할 祖國은 自由民主主義입니다. 自由民主主義를 外面하고 左傾意識化된 學生을 비롯한 一部 分子들이 民主革命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共產主義革命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이러한 不純勢力에 대해서 우리는 깜박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린 이걸 막아야 됩니다.

共產主義같이 民主라는 글자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民主主義냐가 問題지, 北傀 金日成 一黨도 人民民主主義란 이야길 늘 씁니다.

人民民主主義共和國, 그게 民主입니까?

居住, 學門, 職場 모든게 統制돼서 꼼짝 못하는게 그게 民主主義냐 이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도 民主라는 걸 쓰고 있다 이거예요.

요즘 우리 社會 一角에서 벌어지고 있는 民主革命論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民主化,그게 民主化입니까?

거리에 나와서 때려부수고 法을 지키지 않고 秩序 안 지키면서 行悖를 다하는것도 이것도 民主主義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民主主義라는게 뭡니까?

法을 지키고 秩序를 지키는데서 民主主義가 出發하는데 自己네는 하나도 秩序를 안지키고 法을 안지키면서 民主主義를 하겠다. 그런 臆說과 論理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社會를 混亂시키려는 무리, 이런걸 우리 손으로 制壓을 하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平和的인

政府移讓, 이러한 大事를 無事히 치루도록 이제 우리 指導者들께서 努力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行政同友會 여러분들은 同友會 發展策도 眞執하게 論하시고 또 時局을 보시는 눈도 좀더 銳利하고 分明한 判斷을 가지시고 周邊에 대해서 所信을 갖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付託을 드립니다.

人事를 드린다는게 좀 時間이 길게 됐읍니다마는 重要한 時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人事兼 付託의 말씀을 드렸읍다다.

感謝합니다.

1986년 4월 9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 自然保護 名譽監視官 여러분과 더불어 鄭英昊 自然保護 中央協議會 理事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의 自然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려는 다짐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生命의 根源이요 삶의 터전인 大自然의 毁損을 미리 豫防하고 이미 傷處를 입은 自然을 治癒하자는 崇高한 理念을 걸고 이 땅에 自然保護 運動을 始作한지 올해로 벌써 8周年이 되었읍니다.

그 동안 우리가 쌓은 自然保護運動의 成果를 論하기 전에 于先 우리 國民들 사이에는 自然保護 運動의 目的과 그 活動範圍는 勿論 그 必要性을 깊이 認識시켜 준 事實만도 우리는 自然保護 運動의 큰 成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이 運動은 短時日內에 所期의 成果를 거둔다거나 마무리질 수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地球上에 存在하는 한 永遠히 展開되고 繼承되어야 할 人間生活의 큰 方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萬一 우리가 自然을 利用만 하고 造物主의 攝理에 反하여 自然을 버려둔다면 人間이 삶을 營爲할 수 있는 터전은 勿論 하찮은 微物조차도 살 수 없는 廢墟가 되고 말것입니다.

우리의 自然은 한 時點에 停滯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안긴 森羅萬象이 서로 먹이 사슬과 生存環境의 聯關을 가진 살아 숨쉬는 現象이라는 表現이 더 妥當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살아있는 現象의 한 部分이 깊숙이 傷處를 입거나 아주 斷切이 되고 막혀버릴 때 그 現象을 土臺로 維持되던 生命體와 또다른 現象은 直接 또는 間接的인 破壞와 消滅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늘어나는 人口와 그 生存에 必要한 資源의 採取로 인하여 地球上의 많은 自然이 毁損되고 있음을 걱정하는 斯界 學者들의 憂慮를 우리가 귀밖으로 흘려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온 人類에게 酸素를 供給하는데 크게 寄與하는 南아메리카의 密林이 줄어든다든가 아프리카의 수풀이 漸次 砂漠으로 변한다는 警告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삶과 直結되는 問題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優先 우리 周邊에서부터 먼저 自然을 아끼고 사랑하므로써,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賢明한 길인 줄로 압니다.

한 가지 例를 든다면 우리 고장 삶의 젖줄이요 歷史와 文化의 根源인 錦江을 保護하고 지키자는 認識이 오늘날 크게 論議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여기에는 이 고장 言論媒體의 꾸준한 啓蒙活動도 큰 힘이 되고 있지만, 道民들 스스로가 自然保護에 대한 認識과 必要性을 깊이 共感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古로 大自然과 生活環境의 保護를 疏忽히 하고 破壞를 일삼은 民族이나 國家가 繁榮을 누린 例는 없다고 하겠읍니다. 혹은 있다 하더라도 一瞬의 榮華에 그칠뿐 滅亡과 衰殘의 最後를 당하고 만 것을 歷史는 證明해 주고 있읍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가끔 發掘되고 있는 古代 都市國家들의 痕迹이나 中南美에서 繁榮했던 古代 國家들의 遺蹟에서도 生活環境을 破壞한 人間들의 索漠한 最後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읍니다.

오늘 우리의 生活環境을 우리 스스로 保護하고 後孫에게 고이 물려주려는 이 다짐이 우리 300萬 道民의 平素生活에 昇華되고 體質化되기를 期待하면서 名譽監視官 여러분의 奮發을 바라마지않습니다.

感謝합니다.

第13回 忠淸南道 用達貨物組合 定期總會

1986년 4월 9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 産業의 한 血脈으로서 크게 活動하고 寄與하는 用達貨物組合員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열세번째로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會議는 지난 한햇동안 여러분의 事業을 돌이켜 보고 그 成果를 土臺로 해서 今年度의 알찬 事業을 計劃하고 實踐을 다짐하는 자리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用達貨物組合員 여러분이 뜻과 힘을 모아, 이 地域社會의 公益事業과 道政發展을 위해서 參與하고 獻身한다는 自負와 矜持를 바탕으로 올 한해도 알찬 成果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經濟는 그 동안 높은 石油價와 비싼 原資材의 收入, 그리고 높은 國際金利로 因한 外債에 시달리면서도 줄기찬 成長을 持續해 왔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날 뼈저리게 體驗한 가난을 벗어나려 몸부림친 經驗과, 國民들의 높은 意識水準, 그리고 잘 訓練된 産業勤勞者들을 財産으로 하여 勤儉節約하고 輸出經濟에 땀흘려 애쓴 보람의 結實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어려운 與件 속에서 國力成長에 沒頭하는 우리들의 處地를 하늘이 헤아렸는지, 요즈음에는 石油價와 國際金利, 그리고 달러의 弱勢라는 이른 바 3低時代를 맞아 우리가 또 한번 跳躍을 이룩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3低時代는 우리만이 갖는 經濟成長의 有利한 好機가 아니라, 世界 모든

나라가 다함께 누리는 좋은 與件으로서 다만 이를 슬기롭게 利用하는 나라는 크게 德을 볼 것이며, 그렇지 못한 國家는 더많은 落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조그만 貨物이나 運送하는 用達業體 組合員들이 무슨 國家經濟를 論하고, 3低時代를 생각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組合員이 있다면 이는 그릇된 視角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무릇 國際經濟란

여러분을 包含한 國民個個人의 生産과 運送 등 經濟活動이 모여 地域經濟의 흐름이 되고, 地域經濟가 모여 國家經濟 國民總生産의 根本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用達貨物組合員 여러분은 이러한 時代와 國際經濟의 循環과 理致를 깊이 認識함으로써, 작은 智慧를 크게 모아 내고장의 發展과 國力伸張에 이바지하는 姿勢가 必要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行政當局의 指導와 여러분의 協調로 推進하고 있는 用達貨物의 直營化라든지, 經營改善, 그리고 써비스 改善과 運送秩序의 確立 등을 꾸준히, 그리고 劃期的으로 推進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事業의 目標의 推進過程에 있어서는 多少 어려움이 있겠으나, 새로운 發展과 來日의 보람을 위해서는 組合員 여러분이 서로 忍耐와 슬기를 앞세워 값진 成果를 이룩할 때 여러분 個個人에 대한 利益과 地域社會에 대한 公益事業의 役割을 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定期總會를 契機로 해서 지난 날 여러분의 事業成果를 깊이있게 討議하고 올 한 해를 組合員 여러분이 後悔없이 努力한 한 해였다는 評價를 다시 一年後에 느낄 수 있도록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汎國民 交通安全 促進大會

1986년 4월 9일

致 辭

親愛하는 交通家族 여러분!

榮譽의 受賞者, 그리고 이 뜻깊은 汎國民 交通安全 促進大會를 聲援해 주시는 各級機關長님, 有志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福祉社會 建設과 先進國家를 成就함에 있어 가장 먼저 到達해야 할 先進交通秩序와 距離秩序에 대한 決意를 다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올해로서 우리는 第5次 經濟社會 發展 計劃을 成功的으로 마무리짓고 이제 來年부터는 第6次 經濟社會 發展計劃에 着手함으로써 우리 國民 모두의 念願인 「先進祖國」의 地平이 우리의 눈 앞에 열리는 벅찬 瞬間이 손 끝에 잡힐듯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成熟과 發展을 이룩했지만 단 한 가지 交通과 距離秩序, 그리고 公衆道德에 있어서는 다른 分野보다 훨씬 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反省할 때가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急激한 經濟發展과 더불어 100萬臺가 넘는 自動車 保有國이 되었으며, 꿈만 같던 이른 바 「自家用車 運用의 時代」가 우리들의 生活에 파고 든지 오래되었읍니다.

이처럼 自動車 增加가 우리들 生活에 주는 便利라는 目的과는 달리, 한해에 20萬餘名의 國民이 交通事故로 다치고 8千餘名의 貴重한 목숨이 犧牲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두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無秩序로 빚어지는 이와 같은 個人과 家庭의 苦痛, 그리고 이웃의 안타까움은 헤아릴 수 없으며, 이로 因한 社會 間接費用의 損害만도 年間 5千億원에 이르고 있다니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社會가 아무리 發展하고 國力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疾病이 아닌 人爲的인 事故, 그것도 우리가 조금만 秩序를 지키고 注意하면 될 수 있는 交通事故로 이처럼 엄청난 被害를 입고 있다면 決코 先進社會나 福祉國家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交通이나 距離秩序에 對한 無關心이나 無秩序가 우리 社會의 모든 部門에 影響을 미친다고 볼 때, 이를 物資나 計數로 換算할 수 없는 크나큰 國家發展에 對한 沮害要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認識하고자 합니다.

더우기나 이제 160餘日 밖에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이나 그 뒤의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는 古色蒼然한 歷史遺蹟이나 빛나는 傳統文化를 世界人에게 보여주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들이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交通秩序나 公衆道德水準이 우리의 先進化를 더욱 明快하게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先進交通秩序」 明朗한 거리는 오늘 表彰을 받으신 10年無事故 運轉技士 여러분과 같은 꾸준한 努力, 말없는 實踐, 그리고 온 道民의 參與 속에서 成就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交通家族 여러분의 奮發과 300萬 道民의 呼應을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86 忠南地方 技能競技大會 開會式

1986년 4월 10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産業技術과 技能을 짊어지고 나아갈 靑少年들이 그 동안 땀흘려 硏磨한 技能을 마음껏 펼쳐보는 '86 忠南地方 技能競技大會가 이처럼 盛大히 베풀어지게 된 것을 本人은 뜨거운 마음으로 激勵하는 바입니다.

이 時代를 사는 우리에게는 2千年代 「先進祖國」의 創造라는 벅찬 期待와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靑少年 技能人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期待와 꿈을 時間이 지나면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기로운 智慧, 그리고 끊임없는 探究와 努力에 의해서만 成就될 수 있는 未來의 結實이라는 점에 留意할 必要가 있읍니다.

그 未來의 結實은 우리 國民所得의 向上이요 福祉의 擴大이며 水準높은 文化生活의 享有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世界人들은 한 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에 따라서 先進國이냐 後進國이냐를 가늠한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이 國民所得의 큰 格差를 가져오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産業技術과 技能, 그리고 科學技術이라는 것을 理解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땅덩어리나 人口가 그나라 國力의 크기에 상당히 큰 影響을 미치는 것도 事實이지만 國土나 人口가 엄청나기로 이름난 印度나 中共이 아직도 後進國의 굴레를 벗어나

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읍니다.

그 反面에 國土의 크기나 人口가 이들 나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西유럽의 여러 나라나 日本은 누가 뭐라고 해도 先進國인 것은 바로 産業技能과 技術이 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 先進國들은 그들의 國益을 위하여 先進産業技術과 技能을 後進國들에게 오래도록 넘겨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라 하겠읍니다.

이 고장의 靑少年 技能選手 여러분!

이토록 熾烈한 技能과 技術競爭의 次元을 넘어서 가히 戰爭이라 일컬을 수 있는 技能과 技術開發의 이 時代에 高級 技能人이 되려는 여러분의 抱負와 役割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고장의 産業技能을 가늠하고 未來의 이 고장 産業을 점칠 수 있는 이 地方 技能競技大會에 거는 本人이나 道民의 期待가 자못 크다고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에는 科學韓國의 搖籃이며 世界의 尖端科學을 指向하는 大德硏究團地가 있읍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앞으로는 産業技能이나 技術에 있어서도 우리가 先進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큰 希望을 키워 나가야 하고 道民들은 이를 積極 聲援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내 고장 先進技能은 勿論 技能韓國의 旗手가 되고 世界의 先進技能人을 輩出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技能選手를 指導해 주신 敎師陣, 後援人士 여러분, 그리고 이 技能大會를 보살펴주신 李麟求 大田商工會議所 會長님께 感謝드립니다.

여러분의 幸運을 빕니다.

'86 忠南地方 技能競技大會 施賞式

1986년 4월 16일

致 辭

그 동안 1週日에 걸쳐서 熱戰을 벌였던 忠南地方 技能競技大會가 盛況을 이룬 가운데 오늘 그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本人은 이번에 여러분 技能競技의 現場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意志에 찬 모습을 보고 技能忠南의 無限한 可能性과 밝은 未來를 確信할 수 있었읍니다.

이 確信은 바로 내고장 產業과 經濟의 無限한 可能性이며, 우리 300萬 道民이 지금 盡力해 나가고 있는 「으뜸忠南」의 早期成就와도 같은 뜻으로 解釋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열떤 競爭에서 오늘 入賞의 順位가 드러났읍니다만, 그 差異라는 것은 종이 한장에 不過할 뿐이며 앞으로의 努力如何에 따라서 그 位置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技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技能은 한 時點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發展되고 向上되어야만이 生命力을 가질 수 있다고 本人은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이 技能大會는 그저 해마다 한번씩 치뤄지는 形式的인 行事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水準은 지난 해 여러분 先輩들보다 向上되어야 하고 來年度 여러분 後輩들은 오늘보다 나은 技能競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生命力은 비단 여러분의 技能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國家產業이나 科學技術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先進國들의 産業技能과 技術을 導入하고 模倣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손으로 高級技能과 技術을 開發하지 않으면 決코 先進國의 隊列에 들어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값싼 賃金과 豊富한 資源을 바탕으로 한 開發途上 後進國들의 執拗한 追擊을 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단 한가지 唯一한 生存과 繁榮의 手段은 高度의 技能과 技術開發에 있음이 自明한 事實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토록 所重한 技能과 技術을 몇 段階 뛰어넘거나 短時日內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優秀한 成績도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꾸준한 努力과 忍耐 속에서 技術과 技能立國, 그리고 「先進祖國」의 成就가 可能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스스로의 人生開拓과 내고장, 그리고 國家에 대한 獻身으로 出發한 技能人의 길에 여러분의 精進이 있기를 期待하여 마지않습니다.

이 盛大한 젊은이들의 技能잔치를 마련해 주신 李麟求 大田商工會議所 會長님, 後援人士와 教師陣, 그리고 審査委員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읍니다.

1986년 4월 16일

致 辭

바쁘신 中에 이렇게 모두 나와주셔서 感謝합니다.

우리 加盟團體長님과 代議員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많은 支援을 해 주셔서 忠南體育이 發展하고 向上이 된걸로 認定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今年은 여러 가지 면에서 重要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86 아시안게임이 이제 150餘日 앞으로 다가섰읍니다. 이번 아시아競技大會야말로 우리 나라의 참 모습을 보여 주게 될 機會가 아닌가 합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重要性이라든가 그 準備事項에 대한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시아競技大會에 저희 道가 該當되는 것이 蹴球豫選競技 5日間을 치르게 돼있읍니다.

아울러 天安에서는 體育科學者大會가 約 1千名 가량이 모여서 열리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行事를 對備하기 위해서 저희 道로서는 最善의 準備를 다하고 있읍니다. 아시아大會를 成功的으로 치룬다면 88年度 서울 올림픽도 成功的으로 치룰 수가 있다. 이렇게 結論이 쉽게 나올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亦是 아시안競技에 대한 諸般 準備事項입니다.

代議員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分野에 많은 寄與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協調를 付託올리겠읍니다.

다음에 重要한 것이 當面한 少年體典입니다. 5月 5日부터 始作됩니다만, 잘아시

다시피 今年度는 少年體典에 이어서 6月달에 全國體典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아競技大會때문에 日程이 多少 앞당겨진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少年體典과 全國體典에서 亦是 道民들의 士氣를 생각해서라도 上位入賞을 今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特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特히 少年體典에서 今年에는 昨年에 不振했던 여러 가지 要因을 全部 補完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켜왔던 上位圈을 다시 再奪還을 해야 하는 그러한 重大한 目標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努力을 하고 投資를 하면 그마만큼 効果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적에 이제 얼마 남지않은 期間이지만 우리 代義員님들께서 모든 力量을 기울이셔서 少年體典에 나가는 選手 任員들이 所期의 成果를 이룰 수 있도록 指導와 聲援을 아껴 주시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特히 今年의 少年體典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分散 開催되기 때문에 選手管理에 있어서나 支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서 參酌을 하셔서 選手士氣管理에 조금도 蹉跌이 없도록 神經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少年體典에 대한 問題, 그리고 忠南體育史 發刊 準備委員會 構成關係, 그리고 昨年度 歲出決算 報告 및 承認을 받기 위해서 오늘 모셨읍니다.

報告를 들으시고 여러 좋은 高見을 말씀하셔서 우리 忠南體育에 보탬이 되고 또 今年度 少年體典과 全國體典에 좋은 結實이 맺어질 수 있도록 協調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以上 簡單하게 人事를 마치겠읍니다.

第30回 버스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

1986년 4월 16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庶民交通의 王者인 버스 運送事業組合員 여러분이 지난 1年 동안의 事業을 土臺로 하여 보다 나은 自己向上을 꾀하고, 大衆交通으로서 그 使命을 다짐하는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自動車 運送事業이 저마다 이 社會의 公益性과 役割을 가지고 있지만 特히 組合員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고 있는 버스 運送事業은, 그야말로 우리 道民들이 한時라도 없어서는 아니될 日常生活의 血脈이라 하겠읍니다.

本人은 이토록 重要한 大衆交通의 莫重한 所任을 認識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道民에 대한 奉仕와 自負로 一貫하시는 여러분의 功勞에 대하여 讚辭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所任과 役割에 비추어 여러분 버스 運送事業組合의 새로운 意慾이나 事業은 곧 다른 運送事業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 고장 버스 運送事業組合이 先進交通을 目標로 하여 明朗하고 秩序있는 運送秩序의 確立이라던가, 車內의 環境改善, 그리고 從業員들의 資質과 勤務條件 向上 등에 盡力해 주실 때 이러한 여러분의 努力은 바로 우리 道內 모든 運輸業界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本人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요즈음 市內버스를 타보면 案內嬢없이도 自律的으로 運行되는 깨끗한 버스, 그리고 出發信號를 乘客들이 듣기 좋은 차임벨로 바꾸는가 하면 運轉技

士들의 案內放送 등, 創意的인 努力은 우리 先進忠南 運輸行政의 자랑꺼리로서 本人은 크게 기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努力은 한 時點에 머물치 말고 繼續 硏究하고 努力하여 그 동안의 先進버스 運送의 名譽를 더욱 빛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더우기나 우리의 歷史上 처음일 뿐더러 後孫에게도 크나큰 榮光을 물려 줄 수 있는 今年度 아시안게임이 不過 150餘日을 앞두고 있는만큼 우리 國民意識水準과 社會力量을 가장 赤裸裸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버스運送交通의 發展에 막바지의 땀을 흘려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꼭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겉치레가 아니라 우리의 傳統的인 손님接待는 旣往에 깨끗한 마당도 한번 더 비를 들고 쓰는 것이 우리의 禮節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今年度 事業計劃에서는 이러한 손님맞이에 대한 眞摯한 討議와 比重이 두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여러분의 精進과 奮發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4월 20일

致 辭

오늘 우리 祖國統一의 念願을 4月의 生命力에 昇華시키는 民族和合 民主統一을 위한 세번째의 새마을 自轉車大行進이 이처럼 盛大히 베풀어지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겨레의 統一努力은 지난 날 歎息과 悔恨, 그리고 念願만을 담은 消極的인 運動에서 벗어나 지금은 無限한 成就欲과 行動에서 솟아나는 自信感으로 積極的인 民族和合 民主統一 汎國民 運動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읍니다.

이처럼 우리의 祖國統一 運動이 마음 속의 祈禱와 素望 등 靜的인 方法으로부터 行動과 紐帶, 呼應과 擴散의 能動的인 國民參與 運動으로 올라서게 된 것은 우리의 새마을精神, 그리고 實踐 運動이 바탕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이처럼 새마을 싸이클 同好人이나 一般市民, 學生, 그리고 지난 날의 反共鬪士와 外國人까지도 統一의 念願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國土를 縱橫無盡함은 그만큼 우리의 統一力量이 成熟되고 充滿되어 있음을 內外에 誇示하는 快擧라고 생각을 합니다.

親愛하는 새마을 自轉車大行進 參與家族 여러분!

우리는 이제 南北分斷의 現實아래 걱정하고 근심만 하는 나라나 겨레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現實을 일구고 繁榮의 열매 統一의 소담한 果實을 기쁨과 意志로 가꿀 줄 아는 슬기를 가진 이 時代의 底力있는 韓國人 끈기의 忠南人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토록 活氣찬 4月의 하루, 生動하는 市街地와 푸른물 가득한 大淸댐의 沿道를 메우는 반짝이는 여러분 銀輪의 意味는 우리의 統一所望과 念願이 生命力을 갖음이며, 그 努力이 한 瞬間과 地域에 머물치 않고 自動車바퀴와 같이 앞으로 앞으로 前進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150餘日밖에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을 完璧하게 치루고 또 서울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完遂하면 우리의 統一力量은 그만큼 極大化될 것입니다.

오늘 봄길을 힘차게 달리는 여러분이나 힘찬 拍手와 聲援을 보내는 道民 모두가 體育과 國力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올림픽의 主導와 祖國統一 努力이 서로 한길이라는 것을 認識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찬 疾走 위에 統一의 成就가 무르익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86 女性 社會淨化委員 教育 入校式

1986년 4월 21일

人　　事

오늘 우리 女性 社會淨化委員 여러분이 바쁜 時間을 쪼개어 우리 社會淨化 運動의 主要한 課業들을 傾聽하고 討議하는 硏修教育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歡迎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重要한 事業이나 共同의 目標를 推進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理念이나 目標에서 褪色하거나 弛緩되지 않는 自己省察과 마음 속의 다짐, 그리고 同志愛의 結束 또는 紐帶感의 再認識이 매우 所重할 줄 압니다.

오늘 女性 指導者 여러분이 自發的인 參與와 眞摯한 姿勢로 斯界 專門人士들로부터 그 理論과 現實을 들어 보고 一線에서 社會淨化 運動을 推進하고 啓導하면서 經驗한 일들을 討論하려는 것도 바로 그러한 理念의 再定立과 現實診斷, 그리고 同志愛的인 結束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社會淨化 運動이 이 땅에 불이 붙은지도 5年째로 접어들었읍니다.

그동안 우리의 社會淨化 運動은 第5共和國이 誕生하면서 온 國民의 合議 속에 制定된 4大 國政指標인 民主, 福祉, 正義, 그리고 教育과 文化의 새물결을 吟味해 볼 때 正直과 秩序와 創造의 淨化理念은 國政指標의 어느 項目에도 精神的 支柱가 되는 德目이요 實踐課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난 5年 동안 우리의 淨化運動을 돌이켜 보면 産業社會로의 急速한 再編成 過程에서 派生된 갖가지 矛盾과 우리의 傳統的 價値觀을 復元하는 努力에 큰 結實과 보

람을 가져왔음을 自負할 수 있다 하겠읍니다.

그 중에서도 義가 아니면 妥協하지 않는 「선비精神」의 回復, 그리고 한때 우리 社會에 蔓延되어 있던 要領과 便法主義 또는 特權主義의 脫皮 運動에서 큰 成果를 거두고 있음을 女性 指導者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 社會의 一角에서는 자라나는 子女들에게 素質과 能力에 알맞는 職業이나 人間性의 教育보다는 父母의 虛欲이나 體面을 생각하는 그릇된 教育觀, 그리고 過剩婚需와 無理한 財産贈與 등의 風潮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우리의 課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本人이 오늘 女性 淨化委員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子女들에 대한 善導와 健全한 勉學雰圍氣의 指導입니다.

우리의 子女들이 自己人生 開拓에 必要한 人格의 陶冶와 學問보다는 煽動的인 時局觀이나 現實參與에 뛰어들어 人生의 黃金期를 浪費하는 境遇라면 이보다 더 不幸한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하루의 教育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時代的인 狀況도 함께 認識하는 여러분의 研修가 되었으면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4월 27일

祝　　辭

무르익은 4月의 薰風이 大自然을 적시는 이 때 第9回 國際라이온스 忠南地區 年次總會가 이처럼 盛況理에 開催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고장의 知性人들이요, 指導者이신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인 이 時點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地域社會와 國家를 위한 指導者의 役割이 切實한 때라고 생각되어 이 行事에 거는 期待는 자못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地域社會의 與件으로 볼 때는 本人과 더불어 道傘下 公務員이 내 고장 發展을 위해서 땀흘려 일하고 여러분 라이온家族을 비롯한 300萬 道民의 參與와 聲援을 바탕으로 「으뜸忠南」의 알찬 結實을 거두어가고 있으며, 보다 次元높은 跳躍의 時期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國家的인 課題로는 앞으로 140餘日 밖에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과 2年後로 다가선 서울 올림픽의 開催 등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鄕土愛와 愛國心을 發揮해야 할 때가 바로 이 時點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고장의 發展과 더불어 國家에 獻身하고 寄與해 나감에 있어 더 重要하고 덜 重要한 때가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우리의 半萬年 悠久한 民族史 중에서 실로 오늘 날처럼 人類歷史의 前面에 우리가 登場한 때가 있었으며, 世界의 耳目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史實이 있었는지를 살펴 볼 때 그 所以나 答은 보다 分明해진다고 봅니다.

이처럼 所重한 우리의 意志나 努力이 더욱 促進되고 昇華되기 위해서는 보다 效率的으로 이를 이끌 수 있는 求心點이나 引導가 必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必要한 것이 바로 自發的인 參與나 純粹한 目的, 그리고 無限한 能力을 가진 여러분 라이온스家族과 같은 活動力과 組織 또한 成就欲을 가진 團體의 役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發展을 위해서는 行政機關이나 有關團體의 先導도 勿論 重要하지만 이들 行政의 團體者와 補完的 役割로서 라이온 여러분의 奉仕와 獻身은 이 時代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밝은 불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동안의 業績을 土臺로 하여 이 時點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다고 볼 때 그것은 道民에 대한 더 많은 擴散과 波及, 그리고 指導와 啓蒙이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年次大會가 人類의 祝典을 主導하는 이 國民的인 努力에 우리가 地域安定과 團合된 모습으로 寄與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丁淳基 總裁님을 비롯한 라이온家族 여러분의 앞날에 無窮한 發展과 幸運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5월 1일

紀 念 辭

오늘 스물세번째로 맞는 法의 날에 즈음하여 裵滿雲 法院長님, 朴憘大 檢事長님, 여러 法曹人, 그리고 道民과 더불어 그 紀念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意味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法의 날을 紀念하고 法의 精神을 宣揚하는 것은 1年에 한번씩 갖는 하나의 單純한 行事가 아니라 이 社會와 國家의 發展이 보다 明朗한 가운데 先進化를 이룩하려는 이 時代 우리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法이 存在하는 目的이나 意味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共同社會의 構成員으로서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範圍를 統制하고 規制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社會秩序의 價値와 良心을 設定하고 이를 自律的으로 遵守하는데 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實際로 우리 社會는 法의 執行보다도 最小限의 道德이나 良心을 規定한 法以上의 人間性이나 倫理가 支配하는 社會가 더 바람직한 社會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吟味해 본다면 微細한 分野까지 法과 規律로 統制되는 社會보다는 可能하다면 道德이나 慣習으로 더 많이 다스려지는 社會가 살기 좋은 社會요 先進社會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世界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先進國들을 보면 좋은 傳統이나 慣習을 더 所重히 간직하며 이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目擊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즈음 우리의 社會一角에서 法과 秩序를 輕視하고 自身들의 立場만을 내세움으로써 法秩序, 社會를 어지럽힘은 勿論 地域安定과 國家安保까지 負擔을 주는 일은 걱정스러운 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國民的 合議와 智慧를 모아 享有하고 있는 우리의 法이나 規範은 國家와 國力의 根本일뿐만 아니라 우리 世代의 良心과 삶의 價値를 含蓄하고 있는 이 時代의 거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現在 우리가 지니고 있는 規範이나 制度는 勿論 理想이나 現實에 대하여서도 늘 不足함을 느끼는 것이 正常이며 이를 漸進的이고 가장 効率的인 方法으로 改善해 나감이 옳은 줄로 압니다.

萬一 우리가 現實에 滿足하고 來日을 향한 아무런 理想이나 意慾이 없다면 이는 決코 發展을 期待할 수 없는 停滯된 社會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傳統이나 良心을 더 所重히 여기는 先進社會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法을 잘 지키고 尊重하는 社會부터 成就해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그 옛날 人類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惡法인 줄 알면서도 그 法을 尊重하여 스스로 毒杯를 마셨다는 事實을 道民 여러분과 더불어 記憶함으로써 法의 尊嚴性을 다시 한번 일깨우려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5월 1일

發 刊 辭

우리는 예로부터 忠孝를 우리 삶의 最高 價値와 德目으로 삼고 살아왔읍니다.

父母는 子女에게 無限의 사랑을 베풀고, 子息은 父母를 받들고 가르침에 順從하는 倫理觀은 家庭과 社會生活의 德目이자 治政의 根本으로 삼아 온 것이 우리의 精神遺産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近世에 西洋 文物의 導入과 産業社會로의 變遷過程을 겪으면서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가진 우리의 忠孝思想이 多少 엷어진 것이 事實이며 그만큼 社會 價値觀과 秩序의 欠缺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겨레와 나라가 繁榮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屢千年 동안 갈고 닦아온 훌륭한 精神文化를 보다 繼承하고 發展시켜야 하며, 남의 價値觀이나 文化는 우리에게 꼭 必要하고 보탬이 되는 것만 받아들여야 옳은 줄로 압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에 우리가 道政의 力點施策으로 삼고 있는 敬老孝親 思想을 보다 높이 宣揚하려는 뜻에서 이 「孝行手記集」을 發刊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이 살아있는 孝行이 널리 읽혀지고 宣揚되어 우리 고장이 더욱 더 忠孝와 忠節의 고장으로 이름떨치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第16回 忠淸南道 工藝品 競進大會 施賞式

1986년 5월 2일

致 辭

오늘 우리 道의 第3回 올림픽 記念品 發掘과 더불어 열여섯번째의 忠南道 工藝品 競進大會를 열고 그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歡迎하고 致賀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고장의 傳統과 文化, 그리고 삶의 叡智를 宣揚하는데 큰 寄與를 맡고 있는 工藝品의 開發과 向上을 꾀하는 것은 그것이 내 고장 發展의 살아 움직이는 弘報요 觀光의 案內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오랜 歷史와 土俗的인 情趣, 獨特한 生活文化를 國內外에 誇示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成就해 나가고 있는 先進社會 建設의 活氣찬 모습, 그리고 未來의 繁榮까지도 보여주는 可能性의 提示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이 地域社會의 숨은 人材나 工藝家들이 오랫동안 心血을 기울이고 知慧를 다하여 製作한 工藝品들이 선을 보이고, 이 時點에서 가장 可能性이 있는 作品들을 選定하고 施賞을 하였읍니다만 出品된 것 하나 하나가 모두 그 個性美와 效用性을 지녔다고 하겠읍니다.

이번 工藝品 競進大會에 參與해 주신 出品者 여러분, 그리고 이 分野에 깊은 關心을 가지신 人士와 積極的인 聲援을 베풀어주신 審査委員님과 道民 여러분께 感謝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장을 代表하고 널리 宣揚할 수 있는 보다 優秀한 工藝品의 開發과 關聯業界를 育成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施賞式이 하나의 마무리가 아니라 지

금부터가 始作이라는 認識과 努力이 所重할 것으로 압니다.

오늘 優秀한 工藝品의 製作으로 入賞의 榮譽를 누린 분은 더욱더 精巧하고 購買力을 擴大할 수 있는 商品의 製作에 힘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으며, 비록 入賞의 機會를 놓친 분이 있다면 이제까지의 智慧와 努力을 倍加함으로써 來日의 榮譽를 꾸준히 追求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工藝品의 入賞이나 脫落의 結果가 꼭 商品으로서의 價値나 愛好家들의 嗜好와는 一致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優秀工藝品의 選定은 새로운 試圖나 創案, 그리고 可能性에 대한 激勵의 開拓은 또다른 別個의 分野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道에서도 내 고장 觀光振興 事業과 連繫하여 傳統民藝品이나 工藝品의 開發을 誘導하고 勸奬해 왔읍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바라는 觀光開發이나 그 商品의 育成水準은 우리의 目標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고장보다도 由緖깊은 歷史遺跡과 秀麗한 風景을 지닌 우리 道가 다른 고장에 比하여 觀光資源의 活用이나 工藝品의 育成 등 聯關 事業의 未洽함을 느낄 때 더 한층의 努力과 奮發을 우리에게 要請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뜻있는 工藝品 競進大會 施賞式이 바로 눈 앞에 다가올 兩大 올림픽 등 우리 고장 觀光振興의 好機를 先導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期待합니다.

다시 한번 李麟求 大田商工會議所 會長님을 비롯하신 後援 人士들께 謝意를 표합니다.

感謝합니다.

第15回 全國 少年體育大會 選手團 結團式

1986년 5월 3일

致 辭

오늘 내고장의 名譽와 來日의 繁榮을 짊어지고 第15回 全國 小年體典에 出戰하는 選手와 任員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歡送하는 바입니다.

이 壯途에 오르기까지 어린 選手 여러분은 여러 先輩들이 세워놓은 忠南 體育의 傳統과 끈기를 바탕으로 强烈한 勝利의 信念을 불태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꾸준한 訓煉과 競技能力의 向上을 위하여 여러 先生님과 學父母님들이 쏟아 주신 精神, 그리고 300萬 道民의 聲援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이번 小年體典은 例年과 달리, 올가을에 열리는 아시아 競技大會와 聯關하여 全國의 여러 고장에서 나누어 開催되는 만큼, 競技에 임하는 姿勢나 體典期間中의 團體生活에 있어서도 여러분 스스로의 自律的인 思考와 能力의 發揮가 크게 要請된다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選手 여러분은 한 地域에서 集中的으로 競技日程을 갖던 지난 날 보다도 더욱 心機一轉하여 그 동안에 쌓아올린 技倆을 힘껏 發揮하고 團體生活에 있어서도 模範을 보여서 그 동안의 傳統과 名譽에 欠이 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選手 여러분이 이제까지 땀 흘려 練磨한 競技力이나 팀웍을 遺憾없이 發揮해 준다면 좋은 成績을 거둘 것으로 道民들은 期待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農事에 比較할 때 오늘까지 여러분이 흘린 땀과 努力이 이른 봄

부터 늦가을까지 씨뿌리고 가꾼 農夫의 精誠이었다면 이번 小年體典은 最終的인 收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收穫을 마친 후 떨어진 낱알 하나까지도 줍는 農夫의 마음으로 끝까지 最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여러분의 壯途를 祝賀합니다.

여러분 모두 勝利의 幸運과 凱旋의 祝杯를 期約합시다.

1986년 5월 5일

開 會 辭

全國에서 오신 市·道 選手와 任員 여러분!

그리고 來賓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無窮한 未來와 可能性을 가진 파아란 새싹들의 한마당잔치, 第 15 回 全國少年體育大會를 이곳 한밭벌에서 開催하게 되었읍니다.

本人은 먼저 저희 고장을 찾아 주신 귀한 손님들을 300 萬 道民과 더불어 뜨거운 마음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더우기나 올해의 少年體典은 여러 고장에서 나누어 開催함으로써 온 國民이 함께 祝祭雰圍氣를 나누고 또한 우리 民族史에 길이 빛낼 86 아시아 競技大會와 88 올림픽大會를 準備하는 契機로 삼아 最終的인 點檢과 人類祝典의 經驗蓄積이라는 意味 가 담겨 있기에 그 意義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少年體典도 열다섯해라는 나이테를 거듭함으로써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 들에게 꿈과 希望, 그리고 成就感을 안겨 주었으며, 國民體育 振興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여러분과 더불어 自負하고자 합니다.

이번 大會에서는 특히 오는 9月의 아시아 競技大會와 88 서울 올림픽을 對備하여 우리끼리 치뤄보는 示範 大會라는데서 더 큰 뜻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選手 여러분은 이번 大會의 모든 規則을 遵守하고 秩序와 協同을 尊重하며 正正 堂堂하게 相對方과 맞서 힘과 技倆을 겨루되 最善을 다하는 明朗하고 活氣찬 體典이 될 수 있도록 精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潑剌한 모습은 바로 우리 大韓民國 來日의 繁榮에 直結되기에 여러분의 天地를 振動시키는 喊聲은 곧 이 나라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智慧와 禮節은 곧 이 나라의 體育文化와 國民 意識 水準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體典을 契機로 하여 우리 道와 아름다운 友情을 맺고 來日을 創造하는 슬기의 廣場으로 삼는 어린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부디 좋은 成績을 거두시고 우리 고장에 머무시는 동안 아름답고 즐거운 追憶들을 가슴마다 새겨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幸運과 奮鬪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第5回 道知事旗 및 大統領下賜旗 爭奪 忠南豫選 새마을 蹴球大會

1986년 5월 10일

致 辭

오월의 新綠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푸르게 물들이는 이 좋은 날을 골라서 第5回 道知事旗및 大統領下賜旗 爭奪 忠南豫選 새마을 蹴球大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 드리는 바입니다.

이 새마을 蹴球大會는 우리의 勤勉, 自助, 協同하는 새마을精神을 바탕으로 年令과 理想, 地域과 職場을 超越해서 健全하고 斬新한 體育文化의 振興과 先進社會 創造의 活力을 샘솟게 하는데 目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동안 우리의 體育은 主로 學校나 職場, 그리고 職業選手를 土台로 하여 成長해 왔으나 이러한 體育文化는 모두 어느 限界點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포츠의 代名詞인 이 새마을 蹴球와 같이 幅넓은 參與와 呼應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日常生活 속의 體育活動이야말로 내 고장 體育의 生命이요. 더 나아가서는 國民體育人口 底邊擴大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 우리의 새마을 運動이 農村에서 點火되어 힘차게 타오른 불길이 都市로 번져 나가듯 우리의 새마을 精神이 바탕된 國民體育 運動도 地方에서 꽃피고 成熟되므로써 産業機械文明에 설땅을 잃어가는 都市人들에게 새마을 精神의 再點火와 삶의 活氣를 불어 넣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오늘 새마을 蹴球 同好人 여러분의 參與는 勝利의 다툼에 있기 보다는 參與와 友情과 對話의 架橋에 있는 줄로 압니다.

選手 여러분이 職場生活이나 生業에 從事하면서 틈틈히 익히고 練磨한 숨은 技倆과

實力을 마음껏 發揮함으로써 5月의 하늘에 永遠한 젊음과 大自然의 新綠을 함께 수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마을 蹴球競技를 여러분들만 즐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職場이나 마을에서 새로운 參與와 呼應을 誘導하고、勸誘하여 이 斬新하고 健全한 스포츠로 하여금 「으뜸忠南」建設, 그리고 「先進祖國創造」에 대한 크나큰 「에너지」를 蓄積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고장에서 出戰한 選手 여러분의 善戰과 幸運을 빌면서, 이 行事를 激勵해 주시는 朴南容 中央會長님, 그리고 朴世烈 새마을 蹴球 忠南聯合會長님을 비롯한 會員 여러분의 精誠에 대하여 感謝드립니다.

1986년 5월 10일

歡 迎 辭

오늘 上位入賞의 榮光을 안고 凱旋한 어린 選手 여러분!

뒷바라지와 指導에 땀흘려 주신 任員 여러분!

그리고 300萬 道民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勝利의 기쁨을 爭取하였읍니다.

本人은 이 자랑스런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祝賀를 보내면서 選手와 任員 여러분의 손을 한 사람씩 높이 쳐들어 주려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稱讚과 致賀의 말이 必要하지 않으며 다만 이 기쁘고 歡喜에 찬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린 選手 여러분!

모두 잘 싸웠읍니다.

이 땅의 水泳不毛地에 他의 追從을 不許할만큼 빛나는 金字塔을 세운 水泳選手 여러분!

오랜 傳統을 지켜준 陸上選手 여러분!

여러 種目에서 고르고 優秀한 成績을 올려준 모든 選手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과 榮光을 오늘에 그치지 말고 永遠히 누리고 뽐내 줄 것을 期待합니다.

또한 이 끈질긴 鬪魂과 情熱을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으로 이어 갑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읍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5월 14일

奉 祝 辭

오늘 人類의 스승이시며 衆生의 引導者이신 부처님 오신 날 2千530周年을 기리는 奉祝法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우리가 佛誕을 奉祝하는 것은 單純히 부처님이 이 世上에 오신 것을 紀念하기보다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意味를 깊이 깨닫고 부처님에게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리라고 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約束된 富貴와 榮華를 버리고 스스로 끝없는 苦行과 慈悲와 忍耐의 連續으로 一貫하심은 "衆生에게 眞理를 깨우치고 救濟하려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世上을 淨土로 만들고 一切의 苦痛과 煩惱로부터 解脫하라는 부처님의 큰 소식이 우리 겨레에게 傳播된지 1千600餘年, 한때는 이 나라는 護國佛教와 그 文化의 燦爛한 꽃을 피워내기도 하였읍니다.

이 땅의 어디를 가나 佛教의 痕跡이 없는 곳이 그 어느 곳이며, 우리의 傳統文化 속에 佛教의 思想과 意識이 스미지 않은 곳이 그 무엇이냐 할만큼 隆盛한 佛教의 遺産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悠久하고 燦爛한 佛教의 精神的 遺産을 어떻게 하면 오늘의 産業社會와 現代文明에 調和시키고 中興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課題요. 來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처님을 받들고 人間의 尊嚴性과 宗教의 自由를 누리기 위한 이 時代

와 現實에 알맞는 佛者들의 새로운 다짐이 必要한 줄로 압니다.

지난 날 混亂했던 佛教國 越南의 教訓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護國佛教를 찾을 수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佛教는 一部社會에서 잘못 認識되고 있는 救福, 救命, 救財에 있음이 아니라 眞實로 平安하고 滿足함을 얻기 위하여 私利와 虛慾의 마음을, 비움으로서 平安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富者가 되는 救道와 救心에 나서야 함이 옳다고 믿어집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장 德崇叢林에서 이 時代의 큰 禪客 馬碧超 스님이 法臘 78歲를一期로 入寂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 보았읍니다.

그 분의 一生에서 우리는 마음을 쌓았으나 私慾을 비웠기에 모든 사람들이 哀悼함을 알 수 있었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契機로 하여 一身의 平安과 滿足보다는 正道와 衆生救濟에 同參해 나가는 슬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깨우치려 합니다.

感謝합니다.

스승의 날 紀念式

1986년 5월 15일

祝　　辭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날 우리가 가장 必要로 하는 教育의 德目을 되새겨 보고 여러분 先生님들의 勞苦를 기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傳統的 師道觀으로는 "君師父 一體"란 말이 있읍니다만 여러분 先生님들은 弟子나 社會로부터 그만큼 尊敬받는 權威와 役割이 있어야 한다고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先生님들은 그 權威와 役割 以前에 오늘의 多樣한 欲求와 時代思潮의 變化에 適應하는 教育의 現實앞에서 苦惱하고 獻身함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時代가 아무리 變化한다 하더라도 가장 重要한 것을 그래도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은 尖端機械나 다른 文明施設이 代身해줄 수 없는 教育者들의 固有 領域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는 認識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고되고 後悔스러운 스승의 길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여러분의 師道가 이 社會에서 가장 보람되고 尊敬받는 人生의 큰길임을 否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教育者들이 우리의 2世들을 가르치고 수고하는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尊敬받으면서 다른 걱정이 없이 가르침에만 全力을 기울일 수 있는 現實이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갖는 것이 本人만의 생각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先生님들에 대한 이와 같은 不足한 關心, 아쉬운 待遇, 무거워지는 役割이 언제까지나 累積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時點에서 苦惱하고 苦生하고 忍耐하는 분들은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이 時

代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共通된 일이며 使命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智慧란 땀흘리지 않고도 얻는 탐스런 結實이나 所得은 아니며, 或 있다손 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僥倖에 不過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값진 智慧란 여러 先生님처럼 어떠한 境遇에도 拋棄하지 않고 反復하며 땀흘리는 "사람을 만드는" 事業이야말로 智慧의 最高價値를 지닌다고 믿어집니다.

이처럼 所重한 教育의 德目에 대하여 本人은 깊이 研究하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教育이란 한마디로 "可能性을 찾아 한 人間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즈음 一部 삐뚤어진 教育觀을 가진 사람들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成功한 人間으로 性急히 設定하고 그틀에 맞추려는 愚를 犯하는 부질없는 努力을 하는 境遇를 종종 볼 수 있읍니다.

한 人間이란 本來 그 素質과 可能性을 찾아 가르치고 키워진다고 볼 때 참다운 教育만이 한 人間의 未來를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 先生님들은 오늘의 一部 삐뚤어진 教育觀을 바로잡는데도 늘 關心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 고장 教育發展에 至大한 功勞를 쌓으심으로서 表彰을 받으신 여러 先生님들께 祝賀를 보냅니다.

感謝합니다.

故鄕에 송아지보내기 運動 參與人士에 대한

1986년 5월 15일

書 翰

싱그러운 5月의 新綠이 大自然을 生命의 喜悅로 가득 채우는 이 때 貴下와 家庭에 幸運을 祈願합니다.

올 한해도 5月이 지나면 上半期가 마무리되는 時點을 우리가 맞고 있읍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知識과 情報를 必要로 하는 時代에 있어 우리의 道民의 生活이 끊임없는 探究와 適應姿勢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目標로 하고 있는 先進社會를 앞당겨 成就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時代와 與件이 아무리 빠르게 變遷하더라도 人情과 和合이 넘치는 고루 잘사는 내 고장의 建設을 위해서는 出鄕人과 故鄕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情神的 紐帶와 따뜻한 愛鄕心의 交流가 매우 所重하다고 本人은 믿습니다.

우리 社會가 아무리 發展하고 高度產業社會를 指向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키워준 故鄕에 대한 鄕愁는 우리들 人生의 꿈이요 삶의 根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貴下께서 本道가 推進한 「故鄕에 송아지보내기」運動에 기꺼이 參與하고 呼應해 주심으로써 내 고장과 道政發展에 큰 成果를 거두었음을 貴下와 더불어 自負합니다.

지난 3年 동안 推進해 온 이 愛鄕運動은 貴下를 비롯한 各界의 聲援으로 400餘頭의 송아지를 故鄕 農村에 안겨 주었으며, 여기에서 100餘頭의 송아지가 또 生產됨으로써 道民의 큰 希望으로 번지기에 이르렀읍니다.

當初에는 우리가 87年까지 5年 동안 500頭의 송아지를 農村에 보내려 했으나 이

처럼 좋은 成果를 土臺로 1年 앞당겨 86年까지 마칠 計劃입니다.

그 동안의 뜨거운 聲援에 다시금 感謝드리며 앞으로도 이 좋은 事業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參與가 있도록 勸誘를 付託드립니다.

다시 한번 貴下의 故鄕과 農村에 대한 開心과 支援을 感謝드립니다.

道內 各級 職場 民防衛隊員에게 보내는

1986년 5월 17일

書 翰

짙어가는 綠陰이 生命의 季節을 謳歌하는 이 때 貴下와 貴下가 이끄시는 機關과 職場團体의 幸運과 繁榮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平素 貴下를 비롯한 뜻있는 분들의 뜨거운 鄕土愛와 올바른 國家觀이 바탕된 指導力에 힘입어 내 고장이 發展하고 本人과 率下公務員들이 盡力해 나가고 있는 「으뜸忠南」의 道政이 活氣있게 推進되고 있음을 깊이 感謝드립니다.

우리가 先進國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힘든 고비라고 일컬어지는 1人當 國民所得 2千$을 넘어서 바야흐로 90年代 初에는 先進隊列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大望을 안고 있다 하겠읍니다.

이러한 所望과 可能性을 함께 안고 있는 우리가 「先進組國」의 創造라는 至上課題를 한 時라도 빨리 앞당기고 보다 確固하게 保障받기 위해서는 透徹한 우리의 現實 認識과 安定된 地域社會의 雰圍氣造成, 그리고 國家安保의 뒷받침이 所重한 줄로 압니다.

그러한 視角에서 貴下가 이끄시는 職場民防衛隊의 보다 堅固한 組織管理와 非常時에 對備한 精神武裝이 必要하다는 것은 說明의 餘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特히 오는 9月로 다가선 아시아 競技大會와 이를 土臺로 서울 올림픽을 準備해 나가고 있는 이 時點에서는 貴職場民防衛隊를 비롯한 이 고장 民防衛隊員들의 團結과 役割이 切實한 때라고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現在 우리 社會一角의 社會不安要素와 地域安保 脆弱點이 있는 때일수록 貴下를 비롯한 各級 民防衛隊長 여러분의 指導力과 슬기를 期待해 마지않습니다.

貴下의 뜻하시는 일이 順調롭기를 빕니다.

1986년 5월 23일

激 勵 辭

700年의 百濟文化가 燦爛하게 꽃피웠던 우리 고장 忠淸南道의 美術大展이 이제 16回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그 水準이 向上되어온 道展은 그 동안 忠南藝術人의 가장 權威있는 登龍門으로 나아가 鄕土藝術人의 큰 잔치마당으로 定着되어 왔읍니다.

이는 이 고장 藝術人 모두가 努力하고 땀흘려온 보람이며 特히 300萬 道民의 뜨거운 愛情과 激勵가 뒷받침된 結果라고 하겠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地方文化藝術振興의 當爲性이 强調되고 있는 오늘, 우리 道展이 그간의 成果를 바탕으로 그 權威와 品格을 더욱 높여 全國에서 으뜸가는 地方美展으로 發展하고 그를 통해 地方文化時代 創造의 牽引車役割을 遂行해 줄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入賞의 榮光을 안으신 作家 여러분께 祝賀와 함께 앞으로의 精進을 당부드리며, 道展準備에 애써오신 藝總忠淸南道支會長을 비롯한 運營委員, 審査委員, 關係人士 여러분의 勞苦에 感謝드립니다.

示範 營農育兒院 開院

1986년 5월 23일

激 勵 辭

이 자리에 參席하신 洪鍾玉 家庭福祉局長님!

各 施設長과 來賓 여러분!

오늘 農民 後繼者를 育成하기 위하여 指定된 示範營農育兒院 開院式에 參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20餘年間 社會福祉事業에 投身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쓰신 李京雨 理事長님과 梁惠姸 院長님께 其間의 勞苦를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育兒施設의 入所兒童들은 18歲에 達하면 保護年限을 마치고 社會에 進出하게 됩니다. 이들 院兒들에게 自立意志와 基盤을 다져주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지난 83年부터 農地를 所有하고 營農教育 與件이 良好한 施設을 示範營農育兒院으로 指定運營, 院兒들을 農民後繼者로 育成하는 등 그 自立施策을 推進하고 있읍니다.

우리 道는 83年 10月에 錦山郡所在 香林園이 이미 指定되어 其間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읍니다만 오늘 道內에서 두번째로 指定 開院하는 聖化園은 이미 10餘萬坪의 林野와 農地, 그리고 젖소 등을 確保, 營農教育場으로서의 役割을 擔當하는데 遜色없는 훌륭한 施設로 評價됩니다.

우리 나라는 數千年을 이어온 傳統的인 農業國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尖端科學文明을 成就하더라도 뿌리깊은 農業과 農村을 저버리고 繁榮을 期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開院하게 된 聖化園은 우리 나라 農村의 保壘요, 農業發展의 旗手로서의 훌륭한 農民後繼者를 많이 輩出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政府가 意圖하는 示範 營農育兒院으로 더욱 發展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5월 24일

祝　　辭

親愛하는 와이즈멘 여러분!

本人은 오늘 新綠이 짙어가는 좋은 날을 골라, 그리스도의 眞理와 사랑을, 나라와 地域社會에의 奉仕로써 實踐하고자 하는 다짐의 자리인 地區大會가 열리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國家의 發展에 寄與하고 社會에 奉仕하는 方法과 形態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만, 그 동안 와이즈멘 여러분들의 透徹한 信仰을 바탕으로한 活動과 奉仕는 누가 시켜서가 아닌 文字 그대로 自律的인 民間活動이며 또한 그러면서도 매우 組織的이고 持續的이었다는 點에서 그 價値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本人은 아낌없는 讚辭와 더불어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民族的 課題인 先進祖國 創造를 爲해 온 國民이 힘을 합해 나아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指向하는 先進祖國은 經濟的인 面에서의 發展은 勿論 精神的인 面에서의 成熟이 아울러 갖춰진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正義와 順理가 認定받고 誠實하게 努力한 사람이 待接받는 그러한 社會가 眞正한 先進祖國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社會를 建設한다는 것이 결코 政府나 行政의 힘만으로 可能한 것은 아니며, 여러분과 같이 自律的이고 持續的인 民間活動이 活發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오늘 大會의 主題에도 나와 있듯이 國民 個個人 모두가 작은 일에서부터 最善을 다하고자 하는 誠實한 生活姿勢로 各者 맡은 바 職務를

完遂함으로써 비로서 可能한 것이라고 本人은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뜻 깊은 大會가 이러한 正義社會 建設에 탄탄한 디딤돌이 되고 아울러 와이즈멘 여러분의 信念과 結束을 더욱 더 다지는 契機가 되기를 期待하면서 國際 와이즈멘 韓國西部地區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以北5道 代議員總會

1986년 5월 27일

祝 辭

尊敬하는 安賢璐 會長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멀리서 오신 李碩峰 以北5道 道民 會長님!

그리고 代議員 여러분!

本人은 오늘 여러분께서 이처럼 뜻깊은 모임을 마련하시고 榮光스러운 統一의 그 날을 위해, 더욱 큰 다짐의 機會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며 마음속 깊은 祝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우리의 道政에 대해서도 恪別하신 關心과 參與와 聲援을 보냄으로써 그 동안 "으뜸忠南"의 一翼을 擔當해 오신 勞苦에 대해서도 本人은 恒常 같은 失鄕民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고맙고 感謝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 6千萬 民族의 所望인 統一의 門이 결코 한때의 다짐이나 祈願이나 念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冷嚴한 現實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政治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또는 經濟的으로 저들 以北보다 越等한 힘의 蓄積만이 統一의 門을 열 수 있는 所重한 關鍵이 될 수 있읍니다.

우리의 安定된 社會, 눈부신 經濟成長, 그리고 튼튼한 總力安保가 지금 저들이 一方的으로 닫아버린 南北對話의 再開는 勿論 休戰線의 一帶에 配置한 大大的 軍裝備의 在庫, 그리고 지금이 바로 南侵의 機會라고 誤判하기 쉬운 그 危險한 생각마저도 스스로 抛棄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읍니다.

老子의 道德經에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흐르는 물은 順理와 같아서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보이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나게 보인다"고 했읍니다.

謙遜하고 悠然하고 正直한 물의 原理가 바로 自然의 法則이고 順理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學園街의 騷擾, 硬直된 政局, 社會一角의 一時的인 不安要因들이 어떻게 보면 當然한 順理고 過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先進國에서 일찌기 民主化를 걷는 길목에서 수 없이 體驗했던 必然的인 歷史의 陣痛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때의 試鍊을 肯定的인 큰 視覺으로 보아야 하며 보다 冷嚴한 理性과 意志로써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꽃 피우면서 슬기롭게 克服해야 할 무거운 召命을 안고 있읍니다.

그 동안 온갖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失鄕民의 權益과 福祉와 名譽를 위해서 그 地域의 安定과 總和와 統一의 所望을 위해서 不徹晝夜 애써오신 여러분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賢明한 時局觀과 使命感을 가지시고 家庭에서나 職場에서 그리고 社會에서 精誠어린 努力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나 光復以後 지금까지 赤化野慾에만 狂奔해온 北傀가 말로는 平和와 對話, 同族을 내세우면서 온갖 可憎스러운 作態를 다하고 있는 저들의 속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失鄕民 여러분은 아직도 北傀의 實相을 잘 모르고 同調하는 一部 極烈한 左傾學生들의 善導問題, 그리고 우리周圍에 도사리고 있는 感想的인 統一觀을 無視하는데 있어서도 언제나 細心한 觀心을 기울여 先導的 役割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賞을 받으신 榮譽의 受賞者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祝賀의 말씀을 드리면서 以北5道 忠南 聯合會의 安賢璔 會長님을 비롯한 이 고장 50萬 會員 여러분 家庭의 앞날에 無窮한 發展과 成功과 幸運을 빌어 마지않읍니다.

感謝합니다.

第5回 忠南開發賞 施賞式

1986년 5월 28일

祝　　辭

地域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남다른 愛情과 情熱을 갖고 오늘과 같은 뜻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朴浩達 會長님을 비롯한 忠南開發委員 여러분의 勞苦에 對하여 感謝드리며 榮譽로운 賞을 받게 된 受賞者 여러분에게 讚辭와 祝賀를 드립니다.

受賞者 여러분이 보여준 行蹟은 現代社會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할 龜鑑이요 地域發展의 밑거름으로 이 地域의 希望찬 未來를 밝게 해줄 것임을 確信합니다.

우리 고장은 住民들의 地域開發에 關한 熱望과 國家의 政策的 配慮에 힘입어 나날이 變貌해 가고 있읍니다.

今年初에 公州, 大川, 溫陽이 市로 昇格되고 大德硏究團地造成 事業도 順調롭게 推進되고 있으며, 未來의 우리 나라 產業役軍을 輩出할 韓國科學技術大學도 오는 6月에 開校式을 갖게 되었읍니다.

國家에서 立案中인 中部圈 開發計劃과 脈을 같이 하면서 地域與件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聯關效果를 增大시키기 위한 忠南圈開發 力點事業, 工業化 7個年 事業 등을 順次的으로 推進하고, 大田 都市機能의 再整備計劃을 效率的으로 推進한다면 우리 고장은 名實共히 國家의 中樞機能을 擔當하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政府의 努力은 限界가 있읍니다.

내 고장을 내 손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住民들의 參與意識과 自發的이고 協同的인 努力으로 地域社會의 共通的인 慾求를 解決하면서 地域社會 全體의 發展을 積極推進하기 위한 大衆的인 活動이 展開될 때 地域開發이 앞당겨 질 수 있읍니다.

이런 意味에서 忠南開發委員會가 擔當하는 役割의 重要性이 强調되지 않을 수 없고, 受賞者 여러분들의 模範的 行動은 더욱 값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受賞者 여러분!

오늘 賞을 받으시는 분들은 國土 公園化 運動에 積極參與하여 地域開發에 貢獻한 분, 靑少年 善導와 不遇兒童 福祉增進에 寄與한 분, 不具의 父親과 病苦에 시달리는 시어머니를 알뜰히 奉養한 孝行心이 많은 분들로 平素에 남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였읍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남을 위하여 自己自身을 犧牲 奉仕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市民이 있는 限 이 社會는 밝고 健實한 氣風이 造成된 살기 좋은 社會가 될 것입니다.

本人은 여러분들의 行蹟이 龜鑑이 되어 우리 고장에서 孝子 孝婦가 많이 나오고 地域社會發展에 獻身하는 훌륭한 人物이 많이 輩出될 것으로 期待하면서 300萬 道民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忠南의 時代를 創造하겠다는 意志와 自信感을 갖고 다같이 힘써 努力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受賞者 여러분에게 再三 祝賀를 드리며 忠南開發委員會의 큰 發展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忠南年鑑」冊子 發刊

1986년 5월 29일

激 勵 辭

이번에 우리 忠淸南道의 모든 分野에 걸친 발자취나 오늘의 座標를 分析하고 集大成한 忠南年鑑을 發刊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릇 하나의 組織이나 團體는 勿論 地域社會에 있어서도 未來指向性이나 發展을 위해서는 먼저 지난 날의 過程을 注意깊게 살펴보고 오늘을 正確하게 自家診斷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思慮있는 現實感覺 속에서 보다 明瞭한 來日의 方向設定과 自己發展을 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뜻있는 事業이 이를 매우 必要로 하는 機關이나 有關團體가 아닌 이에 뜻을 두신 純粹한 人士들의 努力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本人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자 합니다.

이는 바로 近者에 우리 고장이 國家의 核心地域으로 登場하고 있는 때라서 그 發展과 未來를 能動的으로 收容하려는 300萬 道民意志의 表出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기쁘기만 합니다.

이 冊에 收錄된 지난 날 모든 分野의 敎訓과 經驗을 土臺로 우리는 보다 確實하고 堅固한 未來를 設計하고 道民의 底力과 끈기로 目標들을 成就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으뜸」의 課業을 앞당겨 成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冊이 한번의 出刊에 그치지 말고 우리 忠南이 나날이 發展하고 커 나가는 모습을 繼續 增補해 주심으로써 내 고장 發展의 살아있는 指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값진 册字의 發刊을 위해서 尨大한 資料로 蒐集과 整理 등 編輯에 參與하신 人士와 聲援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感謝드립니다.

다시 한번 「忠南年鑑」出刊을 祝賀합니다.

1986년 5월 30일

人 事

여러 委員님들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參席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벌써 今年도 5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豫報도 있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읍니다만 多幸히 順調롭게 비가 내려서 現在는 豊年 農事가 期約되고 있읍니다.

今年까지 6年 동안 豊年農事가 期約되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어 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크나큰 協調로 現在 모내기가 約 83%까지 進行中에 있읍니다. 平年에 比해서 約 3日程度 일찍 모내기가 마무리될 것이 期待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社會安定이 잘 되지 않고 政局이 多小 硬化가 된 느낌이 있었읍니다만 與野間에 妥協이 잘 되어서 政局의 앞날이 밝아 보이고 아울러서 社會도 秩序가 잡혀 가고 있어서 相當히 展望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經濟는 油價下落이라든가, 國際金利下落 그리고 엔貨의 强勢, 달러貨의 下落 등으로 因해서 輸出도 늘어나고 그 동안에 雇傭增大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物價도 安定되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與件이 持續이 되고 그와 더불어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치룰 수 만 있다면 先進國 隊列에 早期進入도 可能하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또 오늘 갖는 地域經濟協議會는 지난 2月달에 있었던 經濟分野 세미나아에 이어 두번

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特히 來年부터 地方議會가 構成이 되어 地方自治制가 實施되는 것을 前提로 할 때 바야흐로 地方化時代가 到來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對備한 우리 地域經濟의 活性化 問題도 比重이 相當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特히 大田圈은 首都의 中樞役割을 해야 할 立場이고, 그러한 觀點에서 現在 大田 道市計劃이 推進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地域보다도 地域經濟가 活潑하고 活性化되어야 할 그런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地域의 經濟協議會 會員님들께서 地域經濟에 대한 하나 하나의 關心과 協調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읍니다.

現在 地域經濟는 地方單位에서 이루어지는 生產, 流通, 消費 등의 經濟活動으로 活性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忠南의 經濟活性化 問題에 대해서 서너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우리 忠南이 農業地域이기 때문에 農家所得의 增大입니다.

지금까지 主穀에 依存하던 農家所得은 이미 限界點에 이르렀기 때문에 農工並進政策에 의한 產業所得化로 지금 轉換段階에 와 있읍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지난번에 發表한 農漁村 綜合對策에도 그러한 內容이 많이 加味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 道에서도 農工團地造成事業을 推進中에 있읍니다.

今年까지 네개의 農村 工業團地가 造成이 되고 91年까지 15個郡에 農業團地가 造成될 豫定입니다.

두번째로는 工業團地의 擴充입니다.

우리가 現在 大田에 1.2工團과 天安에 한個의 工團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그 規模가 적고 다른 道에 比해서 需要는 많이 늘어나는데 比해서 여기에 대한 對備가 全혀 되어 있지 않읍니다.

앞으로 大田에 第3工團을 비롯해서 天安에 第2工團 그리고 綾武, 長項 등에 團地造成計劃을 세워서 現在 推進中에 있읍니다.

또한 鳥致院에도 民間工團이 들어설 計劃이 確定되었으며, 瑞山, 대산 등에도 이미

工事가 進行中이며, 그와 더불어 一般 民間工團 造成도 活潑하게 움직이고 있는 實情입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關心깊게 推進해야 할 것은 忠南圈 開發事業입니다. 이것은 제가 赴任한 以後에 綜合的으로 檢討를 해서 推進하고 있읍니다만, 現在 中央에서 中部圈 開發事業과 關聯하여 檢討가 되고 있읍니다.

中間에 제가 알아 보았더니 저희가 計劃한 것이 다 包含이 되어 있었읍니다.

우리가 計劃한 道路의 開設이라든가 擴張 등이 包含되어 地域產業開發에 크게 寄與하리라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地域經濟의 活性化 問題는 國家施策과 關聯해서 展開가 되고 있읍니다만 地方行政의 積極的인 役割과 우리 地方 企業人, 그리고 住民이 確固한 地方意志와 意識을 갖고 經濟活動을 遂行함으로써만이 成功的으로 結實을 맺을 것으로 展望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付託을 드린다면 地域經濟 活性化에 關한 여러 가지 좋은 意見들을 活潑하게 協議를 통해서 開陳해 주시고 討議해 주실 것을 付託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5월 30일

激 勵 辭

이번에 藝總 忠淸南道支會에서 지난 16年 동안의 道美術展覽會 入賞作品圖錄을 發刊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이 圖錄이야말로 그 동안 이 고장 美術界의 발자취이며 산歷史라해도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 고장의 美術作品을 한곳에 모았다는 단순한 의지보다는 이 藝術的 바탕과 力量을 土臺로 하여 보다 圓熟하고 格調높은 鄕土藝術을 再創造하는데 더 큰 目的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 번에는 우리 忠南 美術人들이 地方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이고장 精銳作家들의 眞面目을 보여 줌으로써 큰 呼應을 불러 일으킨 바 있읍니다.

근자에 우리 고장 美術을 비롯한 모든 藝術活動이 이처럼 活力을 갖는 것은 곧 내고장 發展의 밑바탕이자 「으뜸忠南」 具現의 實體로서 道民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 忠南美術圖錄이 내고장 藝術界는 勿論 다른 고장의 藝術活動에도 큰 反響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뜻깊은 事業을 契機로 해서 藝鄕 忠南의 跳躍을 期待해 마지않습니다.

1986년 5월 31일

致 辭

오늘 張基成 道教育監님, 朴震雨 KBS大田放送局長님과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레크레이션協會 忠南支部에서 마련한 第2回 青少年 健全娛樂 發表會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大會를 마련해 주신 主催側과 關係機關 團體에 感謝드리고 其間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입니다.

青少年 여러분!

여러분은 한 家庭의 보배요 우리 社會의 希望이며 이 나라 未來의 主人公들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遠大한 꿈과 無限한 可能性이 펼쳐져 있읍니다.

그러기에 青少年 여러분은 할 일이 너무 많고 國家와 社會가 여러분에게 거는 期待는 더욱 큰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父母님과 스승의 恩惠에 恒常 感謝할 줄 알고 부지런히 技術과 學問을 배우고 익혀서 世界의 青少年들과 어깨를 겨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正直하고 誠實한 態度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꿈을 이룩할 수 있는 길임을 銘心하여 언제나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最善을 다하는 青少年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오늘의 이 發表會도 여러분이 튼튼한 몸과 健全한 精神으로 꿈과 希望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明朗하고 재미있는 趣味活動資料를 提示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發表되는 健全娛樂을 通해 앞으로 青少年 여러분이 저마다 能力과 趣味를 啓發하고 精神涵養으로 人格을 陶冶하는 일에 精進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青少年 여러분의 앞날에 無限한 發展과 榮光이 있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6月 月例朝會

1986년 6월 2일

訓　　示

오늘이 벌써 6月 초이틀입니다.

今年度 上半期 마지막 달이 되었고, 또한 무덥고 일하는 與件이 아주 어려운 夏節期에 進入하는 달이 되겠읍니다.

아울러서 6月은 우리 民族史에 커다란 恨을 남긴 6·25 라는 同族相殘을 치룬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이 많은 6月에 있어서 職務를 遂行하는데 現實에 對한 再認識을 必要로 하는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簡單하게 5月을 回顧해 보면 國家的으로 여러 가지 變化가 있는 하나의 陣痛을 많이 겪은 달이었다 생각이되고 우리 地方的으로 보면 '86 아시안게임 準備 등으로 아주 奔走하고 일을 많이 한 달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改憲問題라든가 時局에 對한 問題로 與·野間 意見이 對立되고, 野黨의 場外 活動으로 政局이 시끄럽고 社會가 混亂했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多幸스럽게 閣下께서 3黨 代表들을 불러 會談하신 以後에, 仁川事態를 고비로 事實上 自由民主主義가 威脅을 받는 狀況이 展開됨에 따라서 野黨에서도 時局에 對한 認識을 달리하고 極限鬪爭이라든가 또는 一方的인 自己主張만을 내세우는 이러한 對立樣相에서 和解와 大妥協을 前提로 하는 그런 姿勢로 轉換이 돼서 퍽 多幸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紙上을 通해서 잘 알고 있지만, 民正黨 盧代表와 新民黨 李代表가 지난 5

月 29日 만나서 憲法特委의 構成을 原則的으로 合議하고, 6月 3日 大統領閣下께서 新民黨 李代表, 그리고 다음날 國民黨 李萬燮 總裁를 招請하여 時局問題를 論議하시는 것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6月에 臨時國會가 이미 召集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勿論 어려움이야 많겠지만은 앞으로의 政局은 比較的 大妥協이라는 前提 밑에 與·野가 相衝되어 있는 意見을 接近시켜 나가는 이러한 歷程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仁川事態 때 많은 國民이 憂慮를 한 國民의 輿望이 反映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結實을 맺고 事實上 政局이 보다 發展的으로 展開되어 나아가기 爲해서는 우리 公務員을 비롯한 모든 國民들이 誠意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聲援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우리 地方的인 次元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公務員들은 多少 社會가 어수선한 渦中에서도 自己가 맡은 所任을 蹉跌없이 遂行을 함으로써 過渡期的인 漏水現狀을 막고, 우리 國家가 遂行하는 行政에 蹉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요즈음 나타난 問題로 늘 强調를 했지만 急進左傾勢力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必要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仁川事態 때 그들이 보여준 樣態는 左翼革命集團의 鬪爭方式을 그대로 採擇을 하고, 北傀 金日成이가 내세우는 口號, 赤化統一을 위해서 美國을 우리로부터 隔離시키려는 戰略에 100% 迎合을 하는 樣相이 露出이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示威하는 方法도 民主化라는 글자만 내 걸었지 그네들이 行動하는 것은 전혀 非民主的이고, 獨裁的이고, 破壞的이고 革命的인 方法을 그대로 구사 하였읍니다.

仁川騷擾事態 때 100餘名이라는 많은 사람이 負傷을 당하고 民正黨舍에 防火를 하고, 車輛에 불을 지르고 한 것은 過去의 光州事態 때와 비슷한 民亂을 일으켜서 混亂의 도가니로 만들겠다는 그네들의 기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以後에 釜山 美文化院을 占據하는 問題라든가, 韓美銀行을 勤勞者를 假裝한 僞裝 就業者들이 占據한 行爲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네들은 어떠한 民主的인 節次나 方法으로 時局을 對處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完全히 左傾革命을 시도하려는

意圖가 白日下에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精神을 차려야 할 것은 政權이 어느 黨에 가느냐, 누가 이 時局을 主導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自由民主體制가 完全히 崩壞가 되느냐, 金日成이의 魔手에 4千萬 民族이 아주 다 蹂躪을 당하느냐 하는 岐路에 섰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歷史的으로 한 國家가 共產主義가 된 過程을 살펴보면 共產主義를 信奉하거나 그 革命을 主導하는 勢力은 極히 적어요.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事實만 보고 安逸하게 보거나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認識은 此際에 完全히 고쳐서 많든 적든 現在 表出되어 있는 이 左傾勢力을 하루빨리 뿌리뽑는데 國民的인 共感帶 形成이 絕對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전에 홍지영씨 講演도 듣고 했지만, 우리는 보다 더 많은 事項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對國民 弘報에 積極的으로 나서야 되겠으며, 여러분들이 直接 養育하고 있는 子女들 부터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守護問題, 左傾勢力의 危險性을 이야기해서 周邊을 탄탄하게 反共으로 武裝을 하고,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地域的으로는 5月에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했고 成果도 많았읍니다.

첫째는 敬老愛幼 氣風의 振作이 되게끔 여러 가지 行事를 많이 했읍니다.

敬老眼鏡 支援도 昨年에 이어서 今年에도 3千名 가량 支援을 했고, 老人에 對한 施設慰問도 많이 했읍니다.

다음에 그 동안 地域의 集團民怨이던 瑞山 AB地區 海苔被害 補償問題가 妥結이 돼서 한시름 놨읍니다.

本廳에서는 殖產局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瑞山郡 瑞山警察署, 安眠支署의 職員들 1年半 동안 고생을 많이 했읍니다.

아울러서 이 問題가 解決되기까지에는 忠南에 있는 關係機關들의 積極的인 協調, 그리고 中央의 各 部處에서 次元높은 調整이 크게 奏效했읍니다.

우리는 이 事件 解決에 힘써 주신 분들에게 大端히 感謝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集團民怨이 發生 안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萬一 發生했을 境

遇에는 迅速하게, 効果的인 方案을 講究하여 對處해 나가야 되겠다는 教訓을 이번事件을 통해서 再三 認識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特히 5月에 慶事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그간 다져 놓은 "으뜸 忠南"의 底力을 遺憾없이 誇示한 달로 생각합니다.

實績으로 보면, 모내기 中央競進大會에서 3年 連覇를 했어요.

손모내기, 機械모내기에서 1等을 했는데 이는 農林局長이 心血을 기울여 訓練을 잘 시킨 結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른 道에서는 忠南이 參加하는 競進大會에 더 以上 參加할 뜻이 없지 않느냐 할 程度로 우리의 으뜸의 位置가 鞏固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全國 工產品 競進大會에서도 團體 優秀賞을 받았고, 個人的으로는 大統領賞을 받는 좋은 成果를 거두었고, 또 全國 少年體典에서도 우리가 한때 不振했던 上位圈 位置를 再奪還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自然學習園이 開園되었읍니다.

앞으로 青少年의 心身 鍛鍊을 위해서 많이 活用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6月이기 때문에 當面道政 몇 가지를 强調하면

첫째로, 모내기 促進입니다.

雨順風調해서 順調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期間 우리가 15日까지 完了할 豫定입니다마는 일손돕기와 一部 發生되고 있는 病虫害 防除에 대하여 最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夏季防疫對策인데, 今年에 아시안게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過去 3年間 傳染病이 없는 아주 優秀한 道로서의 名譽도 있고, 特히 今年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夏季防疫關係를 徹底하게 關心을 가지고 推進하여야 하겠으며, 今年부터 88年까지는 絶對로 傳染病 등이 發生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强調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競技大會 準備는 이제 앞으로 110日 밖에 안남았으므로 樹立된 基本計劃에 依據 하나하나 推進해 주기 바랍니다.

또 6月은 報勳의 달입니다.

國家 有功者의 矜持와 自立을 涵養할 수 있도록 모든 行事를 通해서 汎道民的으로 그들을 慰勞하고 激勵하는 달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6.25의 教訓을 잘 살려 安保에 대한 認識도 새롭게 하고 앞으로 닥쳐질 綠陰期 警戒態勢를 强化하고, 86 아시안게임을 妨害하려는 그네들의 企圖를 事前에 粉碎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上半期를 마무리하는 6月달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推進해 온 上半期 業務 推進狀態를 다시한번 點檢하고, 分析을 해서 下半期 事業 推進에 蹉跌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 다음에는, 各種 工事에 대한 監督을 徹底하게 하여야 하겠읍니다.

工事場周邊에 대해서 住民들의 不便事項이 없는가를 點檢해서 除去를 하고, 또 工事와 關聯한 不條理가 絕對 있어서는 안되겠읍니다.

요즈음 新聞紙上을 통하여 서울에서 工事入札 關係로 職員이 拘束되는 不美스러운 일을 보았읍니다마는 絕對로 이런 不條理가 있어서는 안되겠읍니다.

大義에 立脚해서 우리가 業務處理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實施되는 工事는 監理를 徹底하게 해서 事故를 事前에 豫防해야 합니다.

全國體典이 6月 20日부터 25日까지 開催될 豫定입니다.

今年에도 成果가 좋도록 選手, 任員들을 激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月은 우리 時局과 關聯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달이고, 그렇지만 우리 道로서는 알찬 마무리를 진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月달은 上半期를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가 着實하게 業務를 遂行해서 上半期를 잘 마무리짓고, 下半期 道政을 推進하는 準備가 되는 달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留意하면서 職務에 充實해 주기를 바랍니다.

輿論 모니터에게 보내는

1986년 6월 5일

書 翰

綠陰이 짙어가는 季節에 貴下의 健勝하심과 하시는 일 모두가 順調롭게 이루어지시기를 祈願하오며, 平素 우리의 道政과 地域發展에 높은 關心을 가지고 參與하여 주시는데 깊이 感謝드립니다.

더우기 貴下께서는 우리가 펴나가고 있는 모든 施策을 비춰 주시고 住民의 輿望을 걸러주시는 "輿論指導者"로서 우리 道와 道民과의 橋梁役割을 기꺼이 맡아 주심으로써 "으뜸忠南"의 實現에 크게 이바지해 주시는 勞苦에 거듭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릇 行政은 住民을 對象으로 하고 있고 住民本位로 펴나가야 함을 本質로 하고 있음은 再論할 餘地가 없읍니다. 行政施策의 主案과 推進 그리고 事後評價過程에서 道民이 參與하고 또 道民의 意思가 反映되어야 함은 꼭 必要하고 매우 意味있는 일이라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輿論指導者"이신 貴下께서 그 동안 기울여 주신 勞苦는 우리 道政의 發展과 道民의 福祉增進을 爲하여 그 무엇보다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道民이 터잡고 사는 고장에 여러분들이 愛情과 關心을 가지고 參與와 聲援을 아끼질 않을 때 우리 고장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꾸어질 것입니다.

그 동안 貴下께서 住民들의 輿論을 찾아 알려 주시는데 많은 努力과 精誠을 아끼지 않으셨읍니다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繼續 指摘하여 주시면 우리 道의 行政遂行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우리 道民 속에 內在된 輿論, 그리고 住民의 福祉와 우리 고장의 發展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생각하시는 事項이면 무엇이든지 주저마시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貴下의 高見은 秘密이 保障된 가운데 誠心誠意껏 處理하고 그 結果를 꼭 通報하여 드리겠읍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우리 道政에 베풀어주신 恪別한 關心을 더욱 기울여 주시므로써 "으뜸忠南"建設에 積極 參與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貴下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瑞山 A·B地區 開發에 따른 漁場被害 漁民 收拾 聲援人士에 대한

1986년 6월 5일

書 翰

무르익은 綠陰이 여름을 손짓하는 이 때 高堂의 安寧과 幸運을 祈願합니다.

恒時 貴下의 깊은 關心과 聲援을 바탕으로 오늘까지 忠南道政을 順調롭게 이끌어왔음을 깊이 感謝드립니다.

더우기나 우리 管內 西海岸 瑞山 AB地區 干拓事業에 따른 淺水灣 沿岸의 漁場被害로 因한 當該 漁民들과 開發施工者인 現代建設과의 오랜 紛爭은 地域內 問題의 範疇를 벗어나 큰 物議를 惹起한 바 있읍니다.

그 동안에 貴下의 깊은 關心과 調整, 그리고 큰 뒷받침을 베풀어 주심에 힘입어 兩當事者들의 圓滿한 妥協과 理解에 到達하여 惹起된 모든 問題들이 解消되었음을 이에 感謝드립니다.

當初 兩側이 合意한대로 約束된 補償金中에서 1次 支拂金이 지난 5月 31日 本道를 通해 入金되어 該當 漁民들에게 蹉跌없이 支給되도록 措置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本道에서는 이 補償金의 適切한 支給과 事後管理에 物議가 없도록 漁民指導에 臨하겠으니 貴下께서도 當該 漁民들이 앞으로 生業의 轉換과 더불어 새로운 希望을 갖도록 繼續 關心과 指導鞭撻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配慮와 支援에 感謝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시기를 빕니다.

1986년 6월 8일

致 辭

오늘 우리 고장 보이스카웃, 그리고 걸스카웃 會員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큰 잔치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립니다.

오늘의 큰 잔치에서 여러분은 지난 날 꾸준히 가꾸어 온 友情과 스카웃隊員으로서의 力量을 마음껏 자랑해 줄 것으로 期待합니다.

또 이와 같은 보람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南在斗 大會長님을 비롯하신 趙璇衡 걸스카웃 聯盟長님, 여러 先生님들, 그리고 學父母님들께도 感謝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男女 스카웃會員 여러분은 하루로 말하면 동트는 새벽녘이요 季節로 말하면 豊盛한 生命力을 가진 봄이며, 樹木으로 치면 이 6月을 뒤덮은 진초록의 수풀로서 무한한 꿈과 可能性의 源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未來는 꿈과 希望을 채울 수 있는 努力없이는 아무 것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認識해야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計劃, 人生에 對한 目標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꿈을 키워 나갈 때 스카웃隊員 여러분의 앞날은 밝고 確實해질 것입니다.

本人도 여러분과 같이 꿈많고 가슴부푼 어린 時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어린 時節이 오래 기다려 주지 않았다는 것이 本人의 經驗이었읍니다.

우리의 人生에 있어서 자라나는 幼兒期와 老年期, 그리고 努力한 만큼의 結實을 거두는 成年期를 빼고 난다면 가장 所重한 時期가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한창 工夫하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어린 靑少年期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 隊員으로서 그 理念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規律과 實踐으로써 몸을 練磨하는 것은 여러분의 未來를 開拓하는데 必要한 勇氣와 智慧를 갖추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個人이나 團體 그리고 地域社會나 國家的인 目標를 세우고 이를 成就해 나감에 있어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일은 없으며, 平素 꾸준한 努力과 訓練 속에서 모든 逆境을 이기고 하나씩의 조그만 成果를 쌓아 나가는 것이 重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先人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重要한 것은 한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라 말한 줄로 압니다.

오늘 男女 어린 스카웃隊員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훌륭한 隊員으로서 스스로를 가꾸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고장과 國家를 위해 꼭 必要한 人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무쪼록 즐겁고 有益한 잔치가 되길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새마을 指導者에게 보내는

1986년 6월 11일

書 翰

온 누리의 짙은 綠陰이 초여름을 손짓하는 이 때 貴下와 貴下의 마을에 幸運을 祈願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을의 開發과 地域社會의 繁榮을 위한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의 獻身的인 努力에 힘입어 우리가 으뜸忠南의 道政을 活氣차게 推進해 나갈 수 있음을 致賀드립니다.

더불어서 올 上半期 중의 福祉로운 農村建設을 위한 새마을가꾸기 事業이 순조롭게 推進될 수 있도록 熱과 誠을 다해 주신 勞苦에 대하여서도 慰勞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날 우리 社會의 어려운 狀況이나 世界 여러 나라의 保護貿易主義, 그리고 農畜産物 價格下落 등의 影響으로 어려운 狀況 속에서도 勤儉, 節約하는 生活氣風을 定着시키고 農漁村 所得增大를 위해 默默히 일해 오신 指導者 여러분의 透徹한 信念과 實踐이야말로 이 時代의 가장 값진 愛國이라고 봅니다.

不足한 事業費의 支援에도 온 國民의 參與와 和合을 誘導함으로써 새마을가꾸기 事業을 通해 都市와 農漁村을 알뜰하게 가꾸어 놓은 여러분의 犧牲과 奉仕는 먼 훗날 우리의 後孫들에게 感銘깊은 遺産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우리 모두가 合心하고 努力하면 어떠한 難關과 逆境도 克服할 수 있다는 이 時代의 값진 教訓이라는 事實입니다.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새마을 運動을 土臺로 하여 오는 9月의 아시아 競技大會와 88

서울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치를 수 있도록 道民을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스런 5千年 歷史와 燦爛한 傳統文化를 이 兩大올림픽에서 遺憾없이 보여 주는 것이 우리 世代의 義務요 課業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未來를 期約하는 2千年代의 偉大한 韓國, 先進祖國을 創造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웠던 지난 날을 거울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歷史的 課業이 蹉跌없이 實現될 수 있도록 새로운 覺悟와 決意로 秩序, 親切, 淸潔 運動 등 汎道民 손님맞이 새마을 運動을 活力있게 推進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의 半萬年 歷史以來 처음으로 主管하는 國際行事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國民이 하나의 意志로 뭉치도록 우리 모두가 賢明한 認識과 節制, 그리고 安定에 主力해야 할 때이며 指導者 여러분이 앞장서 이를 啓蒙하고 實踐할 때 큰 成果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國家發展의 原動力이 되어온 새마을 運動이 앞으로도 未來開拓의 善導運動으로 持續될 수 있도록 指導者 여러분이 主役이 되어 農漁村 所得構造 改善과 自律的인 營農示範에도 앞장서서 70年代의 貢獻과 成果를 繼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貯蓄과 消費節約의 生活價値觀을 기르는데 조금도 疎忽함이 없도록 하여 農家負債를 줄이고 우리의 얼이 깃든 傳統婚禮의 實踐雰圍氣가 빠른 時日內에 定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指導者들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指導者 여러분의 意志에 찬 努力과는 달리 社會一角에서 일고 있는 國民和合에 反한 일들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念慮되는 것은 여름 放學을 利用하여 내달부터 實施되는 大學生 夏期 放學期間에 意識化된 運動圈 學生들이 農漁村에 대한 奉仕活動을 憑藉하여 淳朴한 農漁村을 意識化하려는 점입니다.

가장 安定을 기해야 할 이 時點에서 總和와 安定을 沮害하는 一部 急進的인 傾向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들은 우리 고장에 이러한 社會不安要素가 發生하지 않

도록 恪別한 關心을 가져야 하겠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마을總和에 心血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이 보다 熱心히 勞力해 나간다면 우리의 새마을 運動은 주로 支援에 依存하던 過去의 次元을 넘어 自立, 自主, 自活의 民間主導를 다지게 될 것이며 새마을 運動이 더욱 活力을 갖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의 獻身的인 勞苦에 대하여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며 여러분의 家庭과 마을에 無窮한 榮光과 祝福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1986년 6월 13일

祝 辭

平素 尊敬하는 趙敬姬 藝總會長님을 비롯한 全國의 代表者 여러분!

本人은 먼저 오늘 우리 고장 大田에서 第3次 藝總 全國 代表者大會가 이처럼 盛況裡에 열리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300萬 道民과 더불어 歡迎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장 忠淸南道는 일찌기 先史時代부터 古代文化가 꽃을 피웠으며 特히 藝術的 感覺이 가장 뛰어났다고 評價되는 700年의 百濟文化가 燦爛히 그 빛을 發했던 곳입니다.

또한 忠節의 고장으로서 文鄕의 고장으로서 그 傳統과 脈絡을 꾸준히 이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나라의 文化, 藝術界를 代表하는 여러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文化, 藝術의 發展方向을 討議하고 나아가 地方化 時代에 발맞춘 地方文化의 育成暢達方案을 論議하는 모임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全國의 藝總 代表者 여러분!

文化란 곧 民族의 生命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또 얼마나 훌륭한 文化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民族의 發展 可能性이 左右 된다고도 합니다.

오늘날 民族文化의 暢達 傳統文化의 繼承이 그 어느때 보다도 强調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文化의 價値에 대한 認識이 높아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이와 關聯하여 本人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地方文化 育成의 必要性입니다.

文化의 中央集權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우리 나라의 文化藝術이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首都 서울에 偏重되어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만 眞情한 文化暢達을 爲해서는 豊富하고 健全한 地方文化의 뿌리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文化藝術局長께서도 參席하고 계십니다만 政府 次元에서도 이러한 趣旨에서 地方文化의 育成을 爲해 恪別한 關心과 함께 많은 支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本人 역시도 나름대로는 道政方針의 하나로서 얼이 깃든 文藝暢達을 내 걸고 地方文化의 活性化를 爲해 努力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동안 沈滯를 면하지 못해온 것이 事實인 地方文化의 育成暢達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 입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可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政府에서는 勿論이겠읍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 參席하신 代表者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文化, 藝術 人士들께서 보다 透徹한 使命意識을 갖고 獻身的인 努力을 기울여 주셔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大會를 祝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大會를 通해 全國의 文化, 藝術人士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地方文化의 暢達, 나아가 우리나라 文藝中興의 發展的인 契機가 造成되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第17次 忠南地區 J·C會員大會

1986년 6월 14일

祝 辭

親愛하는 忠南의 J·C會員 여러분!

유유히 흐르는 錦江의 푸른 물이 굽어 보이는 이곳 新灘津에서 第17次 忠南地區 J·C會員 大會가 이처럼 盛況을 이루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知性과 友情, 그리고 젊은 氣慨를 바탕으로 한 J. C活動은 會員 各者가 平素 갈고 닦은 修養과 價値觀의 定立으로 무엇이 참된 삶인가를 發見하고 地域社會 發展에 寄與해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本人은 잘 알고 있읍니다.

한 나라의 將來는 그 나라의 젊은 世代들이 어떠한 健全한 思考와 意志를 가지고 職場과 地域社會에 奉仕하고 貢獻하느냐에 따라 점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여러분과 같은 覇氣에 充滿된 J. C會員들이 있기에 光復 40餘年만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成長과 發展을 이룩하여 왔읍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世界 先進國들과 同伴者關係로서 對等한 位置로 浮上하여 88 서울 올림픽을 誘置하였고 86 아시안 게임은 不過 3個月 앞으로 迫頭하였읍니다.

그러나 近間에 이르러 學業에 熱重하여야 할 一部 學生들이 安保的 現實을 外面한 채 國家의 紀綱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이들을 指導하고 善導하여야 할 一部 既成世代들이 無責任한 行動을 恣行하고 있음은 여러분과 더불어 甚히 遺感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親愛하는 忠南地區 J. C會員 여러분!

우리 忠南은 나라가 危機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받친 烈士들을 많이 輩出한 忠節의 고장입니다.

J·C會員 여러분들은 愛國先烈들의 後裔로서 會員相互間에 더욱 더 友誼를 다지고 知性을 硏磨하여 忠南靑少年會議所의 發展에 寄與하므로써 이것이 바로 國家發展의 未來를 創造하는 터전으로 直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會員 여러분들의 家庭에 榮光이 있기를 祈願하면서 오늘의 大會를 다시한번 祝賀 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6월 17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女性指導者 여러분이 平素 尊敬하는 李漢彬 敎授님, 鄭五淳 女性開發院 副院長님과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세번째의 女性大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激勵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고장 女性團體協議會가 비록 그 出發은 日淺하지만 女性 스스로의 發展과 役割增大, 그리고 社會寄與를 위한 갖가지 活動은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도 우리 女性들이 여러 分野에서 큰 貢獻을 해 왔지마는 오늘처럼 體制를 갖추고 能率을 指向하게 된 것은 여러분 女性團體協議會의 發展이 큰 契機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實際로 오늘의 女性大會를 主管하면서 多樣하고 綜合的인 事業을 갖고 있는 女性團體協議會에 對하여 우리 道政이나 道民들이 많은 期待를 갖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이와 같은 期待와 役割에 比例하여 女性指導者 여러분의 責任 또한 크고 所重함은 當然하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女性分野의 事業이란 흔히 論議되고 있는 男女平等이나 機會均等, 그리고 制限없는 能力의 發揮 등 女性의 地位確保라는 觀點도 있지만 그보다는 旣存 役割의 擴大나 새로운 寄與의 再發見이 더 所重한 時點이 아닌가 합니다.

太初에 人間이 創造되면서 男女의 區別이 있으며 東西古今을 通해서도 男性과 女性의 役割이 서로의 업심이나 不和의 關係가 아닌 相互補完과 調和에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女性界의 發展은 男子들이 하는 일을 代身하고 男子들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의 問題이라기 보다는 男性들과의 共存과 調和에서 더 큰 役割과 보람을 찾는 것이 우리 女性들의 課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必要性은 家庭이나 社會生活,그리고 高度로 分化되고 專門化되는 產業社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집니다.

例를 든다면 子女의 家庭教育에 있어서 아버지의 訓戒보다는 多情한 어머니의 타이름이 더 効果的이고, 갖가지 社會奉仕도 男性보다는 따뜻한 우리 女性의 손길이 더 좋을 때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產業의 一線에서도 纖細한 女性의 손길이 더 必要한 分野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 오늘의 趨勢라고 봅니다.

이러한 現實과 必要性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그 能力을 키워 나갈 때 우리 女性의 社會的인 役割이나 寄與, 그리고 地位도 自然的으로 커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特히 모든 社會生活의 根本이 되는 家庭이 우리 女性들에 依해서 거의 營爲된다고 볼 때 우리들의 意識이나 價値觀에 미치는 여러분 女性들의 影響力으로 하여 이 社會를 左右한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말씀 傾聽하시고 이러한 觀點에서도 우리 女性活動이 考慮되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第67回 全國 體育大會 選手團 結團式

1986년 6월 18일

致 辭

오늘 내고장의 名譽와 希望을 짊어지고 第47回 全國體典에 出戰하는 選手와 任員 여러분을 300萬 道民과 더불어 뜨거운 마음으로 歡送하는 바입니다.

이제 出戰의 壯途에 오르기까지 그 동안 刻苦의 努力을 기울여주신 選手와 指導者 여러분의 信念과 自信感을 對하고 보니 忠南體育의 傳統과 名譽를 確認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忠南選手團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善戰과 奮鬪를 應援하고 지켜보는 300萬 道民이 있으므로 마음놓고 技倆과 팀웍을 發揮해 주실 것으로 期待합니다.

금번 全國體典은 例年과 달리 올 가을에 열리는 아시아 競技大會 關係로 앞당겨 開催케 되어 보다 長期的인 訓練을 實施하지 못한 아쉬운 感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選手 여러분은 짧은 期間 동안이지만 이제까지 땀흘려 練磨한 競技力을 遺憾없이 發揮해 준다면 좋은 成績을 거둘 것으로 確信합니다.

그리하여 選手 여러분에게는 個人과 所屬팀의 勝利를, 그리고 300萬 道民에게는 기쁨과 自負와 榮光을 듬뿍 안겨 주도록 凱旋하여 줄 것을 바라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農事에 比較해 본다면 오늘까지 여러분이 흘린 땀과 努力이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씨뿌리고 가꾼 農夫의 精誠이었다면 이번 全國體典은 最終的인 收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收穫을 마친 후 떨어진 낱알 하나까지도 줍는 農夫의 마음으로 끝까지 最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善戰과 健鬪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牛乳消費 勸奬을 위한

1986년 6월 18일

公 翰

초 여름의 生命力이 大自然을 가득 채운 이 때 貴下와 貴下의 家庭에, 그리고 事業體에 幸運과 多慶을 祈願합니다.

이제 6月도 中旬을 넘어서 올 한해도 前半期를 마무리해야 될 時點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의 道政도 貴下의 聲援과 道民 모두의 參與를 바탕으로 半年 동안 애써 가꾸어 온 成果를 點檢해 보면서 後半期의 보다 알찬 成長을 貴下와 더불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날 農村問題와 農村施策이 크게 擡頭되고 있는 가운데 特히 主穀의 需給政策도 一大 轉換期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實際로 耕地面積의 限界性으로 볼 때 穀物爲主의 우리 傳統的인 食生活 習慣은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으며 生活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食生活의 多樣化가 切實한 課題이며, 이러한 必要性에 따른 食事文化의 變化는 이미 우리가 皮膚로 느낄 수 있는 水準에까지 이르렀읍니다.

이처럼 多樣한 食事文化의 變化 中에서도 牛乳를 中心으로한 變化가 가장 두드러진 便으로써 이는 政府의 畜産奬勵가 크게 뒷받침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畜産을 하나의 副業으로 하던 農家들이 漸次 主業으로 바꾸어서 農村所得의 큰 比重을 차지하기에 이르렀 읍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지난 5年間 우리의 젖소 飼育과 牛乳 生産은 200% 以

上 늘었으나 牛乳 消費量은 160 %에 그쳐 相對的으로 牛乳 加工業體와 畜産農家가 다같이 큰 難關에 逢着하고 있으며, 特히 畜産農家의 안타까움은 可히 걱정을 넘어서는 程度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政府와 關係業界, 畜産農家가 다함께 努力하고 있지만 根本的으로는 우리들의 牛乳消費促進을 通한 食生活의 改善이 열쇠라고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貴下께서는 이 점을 깊이 認識하시여 우리의 先進社會와 「으뜸忠南」의 成就가 食生活 改善을 通해서도 큰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 積極的인 協調와 啓蒙을 당부드립니다.

貴下의 關心과 聲援을 거듭 期待합니다.

市長, 郡守, 區廳長, 邑·面·洞長에게 보내는

1986년 6월 19일

書 翰

親愛하는 市長, 郡守, 區廳長 및 邑·面·洞長 여러분!

盛夏의 門턱에서 地域住民의 安寧과 福祉水準 向上을 爲해 精進하는 貴職의 勞苦에 對하여 衷心으로 致賀와 激勵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 地域社會는 貴職의 卓越한 指導力과 傘下 公務員들의 獻身的인 努力에 힘입어 이제는 우리 忠南이 國家發展의 中核地域이 되고 있음을 우리 300萬 道民의 자랑이라고 本人은 생각하고 있읍니니다.

지금 우리 社會는 數次에 걸친 經濟社會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世界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만큼 놀라웁게 發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 先進國들이 200年 以上이나 걸려 成就했던 結果를 不過 20餘年만에 이루자니 우리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많은 變化와 速度感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社會變動過程에서 우리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國民의 慾求가 從來와는 달리 매우 多樣해지고 意識水準 또한 높아져서 政府에 바라는 期待의 量과 質, 卽 새로운 行政需要가 날로 增加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이제는 物質的인 行政서비스뿐만 아니라 精神的인 行政서비스에 對한 期待感도 滿足시켜 주어야 할 時點에 이르렀읍니다.

親愛하는 一線 機關長 여러분!

이제 우리 行政은 住民들의 이와 같은 期待水準에 맞추어 能率과 效率性은 勿論 民

主性까지도 아울러 充足시켜 주어야 될 行政의 一大轉換期를 맞고 있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時代的인 흐름 앞에서 우리 公務員들은 地域內에서 發生되는 모든 問題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冷徹하며 確固한 地方行政人의 姿勢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줄 압니다.

特히 요즘 强調되고 있는 民願奉仕行政의 水準提高問題는 이러한 社會與件의 變動과 對應이라는 脈絡에서 깊이 認識하여 對民行政에 最優先의 努力을 기울여 줄 것을 强調하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民願關係公務員은 透徹한 使命感을 가지고 民心의 所在를 明確히 把握하여 住民의 不便과 不滿要因을 完全 解消하도록 親切, 迅速, 公正한 姿勢로 對民奉仕에 臨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民願關係公務員은 우리 "行政의 얼굴"이며 民願奉仕室은 "民·官相互 信賴의 廣場"임을 認識하여 成熟한 公務員像 定立에 盡力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民願室이 明朗한 環境을 維持할 수 있도록 民願人 待機施設을 民願人 爲主로 改善하여 民願人의 不便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願人이 즐거운 마음으로 便安히 기다리며 民願擔當公務員과 隔意없는 對話가 可能할 때, 民·官의 信賴 雰圍氣는 저절로 創出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째, 民願을 擔當하고 있는 公務員들의 士氣를 振作시켜 주어야 되겠읍니다.

反復的인 事務를 寧日없이 親切, 迅速, 公正하게 執行해야 하는 이들을 慰勞하고 激勵하는 것은 여러분 指揮官의 基本的인 姿勢라고 생각합니다.

昇進 機會도 賦與하고 循環補職制를 運營하며 手當의 支給 등 士氣가 오르도록 配慮한다면 民願奉仕의 水準은 날로 向上될 것입니다.

끝으로 國政의 核心的 機能을 擔當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 地域과 한 時代를 責任지는 國政의 分擔者로서 先進祖國 創造의 中樞的 位置에 서 있다는 點을 强調하는 바입니다.

激動하는 時代를 洞察하는 識見을 갖고 住民을 이끌어 주는 信望의 支柱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住民의 公僕으로서 끝까지 奉仕하고, 信望과 節制가 있어야 하고, 옳은

일에는 果敢한 指導者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로써 우리는 國政의 地方的 具現에 臨하는 斬新한 公職者로서 歷史에 남도록 倍前의 努力을 다해 나갈 것을 貴職과 더불어 다짐합니다.

貴職과 傘下 公務員들의 幸運과 健康을 빕니다.

大屯山地區 警察戰勝地 勝戰塔 除幕式

1986년 6월 23일

致 辭

오늘 우리 警察史에 길이 빛나는 大屯山地區의 戰勝地에 이처럼 우뚝한 戰勝塔을 세우고 除幕式을 갖게 된 것을 정말 感銘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警察이 6·25를 前後한 共產軍과의 戰鬪에서 赫赫한 戰勝을 세웠음은 歷史가 證明해 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큰 自負와 矜持를 갖고 있는 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年前 北韓 共產軍의 奇襲南侵으로 同族相殘의 6·25는 3年 동안의 悲劇을 겪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곳 大屯山地區의 共匪作戰은 休戰이 成立된 後에도 3年間이나 繼續되어 實로 우리의 戰史에 보기 드문 6年의 激戰을 치룬 곳이 바로 우리가 戰勝塔을 세우는 이땅이라고 하겠읍니다.

그 當時 共匪의 蠢動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읍니다만 멀리 大田이나 公州까지 出沒한 共產分子들의 蠻行으로 因한 民間의 被害와 治安上의 問題는 實로 想像을 넘는 것이었음을 이 戰勝塔은 말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6.25 勃發 36周年을 며칠 앞두고 이 뜻 깊은 戰勝地를 가꾸는 것은 지난날 우리 先輩들의 高貴한 犧牲과 愛國忠節을 길이 이어받고자 함일 것입니다.

지난 날 우리의 先輩들이 萬難을 克服하고 共產分子들을 分碎한 것이 큰 任務였다면 오늘의 國家警察은 國運의 展開와 先進化에 緊要한 社會安定과 國家安保에 寄與함이 課題인줄 압니다.

더우기나 오늘의 發展過程에서 自己滿足을 性急하게 主張하고 鬪爭的인 資勢로 나

오는 社會의 一部 急進主義者들이나 左傾勢力을 잘 醇化하고 先導하는 것이 우리 民主警察의 所重한 役割이 아닌 가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깊은 理解와 說得으로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바로 잡아주고 「先進祖國」 創造의 隊列에 同參토록 誘導함이 우리 警察의 큰 任務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時代나 國家를 莫論하고 順調로운 國家發展과 社會安定에 反하는 不純者들은 있어 왔으며 다만 이들을 어떻게 醇化하였는가 하는 것이 먼 훗날 治安에 대한 評價와 價値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누구보다도 가장 苦生하고 犧牲的인 奉仕에 臨하는 우리 警察家族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本人은 깊은 理解와 慰勞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激務中에도 이 勝戰遺蹟地를 가꾸어 주신 朱炳德 4次長, 李種國 忠南道警察局長을 비롯한 警察家族 여러분, 治安本部, 그리고 各界의 聲援에 대하여서도 致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6월 24일

致 辭

41個의 星霜을 몸담아서 道政을 遂行해 주신 최 철규 係長과 惜別의 情을 나누게 되었읍니다.

崔 係長의 停年 退任을 즈음해서 優先 크게 부럽게 생각을 하고 또 致賀할게 있읍니다.

經歷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崔 係長님은 大田 出身으로서 忠南에서만 41年間이나 公職에 奉仕하고 떠나게 되었읍니다.

勿論 사람에 따라서나 보는 觀點에 따라서 다르게 評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自己 고장에서 태어나서 自己 고장 發展을 위해서 41年間을 오직 公職에 奉仕를 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比較할 수 없는 가장 큰 榮光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제 境遇만 하더라도 故鄕에 머무른 것은 16～17年 밖에 되지 않고 그 外에는 모두 客地生活이었읍니다.

내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왔읍니다만 그 동안 故鄕을 위한 奉職은 거의 해 보지 못했읍니다.

學校를 다니다가 故鄕을 떠난 以後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故鄕을 가보지 못했읍니다.

勿論 제 境遇는 三八線以北에 故鄕을 둔 特殊한 境遇이지만 故鄕을 위해서 奉職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슬프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南쪽에 故鄕을 둔 분들 께서도 客地 生活을 하는 분이 大部分일 것입니다.

그런 것과 比較해 볼 때 崔 係長님께서는 그야말로 故鄕에서 태어나서 故鄕에서 工夫를 마치고 오직 이 地域의 發展을 위해서 勞苦를 아끼지 않으셨읍니다.

이것은 정말 값어치 있고 榮光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光復과 더불어 始作된 崔 係長의 公職은 政府樹立, 6.25 同族相殘,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逆境 등 한 時代의 逆境을 證言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特히 來日이 바로 同族相殘 6.25가 난지 36周年이 되는 날입니다.

그 하루를 앞두고 公職을 떠나시는 崔 係長께서는 더욱 더 感懷가 새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經歷에서 紹介한 것과 마찬가지로 崔 係長께서는 大德郡을 筆頭로 公職이 始作된 以來 一線 邑, 面, 市, 郡, 道廳 구석 구석 안 맡아본 分野가 없을 程度로 다 涉獵을 했고, 우리 崔 係長의 손 끝과 발 끝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겠읍니다.

오늘 우리 忠南의 發展이 있다면 그 發展에 核心的인 큰 役割을 해 준 것이 바로 崔 係長께서 한 役割이었다고 생각됩니다.

崔 係長에 대해서 여러 가지 長點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中에서도 가장 代表的으로 崔 係長을 評價한다면 緻密하고 完璧한 企劃能力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企劃分野에 큰 貢獻을 했고 同僚들이 崔 係長의 企劃能力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처지입니다.

公職을 떠나시더라도 그 人格 그대로 해서 앞으로의 남은 人生을 公職에서 企劃을 하듯이 本人과 家族의 앞으로의 남은 餘生에 대한 企劃을 잘 하셔서 그야말로 人生을 잘 마무리지실 것을 나는 確信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停年 退任時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이 公職을 始作해서 아무런 瑕疵없이 停年까지 맞이한다는 것은 公職人으로서는 가장 幸福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61歲의 年齡 停年을 마치시고 公職을 떠나는 것은 그야말로 人生의 結實을 잘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外貌로 봐서 우리 崔 係長은 40代 後半이나 50代 初半으로 밖에 안 보일 程度로 젊고 健康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崔 係長 自身이 健康管理도 잘 하셨겠지마는 옆에 계신 婦人께서 公職人 男便을 平素에 걱정을 끼치지 않고 잘 돌봐 주시고 內助해 주신 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崔係長같은 젊은 분이 年齡 停年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 더 奉職을 해도 되겠다 싶은 아쉬운 感이 듭니다.

41生間 일하시느라면 괴로우셨던 일, 보람있었던 일 등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忘却의 動物이라,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分明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意味에서건 自己 人生을 채찍질 하는 意味에서건 잊어서 안될 것은 반드시 記憶을 해두시는 것이 必要한 줄로 압니다.

앞으로 公職을 끝내고 나머지 人生을 살아가는데 崔 係長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豊富한 經驗, 經綸, 그리고 人生의 歷程, 이런 것을 土臺로 아주 健康하게 家族과 더불어서 幸福하게 餘生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公職이 끝나시더라도 자주 道廳에 들려주셔서 後輩 여러분에게 本人이 41年 동안에 얻은 經驗과 經綸을 잘 引繼를 해서 더욱 더 道政發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付託드립니다.

다시 한번 崔 係長 師母님, 朴女史께 그 동안의 內助에 대해서 致賀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家庭의 幸福과 그리고 幸運이 함께하시기를 祈願하면서 惜別의 말로 代身합니다.

感謝합니다.

反共 愛國志士 追慕塔 竣工式

1986년 6월 25일

追 念 辭

오늘 우리는 꿈에도 잊지 못할 이 아픈 歷史의 現場에 모여 다시는 지난 날의 그 不幸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歷史를 通해서 同族相殘이라는 가장 큰 悲劇을 안겨준 6.25 動亂時 2千餘 愛國志士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北韓 共產黨에 依하여 바로 이 追慕塔 아래서 悽慘한 最後를 마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自由와 民主,그리고 祖國과 子孫을 爲하여 高貴한 生命과, 妥協을 拒否하고 숨져간 英靈들 앞에 다시금 300萬 道民과 더불어 삼가 옷깃을 여미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道政이나 道民이 해야 할 이 崇高한 反共愛國志士 追慕塔의 建立을 앞서 推進하신 朴絃兌 韓國放送公社 社長님을 비롯하신 社友 여러분에게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 人間들은 살아 가면서 그것이 기쁨이거나 아픔이거나, 지난 일을 잊어가며 사는 것이 自然스러운 理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6·25라는 뼈아픈 歷史의 體驗이요, 오늘까지도 繼續되는 우리의 苦痛이며 그 後遺症이라 하겠읍니다.

6·25의 戰爭을 치룬지도 이제 36年, 한 世代를 넘었으나 그로 因한 우리 民族과 國家의 苦痛은 날로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悽慘한 戰爭을 暫時 멈추고 戰爭도 平和도 아닌 休戰狀態가 33年이나 繼續되는 동안 우리는 마치 平和를 얻은 것처럼 祖國의 分斷現實에 免疫이 된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北韓 共產黨은 그 동안 꾸준히 再侵의 機會를 노려 왔으며 수 많은 挑發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生生하게 目擊하였읍니다.

지난 날 1.21事態나 蔚珍, 三陟 間諜浸透와 "랭군"蠻行事件 등이 바로 그것이며 우리는 이 挑發 앞에서 이른바 毛澤東의 게릴라 戰術인 談談打打, 打打談談이라는 戰法과 凶計를 알 수 있었읍니다.

요 近者 여러 經路의 南北對話에서 저들이 마지못해 應한 事實은 眞情한 對話나 平和가 目的이 아니라 表裏不同의 속셈이 있음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塔을 세우고 님들의 冥福을 비는 마음의 姿勢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나 戰爭의 慘禍와 共產黨의 奸惡함을 모르는 戰後世代들의 成長은 우리의 安保教育에 크나큰 覺醒을 要請한다고 하겠읍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2世들은 空襲의 두려움이나 戰禍로 因한 죽음의 끔찍함을 實感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아무리 生生한 教育이라도 實相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T·V畵面에 비치는 休戰線이 浪漫的으로 느껴지고 戰爭記錄映畵가 마치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反共戰線은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戰後世代 一部 젊은이들의 急進思想이나 左傾에 기우는 듯한 社會相을 볼 때 우리들 旣成世代의 젊은이들에 對한 期待가 큰 衝擊을 받고 있음도 事實입니다.

오늘 記憶도 쓰라린 傷痕이 되 살아나는 이 反共의 現場에서 우리는 이 못잊을 追慕塔을 세우면서 다시금 우리의 安保와 死生觀을 뚜렷이 하고 戰後世代에 대한 反共教育의 奮發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가신님들의 冥福을 빌면서 그 遺家族들에게 神의 加護를 빕니다.

6.25 36周年 反共 및 安保 蹶起大會

1986년 6월 25일

激 勵 辭

오늘 우리의 腦裡에 생생한 6·25 動亂 36 周年에 즈음하여 지난 날 歷戰의 勇士들과 反共으로 뭉친 道民들이 滅共의 信念을 가다듬게 된 것을 本人은 眞心으로 激勵드리는 바입니다.

더우기나 이 36年의 歲月이란 우리가 日帝로부터 極甚한 試練을 당한 것과 같은 期間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錯雜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民族의 支配를 받던 歲月이 祖國을 分斷시키는 동안 果然 우리는 國土의 統一과 民族의 再結合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努力을 기울이고, 지금은 어떠한 希望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反省하고 가늠해 보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우리 祖國의 뻐아픈 3·8線이 굳어진지 36年, 끊어진 철길과 激戰地에 흩어진 鐵帽에 녹이 슬었지만 北韓 共産黨의 南侵野慾은 서슬이 푸르게 우리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現實 앞에 우리가 서 있읍니다.

비록 우리가 갖은 難關을 헤치면서 가난과 弱者의 설움을 씻고 自主, 自立, 繁榮의 土臺를 마련했지만 아직은 우리 自由大韓을 共産化하려는 北韓 共産集團의 무릎을 꿇리기에는 더 많은 努力과 團結, 그리고 時間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處身이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들 北韓共産黨의 奸惡한 策動을 無力化시키거나 아니면 저들의 奸計에 빠질 수도 있는 時點이 바로 오늘 우리의 現實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3月에 우리 나라의 國防責任者가 北韓의 軍事動向을 낱낱히 밝혔기에 이 자리에서 本人이 다시 言及할 必要性이 없는 줄 압니다.

다만 저들의 動向에 우리가 觸覺을 곤두세우는 것은 昨年 여름 以後 갑자기 攻擊用 最新 軍事裝備를 倍加시키고 그들 軍事力의 大部分을 休戰線 가까이에 集結시키는 속셈이라 하겠읍니다.

或者는 저들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世界의 輿論 앞에 감히 武力南侵을 企圖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世界에서도 가장 酷毒하고 물 불가리지 않기로 이름난 北韓共產黨이 世界의 輿論이나 올림픽을 尊重하겠는가를 考慮할 때 우리는 한치의 讓步와 放心이 禁物임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이 時點에서 우리가 조그만 虛點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共產侵略의 口實을 주는 것이기에 어떠한 社會混亂 企圖나 左傾容共勢力도 粉碎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歷戰의 勇士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우리의 世上에는 세 가지의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人間의 外貌를 챙겨 볼 수 있는 壁에 걸린 거울이요, 둘째로는 한 國家나 民族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 볼 수 있는 歷史의 거울이며, 세째로는 人間들의 現實診斷에서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自己測定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歷史의 거울이나 現實診斷, 두개의 거울을 通해서도 결코 安逸한 삶이나 自家撞着에 빠진다면 6·25와 같은 民族의 不幸은 또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戰後 100달러 未滿의 가난에서 出發하여 36年의 몸부림끝에 얻은 先進祖國의 부푼 希望이 霧散되지 않도록 오늘 在鄕軍人會 여러분, 그리고 300萬 道民 여러분!

우리 다같이 反共, 和合, 團結하여 平和統一의 길로 邁進해 나갑시다.

1986년 6월 25일

致 辭

오늘 6·25의 民族戰亂에 直接 參與하신 勇士 여러분과의 午餐 정말 뜻깊습니다.

本人은 아침에 이곳 舊大田矯導所 자리에 세워진 反共愛國人士 追慕塔 除莫式에 參席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조금 前에 여러분과 더불어 反共 및 保安蹶起大會를 갖고 다시 參戰勇士 여러분과 마주하였읍니다.

오늘 하루는 그야말로 反共과 勝共의 날로 意志沖天한 날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가 아닌 삼백예순닷새 共產軍을 무찌르고 祖國의 平和統一을 다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왜냐 하면 저 北韓 共產集團은 지금 이 時刻에도 武力赤化 統一과 南侵準備를 위하여 血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武力增强이나 軍事的 挑發은 敵과 對峙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 世界의 戰略家들이 걱정하고 있는 터입니다.

參戰勇士 여러분!

여러분은 共產黨과 共產軍의 惡辣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며칠 前 北韓에서 脫出한 申相玉, 崔銀姬 夫婦가 美國에서의 記者會見을 한 內容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金日成이나 金正日은 南侵企圖를 旣定事實化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오늘날 一部社會의 急進思想이나 左傾化를 우리가 그대로 放置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共產黨을 直接 體驗하지 못한 世代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共產黨의 實體를./

우리 參戰勇士들은 오늘의 어려운 時點을 認識하여 내고장 安保의 役軍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6월 26일

大 會 辭

親愛하는 消防王 選拔大會 出戰選手 여러분!

그리고 8千餘 道內消防公務員과 義勇消防隊員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健康하고 늠늠한 모습으로 道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려는 굳은 意志를 보는 本人의 마음 자못 든든한 바 있읍니다.

平素 義勇消防隊員, 그리고 消防公務員 여러분이 火災의 豫防活動과 鎭壓訓練을 通하여 道民에게는 安定과 信賴를, 또한 道政에는 活氣와 힘찬 促進力을 불어주고 있음은 우리 消防人들의 自負와 矜持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寄與와 功勞는 끈기와 忠節의 뿌리를 깊이 간직한 우리의 道民精神은 지금 300萬 道民이 힘써 成就해 나가고 있는 으뜸忠南 道政의 原動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傳統과 道民의 聲援이 모아진 底力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고장의 消防人들이 全國消防王 選拔大會에서 이미 二連覇의 榮光을 차지한 것은 우리 道政史에도 길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忠南消防人의 이같은 能力과 名譽는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平素 生業에 從事하면서도 뜨거운 奉仕와 獻身의 鄕土愛로 災難豫防과 火災의 鎭火活動을 펴오신 여러분의 꾸준한 努力, 그리고 總和團結에서 얻어진 값진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專門的인 技術과 高度로 分化된 產業社會의 組織 속에서 한 一員으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分野에 參與하고 寄與할 수는 없으며 다만 自已가 奉仕하는 分野에 最善을 다함으로써 自已發展을 꾀하고 내 고장의 發展에 功獻할 수 있을 것입니다.

特히 86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兩大會를 눈 앞에 두고 우리 消防人들이 擔當해야 할 課題는 그 어느 分野에 못지않게 重要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認識해야 합니다.

이러한 要請 앞에서 全國消防王 選拔大會에 出戰할 가장 재빠르고 熟練된 選手를 뽑는 豫選大會가 되겠읍니다만은 昨年의 水準으로 볼 때 이번 忠南의 豫選大會는 全國決選의 水準과 마찬가지의 競技라고 本人은 自負합니다.

오늘의 豫選大會가 있기까지는 여러 地域의 義勇消防隊員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고 이 자리에 出戰하였다는 것을 本人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道政이나 各市郡의 財政이 좀더 餘裕가 생기고 形便이 넉넉하다면 여러분의 活動을 보다더 뒷받침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1年에 한번씩 있는 우리 고장의 消防人들의 和合과 團結의 廣場이 되는 이 行事가 보다 秩序있고 水準높게 이루어져서 올해에도 全國消防王을 우리 道에서 차지할 수 있게 努力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確信하면서 여러분의 善戰 奮鬪와 幸運을 빕니다.

感謝합니다.

第67回 全國 體育大會 參加選手團 道民 歡迎大會

1986년 6월 26일

歡 迎 辭

오늘 體育 忠南의 底力을 誇示하고 凱旋한 選手와 任員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정말 잘 싸우고 잘 應援해 주셨읍니다.

우리의 希望과 期待를 한몸에 안고 出戰한 第67回 全國體典에 出戰한 우리 選手團은 끝까지 技倆과 鬪志를 發揮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道民들은 멀리 競技場을 찾아서 우리 選手들이 遺憾없이 싸울 수 있도록 뜨거운 聲援으로 勇氣를 북돋아 주셨읍니다.

우리는 體典을 通해서 끈기와 底力, 그리고 和合과 團結의 傳統的인 道民精神을 十分 發揮함으로써 道民의 能力을 가늠해 보고 더 큰 發展과 成長의 土臺를 마련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그 結果를 말한다면 우리가 綜合 5位에 그쳤지마는 이것이 아시안세임에 對備, 다른 市·道보다도 많은 國家代表를 除外하고 出戰한 우리로서는 매우 좋은 成績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驚異의 8連覇 偉業을 이룩한 陸上, 綜合優勝을 차지한 近代五種이나 軟式庭球 등 모두 잘 싸워 주셨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좋은 成績에 自慢해서도 안되고 多少 不振한 成績에 對하여 失望할 必要도 없읍니다.

오직 우리에겐 奮發과 精進으로 우리 "으뜸忠南"의 名譽와 道民의 力量을 永遠히 샘 솟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選手와 任員 여러분!

수고 많았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凱旋을 歡迎합니다.

感謝합니다.

7月 月例朝會

1986년 7월 1일

訓 示

今年도 折半이 지나가고 後半期가 오늘부터 始作이 됩니다.

上半期에는 아주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우리 道 傘下 全職員이 合心努力해서 모든 分野의 業務를 成功的으로 遂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成果를 몇 가지 例를 들면 모내기가 例年보다 3日을 앞당겨서 6月 15日에 全部 끝낼 수가 있었으며, 防疫事業, 災害對策도 例年과 못지않게 順調롭게 進行이 되고 있고 86, 88 큰 行事를 앞두고 우리가 推進하고 있는 全國土 公園化 事業도 約 96%가 現在 進行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서 아시아 競技大會 準備도 잘 進行이 되고 있고, 이렇게 모든 部門의 事業이 잘 進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忠南地域이 다른 地域보다도 安定을 維持하고 있는데 基礎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年에 治安需要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警察 公務員들 特히 苦生을 많이 해 주어서 우리 地域의 安定이 잘 維持된 點이 자리를 빌어서 勞苦를 致賀합니다.

今年 折半이 지났기 때문에 上半期 6個月을 國家的으로나 地方的으로 몇 가지 돌아보면 우선 國家的으로는 大統領閣下께서 史上 처음 유럽 巡訪을 하셨읍니다.

4個國 巡訪을 하셨는데 우리 韓國의 安保現況을 正確하게 認識을 시키고,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成功的 開催를 위한 支援, 經濟協力 增進, 文化交流의 擴大 등을 協議하시고 무엇보다 從前에 유럽 國民들이 잘못 理解하고 있던 點을 이번에 大統領

閣下께서 뚝바로 認識을 시켜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갖게 하는 外交的인 成果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外國의 國家元首들도 우리 나라를 많이 訪問했읍니다.

英國의 대처 首相, 그리고 카나다의 멀루니 首相, 中央 아프리카의 콜링바 大統領 싱가포르의 이광요 首相 등이 우리 나라를 訪問해서 相互 關心事를 協議했다는 것은 우리의 國際的인 地位가 그만큼 向上이 됐다는 것을 立證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經濟面을 보더라도 今年에 貿易與件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當初에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기름값이 떨어지고 엔貨가 올라가고 딸라값이 떨어지는 이른바 3低時代가 와서 國際的 經濟與件이 好轉이 됐고,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의 經濟成長 速度가 宏壯히 加速度가 됐읍니다.

輸出만 하더라도 今年度 目標 330億$보다 5億$이 超過達成될 것으로 展望이 되며, 아울러서 6月末 現在 輸出實績은 昨年 同期對比 22.5%가 增加했고, 物價는 繼續的으로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今年度 經濟成長이 昨年度에는 5%밖에 達成을 못했는데 當初 7% 成長 目標를 세웠지만 훨씬 超過한 8%乃至 9%成長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展望이 되고 있읍니다.

農事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國際 經濟活動도 活發해서 우리 나라의 모든 發展이 그 어느해 보다도 着實하게 또 成功的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改憲問題를 가지고 與野間에 相當히 경색된 이런 분위기였지만 大統領閣下께서 4月 30日 各 政黨 代表들을 全部 招致하시고 任期中에 改憲을 하시겠다는 意思를 發表하심으로써 改憲政局이 院內로 收斂하는 決定的인 契機가 되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며칠전에 改憲特別委員會가 與野 萬場一致로 構成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成功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與野間에 對話의 廣場이 마련이 됐고, 또 國民의 意思를 收劍하는 契機가 됐다는데 모든 國民이 安堵를 하고 期待를 거는 분위기가 造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忠淸南道의 境遇는 今年初에 大統領閣下께서 年頭巡廻를 하셨고, 지난 6月 18日에 大德硏究團地 안에 있는 科學技術大學을 巡視하신 바 있읍니다.

大田을 中心으로 한 여러 가지 中部圈 開發에 대해서 깊은 關心과 鼓舞的인 指針을 주신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地域開發面에 있어서는 公州, 大川, 溫陽 3個市가 今年 1月 1日字로 昇格이 됐고, 大田市의 都市再整備 計劃이 지난 5月 30日에 確定이 되어서 文字 그대로 中核圈 據點 都市 開發이 이제 活氣있게 推進이 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獨立記念館이 8月 15日 開館을 앞두고 순조롭게 進行이 되고 있고, 大德硏究團地內에 科學技術大學이 今年度에 學生을 募集함으로써 文字 그대로 우리 忠南이 科學의 本産地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6月 30日 開通이 된 大田~全州間 高速道路 4車線도 이제 擴張工事가 마무리가 돼서 그마만큼 交通疏通이 圓滑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힘을 합쳐서 努力하고 있는 우리 으뜸 忠南은 行政實績을 보더라도 今年度에 있었던 여러 가지 中央單位 行事에 繼續的으로 좋은 成績을 거두고 있읍니다.

中央 모내기 競進大會에서 3連覇의 偉業을 達成하고, 또 民藝品 競進大會에서도 團體賞에서 優秀賞, 個人的으로 大統領賞을 탄 바 있읍니다.

少年體典에서 3位를 獲得함으로써 忠南體育의 자리를 다시 上位圈으로 올려 놓았고, 67回 全國體典에서는 아시안게임에 出戰하는 代表選手 61名을 뺀 弱化된 戰力을 갖고도 陸上에서 8連覇 偉業을 達成하고, 또 綜合成績 5位라는 좋은 成績을 거둔 바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公務員들과, 그리고 300萬 道民들이 힘을 합쳐서 追求하고 있는 으뜸 忠南 具現에 하나의 金字塔을 쌓아가는 좋은 徵兆라 생각이 됩니다.

漏水없는 公職遂行風土 造成 下半期에 있어서 우리가 業務遂行의 姿勢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漏水없는 公職遂行風土 造成에 力點을 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過去의 經驗을 보면, 政治的으로 多少 混亂이라 할까 아니면 분위기가 政治的인 問題에 關心을 쏟는 그러한 때에는 社會의 모든 秩序가 紊亂하기가 쉽고 또 法 秩序 意識이 弱化된다는 것을 過去 우리의 經驗에 비추어서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또 公職社會에 있어서도 紀綱이 解弛되고, 不條理, 그리고 保身主義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公職者들은 上司의 命令에 服從하기 보다는 어떠한 政治勢力에 끈을 대고 自己의 立身揚名에 눈을 뜨는 樣相이 過去에 나타났었읍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이 時點은 過去의 그러한 狀況과는 絕對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勿論, 우리가 過去에 平和的인 政權交替를 한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政權交替의 末期的인 現狀을 經驗한 바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것은 大統領閣下의 單任精神에 의해서 平和的인 政權交替를 위한 하나의 鎭痛이라고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鎭痛은 보다 더 나은 政治的인 發展, 社會的인 發展을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完璧한 自由民主主義를 定着시키고 그 土臺 위에 國民의 福祉를 向上시키는 發展을 위한 鎭痛이라고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社會一角에서 現體制를 否定하는 勢力, 그리고 民衆革命을 云云하는 勢力, 이러한 勢力들이 表出되고 있는데 이것을 두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정말 金日成이에 同調하는 勢力이고, 또 그 以外의 勢力은 現時局에 對한 不滿을 表出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을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左傾容共勢力과 連繫해서 鬪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事實上 지금 우리가 自由民主主義를 하고 있긴 하지만 理想的인 自由民主主義를 完璧하게 實現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努力을 하고, 向해서 가는 것은 自由民主主義의 理想的인 實現을 위한 것인데, 漸進的으로 이것이 實現된다면 지금 우리 周邊에 表出되고 있는 여러 가지 問題點, 그리고 不滿, 慾求 이런 것이 다 充足이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性急하게 現在 當面하고 있는 現實에 대한 不滿을 갖기 보다는 보다 더 完璧한 自由民主主義를 하기 위해서, 또 實質的으로 確立된 民主化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國民은 國民의 位置에서, 政府는 政府의 位置에서 다 함께 努力을 하고 고쳐 나간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追求하는 自由民主主義가 完璧하게 實現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公職者는 이러한 時局에 그야말로 愛國的인 姿勢를 갖고 使命感을 갖고 일을 해주어야 되겠읍니다.

요즈음 新聞에도 자주 擧論이 되는데 不條理 公務員이 繼續해서 拘束된다는 新聞記事를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各種 認·許可 事務, 團束業務, 工事入札, 物品購買, 이런 것과 關係된 不條理가 다시 表出되기 始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이러한 政治的인 激動, 發展을 위한 하나의 몸부림을 치는 時期에 公職者들의 不條理를 團束하는 司正活動에 모든 焦點을 맞추어서 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다시 그러한 것이 表出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容納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不條理나 腐敗를 剔抉하는 것은 政權的인 次元이 아니고,國家的인 次元이라고 봐야 됩니다.

不條理가 盛行하거나 腐敗가 도사리고 있는 社會와 國家는 絕對로 存立할 수가 없고 發展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歷史的인 事實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지금 5共和國이 樹立된 以後에 바로 그러한 腐敗와 不條理가 亡國의 根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看破하고 不條理 剔抉에 一大轉機를 마련했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境遇에도 이 不條理나 腐敗는 絕對로 容納이 안된다는 것을 公職者는 分明히 알고, 또 國家가 發展하기 위한 하나의 主體的인 役割은 公務員이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政黨間에 政爭이 甚하더라도 公職者의 使命感만 透徹하고 自己 位置만 正確하게 確保를 해서 行政을 遂行해 나간다면 政爭이 있더라도 그 나라는 絕對 흔들리지 않고 보다 더 安定된 분위기 속에 있는 것만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行政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해 버린다.

그 좋은 例가 블란서가 五共和國이 樹立되기 以前 3·4共和國 時節에는 60日만에 內閣이 바뀌고 6個月만에 또 內閣이 바뀌는 不安한 政局이었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블란서가 그대로 現狀維持를 해가면서 發展의 土臺를 構築한 것은 바로 職業官僚制가 確立이 되었고 公務員들의 姿勢가 分明했기 때문에 블란서가 오늘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웃 日本만 하더라도 지금 發展된 現在의 日本의 位置가 國民 모두가 努力한 結果이지만 그 根幹을 이룬 것은 明治維新 以後에 確立되어 있는 職業公務員制, 그 公務員制度가 아주 잘 確立이 되어 있어서 公務員들의 姿勢가 아주 確固했기 때문에 오늘의 日本이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도 解放 以後 40年間에 國家發展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自由黨 때 문자 그대로 國家에서 公務員에 대한 處遇도 말이 아니었지만, 公務員들의 姿勢야말로 腐敗가 極에 達했던 時節이었고, 아울러서 共和黨 때에도 그 末期的인 現象으로서 公務員의 腐敗가 宏壯히 甚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共和黨의 執權이 끝났을 때까지 學生들의 低抗에 있어 타케트는 不正腐敗이었읍니다.

그래서 5共和國이 들어서면서 不正腐敗, 不條理 剔抉에 가장 力點을 두고 正義社會를 具現하자는데 가장 力點을 두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요즈음 反體制人士들이나 學生들이 口號를 외치더라도 不正腐敗라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程度로 우리 周邊은 많이 깨끗해진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完璧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즈음 다시 不條理 現象이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20年, 30年 前으로 後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後退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公職者의 不條理나 腐敗는 絶對로 容納을 해서는 안되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公職者도 使命感을 갖고 政局이 多少 昏迷하고 流動的이고 變化가 많고 이럴 때 우리는 政治에 많은 關心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 現法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遂行하는 行政에 조그마한 蹉跌이나 漏水가 없이 完璧하게 遂行하는 그러한 位置를 우리가 꼭 確保를 해야 國家는 흔들리지 않고 發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分明히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業務遂行을 하는데 黨政協調가 잘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現時局에 對한 政治的인 責任을 執權黨이 지는 것이 事實입니다.

우리 行政部는 黨에서 黨政協調를 通하여 樹立한 政策을 우리가 실어 나가는데 조금도 黨政間에 摩擦이 없고 意見의 差異가 없도록 事前 協調를 充分하게 하면서 行政을 하여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7月中 當面道政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上半期 우리가 推進한 事業에 對한 決算을 徹底히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推進狀況에 對한 一齊點檢을 하여 보고, 不振한 問題事業에 對해서는 解決策을 講究해서 下半期에 積極的으로 推進을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當面問題로서는 病虫害 適期防除입니다. 이제 모가 자라나고 있고, 또 무더위가 오기 때문에 病虫害가 성할 것으로 豫見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農藥準備, 事前豫察, 適期防除 등 이런 것을 조금도 錯誤없이 遂行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徹底한 夏季防疫입니다.

요전에도 强調했지만, 우리가 몇 年間 傳染病이 없는 道로서 榮光을 안았는데 특히 今年度에 國際行事를 앞두고 이 防疫關係는 徹底하게 이루어지고 조그마한 蹉跌도 없어야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强調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本格的인 장마철을 앞두고 災害豫防에 對한 것을 完璧하게 하여야 되겠읍니다.

今年度에는 우리가 災害豫防 便覽도 만들었고, 豫防行政便覽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配布가 될 것인데, 그것을 全部 參考를 해서 다시는 우리 公職者들이 事前에 豫防措置를 함으로써 豫防할 수 있는 것은 다 豫防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不可抗力的인 事項을 除外하고는 全部가 豫防이 되도록 措置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8月에는 여름休暇를 하는 季節입니다.

우리 모든 公職者는 公職遂行도 徹底히 하여야 되지만, 休暇도 해야 됩니다. 다만, 休暇를 하는데 내가 당부를 하는 것은 家族끼리 조용하게 浪費없는 休暇를 해 주고 언제나 安全하게 休暇를 즐길 수 있는 體制를 갖추고 休暇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바쁘더라도 時間을 쪼개서 반드시 休暇는 다 해주도록 하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付託을 하면 綠陰期를 틈타 對間諜 對策分野에 모든 申告網點檢 등 對共

態勢 整備를 完璧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日은 乙支演習도 있고, 또 綠陰期에 對한 對策도 樹立이 되어 施行하고 있지만, 9月 20日부터 始作되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北傀의 어떠한 장난이나 挑發이 絶對로 容認이 되지 않도록 徹底한 綠陰期 警戒態勢 强化를 해주기를 付託합니다.

全國 大學 代表學生 反共써클 修練大會

1986년 7월 1일

激 勵 辭

오늘 全國 大學 代表學生들의 反共써클 修鍊大會를 이곳 歷史를 안고 흐르는 白馬江邊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 젊은 知性人들이 學問探究의 沒頭 속에서도 우리의 生存과 삶의 價値觀 定立에 基因하는 이데올로기의 問題, 또는 나 個人과 겨레, 그리고 祖國의 現實이나 將來와 直結되는 共產主義와 對決을 함께 생각하고 討議하며 共同의 行動을 취한다는 것은 매우 所重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對立, 그리고 그것에서 出發한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侵略 또는 强大國들의 力學作用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分斷 40年이라는 크나큰 不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뼈아픈 分斷은 우리의 努力에 따라서 앞당겨 克服될 수 있거나 더욱 길어지거나 아니면 永久히 굳어질 수도 있다는 事實에 우리가 戰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40年 共產王朝를 構築하고 있는 北韓 共產集團이 우리와 24時間 對峙하고 있읍니다.

저들 金日成王朝의 存在理由나 目標는 무엇일까?

우리 젊은 知性人들이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그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이 우리 自由民主主義를 指向하는 大韓民國의 顚覆이요, 우리들 學問의 自由와 個性의 抹殺이며, 오랜 傳統과 固有文化의 否定입니다.

이러한 現實 앞에서 저들의 思想이나 行動, 또는 目的이나 過程과 恰似한 容共的인 조짐이 우리의 젊은이들 속에서 表出되는 오늘이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이 혹여 一過性인 젊은이들의 한때 理念의 遍曆이라 해도 우리는 警戒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敵의 코 앞에서 一觸卽發의 緊張과 對峙를 繼續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共產主義的인 생각이나 模倣을 體驗하고 다시 自由와 民主로 돌아설 餘裕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로 어버이들 世代가 이미 共產主義를 體驗하고 쓰라린 苦痛을 당한 것으로도 充分하며 젊은이들은 그 體驗을 배우는 것으로 족하리라고 봅니다. 피도 눈물도 人情도 없는 共產主義가 이 나라를 짓밟은 것이 不過 한 世代 前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젊은 知性人들이 사흘 동안 反共써클 活動을 하면서 그리고 平素 이데올로기로 彷徨하는 친구들을 說得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점에 關心을 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活動은 趣味나 嗜好의 選擇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生存과 存在, 그리고 學問의 自由를 保障받는 生死의 問題입니다.

깊이 討議하고 修鍊하여 부디 이 時代 勝共의 先導者, 그리고 祖國統一의 指導者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反共修鍊大會를 다시 한번 激勵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7월 9일

激 勵 辭

우리 映畵藝術의 先驅的 役割을 했던 「아리랑」「春香傳」 등 지난 날 우리의 心琴을 울린 珠玉같은 映畵들을 한 눈에 뒤돌아볼 수 있는 追憶의 韓國映畵 포스타展이 내 고장 大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60餘年前 우리 나라에 映畵藝術이 導入된 以來 不足한 裝備와 어려운 與件 등 많은 難關 속에서도 우리 映畵人들이 훌륭한 作品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映畵에 대한 執念과 情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록 포스타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展示會를 通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作品들의 片鱗이나마 다시 대할 수 있게 된 回憶의 章이 기쁩니다.

또한 이번 포스타 展示會를 通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잊혀져 가는 지난날의 우리의 哀歡과 기쁨어린 時代相을 돌이키고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흐뭇한 機會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展示會를 마련하신 韓國映畵人協會 忠淸南道支部의 勞苦에 感謝와 激勵를 드리며 아무쪼록 큰 成果가 있기를 期待합니다.

1986년 7월 12일

激 勵 辭

이번에 韓國寫眞作家協會 忠南支部에서 우리 고장의 觀光名所 스라이드 作品을 公募하고 그 展示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이 展示會는 내 고장의 자랑하고싶은 觀光資源을 한 장의 寫眞이나 揭示物에 限定시키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景觀을 살아 움직이는 多樣한 모습으로 널리 弘報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觀光産業은 앉아서 觀光客이 찾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모든 弘報媒體와 手段을 活用하여 觀光客을 끌어 들이는 것이 그 生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觀光資源 슬라이드 寫眞展은 이러한 能動的인 觀光事業의 先導的 役割을 全國을 對象으로 公募한 寫眞藝術에 照明시킨 좋은 契機라고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寫眞藝術을 通해서 우리의 觀光事業을 振興시키는 이 創意的인 展示會에 各界의 鞭達과 많은 呼應을 바라 마지않읍니다.

1986년 7월 14일

激 勵 辭

親愛하는 民防衛隊員 여러분!

오늘 ○○郡에서 우리 道內에서는 처음으로 水防機動隊의 發隊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發隊式을 갖게 된 水防機動隊는 水防活動에 力點을 두고 編成하여 實際로 災難이 發生하면 能動的으로 이에 對處 被害를 最少化하여 自然災難을 우리들 人間의 意志로 克服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하겠읍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가 장마철을 앞두고 우리 고장의 水害 豫想地域을 考慮해 볼 때 水防機動隊員 여러분의 任務가 얼마나 莫重하고, 그 活動이 期待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겠읍니다.

每年 장마철이 되면 우리의 貴重한 人命과 財産을 앗아가는 災難이 자주 發生하였고 그때마다 여러분을 비롯한 이 고장의 30萬 民防衛隊員들이 슬기롭게 對處하여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었읍니다만 이를 보다더 組織化하고 活性化하여 災難豫防 活動을 펴자는 것이 오늘의 水防機動隊 發隊의 큰 뜻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동안 많은 逆境과 難關을 딛고 일어서 先進國의 문턱에 성큼 다가 섰으며 올가을의 아시안게임이나 88年 世界올림픽을 主導하게 되었지만 災難의 克服이라던가 그 豫防活動에 있어서도 先進水準에 到達해야 한다고 봅니다.

特히 이처럼 重要한 行事를 앞두고 찾아오는 外國의 選手團이나 손님들에게 우리의 安全對策과 完璧한 災害豫防 能力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重要하다고 봅니다.

만일 이러한 때에 各種 災難으로 因하여 社會安定을 沮害하고 國力을 浪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 個人이나 國力의 損失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民防衛隊員 여러분들은 모든 災難으로부터 내 고장을 지키는 礎石으로서 透徹한 使命感과 愛鄕心을 發揮하여 住民申告網 管理는 勿論 各種 災難豫防 및 收拾活動과 平素 住民訓練 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發隊式을 갖게 된 水防機動隊는 災害에 適切히 對處할 수 있는 하나의 模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豫想되는 各種 災難의 類型과 地域特性에 따른 民防衛隊의 組織과 裝備를 向上시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아울러서 平素 訓練 등을 通해서 얻어진 團結力과 能力을 十分 發揮한다면 災難의 豫防活動은 勿論 여러분의 和合을 土臺로 하여 내 마을과 고장을 위해서 또 다른 일도 協調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쁜 農事철임에도 이처럼 水防機動隊員으로서 내 地域의 災難은 내가 막겠다는 鄕土愛로 이 자리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의 意志와 뜻을 높이 致賀드리며 水防機動隊員을 비롯한 住民 여러분의 家庭과 마을에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7월 15일

激 勵 辭

오늘 第1回 道知事旗 爭奪 柔道大會 및 第29回 道內團體 柔道大會를 이처럼 盛大히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忠南 柔道의 오늘을 가늠하면서 앞으로 全國規模의 大會 및 世界大會에서 우리 忠南 柔道를 盤石 위에 올려 놓으려는 期約과 所望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親愛하는 이 고장 柔道人 여러분!

柔道는 다른 競技와 달리 技倆과 體力은 勿論, 禮法을 尊重하는 運動競技이며, 맨몸으로 부딪쳐서 勝敗를 가늠짓는 가장 基本的인 自己防禦 手段의 競技로서 오늘날 世界的으로 脚光을 받고 있는 運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柔道는 지난 L·A올림픽과 世界 柔道選手權大會에서 史上 類例없는 많은 메달을 國民에게 안겨주어 柔道의 宗主國인 日本과 함께 世界 最高水準의 柔道强國으로 발돋음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餘勢를 몰아서 强靭한 體力과 水準높은 技術로 꾸준히 精進한다면 더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柔道의 發展可能性이라고 봅니다.

勝負의 世界는 運動競技에서 설 땅은 오로지 高度의 競技力을 쌓아 勝利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銘心하고 오늘부터 이틀間 繼續되는 競技를 通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技倆을 遺憾없이 發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어느 大會보다도 알차고 값진 結實을 맺도록 最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本人은 忠南柔道人들에게 이번 柔道의 큰 잔치를 準備하기에 애쓰신 成完鍾 忠南柔道協會 會長님을 비롯하신 關係者 여러분께 感謝드리며 柔道協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7월 21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覇氣滿滿한 青少年 여러분이 이곳 이름난 여름 休養地 大川에서 韓國 海洋少年團 忠南聯盟 聯合發隊式과 더불어 여름 海洋學校를 열게 된 것을 眞心으로 激勵하는 바입니다.

여러 青少年들이 生命이 용솟음치는 이 여름날의 海邊에 모인 것은 平素의 學業과 조용한 思索을 떨치고 일어나 여러분의 勇氣와 知慧, 그리고 力量을 저 넓고 푸른 바다에 한껏 펼치려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푸르고 드넓은 바다는 無限한 여러분 青少年들의 꿈과 希望에 찬 앞날과 祖國의 無窮한 發展을 손짓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바다를 배우고 바다를 開拓하며 바다를 지키고자 함은 곧 여러분 個個人의 未來開拓과 내 고장 開發의 根源일 뿐더러 내 祖國의 繁榮을 促進하는 原動力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自古로 우리 겨레가 累千年의 歷史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興亡盛衰의 고비를 經驗할 때마다 바다가 우리에게 끼친 影響은 실로 絶對的이었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 옛날 우리의 祖上들이 시베리아의 滿洲벌판을 거쳐 韓半島에 삶의 터전을 잡았을 때 우리가 서있는 이 黃海의 바닷가도 文明이 오갔던 海上의 通路였다고 하겠읍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딛고 서있는 이 땅에도 우리 祖上들의 한없는 開拓과 勇氣의 발자국이 지나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함께 認識해 두고자 합니다.

이곳 西部地方에 散在한 燦爛한 佛教文化와 歷史의 痕跡도 바로 저 바다를 通해서 들어 왔으며 異民族과의 無數한 交流와 다툼도 저 넓은 바다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韓半島를 둘러싼 끝없는 바다는 우리 겨레의 生存과 繁榮의 터전이며 宿命이며 未來를 풀어나갈 열쇠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겨레가 낳은 바다의 英雄 張保皐나 李舜臣 將軍이 없었던들 우리 나라가 어떠한 運命을 겪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바다를 向한 꿈과 勇氣와 執念은 잘 說明될 수 있다고 봅니다.

特히 이 民族의 恩人 忠武公 李舜臣은 우리 고장이 낳은 世界的인 바다의 英雄으로 여러분은 그 분의 後裔라고 생각을 합니다.

時代와 歷史는 흘러도 그 眞理는 변치 않는 것이 海洋國家인 우리 韓民族의 삶이 될 것입니다.

좁은 半島國家로서 지난 날 우리 겨레의 雄志를 펼치던 滿洲벌판을 잃어버린 우리로서는 結局 無限大의 領土, 3面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가꾸지 않고는 결코 子孫萬代의 繁榮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親愛하는 海洋少年團員 여러분!

이러한 우리 겨레와 바다의 宿命을 暫時 접어두고 여러분 各者의 强靱한 精神力과 實踐, 그리고 協同의 人間能力 向上을 위해서도 바다는 더없이 훌륭한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저 하늘과 맞닿은 바다는 꿈과 希望도 있지만 거센 波濤와 拒否와 沈默도 있읍니다.

열심히 바다를 배우고 開拓하고 지키려는 여러분의 意志가 샘솟는다면 여러분 個個人의 未來, 그리고 祖國의 앞날은 意氣揚揚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眞摯하고 協同하고 忠誠하는 마음으로 韓國海洋少年團의 自負와 矜持를 發揮하여 가장 훌륭하고 傳統있는 忠南聯盟의 金字塔을 꼭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市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 開館式

1986년 7월 24일

激 勵 辭

오늘 平素 尊敬하는 趙徹權 勞動部長官님, 우리 고장 出身 國會議員님, 그리고 各界人士들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이처럼 雅澹하게 建立된 勤勞靑少年 賃貸 아파트의 開館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먼저 이 地域의 勤勞靑少年들,그리고 關係人士들과 더불어 이토록 훌륭한 福祉施設을 마련하도록 配慮해 주신 勞動部長官님과 各界의 聲援에 對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 大田은 國土의 中心地域으로서 國家發展에 따른 새로운 役割과 期待가 比例해서 이 地域內의 産業도 크나큰 成長과 發展이 展望되고 있으며 이 고장 産業을 움직일 우리 勤勞者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勤勞環境의 改善과 福祉對策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開館式을 갖고 入住하게 된 이 福祉아파트도 우리의 그러한 所望과 必要性을 充足시켜 주는 慶事라고 하겠읍니다.

우리 道에서도 이 고장의 勤勞靑少年들을 위해서 이미 2年前 이곳에 勤勞靑少年會館을 세우고 올해에는 大田近郊의 國立公園 가까운 곳에 自然學習園을 開園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意志의 靑少年들 情緖敎育에 힘쓰고 있는 터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 고장의 企業에서도 勤勞靑少年들을 위하여 産業體附設學校를 積極 運營하고 寄宿舍를 增設하는 등 勤勞者 福祉向上을 위하여 精誠을 다하고 있음에

對하여 이 자리를 빌어 致賀드립니다.

오늘 開館하게 되는 大田市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는 住居生活의 安定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500餘 未婚女性 勤勞者들에게 처음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데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오늘 勤勞者 여러분은 政府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企業의 이러한 따뜻한 配慮와 努力을 깊이 認識하고 여러분의 職場을 위해서 그리고 내고장의 發展과 國家產業을 위해서 뚜렷한 使命感으로 貢獻해야 옳은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이른 바 3低時代로 일컬어지는 經濟的인 好機를 맞고 있지만 이 絕好의 機會를 十分 利用치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國家發展에 障碍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우리의 輸出이나 景氣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고 浪費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弊害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節約과 貯蓄을 通해서 不確實한 未來와 必然的으로 다가올 試練에 對備하는 슬기가 必要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숨가쁜 發展과 跳躍의 好機에 一部 勤勞者들이 現 時代와 國家的인 狀況을 認識하지 못하고 지나친 行動主義와 社會不安造成 勢力에 便乘하고 있음은 옳지 못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곳 忠南의 고장 勤勞者 여러분은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이 時代와 國家的 狀況도 認識하며 熱心히 일하는 進取的인 女性으로 成熟되기를 期待하면서 여러분 보금자리의 開館을 祝賀합니다.

青少年 善導誌「善導」第2號 發刊에 즈음한

1986년 7월 24일

祝　　辭

우리 고장 青少年 善導에 하나의 길잡이가 될 "善導"誌의 第2號를 發刊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歡迎하고 祝賀하는 바입니다.

"善道"라는 册子의 發刊이 두번째를 거듭하게 된 것은 單純한 册子發刊의 次元을 넘어서 그만큼 우리 고장의 青少年 善導事業이 土臺를 마련하고 이제 本格的인 軌道에 올랐다는 青信號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人類가 이 地球上에 歷史를 展開한 以來 우리 人間社會에서는 東西古今을 超越하여 자라나는 青少年들에게 깊은 關心과 期待를 集中시켜 왔다고 하겠읍니다.

그것은 青少年들이 바로 그 社會와 國家의 未來와 希望이며 可能性이고 明暗이 엇갈리는 主體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社會와 그 時代 國家의 將來는 다음 世代를 이어나갈 青少年을 위한 旣成世代의 教育的 關心과 配慮가 항상 成敗를 가름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먼 歷史나 남의 나라의 例를 들 必要도 없이 우리의 3國時代 "花郎徒"라는 훌륭한 哲學이 담긴 青少年 教育과 人生觀, 國家觀을 심어준 그 時代의 青少年教育이 結局 3國統一의 精神的 支柱가 되고 統一新羅 繁榮의 밑거름이 되었던 史實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例를 든다면 世界一次大戰 前까지 유럽의 大國이었던 덴마크가 戰爭이 끝나자 敗戰國으로서 領土는 "유틀란트"半島의 모래땅만으로 줄어 들었던 當時 戰場에서 돌아온 "그룬투비히"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도로 찾자"는 青少年教育

과 國民의 勇氣를 심어주는 一大 精神運動을 벌인 結果 나라는 작지만 오늘의 先進富國 덴마크를 이룩한 根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青少年教育과 國民精神運動은 한 民族과 國家의 進運을 左右하는 重要한"힘"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先進社會와 겨레의 中興을 부르짖는 오늘 날 우리 世代의 意志로운 努力 中에서 우리들 2世教育과 育成에 대한 關心과 配慮는 果然 어느 程度인가 깊이 생각하고 檢討할 時點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青少年善導와 育成의 所重함을 외치면서도 그네들이 健全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環境과 마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지 旣成世代는 反省하고 그 對策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俗談에 "나는 바얌풍 하더라도 너는 바람풍(風)이라고 똑바로 發音하거라"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는 비록 가르치는 나는 바르게 말하거나 行하지 못하여도 가르침을 받는 너만은 바로 알고 行하여라라는 뜻을 意味한다고 보지만 오늘의 教育 價値觀으로는 그 意味가 喪失된다고 할 것입니다.

人間은 어느 環境에서도 適應하기 마련이며 특히 感受性이 銳敏한 青少年期에는 그들의 어버이들인 旣成世代가 만들어 놓은 環境 속에서 100% 자라나고 影響을 받기 때문에 우리 世代는 未洽하더라도 너희 世代는 잘하거라 하는 觀念은 說得力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만이 우리의 子息世代들도 그대로 본을 받고 그 形成되는 精神的價値觀 그리고 人格에 의하여 다음 時代도 營爲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무엇하나를 計劃하고 이룬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青少年教育에 대한 配慮와 關心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青少年教育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環境이 가장 큰 影響을 준다고 믿어질 때 한 人間의 人格形成에 重要한 時期인 幼兒期와 青少年期 家庭의 役割이야말로 거의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家族과 마을사람, 國民, 人類, 이렇게 人間的 距離關係의 健全한 價値觀이 形成될 때 青少年 善導는 터전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傳統的 價値觀 中에서도 으뜸인 敬老孝親의 根本的 善導觀입니다.

오늘 날 自由, 平等, 民主의 理念으로 水平的인 社會의 人間關係를 形成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固有의 敬老孝親의 垂直的 軸이 있으므로 해서 새로운 價値觀은 더욱 堅固해질 것입니다.

어느 民族이나 國家의 文化에서도 이제까지의 價値나 傳統을 全部 否認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混亂과 退步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青少年善導나 教育도 堅固한 우리의 精神遺産을 바탕으로 새로운 方法 새로운 方向으로 2世들을 키워나갈 때 未來의 繁榮은 約束될 것입니다.

우리 忠節의 고장 青少年 善導事業은 이러한 觀點에서 推進되기를 바라면서 "善導" 册子 第2號의 發刊을 거듭 祝賀합니다.

大學生 平和統一 研修大會

1986년 7월 29일

歡 迎 辭

오늘 우리 고장의 젊은 知性人들이 이곳 由緖깊은 歷史의 고장 扶餘에서 平和統一에 關한 研修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날 民族의 再結合이나, 祖國의 平和統一에 對한 國民的 念願이나 妥當性에 對해서는, 모두 熱望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하고 實際로 平和統一을 成就해 나가는 國民的 努力에 있어서는 아쉬운 點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 보는 것이 매우 緊要할 줄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不足한 點이 없다면 走馬加鞭格으로 統一에 對한 우리의 努力을 繼續 加速化해 나갈 일이며 不足한 點이 있다면 이를 재빠르게 補完하여 우리의 所願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大道에 조금도 虛點이나 浪費가 없도록 함이 賢明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오늘 이 고장 大學生 여러분도 이러한 觀點에서 이 伏中의 더위를 이기며 祖國의 統一에 對한 根本的인 問題에 接近을 하고 이를 實踐하려는 意志의 모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統一은 그렇게 單純한 問題가 아니며 複雜하게 얽히고 설켜있어 마치 여름날의 장마 前線과도 같은 亂氣流의 性格을 띄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날 우리의 뼈아픈 이 民族의 壓制나 同族相殘 등 歷史의 苦痛은 우리가 「힘」이 없었기에 外勢로부터 받은 弱小民族의 설움이었으며 그러한 苦痛으로부터 아직도

우리는 完全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젊은 知性人들은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追求하는 理想과 念願은 現實을 바탕으로 出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始作되는 여러분들의 統一 硏修敎育은 統一에 對한 分野뿐만 아니라, 大學生, 나아가 젊은이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의 現實을 直視하고 나라의 將來를 洞察하는 認識을 새롭게 하는데도 큰 뜻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結局,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統一을 向한 지름길은 「國民的인 힘의 總量」, 다시 말해서 「國力」을 기르고 이를 하나로 結集하는 모든 意志와 슬기나 制度와 運用의 自立的力量 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릇 靑年의 覇氣와 勇氣있는 行動은 將次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로서 當然히 가져야 할 姿勢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러한 面에서 볼 때 最近, 一部, 階層이나 學生들이 否定과 지나친 自己主張은 極히 憂慮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이미 터득한 바와 같이 統一은 單純한 念願이나 祈禱, 그리고 國土의 分斷을 慨嘆하는 마음 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統一努力은 物質的인 힘과 精神的인 힘이 함께 必要한 것은 勿論이고, 이러한 國民的 힘이 國內外的으로 自主的인 力量을 發揮할 때 비로소 우리의 平和統一 터전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世紀를 넘어 北韓 共産主義者들과 對峙하면서 얻은 敎訓은 優越한 힘을 바탕으로 저들은 勿論, 우리에게 有利한 國際的인 統一環境을 造成해야 한다는 敎訓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統一硏修에서는 이러한 點도 觀心을 두면서 짧은 時間이지만 眞摯한 여러분의 修鍊을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8月 月例朝會

1986년 8월 1일

訓 示

오늘이 벌써 今年 下半期 두달째로 접어드는 8月입니다.

그동안 日氣가 多少 低溫으로 農事를 걱정했지만 지나 土曜日부터 正常的인 더위가 始作되어 여러 가지 農事가 다 잘 되리라 展望됩니다.

이러한 日氣가 繼續된다면 今年度에도 6年째 連續的인 豊年이 實現되리라 期待해 봅니다.

이렇게 무더운 伏날씨에 萬7千餘 道傘下 公務員들이 自己맡은 分野에서 最善을 다해 주어서 우리 道政이 한치의 蹉跌없이 아주 正常的으로 推進되고 있는데 대해 公務員 여러분들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합니다.

國家的으로는 國民의 輿望이란 期待를 업고 改憲,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國民의 輿論 收斂行事가 있었읍니다.

우리 道에서도 改憲에 대한 懇談會가 있었고,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公聽會를 가진 바 있읍니다.

이런 行事를 통해서 國民들의 眞實된 輿望, 그리고 참된 바램을 改憲, 地方自治制 實施에 앞서 收斂하는 좋은 機會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國民 모두가 期待하면서 걱정했던 改憲特委가 지난 7月 30日에야 構成되어 本格的인 稼動이 始作되었읍니다.

勿論, 앞으로 合意改憲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難關과 어려움이 豫想됩니다.

그러나 歷史的인 큰 일을 하는데 順坦하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

겠읍니다.

그것은 改憲을 主張하면서 黨利黨略으로 個人의 欲求를 充足하기 위해 國民의 意思니 뜻이라는 것을 함부로 濫用하면서 問題를 어렵게 만드는 側도 없지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合意改憲이 圓滿히 이루어지기까지는 相當한 어려움이 豫想됩니다.

그러나 이번 憲特委員長으로 選任된 蔡汶植 委員長께서도 言及했듯이 對話를통해 妥協해서 國民의 輿望에 副應하는 合意改憲을 創出해 내야 합니다.

合意改憲으로 國家의 將來가 밝고, 바람직하게 發展하는 契機가 造成되기를 國民 모두는 바라고 있읍니다.

與野가 合心하여 國民의 輿望을 저버리지 않고, 改憲協商過程에서 惹起되는 問題를 잘 풀어 나가길 바라며, 그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300萬 道民도 그러한 側面에서 合意改憲의 成就와 地方自治制의 成功的인 實施에 다함께 努力하고 聲援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公務員 여러분들은 改憲의 重要性, 地方自治制 實施에 대한 여러 가지 豫想되는 問題點, 올바른 國民의 姿勢는 무엇인가, 公務員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恒常 硏究하여 對國民 對話時에 活用하고, 마음의 準備를 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7月에 있었던 큰 衝擊的인 일이라면, 韓美通商協商 一括妥結로 양담배, 物質特許의 몇 가지의 市場開放입니다.

그동안 經濟的인 面에 있어 여러 가지 與件이 好轉되어 經濟成長은 바람직하게 發展되고 있읍니다.

今年度 經濟成長이 9～10%의 高度成長을 이룰 것이라는 展望과 함께 國際經常收支도 當初 5億$ 가량 黑字를 達成할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과 같은 趨勢로 간다면 約 15億～20億$ 程度 國際經常收支가 黑字를 達成할 것으로 豫想되는 反面 우리가 當面한 것은 그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國際開放 壓力입니다.

이미 美國과 經濟協商을 해서 담배輸入 自由化와 몇 가지 開放이 이루어졌읍니다.

이번 開放을 통해서 輸入의 自由化는 91.5%라는 先進國 水準에 到達했지만 經濟的인 形便은 完全히 先進國에 到達한 것이 아니라 先進國 水準에 到達하기 위해서 門을 두드리는 形便인 것입니다.

輸入自由化는 우리의 經濟發展 程度에 比하여 한걸음 빨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야

하며, 어차피 經濟規模가 커지고 貿易이 300億$을 突破하여 世界 15大 交易國으로 浮上한 이상, 우리 物件만 外國에 팔고 外國製品을 輸入 않는 一方的인 交易을 主張할수만은 없는 形便에 처한 것도 事實입니다.

양담배 輸入의 境遇 外製담배를 輸入해선 안된다는 國民의 輿望이나 우리 形便을 잘 알지만 國家가 一方的으로 統制를 해서 輸入을 抑制하는 것은 더 以上 持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相互主義에 의해 양담배를 輸入해야만 하는 苦衷을 呼訴하는 말을 財務部長官을 통하여 들었읍니다.

輸入이 開放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克服하는 길은 輸入을 開放하되 國民들이 外製를 選好하지 않고 國產品을 愛用해야 하는 決然한 姿勢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國際競爭社會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늘 引用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日本의 나까소네 首相은 百貨店에서 外製 넥타이를 사가지고 日本 國民에게 呼訴하는데 "자! 이제 外製物品을 사서 쓰자" 했는데 그 裏面에는 日本 商品이 外製物品보다 더 좋기 때문에 日本 國民은 日本 商品을 쓰고 外製物品을 안쓴다는 現實이 담겨져 있고 또 政治人인 首相은 外製를 쓰자고 强調하지만 日本 國民들은 外製는 쓰지 않고 國產品을 愛用함으로써 日本經濟를 復興시키는 兩面性이 內在되어 있는 政治的 제스츄어였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日本 國民의 團合性과 愛國心을 배워야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市場의 91.5%를 開放했읍니다.

요사이 圓貨의 價値切上 壓力과 農產物의 開放 壓力 등 市場開放 壓力이 繼續 加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길은 國民들이 自覺해서 國產品을 愛用하는 氣風 속에 國內產業이 振興되고 外製가 輸入 市販되어도 팔리지 않아 輸入商들이 自進해서 輸入해오지 않는 雰圍氣 以外에 다른 方法이 없읍니다.

왜 輸入을 開放했느냐?

왜 美國의 一方的 壓力에 屈服했느냐? 하고 政府를 罵倒하는 沒知覺한 行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開放을 한 그 苦衷을 理解하고 國民들이 自覺하여 몸소 國產品을 愛用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分明히 自覺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萬苦에 國民的 自覺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國內產業은 倒產되고 우리 經濟는 破綻을 免치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公務員들은 우리 經濟 現實을 잘 認識하고 現在의 經濟成長에 自足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貯蓄, 節約, 國產品愛用, 이 세 가지를 生活信條로 더욱 더 發展시켜 나가는데 公務員이 率先垂範하고 對國民 弘報에 積極的으로 指導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道의 7月 行事로는

첫째는 乙支練習을 成功的으로 遂行했읍니다.

軍, 警, 官, 民이 合心하여 알차게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訓練을 통해 安保意識을 탄탄히 함으로써 北傀挑發을 事前에 막고 國內의 어려움을 克服하여 當面한 아시안게임, 그리고 88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이루는 基盤이 造成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8.15에 開館되는 獨立紀念館 開館準備도 公務員들이 苦生을 해서 現在 順調롭게 잘 進行되고 있는데 忠淸南道로서는 더 없는 榮光스러운 行事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獨立紀念館 開館準備를 錯誤없이 遂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月에 車嶺山脈을 中心으로한 禮山, 天安, 牙山, 등地에 비가 많이 와서 水害를 입었읍니다.

數字로는 적으나 3名의 死傷者와 建物被害와 農耕地 流失도 있었읍니다.

現地調査, 應急復舊가 完了되었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永久的 對策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被害가 反復되지 않는 對策을 講究해야 할 것입니다.

8月에 접어들어서 道政이 遂行해야 할 것을 强調하면

첫째로, 獨立紀念館 開館準備를 蹉跌없이 完遂해야 하며, 周邊整備事業 및 行事參觀客의 動員, 輸送, 安全對策을 講究해야 하겠고, 中央行事를 돕는데 조금의 蹉跌도 없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附帶行事中에 道에서 施行하는 8가지 文化行事도 빈틈없이 準備해주기 바랍니다.

둘째로, 86亞洲大會 마무리 作業입니다.

앞으로 50日 8.1～8.20까지 모든 準備를 끝내고 8月 30日까지 完全마무리 짓고 9月의 20日間을 손님맞이 準備期間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道의 3가지 行事인 蹴球豫選, 스포츠科學 쎄미나, 聖火奉送에 대한 準備計劃을 樹立,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마무리 해야할 分野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마무리를 8月 20日까지 完了하고, 8月 下旬 열흘 동안은 點檢期間으로 삼고, 내가 直接 現場을 돌아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歷史的인 行事를 成功的으로 치루어서 國家的으로 跳躍할 수 있는 機會를 逸失하지 않도록 國民의 意識水準을 向上시켜야 하겠읍니다.

8月에는 벼의 이삭이 나올 것이고 完璧한 病虫害의 防除가 어느 때보다 重要합니다.

昨年에 벼멸구의 被害를 많이 입었읍니다.

病虫害 豫察과 防除作業을 徹底히 하여 豊年을 맞이해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防災對策입니다.

8月하면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만 例年에 比較해 보면 아직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번씩 겪는 水害, 그리고 風害, 濟州島 한라산 때문에 颱風의 被害는 많이 減少되고 있지마는 每年 조금씩은 있었던 것이 事實입니다.

今年에도 이를 對備해서 모든 準備에 疏忽히 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製作한 災害豫防 便覽도 잘 살펴서 徹底히 對備하기 바랍니다.

昨年에도 벼를 다 베어놓고 流失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今年에는 災害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人間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準備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行樂秩序와 安全事故 豫防입니다.

며칠前 新聞報道에 의하면 全北에서 7名이 타야할 배에 29名이 타가지고 21名이 목숨을 잃은 記事를 보았읍니다.

事故를 100% 豫防할 수는 없읍니다.

船舶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 하나를 다 監督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平素에 安全意識 强化를 위한 啓蒙을 徹底히 한다면 原始的이고 前近代的인 人爲的 事故는 發生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0.7 톤이라는 조그마한 배에 定員을 無視하고 3倍以上의 사람이 어떻게 탈 수가 있읍니까?

意識自體가 未開한 國民이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現在 先進國 문턱에 서 있고 先進國이 되려고 努力하는 國民들로서 그 無謀한 行動을 理解할 수 없는 事故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遊渡船을 完全히 點檢하여 豫防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제 行樂철을 맞이해서 海水浴場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모든 休養地에 週末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므로 여러 가지 行樂秩序 確立과, 安全事故 豫防에 조금도 疏忽하지 않도록 하여 今年 여름은 정말 事故없는 忠淸道가 되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特히, 우리 忠南은 今年에 豫防行政을 큰 行政指標로 삼고 여기에 대한 便覽도 만들어서 配付가 되었고, 이것을 人事나 賞勳과 直接 連結시킬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教育을 받았읍니다.

今年에는 하나의 事故, 하나의 不祥事도 없도록 完璧을 期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休暇는 徹底하게 實施하되, 조그마한 事故도 없는 休暇가 되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남아서 일하는 同僚들은 섭씨 35 ~ 40 도가 오르내리는 三伏더위 속에 健康管理를 잘하여 健康關係로 落伍者가 發生하지 않도록 留念하면서 우리가 맡은 8月의 道政을 보다 더 活氣있게 推進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每事가 그렇습니다. 더웁다고 해서 움추리고 앉아 있거나 그늘만 찾아다니면 오히려 病이 나기 쉽습니다.

겨울에는 耐寒訓練, 여름에는 耐暑訓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땀이 날 때는 땀을 흘려야 健康한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할 時節에 서늘한 房이나 에어콘 밑에 앉아서 땀을 안흘리면 季節病이나 風土病이 發生하기 쉬운 것입니다.

땀나는 것 겁내지 말고 攝食을 제대로 하여 勇敢하게 더위에 挑戰하면서 健康管理도 하고 業務遂行을 해주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할 8月에 조금도 蹉跌없이 道政이 잘 遂行되도록 여러분들의 協調를 당부합니다.

'86 乙支演習訓練 慰問者에 대한

1986년 8월 1일

書 翰

伏더위가 絕頂을 이루고 있는 이때 貴下의 健康과 平安을 祈願합니다.

平素 貴下의 積極的인 聲援 속에 推進된 「으뜸忠南」建設의 우리 道政은 이제 今年度 上半期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下半期에 들어 더욱 活氣있게 成就해 나가고 있음을 貴下와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더우기나 우리가 國民的인 努力과 精誠을 다하여 준비해온 「아시안 게임」도 不過 40餘日 앞으로 다가섰읍니다.

지난 7月中에 다른 해보다도 앞당겨 實施했던 乙支演習도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跳躍된 國力이 世界의 公認을 받게 된 것을 妨害하려는 北韓 共產集團에 대한 우리의 安保力量을 크게 誇示한 契機였다고 하겠읍니다.

그 乙支訓鍊 期間中 訓鍊에 熱中하는 公務員과 軍警을 찾아 慰問과 激勵를 베풀어 주신 貴下의 配慮에 대하여 깊이 感謝드립니다.

앞으로도 地域安保力 向上과 國土防衛에 대한 關心과 聲援을 더욱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乙支訓鍊 慰問에 感謝드립니다.

1986년 8월 7일

式 辭

오늘 우리 고장을 보다 밝고 活氣찬 先進社會로 만드는데 龜鑑이 되는 忠淸南道親切王을 選拔하고 그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300萬 道民과 마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禮節바르고 明朗하며 親切한 道民像을 宣揚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努力에 우리 道民의 意識向上과 더불어 내 고장과 國家發展의 보이지 않는 原動力으로 샘솟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世界 第2次大戰에서의 敗戰으로 잿더미만을 안았던 日本이 지난 1964年 "도쿄올림픽"을 通해서 그들 特有의 親切과 禮節을 밑천으로 온 世界의 好感과 信用을 얻어 내는 데 成功함으로써, 오늘의 先進化와 富를 創造했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날에도 변변치 못한 資源과 技術이 없이도 親切하고 禮儀바른 國民性 하나로 觀光産業을 일으켜 잘 사는 나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하겠읍니다.

이미 우리 나라는 半萬年 동안 蓄積돼온 뿌리깊은 文化와 精神的遺産, 그리고 끈질기고 슬기로운 國民的 底力을 바탕으로 남들이 100年걸려 이룩한 國家的 發展을 不過 20年남짓 사이에 成就한 바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韓國과 韓國民을 모르는 世界人은 없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21世紀에 太平洋의 主役은 勿論 世界史의 前面에 發揚할 것임을 外國 言論들은 連日 特輯으로 報道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階梯에 우리가 좀더 文化國民으로서 親切과 誠實, 品位와 禮節을 體質化하

고 格調높은 韓國人의 멋까지 풍기는 國民的敎養을 갖 다면 그야말로 온 人類가 부러워하는 先進國이 될 날도 그리 멀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社會의 一線에서 各者 職業에 從事하면서 親切하고 禮儀範節이 뛰어난 분들을 發掘하여 온 道民이 이를 본받으려 함도 바로 이러한 바람직한 道民像의 定立과 遠大한 國家的 目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不過 40餘日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이나 "서울올림픽"을 잘치르고 이에 稱讚받으려, 親切하고 禮儀를 지키려 한다기 보다는 兩大 올림픽을 通해서 世界의 1等國民이 되고 國力跳躍의 디딤돌을 마련함에 그 目的이 있음이 더 옳다고 봅니다.

또 우리 道民들 中에는 親切하고 禮儀바른 분들이 오늘 親切王으로 뽑힌분들 以外에는 더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大衆손님을 接하면서 때로는 疲勞하고 또 어려운 勤務環境 속에서도 값진 微笑와 親切로써 내 고장의 禮節을 宣揚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수많은 外國손님들에 對한 親切이, 우리에게는 더 所重하기에 그 勞苦를 慰勞하고 鼓舞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資本과 技術이 必要없는 밝은 微笑, 親切한 말씨, 眞實한 禮節로써 相對方에게 깊은 印象과 永遠한 追憶을 안겨 줌으로써 내 고장과 國家發展에 寄與하는, 이 보람된 일에 우리 300萬 道民이 모두 親切王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期待를 가지고 式辭에 代합니다.

感謝합니다.

職場 및 企業, 社會團體 貯蓄運動 強調

1986년 8월 10일

書 翰

處暑가 지나자 朝夕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낌에서 結實의 季節에 대한 설레임이 있읍니다.

恒時 내고장의 先進化와 道政發展을 위해 關心과 參與를 아끼지 않는 貴下의 勞苦에 致賀를 드립니다.

貴下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地域開發事業이나 道民의 福祉增進, 그리고 必要한 道政施策도 充分한 豫算과 財源의 뒷받침 위에서만 可能하다고 보겠읍니다.

이것은 個人이나 組織, 社會團體, 機關 또는 國家經濟를 통털어 常識에 屬하는 原則이며 모든 國民的活動을 뒷받침하는 經濟力을 國力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國力이 國民貯蓄을 통해서 더욱 堅實해짐은 說明이 必要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른 바 3低時代라고 일컬어지는 低油價, 低金利, 엔貨의 强勢를 타고 우리의 輸出經濟가 큰 活氣를 띄고 있지만, 來日을 豫測할 수 없는 國際氣流와 力學의 變化에 따라 우리에게 언제 또 不利한 現象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經濟的 好機는 언제까지나 持續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最善의 方法인 道民의 貯蓄運動을 本人은 더한層 强調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도 우리 忠南道民이 그 어느 고장보다도 貯蓄心이 强한 賢明한 道民으로 評價되어 왔읍니다만 더욱 알뜰하고 貯蓄하며 未來에 對備하는 슬기를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貯蓄第一主義를 實踐하고자 우리 道 傘下 1萬3千餘 公務員들이 지난 4月

1日부터 貯金桶을 1個 册床 위에 놓고 茶한잔덜 마시기, 택시 안타기, 담배한 갑 덜피우기등 알뜰한 용돈아껴쓰기를 벌인 結果는 실로 놀라울 程度였읍니다.

한잎 두잎 銅錢을 모은 지난 4個月 동안 對象公務員의 93%인 1萬2千餘 公務員들이 參與 無慮 2億7千餘萬원의 貯蓄實績을 올린 바 있읍니다.

이는 1人當 月平均 5千840원씩 貯蓄한 셈이되며 銅錢의 分量이 26.4 t에 미치는 結果였읍니다.

本人은 이러한 成果를 바탕으로 이 貯蓄運動을 道內 모든 社會團體와 職場, 企業體別로 擴散시킴으로써 地域經濟活性化와 國家貯蓄施策에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確信을 가지고 貴下에게 積極 勸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貴下의 參與와 啓導를 통해서 300萬 道民 貯蓄運動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貴下의 깊은 共感과 實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長期 勤續 公務員 懇談會

1986년 8월 12일

訓　　示

오늘 정말 아주 뜻있고, 보람있는 對話의 時間이다. 하는 것을 實感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 地域에서 公職에 몸을 담고 일을 한 公務員 중에서도 模範公務員들로서, 그 누구보다도 國家를 사랑하고, 또 이 地域을 사랑하고, 地域發展에 아주 많은 貢獻을 한 主人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러한 對話를 벌써 가졌어야 할 텐데 相當히 늦었구나 하는 晩時之歎을 느끼게 됩니다.

그 理由는, 公組職이든 私組職이든 運營에 있어 實態를 잘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境遇가 成果에 엄청난 差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말로 地域의 이른 바 터줏대감으로서 그 地域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모두 통용될 수 있고 認定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面에서 여러분과 벌써 對話를 가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이 對話는 정말 아주 뜻있는 對話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建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체로 내가 크게 나누어 보니까 公務員의 士氣振作 方案이 제일 많고, 다음에는 住民을 啓導한다고 할까? 어떻게 우리가 住民에 對해 行政 指導를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問題로 크게 두가지로 集約이 된다고 봅니다.

公務員의 士氣振作 問題는 여러분들께서 人事制度 報酬體系, 그리고 事後 退職後의 問

題 또 準事務官制度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상세히 言及을 하셨는데 역시 問題가 많이 있고 또 解決이 아직 다 안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句括的으로 얘기해보면 問題를 解決하는데는 解決의 열쇄가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民主化를 부르짖고 있고 行政의 民主化를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問題를 提起할줄만 알아서는 안되고, 解決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建議한 것 가운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解決할 수 있는 것이 相當部分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어떤 制度의 改善이나 法의 規程을 改廢하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日常 公職者의 姿勢만 가지고도 充分히 解決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職員에 대한, 部下에 대한 關心表明을 많이 하기 위해서 書翰을 보내주는 것도 좋다고 하였는데 그런거야 우리가 조금만 誠意를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問題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問題를 아는 것도 重要하지만 알고도 實踐안하는 것이 第一 더 큰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提起한 問題 가운데는 우리가 充分히 實踐할 수 있는데도 우리들이 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問題들이 大部分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勿論 그 중에서도 邑·面長에 대한 停年制度, 또 昇進試驗에 대한 審査 50%, 試驗 50% 같은 이런 制度的인 補完問題 등 아주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制度的으로 補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行政의 自律化를 保障해달라" 또 "中央의 暗行監査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監査가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다" "住民指導를 함에 있어 너무 劃一的이고 硬直하게 끌고 나가는 면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問題를 파고 들어가 보면 監査 乃至 監督하는 側에 잘못이 있는 거냐?

그걸로 인해 士氣가 떨어지고 일이 안되는 거냐, 아니면 가장 一線에서 國家政策을 심어 나가야 할 그야말로 實務 末梢神經에서 責務를 제대로 履行하지 않기 때문에 監督이 强化되느냐, 이건 상당히 論爭을 일으킬만한 狀況이라고 봅니다.

監督을 안하고 또 自律로만 맡겼을 때 果然 얼마만큼 行政의 效果를 政府가 바라는 方向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行政이라는 것은 必要한 監査機能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結局 이런 것은 어느 한 쪽만 보고 얘기하면 問題解決은 안됩니다.

問題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터줏대감답게 누구 干涉을 안 받더라도 정말 立法精神에 맞게 政府로부터 받을 때 行政의 自律化는 더욱 폭이 넓어지고 커질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對國民關係만 하더라도 우리가 民願을 處理하고 對國民行政을 펴나가는데 果然 우리 公職者들이 全部가 정말 爲民行政의 姿勢를 가지고 正確하게 國民의 立場에 서서 일을 해 주고 奉仕를 하는 職員이 많으면 많을수록 自律의 幅은 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忠淸南道는 다른 道와 달라서 정말 民願分野가 많이 改善된 걸로 압니다.

또 내가 여러분들 아픈 얘긴 줄 모르지만 이 監督이라든가 어떤 이런 - 것이 「꼭 必要하지않느냐 하는 걸 느낀 것이 있읍니다.

내가 再昨年부터 民願 直訴制를 하고 있는데 첫해에 直訴民願이 宏壯히 많이 들어 왔읍니다.

그것은 國民이 行政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해서 呼訴해 온 건데 그것이 첫해에 비해서 둘째해에 卽 昨年에는 半程度로 줄었고 今年에 와서는 아주 10분의 1로 줄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行政이 國民이 억울하지 않게 바람직하게 꼭 되었다고만 볼 수만 없는 그런 점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建議한 그 모든 士氣振作 問題에 關해서는 最大限으로 우리가 硏究, 檢討해서 法이 改正되어야 할 것은 改正하는 方向으로 建議하고 또 早速한 時間內에 反映을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公務員의 報酬, 手當, 子女敎育에 대한 學費支援 問題가 나왔는데 事實 過去 10年乃至 15年을 돌아 보면 오늘날 公務員의 處遇라든가 位置가 얼마만큼 많이 强化됐느냐,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느껴 봐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國家가 發展을 하고 經濟가 復興을 해서 나라의 살림이 豊足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成果입니다.

그래서 좀더 낫게 公務員制度가 補完이 되고 改善되기 爲해서는 國家의 發展이 그 前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國家가 정말 早速한 時日內에 發展이 돼서 現在 GNP 800億$이 千億$로 넘어서 어제 大統領閣下께서 記者會見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千億이 되고, 3千億이 되고 하면 우리가 所望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다 解決이 될 수가 있고 정말 不便없이 末端職員부터 모든 公職者가 다 豊饒롭게 살 수 있고 國民모두가 福祉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代表로 나와서 나와 對話를 하는데 그럼 누가 뭐래도 오늘 4千萬 國民이 이 時點까지 오는데에 國家를 發展시킨 主體는 누구냐?

勿論 4千萬 國民 全部가 主體입니다. 다 主體로서 能動的으로 일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公職社會가 갖고 있는 公職者가 생각하는 問題點도 많지마는 이것보다 더 큰 問題가 있는 것이 國民들의 欲求事項입니다.

農·漁村의 欲求가 어떤 것은 正當한 欲求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不合理한 欲求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住民 指導를 해 가는데 어떤 集團勢力을 등에 업고 不合理하게 억지쓰는 것은 絕對 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强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 분은 우리가 住民이 뭘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正確하게 收斂해서 우리가 잘 反映을 해야 정말 民意行政이 된다고 力說하는 분도 있읍니다.

양쪽이 다 옳은 얘기입니다.

問題는 國民이 많이 바라고 있는 國民皆保險 制度라든가 醫療保險, 醫療惠澤을 全部다 받게 해 달라 全部가 高等學校까지 例를 들면 義務敎育을 시켜달라든가 다 잘살게 해 달라는 欲求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이 무엇이냐 하는 點입니다.

그 方案은 한가지 밖에 없읍니다.

나라가 富者가 되는 그 方法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富者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點에 관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우리 나라의 建國 以後 오늘 이 時點까지의 發展을 가져온 主體들입니다.

1萬 7千 道傘下 公務員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20年 以上 長期勤續한 분들이 相當數가 있읍니다.

또 어느 나라가 그렇게 될 수가 없읍니다.

美國이란 나라도 그렇진 못합니다.

그 나라 그 社會를 發展시키는 主體는 限定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의 境遇는 大體로 네가지로 分類해 볼 수가 있읍니다.

첫째, 公務員입니다. 特히 우리 地方公務員입니다. 그 다음에 軍人, 나라를 지켜주는 軍人, 그 다음에 敎育者, 國民에게 知識을 가르쳐주는 敎育者, 그 다음에 貿易乃至 經濟活動을 하는 企業, 企業人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로 分類된 이 核心勢力들이 이 나라를 發展시킨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公務員의 役割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大統領閣下께서도 여러번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나라 公務員들이 先導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發展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들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6.25 直後 그 廢墟가 된데서 우리가 일을 하던 過程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정말 쌀 한가마니도 안되는 報酬를 받고 公職에 奉仕해서 오늘까지 온겁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與件 속에서 또 社會的으로 그렇게 큰 待遇도 못 받으면서도 그래도 이 나라를 우리가 가꾸고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忠誠心과 使命感이 없었던들 여러분 오늘 이 職場까지 連結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與件 속에서 結局 公務員이 母體가 돼서 國民을 끌고 나간 겁니다.

요즘와서는 農村指導에 있어서도 보다더 自律的으로 農民들이 農事를 짓게끔, 너무 목매서 끌고 가는 식으로 行政指導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요즘 農村의 農事技術이라든가 여러 가지 水準이 向上되어서 公務員의 힘을 안 빌려도 自律的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읍니까?

새마을 運動 初期만 하더라도 모든 農村이 잠자고 있지 않았읍니까?

그 잠자고 있는 것을 누가 일깨워 주었읍니까?

바로 여러분 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平生 보리고개를 면할 수 없다.

또 後進國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빨리 일어나서 마을 淸掃하고 안길도 넓히고 環境도 改善하고 所得增大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불길을 붙이고 始作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엔 또 試行錯誤도 얼마나 많았읍니까?

시멘트를 나누어 주는데 시멘트가 모자라서 시멘트가 品貴現象을 일으키기도 하였읍니다.

새마을 運動 初期에는 시멘트가 쌀보다도 더 貴한 金값이었읍니다.

시멘트 生產量은 制限이 되어 있는데 農村은 새마을 붐이 일어나 環境改善을 하다보니 시멘트가 불티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曲折을 겪으면서 우리가 農村을 富興시키고 漁村을 富興시키고 小都市를 가꾸고 水準을 높여 가지고 오늘날까지 온겁니다.

그러한 過程에서 核心的으로 國家를 끌고 나온 것이 公務員, 그 가운데서도 우리 地方公務員의 役割이 가장 컸던 겁니다.

勿論 다른 公務員의 役割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地方公務員의 役割이 가장 컸기 때문에 우리는 公務員 중의 公務員이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떨 것이냐, 지금 우리의 水準은 1人當 國民所得 2千$臺입니다.

우리가 60年代初 1人當 國民所得이 80$에서 120$ 程度였읍니다.

그때 생각에는 2千$이 되면 아니, 1千$이 되어도 모든 것이 解決될 걸로 봤는데 이제 2千$이 된 오늘날에 와서도 問題解決이 完全히 안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解決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 勿論 이 地上에 하나도 不滿이 없는 樂園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指向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를 完全히 꽃피우기 위해서는 最少限 5千$臺 線을 넘어서야 정말 所得의 分配도 均衡的으로 이루어지고 國民의 큰 不滿없는 社會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5千$이라면 總體的으로 2千億$의 國民所得이 됩니다.

우리가 8百億$, 今年에는 920億$이 된다는 지금 推算인데, 그러면 今年 우리 GNP의 곱절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정말 이 國家를 잘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時局에 對한 올바른 認識과 함께 우리 國家가 가야 할 길을 누가 끌고 나가야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누가 정말 앞장서서 그런 認識을 하고 가야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같은 우리 重鎭公務員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重鎭公務員이 이 나라의 形便을 分明하게 알고, 그리고 住民指導를 하고 또 公務員 社會에서도 여러분들이 中樞的인 機能을 해 줄 때 公務員들의 認識이 바로 서고 그것이 住民과 連結되서 國民啓導가 되고 國家가 發展하는데 連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國家에 대한 認識을 分明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國家에 대한 認識을 分明하게 하자" 그것은 잘 아다시피 지금 우리가 處하고 있는 形便이 順風에 돛을 달고 있듯이, 아무런 安保의 威脅이나 國家를 沮害하는 要因이 없는 그런 狀況이 아닙니다.

現 時局을 돌아보면, 우리가 요즘 살게끔 됐는데, 이 時局을 망치기 위해서 어떤 作態들이 벌어지고 있읍니까? 그거야말로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하고 일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無條件 돈 많이 주어야 되고, 農村은 穀價를 올려주어야 되고, 輸入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걸 主張하며 國民을 眩惑시키고, 그리고 社會의 不安을 造成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時間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具體的으로 모두 얘기 못하겠지만은 例를 들어 "農產物에 대한 輸入을 反對한다." "양담배 輸入은 亡國之行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350億$의 輸出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37~38% 를 美國에 輸出하고 있읍니다.

우리 物件을 그렇게 엄청나게 팔면서 美國으로부터는 物件을 못 사겠다 우리 것만 사가라" 이러한 論法은 成立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것만 다 팔고 싶고 남의 것을 안 사고 싶다, 이것은 所謂 國際社會 아닌, 우리 이웃간에 있어서도, 그리고 個人의 生活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全部 開放을 해 놓고 사들이고 팔고 하는 過程에서 우리 國民들이 스스로 認識을 해서 다시 말해서 國產品을 愛用하고 外製를 덜 쓰는, 그러한 國民意識을 涵養해서 克服을 해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改憲이라는 것을 하고 있읍니다.

現在 改憲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重要하냐 勿論 우리가 보다 더 民主化를 위해서, 그리고 國民을 위하고 國家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改憲政局을 바라다 보면 改憲을 한다는 口實下에 그저 自己 慾心을 채우기 위한 싸움질 밖에 하고 있는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進展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分明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結局은, 어제 大統領閣下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政治든 經濟든 모든 社會는 段階的으로 發展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充足되지 않습니다.

또 充足될 수도 없읍니다.

政治的 問題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發展을 했읍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解放 40年 歷史를 돌아다 볼 때 어느 執權者가 自己의 權座를 내놓고 任期를 끝내고 나가겠다고 했읍니까?

事實上 지금까지 우리가 政治的으로 소용돌이를 겪은 것은 바로 1人 長期執權을 위해서 모든 憲法도 그렇게 改正을 하고 모든 政治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結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政治的으로 混迷를 겪어 오지 않았느냐, 또 體制論爭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制度가 나빠서 그랬읍니까?

初代 李承晩 大統領이 執權할 當時만 해도 美國의 制度, 좋은 것은 다 갖다가 制度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읍니다.

再選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憲法을 改政해서 初期 大統領은 終身토록 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長期執權하려다 結局 4.19가 나가지고 물러서고 말지 않았읍니까?

그 以後에 歷史家들이 그 論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治績이 많다고 하는 朴正熙 大統領에 對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軍事革命을 했읍니다.

그건 國民들이 다 共感을 하였읍니다.

나라가 흔들 흔들하고 北傀하고 對峙해서 잘못하면 共產化될 것 같으니까 軍事革命을 하였읍니다.

그러다가 民選 大統領이 되었고 역시 두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3選 改憲과 維新憲法을 통해 長期執權의 길로 나가고 말았읍니다.

結局은 우리가 制度가 나빠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制度보다는 그 政權을 맡은 爲政者가 長期執權을 안하고 權座를 물려줘서 民主化를 하고 發展을 시키겠다는 意志가 더 重要하다는 것이 歷史的으로 證明이 된 겁니다.

그런데 現 全斗煥 大統領 閣下께서는 5共和國을 出帆시키면서 그 憲法에 7年 單任制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勿論 單任制를 지킬 것이냐 처음에 國民들은 疑心했읍니다.

그런데 大統領閣下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平和的으로 政權을 移讓하기 위해서 이 單任制 憲法을 꼭 遵守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1年半 後인 3월달에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現職 大統領으로서 大統領자리를 後繼者에게 물려주고 나가는 그런 榮光을 가지시겠다는게 아닙니까?

이러한 制度가 이제까지는 없었읍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지금 野黨에서 反政府 人士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는 "7年單任制를 안 지킬 것이다„ 그러다가 이것이 지켜지는 것으로 確定이 되다보니까, "그럼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우리에게 有益한 것으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直選制 改憲이니 內閣責任制 改憲이니 하고 論爭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라를 發展시키고 民主化를 해 나가는 것은 制度 自體가 問題가 아니라 爲政者의 마음가짐, 이것이 더 重要하다는 것을 分明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時局을 認識하는데 있어서도 公職者 중에서도 中堅公務員인 여러분은 정말 우리 大統領 閣下께서 지금 指向하고 있는 政治 發展, 또 이 나라를 지금 끌고 가는 國

致指標, 이것이 果然 이 나라를 發展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分明하게 分析을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80年 5共和國의 樹立以前까지의 國家 發展狀況하고 80年부터 85年까지의 5年間의 發展된 國家發展의 指標를 今年 年初에도 여러분들이 받아 봤을 겁니다.

여기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걸 봐도 우리 5共和國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歷史上 처음 그야말로 國家發展의 機會를 잡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誘致해 놓고 이것을 無事히 成就를 하면 그야말로 劃期的으로 國家發展이 될 수 있는 契機가 눈 앞에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成功的으로 치루지 못하도록 妨害하는 勢力, 그리고 自由民主主義를 抛棄하고 急進的으로 社會를 뒤집어 엎어서 現在 나타나고 있는 社會의 一部 不均衡된 現象을 하루 아침에 所謂 地上樂園이라도 만들거마냥 社會 民主革命을 꾀하는 이러한 勢力들이 지금 社會를 뒤엎고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이런 過程에서 우리 公職者들의 使命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精神을 차리지 않으면 나라는 잘못하면 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터주대감격인 여러분 公務員 중에서도 가장 權威가 있고 정말 지금까지 經綸을 쌓아서 이 나라 이 地域을 發展시킨 여러분이 國家의 現實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우리가 어떠한 狀況에 處하더라도 어떠한 社會的인 混亂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굳은 信念과 使命感을 갖고 맡은 일을 正確하게 遂行해 나갈 때 이 나라는 정말 흔들림 없이 發展을 繼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여러분들의 建議事項도 듣고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論議하고 있는 것입니다.

地方自治制 問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來年에 어떠한 形態라도 地方自治制가 實施될 겁니다.

地方自治制라는 것은 바로 地域의 問題를 地域 住民의 意思에 따라 處理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過去에 一部 해보기도 했지만 왜 못했느냐?

이 地方自治制에는 지금보다 相當한 財政의 負擔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마만큼 發展을 했기 때문에 財政的으로 負擔할 수 있는 能力이 생겨서 이제 地方自治制를 實施하는 겁니다.

그런 地方自治制를 實施하더라도 가장 能率的이고 過去에 不合理한 것은 다 補完을 해서 實施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가 公聽會도 가졌지만 그렇다면 그 地方自治制를 實施함에 있어서도 眞正한 地方自治制의 成功을 위해서는 여기 앉은 우리 公職者가 正確하게 地方行政을 遂行해 줌으로써 이것이 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地方自治制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論難이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 公聽會를 통해서 集約된 意思는 앞으로 政府에서 黨政協調를 하고 있는 過程이니까 어떤 方針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實施하는 問題와 關聯하여 實質的인 擔當者는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地方自治制를 施行하는 準備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모든 同僚 公職者들을 다 잘 指導를 하면서 여기에 蹉跌없는 그야말로 效果的인 地方自治制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主導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例를 들어가면서 다소 길게 말씀드렸읍니다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國家發展을 위해 해 주셔야 할 役割은 莫重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여러분들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며 오늘 建議하신 事項은 最大限 反映하고 아울러 硏究·檢討할 것을 約束드립니다.

感謝합니다.

防衛誠金 寄託人士에 대한

1986년 8월 15일

書 翰

立秋가 지난 더위는 이제 뒤로 한발 물러서 結實을 위한 休息과 餘裕를 가질 때가 되었읍니다.

恒常 建設現場에서 내 고장과 나라發展을 위해서 盡力하시는 貴下의 勞苦에 對하여 慰勞와 致賀를 드립니다.

이러한 貴下의 貢獻에 힘입어 우리 道政이 더욱 큰 成果를 얻고 있다고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貴下께서는 여러 모로 企業의 어려운 經營形便에도 不拘하고 高貴한 防衛誠金을 寄託해 주심으로써 鄕土安保의 基盤施設이 되는 西海岸 鐵條網 設置事業이 마침내 完成되어 보다 튼튼한 地域防衛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눈 앞에 다가온 歷史的인 兩大올림픽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國民的인 團合과 슬기로 人類의 祝典을 準備하는 한편으로는 北韓 共產集團의 挑發과 妨害를 물리쳐야할 召命을 안고 있읍니다.

우리에 대한 敵의 어떠한 凶計도 粉碎하고 꾸준한 成長과 發展을 쌓아 올리는데 있어 貴下의 透徹한 安保觀, 뜨거운 鄕土愛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感銘을 주었다고 봅니다.

鐵桶같은 地域防衛體制의 構築을 위한 貴下의 聲援에 다시 한번 感謝드리면서 貴下와 企業의 앞날에 幸運을 祈願합니다.

福祉農道院 天原푸른겨레研修院 開院

1986년 8월 26일

祝 辭

오늘 이곳 由緖깊은 鵲城山 기슭에 새마을精神의 根源이요. 農心의 搖籃인 福祉農道院 푸른 겨레 硏修院이 雅澹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 開院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오늘 이 硏修院의 開院은 여러 가지의 角度에서 참으로 깊은 意味를 含蓄한다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지난 20餘年 동안 우리 福祉農道院은 몇분 意志의 忠南人들이 갖은 難關과 險路를 헤치고 이나라 새마을運動史의 縮少라 할만큼 수많은 새마을 일꾼을 輩出하므로써 이제는 純粹한 民間團體의 國民精神敎育道場으로 確固한 터전을 마련하고 跳躍의 第2成長期를 맞았다는 點에서 그 뜻이 크다고 봅니다.

두째로는 近世 이 나라를 떠받친 愛國先烈과 그 옛날 人物들을 輩出한 民族精神의 脈이 흐르고 이 고장에 永遠한 民族精神 發揚의 象徵인 獨立紀念館이 들어서는 가까이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고 봅니다.

세째로는 民族文化의 原流가 된 燦爛한 百濟文化를 創造하고 韓國人像의 表象이 되는 선비精神을 가장 많이 간직한 이 고장 忠節의 道民像을 샘솟게 할 道民精神의 道場이 門을 연다는 點에서 우리 300萬 道民의 期待가 크다는 點이라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福祉農道院이 그 동안 200餘萬名을 敎育시킴으로써 그들의 가슴에 200餘萬個의 마음의 등불을 달아주고 또 200萬個의 등불이 또다른 사람의 가슴에 間接的으

로 달아준 마음의 등불을 생각할 때 실로 우리 國民精神教育史에 길이 빛날 金字塔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全國에서 모여든 青少年學生과 大學生 그리고 農漁村指導者와 職業人 등 福祉農道院에서 배운 사람들은 지금 우리 社會의 곳곳에서 農道의 精神을 불태우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忠節과 歷史의 고장, 忠南을 함께 記憶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곳 鵲城山의 푸른 겨레 研修院은 곧 忠南道民의 精神, 忠南의 文化를 온 겨레에게 擴散시키는 또하나의 里程表라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무릇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萬古의 眞理입니다.

國民精神이나 物質文明도 마찬가지여서 近世에 우리가 分別없이 받아드린 西洋文物의 渦中에서, 이제는 累千年 갈고 닦아온 우리 겨레의 맑은 물은 우리들 마음 속의 높은 곳에서 부터 씻어내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一部 識者들이 低俗한 日本精神과 그 文化의 一部 汚染을 매우 걱정하는 것도 事實이나, 오늘 開院을 보게 된 이와 같은 겨레의 根本精神을 일깨운 教育의 道場이 생기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푸른 겨레의 마음을 갖는 한 念慮될 바 없다고 믿습니다.

이곳 가까이에서 곧 開舘을 보게 될 獨立紀念舘이 悠久한 半萬年 우리 民族의 끈질긴 生命力을 證言하는 榮辱의 발자취를 象徵한다면, 오늘 開院을 본 이곳 새 研修院은 이 歷史의 거울 속에 恒時 겨레의 살아있는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來日의 民族繁榮을 샘솟게 하는 하나의 精神的 샘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本人을 비롯한 300萬 道民의 希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廣闊한 教育場의 터전을 잡은 곳에서는 吉鳥인 까치가 城을 이룬다는 鵲城山의 靈峰이 보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등불을 켠 이 研修院이 우리 忠淸南道와 이 나라의 希望찬 아침을 여는 黎明의 까치가 되어 줄 것을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故 한옴 韓仁洙 先生의 精神을 받들어 오늘의 福祉農道院을 키우시기에 精誠을 다하시는 明宜植 理事長님과 後援人士분들, 그리고 李先雨 院長님을 비롯한 福祉農道院家族 여러분의 意志에 敬意를 표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8월 30일

致 辭

오늘 우리는 이 고장의 教壇에 한 平生을 몸바치고 이제 忽然히 教育界를 떠나시는 서른여덟분 先生님들의 勞苦에 대하여 敬意를 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여기 앉아 계신 先生님들의 모습엔 하나같이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있는 執念과 謹嚴이랄까, 確信같은 表情에서 절로 相對方을 壓倒할 수 있는 威嚴을 本人은 느끼고 있읍니다.

教育이란 어느 意味에서 人格과 知識의 自己蓄積과 確信에서 出發하여 弟子들에게 가르침 以上으로 無言의 權威와 訓戒를 주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近來에는 스승의 權威가 前과 같지 않다거나 弟子들이 先生님들의 訓戒를 그대로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人格보다는 知識을 더 追求하고 精神보다는 物質을 더 所重히 여기는 物質文明의 社會的 影響일 것이며, 결코 先生님들의 責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教育이 한갖 知識을 주고 받는 單純한 人間關係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瞬間으로만 限定되며 一生 동안의 情이나 가르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教育은 成功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先生님들이 가르친 弟子들이 이 社會와 國家를 위하여 보람된 일을 하거나 큰 人材로 活躍할 때에 갖는 기쁨은 클 것이며 잘못을 저지르는 弟子가 있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한다고 믿습니다.

本人이 오늘 弟子를 키워내는 일에 一生을 바치고 떠나시는 先生님들과 더불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先生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靑少年學生이나 大學生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憂慮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教育的 現實에 대하여 우리 旣成世代와 先生님들이 熟議하고 하루빨리 代案을 마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날 어버이 世代들이 異民族의 壓迫이나 共產主義의 體驗 등 우리의 2世들이 間接體驗으로 이를 똑바로 理解시켜야 할 當爲性 앞에서, 이를 우리가 그냥 넘기고 만다면 그들이 旣成世代가 된 후 우리의 教育은 큰 缺陷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一部 젊은이들이 急進 左傾思想에 물들거나 그러한 精神에 기울고 있음에 대하여 그들만을 나무랄게 아니라, 우리의 旣成世代가 그 동안의 教育에 대하여 큰 反省을 해야 옳다고 本人은 믿습니다.

우리의 教育은 勿論 漸次 高度의 產業社會로 發展하는 趨勢에 발맞추는 知識과 技術의 傳授도 重要하지만 先生님과 旣成世代의 가르침이 權威를 되찾아 100% 開放되는 國際化 時代에서 우리의 價値와 傳統과 自生 經濟力을 누릴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教育이 매우 所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오늘 一線教壇을 떠나시더라도 서른여덟분 先生님은 앞으로 지난날 가르친 弟子와 이 社會를 위해서 스승의 길을 멈추지 말았으면 하는 期待로 致賀의 말씀에 代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9월 1일

激 勵 辭

오랜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는 韓國美術協會 忠南支部 會員展이 이제 54回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特히 이번 會員展은 30億 아시아人의 큰 잔치인 아시아 競技大會 期間中에 열리게 되므로써 우리 고장의 美術水準을 對內外에 한것 誇示할 수 있게 되었다는 點에서 그 意義는 더욱 크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고장에서 年中 開催되는 250餘回의 많은 美術展示會 중에서도 忠南支部 會員展이 그 權威와 品格을 자랑하는 美術祝展으로 成長 發展하기까지에는 會員 여러분의 뜨거운 創作意志와 藝術精神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 衷心으로 致賀를 보내는 바입니다.

地方文化 暢達의 當爲性이 强調되고 있고 또한 그를 爲한 努力이 各界 各層에서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至今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우리 고장 地方文化 藝術人들의 各其 내 고장의 特色을 되살리려는 鄕土愛, 그리고 줄기찬 創作意識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展示되는 作品들은 그 하나 하나에 作家들의 이와 같은 鄕土愛, 그리고 藝術的 魂이 깃들어 있으며 創作意志가 살아 숨쉬는 珠玉같은 作品들이라고 믿어 마지 않으며 많은 道民들의 激勵와 觀覽을 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會員展이 地方文化 振興을 先導하는 알찬 成果를 거둘 것을 期待하면서 會員 여러분의 繼續的인 精進과 美協 忠南支部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金河紡織工場 移轉 起工式

1986년 9월 6일

祝　　辭

오늘 이곳 大自然과 人間의 意志가 서로 調和된 鳥致院 纖維工業團地 안에 金河紡織株式會社의 新築工場 起工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새 工場建設의 첫삽을 뜨게 된 이곳 纖維工業團地의 造成은 이곳 燕岐郡民의 오랜 宿願事業일 뿐만 아니라 으뜸 忠南을 指向하는 우리 忠南道政의 力點事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2千餘 金河紡織의 家族들,그리고 이 고장 住民들이 기뻐하고 道政의 알찬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이 고장出身 國會議員님을 비롯하신 各界의 人士와 聲援을 보내주신 郡民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 道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고장의 均衡된 開發과 農漁村의 所得向上은 勿論 고른 就業의 機會를 賦與하기 위하여, 地方의 工業團地 造成을 꾸준히 推進해 나갈 생각이며 이러한 道政의 意志는 이미 推進하고 있는 工業化 7個年 計劃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地方工業團地의 造成은 道政의 施策이나 政府의 配慮만 가지고는 圓滑히 推進될 수 없으며, 農工團地를 誘致하려는 地域住民들의 積極的인 呼應과 能動的인 努力이 있어야 한다고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이곳 燕岐의 工業團地도 이처럼 앞당겨 造成된 裏面에는 이곳에 工場을 誘致하려는 住民들과 有志들의 熱意가 크게 뒷받침 되었음을 밝히면서 다시한번 協調에 대하여 致賀를 드립니다.

오늘 起工을 보게 된 金河紡織은 이 고장에서 40餘年의 歷史와 傳統과 底力을 가지고 이 고장 纖維業界의 代名詞로 成長해 온 줄 압니다.

그 동안 試鍊과 隘路를 헤치며 오늘을 이룩해 오신 金河家族 여러분의 執念과 創意的인 生產活動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激勵를 보내는 바입니다.

특히 吳隆昇 社長님이 經營에 參與하면서 새로운 活力과 進路를 模索한 金河紡織이 오늘 이처럼 한적하고 조용한 郊外의 工團에 發展的으로 移轉하는 起工式을 갖음으로써 第2의 跳躍期를 맞을 것으로 本人은 期待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企業은 經營主나 株主들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會社員과 그 家族, 그리고 그 企業과 陰으로 陽으로 聯關을 갖고 살아가는 이고장 住民들 모두의 共有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장 纖維業界의 代表的인 金河紡織이 順調롭게 成長해야 여러분 從事員들이 安定된 生活을 누리고 또 鄕土의 產業이 發展되며 내고장이 더욱 開發될 것임은 너무나 自明한 事實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起工을 보는 金河紡織보금자리의 順調로운 工事를 祈願하면서 새로운 工事를 맡아주신 建設 일꾼들의 勇氣와 모든 분들의 聲援을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9월 9일

人 事

바쁘신 중에 이렇게 參席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여러분의 積極的인 도움으로 저희 道政은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推進되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달 동안을 돌아 보면 그 중에서 獨立紀念館의 火災事件이 不意에 發生해 가지고 國民 모두에게 衝擊을 안겨 준 일이 있었읍니다.

特히 忠淸南道로서는 우리 道에 位置한 獨立紀念館이기 때문에 道民 여러분들께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계셨는데 不意에 火災 事故가 나서 많은 念慮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그 不幸한 일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轉禍爲福의 轉機로 삼아서 보다 더 알차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는 歷史的인 施設物이 되도록 努力해야 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國民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激勵와 꾸지람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忠南에서는 보다 더 道民들의 關心을 促求하는 誠金을 내신 분도 있었고 獨立紀念館도 文化公報部 主管으로 다시 새 모습을 찾기 위해 復元工事를 하고 있읍니다.

많은 激勵와 聲援을 繼續 보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8月달에 있었던 颱風 베라號가 저희 忠淸南道의 아주 中心部를 通過를 해서 江原道로 빠졌고 颱風史上 보기드물게 그야말로 颱風의 中心部가 지나갔지만 被害가 極히 적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國家의 運이 아주 뻐쳤다, 다시 말해서 國運이 아주 좋았다 하는 評價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우리 忠淸南道의 境遇는 扶餘로 해서 溫陽, 天安을 通過를 했읍니다만 그 어느 地域보다도 被害가 아주 적었읍니다.

이런 것도 勿論 그 颱風 自體의 어떠한 性質이 우리 나라를 通過할 때 甚하지않은 것도 原因이 있지만 道民 여러분들이 災害豫防을 위해서 努力해 주시고 政府에서도 모든 매스컴을 動員해서 颱風 베라號의 進行過程을 그야말로 立體的으로 紹介를 하고 國民 여러분들께 災害對策에 대한 誘導를 잘 해줬기 때문에 被害를 最少化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災害豫防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關心과, 그리고 協調를 해준데 대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그 동안 共通民願 對策會議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問題도 많이 提起를 해 주셨읍니다.

이미 받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道에서는 여러분들이 提起한 모든 問題들을 아주 愼重하게 檢討를 해서 最善을 다해서 解決하는 이런 方向으로 處理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신 김에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關心事 몇 가지를 서로 交換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요즘 關心이 있다고 한다면 서너가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시안게임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 왔읍니다.

그 동안 매스컴에서 여러번 强調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의 歷史的인 意義라는 걸 다시 새삼스럽게 얘기할 必要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5千年歷史에 이렇게 큰 國際規模의 行事를 우리 나라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 것은 儼然한 事實입니다.

또 그것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開催能力을 認定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認定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開催할 수 있다고 自信있게 모든 能力을 갖추지 못하면 受諾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過去 70年度에 우리에게 아시안게임을 主催하라는 勸告와 함께 우리가 받아 들였던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記憶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當時에는 우리 政府가 受諾을 해 놓고 아시안게임을 開催하기위한 여러 가지를 檢討해 본 結果 經濟的으로나 여러 가지 社會的 水準으로 보나 그걸 完璧하게 消化하고 國家의 利益으로 連結시킬 수 있는 自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年度에 우리가 開催하게 된 아시안게임은 返納을 했지요, 이것이 아마 방콕에서 열린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비록 30餘國을 招請하는 아시안게임일지라도 이것을 開催할 수 있는 國家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中共도 10億이 넘는 人口를 갖고 그 廣闊한 땅과 그 많은 人力을 가지고 있는 大國을 自處하면서도 아직 아시안게임을 開催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아시안게임을 自信있게 우리가 開催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은 그마만큼 國力이 伸張을 하고 國民의 水準이 높아졌고 이것이 對內外的으로 認定을 받게 됐다 하는 證據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歷史的인 하나의 背景을 살펴 보더라도, 이번의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참 그야말로 다시없는 祝祭를 契機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實力을 또 모든 우리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멋지게 誇示할 수 있는 機會로 活用해야 합니다.

이것을 契機로 해서 東南아시아의 모든 國家로부터 우리가 그야말로 尊敬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돼야 겠읍니다.

그것을 契機로 우리 나라의 商品이 世界의 市場에서 信用을 얻고 보다 많이 팔릴 수 있는 하나의 貿易의 基盤도 잡아야 겠읍니다.

이처럼 스포츠 한가지 뿐만 아니라 政治的인 位置나, 經濟的인 問題나, 또는 社會文化的인 모든 面에서 우리 나라가 發展의 契機와 轉機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아시안게임입니다.

아울러서 2年後에 있을 88 서울 올림픽의 그야말로 豫行演習格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또 88 올림픽을 充分히 勘當할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테스트를 받는 이런 機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시안게임은 더욱 重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親切, 秩序, 淸潔, 이 세가지

를 하나의 國民意識 上向運動으로 展開를 해 왔고 또 그걸 위해서 모든 分野의 분들이 努力을 해서 이제 마지막 열흘을 남겨 놓고 있읍니다.

우리 忠淸南道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세가지 行事가 있읍니다.

하나는 聖火가 道內 14個 市·郡을 經由해서 한300 km가량 달려서 갈 겁니다.

또 天安에서는 內·外學者 700餘名이 모여서 科學스포츠 세미나아가 있읍니다.

天安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檀國大學校 캠퍼스에서 있을 豫定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가장 重要한 것이 大田 公設運動場에서 20日부터 隔日制로 5日間 蹴球豫選이 5個國 130餘名이 參加하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忠情南道도 이 세가지 行事에 蹉跌이 없도록 아주 完璧한 準備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念慮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손님맞이를 위한 施設이라든가 接待方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準備를 잘 해놨지만 아직도 自信을 못하는 것은 果然 安全하게 北傀의 어떠한 妨害도 이번 機會에 粉碎를 하고 安全하게 모든 行事를 치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問題입니다.

이러한 安全을 위해서 關係機關에서 아주 不撤晝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요즘 美國의 言論이나 世界 軍事專門家들이 評價하는 걸 보더라도 北傀가 88을 妨害하기 위해서 86 아시안게임도 어떠한 形態로든 妨害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憂慮를 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첫째로 北傀의 어떤 妨害나 挑發을 絶對로 막아서 불장난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보다 더 많은 觀客이 參與하여 스타디움에서 選手들을 激勵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여러 가지 親切하게도 하고 飮食店의 水準도 높여서 飮食도 잘 待接을 해야 되고 選手에 대한 安全管理도 다 잘해야 되지만 結局은 게임하는 競技場에 觀客이 많이 나와서 歡呼를 해주지 않으면 그 行事는 效果가 半減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付託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準備라든가 손님接待 및 손님맞이에 協調해 주실 것은 勿論이지만 北傀의 挑發을 막을 수 있는 安全關係 이것에 대해 神經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機會가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大田 公設運動場에 나오셔서 直接 게임을 보시면서 選手들을 激勵해 주시는 것 하고 聖火奉送路에 사시

는 여러분들이 地域에 聖火가 지날 때마다 많이 나오셔서 沿道에서 聖火를 歡送하고 歡迎해 주는 그런 일에 많이 參席해 주십사 付託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요즘 가장 큰 關心事는 貿易開放壓力으로 인해서 이제 洋담배를 비롯한 많은 外國 商品이 우리 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읍니다.

9月 1日을 期해서 우리 忠淸南道에서도 15個所의 洋담배 販賣所가 門을 열었읍니다.

아울러서 美國과의 交易相談에 있어서 많은 分野를 開放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美國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우리 나라에게 輸入門戶를 더 開放하라고 壓力을 넣고 있는 狀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3低時代 國際經濟與件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은 與件을 바탕으로 지금 貿易의 伸張이 昨年度에 비해서 우리 道만 하더라도 約 18% 가량이 昨年 같은 期間에 比해 더 잘 되고 있읍니다.

또 國家全體로 보더라도 國際經常收支가 지난 7月末 現在로 6億弗의 黑字를 歷史上 처음 나타냈읍니다.

이렇게 한 쪽에서는 貿易이 잘되고 經濟가 盛況을 이루고 있읍니다만, 한 쪽에서는 開放壓力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야말로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요즘 큰 課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350億弗을 輸出하는 15個 貿易國으로 成長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過去에 그야말로 廢墟 위에서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어서 美國의 援助에 依存을 하고 밀가루를 비롯하여 껌에 이르기까지 全部 얻어 먹던 時節, 그 時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얘깁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世界 170餘個國 가운데 15位 以內에 들어가는 貿易伸張을 한 큰 貿易國家가 되어 이제 世界를 指導하는 國家的 位置에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一方的으로 우리 物件만을 팔고 相對方 物件은 안 사겠다는 그러한 特惠를 받는 時期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는 互惠的인 立場에서 그리고 同等한 位置에서 우리가 貿易成長을 持續해야만 한다. 따라서 어려움을 克服하는 길은 國民의 意識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意識이 달라진다는 것은 貿易을 하고 輸入을 開放을 해서 들여 오더라도 必要한 것은 쓰고 必要하지 않은 것은 안쓰는 슬기가 必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요전에 天安에서 이미 洋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캠페인이 벌어진 걸 압니다.

紙上에도 報道가 됐읍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國民運動이 切實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新聞記事를 보니까 全羅南道 어느 都市에서는 洋담배 販賣許可를 받은 業所가 民族의 良心上 나는 洋담배를 팔 수가 없어서 販賣業所 指定한 것을 返納을 합니다 하고 返納한 것을 記事에서 보았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國民의 意識水準이 相當히 愛國的으로 많이 成長이 된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겁니다.

이제 政府가 輸入을 하면서 國民에게 外國産 쓰지말라고 排擊運動에 앞장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國際的으로 孤立을 自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正常的인 貿易方法으로 輸入도 하고 輸出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國民들이 外製를 選好하지 않고 國産品을 愛用해 줄 때, 一部 輸入된 商品이 한쪽 구석에서 팔리지가 않고 썩어 나갈 때 政府도 할 얘기가 있고 外國에서 輸入을 안하는 口實도 되는 겁니다.

新聞에서 當初 양담배가 8%까지 販賣 되던 것이 5%로 줄어서 政府當局도 퍽 安心을 했다는 記事를 봤읍니다.

5%가 問題가 아닙니다.

1% 0.1%로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3低時代를 만나서 그야말로 貿易黑字를 이룩하는 이 아주 絶好의 機會를 보다 더 잘 活用을 해야지 이 機會에 우리가 浪費를 하거나 外國産을 選好하는 그런 氣風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現在 자리가 잡혀 갈만한 經濟基盤은 또 다시 後退하고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地域 指導者 여러분들은 그러한데 앞장을 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國産品을 愛用하고 外製 選好思想을 排擊하므로써 國內産業이 活潑해지고 또 外國에서 輸入을 하는 輸入商들이 物件이 안팔리니까 形式的 輸

入만 하지 實際는 輸入을 많이 안 해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써 우리가 450億弗이나 되는 外債를 이제부터 每年 한번씩 조금씩 갚아나가서 멀지않아 外債가 없는 文字 그대로 自主經濟, 그리고 世界의 指導國으로서 浮上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勤儉, 節約, 貯蓄, 그리고 國産品 愛用을 보다 더 强調해야 할 그러한 時期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말할 必要가 없이 지금 3低時代의 가장 큰 要因이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産油國들이 지금 團結이 안되고 多少 意見이 統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漁夫之利를 얻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産油國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해서 石油減産을 合議하고 生産을 줄여버리면 하루아침에 기름값은 또 金값이 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게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專門家들의 見解도 區區 各各입니다만은 지난날 油價波動을 두번씩이나 겪은 經驗을 생각한다면 産油國들이 바보가 아닐진대 정말 自國의 利益에 損失이 가고 더 以上 支撑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分明히 團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하나 요즘 昨今에 論難이 되고 있는 日本의 후지오 文部相의 妄言입니다.

이것은 나까소네 首相이 文部相을 罷免을 하고 또 官房長官이 하나의 謝過의 性格을 띤 聲明을 發表했기 때문에 一旦은 國家의 外交的인 問題로서는 큰 불을 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후지오 文部相이라는 作者가 確實히 氣分나쁜 얘기를 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韓日合邦 自體를 우리가 歷史를 배워서 다 아는데 日本이 軍事力을 誇示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야말로 外交權을 빼앗아버리고 保護國家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伊藤博文이 와가지고 高宗을 脅迫하고 賣國奴 李完用이나 이런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韓日合邦을 한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立場에서 氣分이 나쁜 것인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후지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背景이 무엇이냐? "너희도 責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高宗하고 伊藤이 하고 合議下에 이루어진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잘못이 있다면 너희들도 잘못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못나서 나라 빼앗기고 무슨소리 하느냐 이건데, 뒤집어 생각하면 一理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지오 얘기를 氣分나쁘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가 過去에 日本에 合併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時代의 背景을 한번 우리가 살펴 보면 우리들의 祖上, 當時의 爲政者들이 너무나 國家管理나 世界 흐름을 모르고 閉鎖政策만 쓰고 갓쓰고 道袍입고 활가지고 大砲와 對抗하는 그런 愚를 犯하는 그런 國家 經營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또 이 宇宙가 생기고서 지금까지의 歷史를 더듬어 보면 弱肉强食의 支配原理는 變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弱하고 제구실을 못하면 남의 나라의 受悔를 받고 또 合併도 당하고 나라가 亡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保障해 줍니까?

外交的으로는 우리가 좋으니 나쁘니 辱도 하고 謝過도 받고 하지만 實際 內容을 解剖해 보면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당했던 것입니다.

勿論 아무리 弱하더라도 互惠的인 立場에서 남의 나라를 尊重하고 남의 나라의 主權을 尊重하면야 얼마나 좋겠읍니까만은, 요즘도 안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련이 中共과 和解무드를 造成하기 위해서 取하고 있는 세가지 問題中에 아프가니스탄 强占한 것, 그 다음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占領한 것, 이 두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强國이 弱少國을 支配하고 干涉하는 것은 어떤 形態로든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强해지지 않고 내힘이 없으면 언제나 힘센 놈한테 支配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의 原理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후지오의 妄言을 그저 "그 새끼 미친놈이다" 하는 걸로 울분을 터뜨릴게 아니라 다시는 우리 歷史에 그처럼 남의 나라에 征服되고 主權을 뺏기는 그런 설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決意를 이 機會에 다져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힘을 기르는 것 以外에 方法이 없어요, 어떤 形態로도 힘을 길러서 내 나라를 侵犯하는 누구도 내가 對抗해서 싸울 수 있고 滅亡을 시킬 수 있다는 그 힘을 갖는 것, 이것이 自國을 保護하고 主權을 守護하는 길이지 힘 弱한놈 아무리 소리쳐 봐야 아무 必要가 없는 겁니다. 鷄卵으로 바윗돌 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鷄卵 가지고 아무리 던지면 뭘해요. 아무 效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國民的인 感情이 지금 日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感情을 誘發할 수 있는 契機가 되어 있지만 그럴 때 마다 생각하는 것이 거꾸로 후지오말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親舊가 지껄인 얘기가 우리에게는 옳게 받아 들여야 겠다.

"너에게 責任이 있다. 네가 못나서 뺏기지 않았느냐„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그걸 反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團合하고 和合하고 分裂하지 말고 國力이 消耗되는 일을 안하는 이러한 슬기가 必要합니다. 그냥 辱이나 하고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過去를 돌아다 보아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나라다운 待接을 받고 人間 待接을 받는 것도 우리가 그나마 努力을 해 가지고 나라를 이만큼 發展시켜 놓았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待遇를 받겠어요.

美國만 하더라도 過去 모든 것을 우리가 美國에 依存하고 얻어 먹고 살고 했는데 一角에서 美國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沒知覺한 젊은 녀석들도 보이는데 果然 우리가 美國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程度에 왔느냐? 이것참 隔世之感이 있는 겁니다. 今昔之感이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美國을 쫓아낸다니……. 金日成이가 쫓아내고 싶어하는 美國을 쫓아 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것은 金日成 集團과 똑같은 集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후지오 妄言을 契機로 다시 한번 警覺心을 높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의 侵略史를 硏究한 歷史家들이 931回의 侵略史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가 5千年 歷史를 굳건히 지키고 이렇게 單一民族으로서 우리의 獨特한 民族의 文化를 維持하는 것은 우리 祖上이 얼마나 슬기로왔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共感입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 저는 角度를 달리해서 우리가 歷史를 工夫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931回 外侵 가운데 그 한번이 韓日合邦 日本의 侵略인데, 그 한번 侵略이 바로 36年間 主權이 없어지고 同化政策 때문에 우리 民族이 抹殺될 뻔 했

읍니다.

日本이라는 나라가 萬若에 中世紀쯤에서 勢力이 그렇게 컸고 힘이 있었더라면 우리 나라는 벌써 없어졌어요. 931回 侵略을 받기 전에 例를 들어서 500回쯤의 侵略을 日本놈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 나라를 侵略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李朝라는 것이 없어졌을 거예요. 問題는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祖上의 슬기도 슬기지만 이 中國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巨大하면서도 隣接國家를 잡아 삼키지 않았어요. 全部가 두들겨 부수어 놓고는 朝貢받고 婚姻이나 하고"큰 大國한테 까불지 마라 兄님으로 섬기고 큰집으로 섬겨라„程度로 해서 저희들끼리 살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維持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中國을 讚揚하는 것은 아니지만 中國民族이라는게 多少 寬大해서 抹殺시키고 同化政策을 안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남았지, 萬若에 同化政策을 썼더라면 丙子胡亂 때 없어진거요.

丙子胡亂 때 南韓山城에서 仁祖가 나와서 降伏文書를 쓰고 全部 다 무릎을 꿇었읍니다.

그때 王室을 없애버리고 信託統治나 總督府가 나와서 支配했으면 우리 나라는 더 엉망으로 나라가 疲弊했을 겁니다.

그런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反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없이 이어나갈 우리 民族이 보다 더 主權을 갖고 제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歷史를 工夫하면서 우리가 당했던 그 實體가 무엇이냐, 힘이 弱했기 때문에 당했다. 分裂했기 때문에 당했다. 愛國的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했다. 이런 것을 빨리 補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關心이 있는 것은 民主化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與野間에 民主化를 위해서 아주 熱戰을 벌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民主化라는 것이 우리가 經濟發展을 해온 過去를 돌아봐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經驗을 돌아봐도 말로만 해서 民主化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 해서 經濟發展이 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그 동안 經濟發展을 위해서 苦生한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刻苦의 努力을 했는가? 그럼 民主化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民主化를 하자고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는 意識이 民主的으로 바뀌어야 民主化는 되는 겁니다. 겉으로 떠드는 것은 民主化 하라고 남에게는 要求하고 나는 非民主主義的인 思考와 行動을 繼續하고 있다면 그건 民主化가 될 수 없죠.

또 그렇게 民主化를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民主化를 한 英國이나 美國이나 불란서나, 日本이나 이런 나라들의 民主化의 發展過程을 우리가 잠깐만 훑어보면 아는 겁니다.

말로 해서 民主化가 되고 制度만 가지고 民主化가 된다면 그까짓 것 어려울게 뭐가 있어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制度야 베껴 오면 되는 거고, 말이야 錄音器에 넣어서 하면 되는 건데 무슨 民主化가 어렵고 自由가 어려운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말과 制度만 가지고 絶對 民主化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經驗도 얼마나 많읍니까? 또 世界 어느 나라가 民主主義 안한다고, 나는 獨裁를 한다고 하는 나라가 있읍니까?

우리가 冷靜히 생각해보면 世界 地球上에 170個 國家가 있는데 UN에 登錄된170個 國家 가운데 그나마 發展됐다고 하는 24個가 있고 大統領 中心制하는 나라가 41個國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을 包含해서 어떤 形態로든 君主制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나름대로 國利民福을 위해서 最善을 다하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음이 틀림없어요. 우리 나라도 40年 동안 民主主義 한다고 했어요. 解放 以後 지금까지 어떤 狀況에서 民主主義를 한다고 했느냐, 民主主義가 무언지 전혀 알지도 못해요.

우리 國民이 解放當時 3千萬이라고 普通 합니다만 그때 果然 民主主義란 原理를 理解하고 있는 國民이 몇%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마 0.01%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民主主義란 걸 뭔지도 몰라요, 民主主義를 모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檀君부터 始作해서 5千年이라고 하는데 5千年 동안 우리 歷史는 全部가 君主制度下에서 中央集權的으로 政策을 만들어서 命令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온 國民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國民들의 意思가 集約이 돼서 위로 上向이 되어 가지고 政府의 政策에 反映되어서 政治를 한 經驗이 한번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民主主義를 모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外國의 制度가 좋다, 解放이 됐고 이제 獨立國家가 됐으니 우리도 보다 나은 政治를 하자 해가지고 導入한 것이 民主主義制度 아닙니까?

大統領 中心制를 導入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읍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다 찍었을 거예요. 1947年 選擧 때 投票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制度라고 輸入해서 했지만 結果는 一人長期執權 獨裁化 밖에는 結果가 나온게 없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爲政者만이 나쁘냐,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勿論 責任이야 爲政者가 더 크지만 投票에 의해서 當選된 大統領이 君主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또 내 主權을 行使해서 大統領을 뽑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國民들이 臣下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大統領은 上監이고 우리는 臣下다. 君臣主義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儼然히 主權在民으로서 우리가 主人이고 大統領은 俗된 表現으로 하면 종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부름꾼인데도 不拘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이 率直한 事實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意識바탕에서 西歐式民主主義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勿論 投票 過程에서 政策에 대한 判別能力이라든가 選好하는 方法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린 전혀 몰랐지요, 그저 남이 좋다면 따라 가고, 내 親戚이니까 한票 찍어주어야 되고, 내 동네 사람이니까 찍어 주고 이런 것이지 政剛政策을 比較해 보고 政治人의 良識이나 道德性을 따져서 찍어 줬읍니까?

이것도 別로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작대기 하나, 둘 만들어 놓고 記號에 投票하도록 하지 않았읍니까?

實際 民主主義를 하는 美國이나 불란서나 英國에 記號가 있읍니까?

自己가 읽어보고 自己가 싸인을 해서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고 써서 내는 것이 美國의 選擧制度인데 우리는 지금도 작대기 보고 찍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制度라는 것이 勿論, 重要하지만 그 制度를 뒷받침할 수 있는 國民的인 水準도 또한 얼마나 重要하냐 하는 겁니다.

요즘 民主化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바로 一人長期執權, 그 다음에 獨裁 이걸로 인해서 보다 더 國民의 自由나 自治能力을 伸張시키지 못한다는데서 지금 改憲을 하자고, 그리고 民主化를 하자고 與野가 지금 旗幟를 내걸고 攻防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簡單하게 제 所見을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民主化를 하는 데에도 過去에 우리가 經驗했던 쓰라린 점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겠읍니다.

最少限度 우리가 새롭게 民主化할려면 過去의 前轍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입니다. 一人 長期執權, 그리고 獨裁化가 될 수 있는 要素는 排除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정말 自由民主主義의 政治原理와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바탕이 되는 그러한 方向으로 憲法이 마련이 되고 制度가 바뀌어야 합니다.

獨裁를 糾彈하면서 다시 獨裁를 하겠다는 制度를 또 만들어서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國民의 水準이 높은 다른 나라들이 政治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다른 나라보다 水準이 높지 않을진대 남이 한걸 分析할 必要가 있을 겁니다.

171個國 가운데 民主主義가 잘 되고 있다는 나라가 24나라요, 24나라 가운데 議院內閣制를 하는 나라가 21個나라 絶對多數예요, 그 다음에 折衷制를 擇한 나라가 불란서, 오스트리아 두나라, 間選制이기는 하지만은 大統領 中心制로 成功한 나라가 美國 하나 밖에 없읍니다.

大統領 中心制를 다른 나라에서는 안하느냐? 아프리카, 東南亞, 南美 여기 통틀어서 41個의 나라가 지금 大統領 中心制를 擇하고 있는데 어떤 形態로 發展되어 있느냐? 全部가 獨裁國家요, 全部가 一人 長期執權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 中心制의 制度 自體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것을 採擇하고 있는 나라는 한 사람에게 權力이 集中돼서 獨裁를 할 수 있는 契機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一人 長期執權과 獨裁化를 例外없이 하고 있다 이 말씀에요 우리 나라도 大統領 中心制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一部 攻擊하는 사람들이 獨裁다, 長期執權이다 했읍니다.

그러니까 5共和國이 들어서기 以前까지 우리 나라의 政治 形態도 또 그 副作用도 長期執權이었읍니다.

죽을 때까지 執權하려고 示圖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派生된 모든 副作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共和國이 들어서면서 全 大統領閣下께서 民主化의 發展을 위해서 最小限 一人 長期執權만은 排除해야겠다 해서 單任制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制度를 改善해 나가고 民主化해 나가는데 國民들이 꼭 認識해야 할 것은 過去에 밟은 前轍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읍니다.

우리가 쓰라리게 經驗했던 것 이번에 大統領 中心制 하겠다는 사람은 獨裁하지 않겠다는 保障있읍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制度的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러한 獨裁化와 權力集中의 憂慮,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分明하게 國民에게 認識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制度든간에 어느 나라든간에 漸進的인 改善과 發展이지 하루아침에 先進國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地上樂園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2千弗를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나 試練을 겪고 그 많은 外債를 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苦生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發展하는 것도 우리가 좀더 努力하면 빨리 發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 아침에 外債를 다 갚고 하루아침에 地上樂園을 만들 政治指導者가 어디 있읍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 떠드는 것은 쉽습니다.

떠드는 사람한테 質問을 한 번 해 봅시다.

"당신 經濟發展을 위해서 外貨를 얼마나 벌어 봤읍니까?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해서 共産主義와 싸워서 우리 國民이 많은 犧牲을 당했는데, 당신들 그때 뭐 했읍니까?"

한번 물어 보세요.

6.25 때 戰爭도 안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저 남이 벌어 놓은 거 공짜로 얻어쓰고 自己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한 것은 다 잘못됐다고 罵倒하는 그러한 우리 政治人의 良心, 또는 反政府 指導者의 良心 이런 건 우리가 容納해서는 안됩니다.

단 한가지라도 무언가, 부뚜막의 소금도 쳐야 짠데, 내가 寄與를 안하고 남의 한 것 트집만 잡아서 되겠읍니까?

또 하나 우리 國民들께서 꼭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維持가 되는 制度가 確立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 社會 一角에는 民衆 革命을 꾀하겠다고 所謂 左傾化된 勢力이 金日成과 똑같은 路線을 採擇하고 있는 不純勢力이 있어요.

이런 것이 萬若에 우리 社會에서 得勢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죽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라는 北傀의 쇠사슬에 그리고 그대로 生地獄에 들어 갈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危險한 勢力을 우리 社會에서는 뿌리를 못내리게 우리 健全한 思考를 가진 國民들이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되고 아울러서 制度는 다시는 過去와 같은 쓰라린 前轍을 안 밟는 그야말로 國民이 모두가 同參하고 國民에게 모든 利益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制度의 發展이 꼭 이루어져야 겠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當面한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너 너덧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勿論 저보다 識見이 높으시고 이미 알고 계신 事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實踐을 안하면 아무 所用이 없읍니다.

이 어려운 狀況을 당해서 우리 健全한 國民들이 정말 튼튼하게 우리의 位置를 지키고 國民들을 잘 敎育하므로써 다시는 國家가 混亂 속에서 安定을 잃고 그야말로 國家의 發展이 몇 拾年 뒤로 後退하는 이러한 쓰라림을 맛보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萬若에 安定과 和合이 바탕이 안되는 極烈的인 對立과 混亂 속으로 다시 우리 政局이 휘말려 들어간다면 80年度에 우리가 經驗한 그러한 마이너스成長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2～30年 뒤로 後退하는 이런 悲劇을 우리는 맛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委員님들이 地域을 前提로한 우리의 갈길이 過去의 쓰라린 經驗을 다시는 밟지 않는 方向으로 잘 啓導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已往 모이신 김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地域指導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 道政이든 中央政府에 바라는 것이든 많은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셔서 이 모임이 아주 生産的이고 좋은 成果를 거두는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9월 11일

大 會 辭

오늘 우리 고장 畜産 家族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햇동안 畜産에 땀흘려 일한 結實을 거두고 優良家畜을 選拔, 그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나 豊饒로운 收穫을 눈앞에 두고 豫期치 않은 颱風 "베러"號가 來襲하였으나 온 道民의 事前對備와 神의 加護로 큰 被害없이 이처럼 家畜品評會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畜産은 農事와 不可分의 聯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農村所得의 兩大支柱가 바로 農事와 養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近者에 와서 農事와는 別個로 畜産만을 全業으로 하는 養畜家가 많이 생겼읍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農事의 副産物을 家畜의 먹이로 쓰는 등 家畜飼料 問題가 畜産의 가장 큰 宿題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더 잘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畜産當局이나 養畜家들이 다 같이 우리 韓國의 土壤과 氣候에 適應하고 家畜을 잘 키울 수 있는 飼料作物의 開發이라든가 農産副産物의 加工處理에 心血을 기울여 나가야만 하겠읍니다.

國土가 넓고 草地資源이 豊富한 저 北美나 濠洲, 南美 등 大平原의 畜産國을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좁은 땅이나 山岳 또는 丘陵地도 알뜰히 利用하는 스위스나, 갯벌을 막아 草地를 만드는 "네덜란드" 등을 우리가 본받아서 알뜰하고 創造的인 畜産國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國民들이 食生活이 穀物에 置重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與件으로 지난 해와 같은 소값의 波動과 牛乳의 積滯 등 많은 苦衷이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의 一時的인 現象일 뿐 우리에게는 畜産王國이라는 大命題가 우리 畜産人들의 두 어깨 위에 짐지워 있다고 봅니다.

특히 丘陵地가 많고 山이 낮은 우리 忠南地方은 全國에서도 畜産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고장으로서 우리의 奮發을 기다리고 있다 하겠읍니다.

앞으로 우리 "으뜸忠南"의 道政도 畜産振興에 대한 으뜸을 指向하겠지만 이 고장 養畜家 여러분께서도 山野草나 볏집 등 賦存飼料 資源의 開發이나 効率的인 草地의 造成에 힘써 주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바른 畜産情報의 入手와 經營의 合理化와 技術向上 등 우리의 活路는 無限大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家畜品評會가 우리 고장 畜産人들이 내고장 畜産의 先進化에 새로운 다짐이 되기를 바라면서 受賞者 여러분에게 祝賀를 드리고 審査委員 여러분에게 致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保寧 水産種苗 培養場 竣工式

1986년 9월 12일

祝　　辭

오늘 尊敬하는 姜榮植 水產廳長님,이고장 出身 李相翊 議員님과 金玉仙 議員님,그리고 來賓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大川 水產硏究所 保寧 種苗培養場 竣工式을 갖게 된 것을 導民과 더불어 眞心으로 歡迎하고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竣工을 보게 된 이 水產種苗 培養場은 우리 나라 沿岸의 水產資原이 漸次 枯渴되어 간다는 憂慮가 있는 이 때, 우리의 水產養殖 發展을 위해 人工的으로 種苗를 生產 普及하므로써 水產韓國의 새로운 方向을 提示하고 이제까지 自然的으로 자란 고기만을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우리의 水產業을 振興시킬 前進 基地라고 생각을 합니다.

本人은 이 자리를 빌어 이 科學的이고 未來指向的인 이 漁業의 搖籃을 이처럼 現代式 施設과 裝備를 갖추어 이곳에 建立하도록 配慮하여 주신 姜榮植 廳長님과 始終一貫 工事를 맡아 指導해 주신 國立水產振興院長님, 여러 가지로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各界의 聲援과 漁民 여러분에게도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이 忠南의 水產業 發展을 위해서 끊임없이 努力하고 계신 各級 水產關係 人士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도 致賀를 드리고자 합니다.

平素에 여러분들의 不斷한 努力이 있었기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水產物의 需要에 대하여 蹉跌없이 對應해 나가는 것으로 本人은 알고 있읍니다.

무릇 農民이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漁民들이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은 定한 理致입니다.

더구나 바다는 世界 食糧資源의 마지막 寶庫라고도 합니다.

水產資源의 食糧化를 위해 先進 各國에서는 오래 前부터 이 方法에 대한 硏究를 거듭해 오고 있으며, 養殖에 의한 海產物의 供給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實情입니다.

더우기나 國土가 좁고 3面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의 形便이고 보면, 앞으로 國力이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다밖에 없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忠南道만 해도 1千㎞ 以上의 海岸線과 300餘個의 島嶼, 그리고 4萬餘ha의 廣闊한 干拓地를 가지고 있는 등 바다를 利用할만한 天惠의 與件이 있는데도 우리 道民은 그 동안 이를 充分히 活用하고 能動的인 開發이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共通된 느낌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海耕의 時代, 西海岸 開發의 時代를 바라보면서, 우리 고장 漁民들의 自主的인 努力과 政府의 特別한 支援으로 昨年에는 大川 水產硏究所가 新設되고 大川과 瑞山에 漁村指導所가 設立되었으며 今年에는 이처럼 水產種苗 培養場이 竣工되고 보니 바야흐로 西海岸 開發의 序章을 열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海洋漁業과 발맞추어 內水面 漁業의 開發에도 着手하여 論山에 內水面 開發試驗場을 施設中에 있읍니다.

이 事業이 完成되면 우리 道도 이제는 水產業이 發展할 수 있는 根本的 基盤이 마련되게 되므로 이에 대한 水產關係 人士 여러분과 우리 漁民들의 뜨거운 呼應이 뒤따라야 할 줄 압니다.

그러한 次元에서 오늘 竣工을 본 이 種苗培養場 施設에서 硏究 되고 培養된 漁種의 稚魚를 고스란히 키워서 우리 漁民들의 所得과 直結될 수 있는 先進養殖技術의 普及과 漁民들의 參與가 앞으로 매우 所重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 다른 고장에 比하여 比較的 落後性을 가졌던 우리 고장의 水產業이 劃期的인 發展을 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先進 水產業의 고장으로 發展할 수 있을 것이라고 本人은 確信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竣工式을 契機로 하여 이제까지의 在來式 漁業에서 科學하는 漁業에 더 큰 比重을 둘 것을 다짐하면서 大川 水產硏究所 保寧 種苗培養場의 無窮한 發展과 우리 西海岸 漁民들의 豊饒로운 水產所得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9월 13일

致 辭

지난 여름의 수고와 成長이 알찬 結實을 재촉하는 이 季節에 우리 고장 새마을 테니스 同好人들이 한 자리에 모여 大統領下賜旗 爭奪 忠南豫選戰을 兼한 第3回 道知事旗 爭奪 테니스 大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새마을 테니스 家族 여러분의 行事는 우리가 오랫동안 國民的인 力量을 結集하여 準備해온 아시아 競技大會를 눈앞에 두고 갖는 體育大會라는 點에서 큰 意味가 있다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忠南道가 오랫동안 우리 나라 體育發展에 있어서 그 어느 고장보다도 앞장서 寄與하고 傳統과 뿌리깊은 體育의 고장으로서 "으뜸"의 名譽를 지켜왔음을 여러분과 더불어 自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傳統과 土臺 위에서 테니스를 비롯한 여러 種目의 새마을 스포츠도 恒時 全國에서 先頭에 서 있음을 自他가 認定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제 우리의 歷史的인 아시아 競技大會를 앞두고 特히 우리 고장 大田에서 치뤄지는 蹴球競技라던가 聖火奉送 등 祝典의 準備를 마무리하는 이 때, 오늘의 새마을 스포츠모임은 그 동안 우리가 準備해온 손님맞이 道民力量의 結集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포츠 發展이나 國際스포츠 行事의 準備가 專門的인 體育選手나 政府의 힘만으로 可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純粹하고 自發的이며 能動的인 民間體育의 뒷받침을 통해서 우리의 國民體育이 더욱 發展할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입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各己 고장의 名譽와 職場의 이름을 걸고 열띤 테니스의 技倆이 펼쳐지겠읍니다만, 우리는 이와 같은 親善과 友情을 통해서 來日의 더 큰 發展과 意志를 샘솟게 한다고 하겠읍니다.

우리의 스포츠는 單純한 스포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平素 日常生活에서 累積된 精神的 疲勞를 씻어내고 來日을 向해 새로운 意慾을 生成시킨다는 點에서 더 큰 意味를 찾아야 한다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나 5千年 가난과 無氣力을 몰아내고 勤勉, 自助, 協同의 精神으로 20世紀에 「韓國民의 神話」를 創造한 우리 새마을運動의 精神을 가다듬고, 새로운 親睦과 交流, 和合과 前進을 가다듬으려는 이 자리는 그 어떤 體育 모임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새마을 家族 여러분의 水準높은 스포츠 精神이 遺憾없이 發揮되어 秩序있는 競技, 깨끗한 勝負, 뜨거운 和合의 테니스 大會가 되어 줄 것을 期待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테니스 잔치를 準備해 주신 丁淳基 忠南道 새마을테니스聯合會長님을 비롯하신 同好人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합니다.

感謝합니다.

反共 綜合教育會舘 竣工

1986년 9월 15일

祝 辭

오늘 이 고장의 뜻있는 反共 指導者들과 우리 300萬 道民의 精誠으로 이처럼 우람한 反共綜合教育會舘을 建立하고 그 竣工과 더불어 開舘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6.25와 共產主義者들의 人間抹殺, 人倫道德을 壓殺하는 慘酷한 時代를 體驗한 世代들이 그 體驗을 마음 속에만 간직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다음 世代에게 아픈 歷史의 教訓을 積極的으로 가르칠 수 있는 反共教育의 搖籃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反共綜合教育舘을 세운 이곳 大田教導所자리는 同族相殘의 渦中에서 北韓 共產黨이 저지른 가장 惡辣한 蠻行의 現場이요, 우리 反共愛國志士들이 自由와 祖國의 이름 앞에 最後를 마친 敬虔한 歷史의 遺蹟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世代前에 2千餘 愛國志士가 이곳에서 共產徒輩들에 의하여 비록 一身의 生涯는 마쳤지마는, 永遠으로 이어지는 自由와 平和, 그리고 祖國繁榮에 대한 意志를 꺾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愛國志士들의 뜻을 받들어, 永遠한 反共의 徵表를 세우고 祖國의 平和統一을 向한 道民精神의 샘터로 삼고자 합니다.

이곳 歷史의 現場은 비단 共產黨에 犧牲당한 愛國志士들의 아픈 상채기만을 새긴 곳이 아니라, 日帝의 彈壓에 분연히 일어서 民族의 自尊과 生命의 불꽃을 지핀 3·1運動 以後 安昌浩 先生을 비롯한 여러 民族指導者들이 令圖의 몸으로 겨레의 進路를

構想한 民族魂 思惟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읍니다.

나라와 民族에게 힘이 없던 時代, 우리는 外勢의 蹂躪앞에 束手無策이어야 했던 아픈 歷史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受難의 20世紀는 이제 終半期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는 民族과 國土의 分斷이라는 外勢의 根本的인 被害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被害의 原因을 가져다 준 것은 外勢이지만, 이것을 治癒할 主體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라는 것을 오늘 이 反共의 現場에서 깊이 認識하려 합니다.

오늘날 民族統一과 先進祖國의 創造라는 벅찬 課題를 안고 있는 우리 世代앞에 蘇聯은 또다시 極東에 군침을 삼키고 있으며, 지난날 우리를 괴롭힌 日本은 새로운 樣相의 國家主義가 表面化되고 있음을 우리가 銳意 注視해야 할 것입니다.

世界의 耳目이 集中되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條件없이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없으며, 우리의 生存과 繁榮을 結局 우리의 손과 힘으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近來에 一部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는 幻想的인 삶의 價値觀이나 左傾化의 表出을 보는 우리 旣成世代의 마음은 錯雜하지만, 이에 잠겨 있을 겨를이 없읍니다.

이처럼 反共教育會館의 建立과 같은 積極的인 다음 世代의 教育, 그리고 民族自主精神의 發揚만이 지금 切實한 것을 强調하면서, 이 反共의 歷史教育館의 開館을 거듭 祝賀드립니다.

이 뜻깊은 事業에 精誠을 다하신 李炳益 反共聯盟 忠南道支部長님을 비롯하신 關係人士와 道民의 聲援에 대하여 謝意를 표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9월 16일

歡 迎 辭

오늘 서울에서 開幕되는 아시아人의 祝典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저희고장 忠淸南道 天安에서 86.88 올림픽 스포츠科學 學術大會가 열리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고장을 찾아 주신 國內外의 스포츠科學者 여러분을 300萬 道民과 함께 歡迎합니다.

이곳 忠淸南道는 우리 大韓民國의 13個 市·道 中에서 面積이나 道勢로 볼 때에는 7번째 程度의 中位圈에 屬하는 農業과 水產業, 그리고 新興工業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地方입니다.

特히 가까운 忠南道의 首都 大田에는 테크노포리스인 大德硏究團地와 韓國科學技術大學이 있음을 紹介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 貴賓들께서 學術大會를 하고 있는 이곳 天安은 忠淸南道에서는 두번째로 큰 都市이며 이 地域뿐만 아니라 韓半島를 통털어 交通의 要衝地로서 陸路로 天安을 거치지 않고는 韓國을 縱斷할 수 없는 길목입니다.

이러한 交通의 重要性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여서 이곳 天安은 능수버들이 늘어진 驛馬를 中心으로 나그네들의 수많은 哀歡과 民謠를 誕生시킨 歷史의 땅이기도 합니다.

忠淸南道地方 全體로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1千 300 餘年前 그 燦爛한 百濟文化가 피어 韓民族에게는 民族文化의 原流가 되고 바다건너 日本에게는 日本文化의 줄기

가 된 이른 바 "아스카" 文化의 鼻祖가 되기도 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學術大會를 契機로 하여 120年 동안 王都로서 繁榮의 자취가 서려 있는 가까운 公州나 扶餘를 觀光하신다면, 그 옛날을 산 先人들의 아름다운 文化와 슬기를 한눈에 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由緖깊은 곳에서 열리는 이번 스포츠科學 學術大會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보다 나은 삶"을 主題로하여 分科別로 깊고 폭넓은 學術分野가 眞摯하게 討議되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本人은 그 學術分野에 대하여는 깊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人類는 스포츠를 通해서 健康을 維持하고 精神修養과 人間의 意志를 키워가는가 하면 禮節과 協同心을 기르고 또 對話와 友情을 나누는 더없이 좋은 人間의 直接活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스포츠活動이 한 個人이나 地域社會의 範圍를 넘어서 國際間의 平和와 繁榮, 그리고 人類의 共同善 追求에 큰 役割을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 좋은 例로서 60年代 이데올로기의 對立이 깊었던 中華人民共和國과 美國의 핑퐁을 통한 交流는 스포츠가 平和와 友情의 架橋를 놓은 極致였으며, 오늘날 서로 理念과 體制는 달라도 스포츠로써는 서로 손을 잡는 것이 當然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世界의 平和와 繁榮에 이바지하는 根本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國內外 學者 여러분의 學術大會도 學問을 통해서 스포츠의 歷史와 哲學, 社會, 行政, 教育, 生理, 醫學 등 全方面에 걸친 平素의 研究와 情報를 주고 받음으로써 人類의 스포츠 發展에 寄與하고, 世界를 하나로 묶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의 팡파르와 더불어 慶州에서 採火된 聖火가 이곳 天安을 거쳐 서울 綜合競技場으로 奉送하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을 期待하면서 이틀 후에는 韓國人 最大의 名節인 秋夕이 있읍니다.

累千年 동안 스포츠 行事와 곁들인 이 韓國人 固有의 名節을 잘 觀察하시고 즐거운 旅程이 되시길 빕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을 歡迎합니다.

感謝합니다.

第25回 大田市民의 날 및 第4回 한밭祭

1986년 9월 16일

致 辭

오늘 90萬 大田市民 여러분의 和合과 團結, 그리고 跳躍을 誇示하는 第25回 市民의 날 行事와 아울러 第4回 한밭祭가 이처럼 盛大하게 베풀어지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祝典은 지난 1年 동안 市民 여러분이 모든 分野에서 땀흘려 일한 알찬 結實을 거두고 來日의 繁榮을 다짐하는 創造의 마당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祝典은 30億 아시아人의 큰 잔치인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 期間中에 열리게 되므로써 우리 고장의 格調높은 傳統文化를 國內外人士에게 한껏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點에서 더욱더 그 意義가 크다고 하겠읍니다.

本人은 먼저 이 자리를 빌어 國土의 中心都市로서 雄飛하는 大田, 그리고 「으뜸忠南」을 活氣차게 先導하는 大田을 위해 力量을 다해 주시는 90萬 大田市民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드리면서 우리가 目標로 하는 2千年代初 雄大한 내고장의 靑寫眞을 다함께 成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第5共和國 出帆과 더불어 모든 分野에서의 安定을 바탕으로 汎國民的 和合과 意志를 앞세워 努力한 結果 半萬年 民族史를 통해서 가장 旺盛한 國運이 샘솟고 있으며 머지않은 將來에 先進祖國의 門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大田市는 이러한 國家發展의 途程에서 가장 注目받고 있으며 飛躍的인 發展을 거듭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共感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처럼 國家의 中樞的 機能과 役割을 맡을 내고장 大田의 開發에 있어 그 發展과

成長의 主體요 主人이 되는 우리 市民들의 姿勢를 가다듬을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 것은 모든 發展이나 成長이 主人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사 主人的인 求心點없이 이루어진 發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一時的인 것에 不過하여 끈질긴 生命力이나 遠大한 꿈을 가질 수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市民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날을 맞아 多彩로운 記念行事를 갖고 아울러 한밭祭라는 市民祝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鄕土愛를 昇華시키고 내고장의 主人意識을 涵養하는 더없이 좋은 한마당 市民잔치가 되기를 期待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우리 周邊의 發展的 要因을 能히 受容하고 또 毅然하게 누릴 수 있는 精神的인 眼目과 마음의 그릇을 마련할 必要가 있다는 事實입니다.

天理에 順應하는 마음.

착하고 義로운 마음.

또 끈질긴 執念으로 새로운 時代를 開拓하는 勇氣야말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본받고 이어가야 할 바람직한 市民像입니다.

더우기 燦爛한 百濟文化의 發祥地인 이곳 한밭벌에서 벌써 네번째를 맞는 祝祭를 통하여 우리 市民 여러분들의 文化意識을 크게 높아졌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배로운 行事가 그 옛날 우리 祖上들의 아름다운 傳統을 再現시키고 아울러 새로운 文化도 創造할 수 있게되기를 希求합니다.

그리하여 「으뜸忠南」을 成就하고자 하는 300萬 道民의 意慾과 다짐을 先導하고 豊饒롭게 하는 契機가 될 것을 期待하여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이 뜻깊은 잔치를 마찬한 沈大平 市長을 비롯한 公務員 여러분의 精誠과 90萬 大田市民 여러분의 聲援에 대하여 致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86 아시안게임 스포츠科學 學術大會 午餐

1986년 9월 16일

人 事

오늘 아시안 게임 스포츠科學 學術大會에 參席하신 스포츠科學者 여러분을 300萬 道民과 더불어 眞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今番 開催되는 스포츠科學 學術大會는 서울 아시아 競技大會를 前後한 期間중에 갖는 大會로서 스포츠發展을 위한 奬勵와 指導, 紐帶强化 등 懸案問題를 廣範圍하게 討意하는 값진 大會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國際的인 行事를 우리 道에서 開催하게 됨을 本人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고장 忠淸南道는 民族의 꿈이 서려있는 神話의 땅이며 聖賢을 많이 輩出한 地域이기도 합니다.

時間 나시는대로 古代 百濟의 古都와 博物館, 그리고 1千500年前의 王陵 등을 두루 살펴봐 주시어 記憶에 지워지지 않는 有益한 時間이 되시길 바라겠읍니다.

아무쪼록 스포츠科學 學術大會를 통해서 더욱 우리 道와 友誼를 다지시길 바라면서 本人이 準備한 조촐한 午餐이나마 즐거히 드시길 바랍니다.

本人은 여러분을 歡迎하는 乾杯를 提議합니다.

感謝합니다.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 聖火奉送 安置式

1986년 9월 16일

歡 迎 辭

親愛하는 聖火奉送 要員여러분!

그리고 奉送團 여러분!

오늘 人類의 幸福과 繁榮을 위한 和合과 前進의 祝典인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를 밝히는 "아시안의 불꽃"이 이곳 忠節의 고장「한밭」에서 300萬 道民의 가슴 속에 함께 타오르게 된 것을 眞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이 올림픽의 聖火를 높이 들고 가을의 푸른 蒼空 黃金물결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錦繡江山을 힘차게 달려 아시아 競技大會의 기쁨을 全國 坊坊 曲曲에 알리는 일은 여러분에게는 크나큰 보람이요 祖國에는 더 없는 榮光이 아닐 수 없읍니다.

本來 聖火는 하늘이 人類에게 내려 주시는 神聖한 불로 大會의 始作과 끝을 裝飾하는 所重한 行事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神聖한 聖火가 1950年 第1回 印度 뉴델리大會 때에 처음으로 登場하게 되었으며 그후 아시아 競技大會 開催國에서 번갈아 採火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由緖깊은 올림픽의 불은 이번 大會에서는 慶州 花郎教育院에서 採火하여 하늘과 바다와 땅의 불길을 밝혀올 聖火가 300萬 道民의 祝福 속에 이곳「한밭」에 安置되어 "더욱 크게" "더욱 뜨겁게" "더욱 환하게" 활활 타올라 가을의 밤하늘을 수놓게 될 것입니다.

이 聖火의 奉送에 따른 모든 祝典은 全國民의 和合을 다지고 大會 雰圍氣를 한층 高潮시키게 되며 우리 文化를 全世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여러 民族의 마음을 하나의 불꽃에 모아 親善과 友宜를 다지고 나아가 世界平和에 寄與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슬기와 精誠을 한데 모아 30億 아시안의 祝典을 主導하므로써 새로운 希望과 勇氣를 불어 넣어주는 民族史的인 金字塔을 세울 것으로 確信합니다.

여러분 聖火奉送者들이 3千里 錦繡江山을 두루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어 달리는 모습이야말로 온 國民 모두가 아시아 大會에 同參한다는 一體感과 理想을 마음 속 깊이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흘 後면 우리 大田에서 5個國이 參加하는 蹴球 豫選競技가 開催케 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地方 蹴球大會의 熱氣도 한층더 高潮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東邦의 등불" 繁榮의 길을 거치는 聖火가 우리 忠南地域에서 사흘 동안에 都市와 農村을 두루 밝히게 되었음을 祝賀하면서 이번 行事에 積極的인 聲援을 하여주신 서울 올림픽組織委 關係官 여러분과 各級機關長님께 깊은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 聖火奉送 出發式

1986년 9월 17일

歡 送 辭

오늘 30億 아시아人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永遠한 前進"을 約束하는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 聖火가 우리「한밭」에서 하룻밤을 묵고 서울의 메인스타디움을 향하여 出發의 힘찬 발걸음을 내 딛게 되었읍니다.

이 聖火는 아시아 競技大會가 開幕되는 9月 20日 和合, 前進, 繁榮을 約束하는 세 갈래의 불꽃이 하나가 되어 잠실 올림픽 主競技場의 聖火台에 點火되고 人類의 오랜 念願인 永遠한 幸福과 繁榮을 기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9月 12日 午前 11時에 慶州 花郎教育院에서 採火된 聖火가 우리 道에서는 사흘간에 걸쳐서 總 74個 區間 300餘 키로미터를 805名의 聖火奉送走者 要員이 奉送하게 됩니다

이러한 뜻깊은 行事에 參與하는 要員 여러분은 크나큰 幸運으로서 우리 道民을 代表한 使命感과 召命意識이 두 어깨 위에 뿌듯이 놓여 있다고 하겠읍니다.

여러 奉送要員들께서는 맡은 바 任務가 莫重함을 깊이 認識하고 所任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 고장을 가로질러 聖火를 奉送하는 동안 沿邊곳곳에서 歡迎하고 歡送하는 기쁜 行事가 多彩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祝福의 熱氣 속에 이루어지는 聖火의 奉送行事는 우리들 마음 속에는 無限한 可能性을, 그리고 道民에게는 國運隆盛에 寄與하려는 힘찬 意志를 샘솟게 하여 아시아 地域에서 名實相符한 스포츠 指導國으로 浮上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21世紀는 韓國의 世紀"라는 神話를 創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聖火奉送要員 여러분은 부디 씩씩하고 活氣찬 모습을 誇示하여 忠節의 道民像을 遺憾없이 宣揚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00萬 道民의 크나큰 聲援을 담아 聖火를 歡送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9월 20일

開 會 辭

멀리 아세아의 各國에서 오신 蹴球選手團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온갖 結實이 알차게 여물고 가을하늘이 높고 푸르러만 갈 때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 蹴球豫選大會가 우리 고장 한밭벌에서 이처럼 盛大히 베풀어지게 된 것을 300萬 道民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바다를 건너 大陸을 넘어 저희 고장을 찾아주신 네팔, 방글라데시, 이란, 日本, 쿠웨이트 選手와 任員 여러분을 眞心으로 歡迎합니다.

30億 아시아人의 友情과 團結, 그리고 永遠한 繁榮을 象徵하는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를 위해서 우리 韓國民은 知慧와 精誠을 다하여 오늘을 準備해 왔읍니다.

우리 忠淸南道에서도 道民의 積極的인, 參與와 聲援을 앞세워 저희 나름대로는, 손님맞이를 充分히 準備를 해 왔읍니다.

그리고 지난 16日 慶州에서 採火된 聖火가 和合, 前進, 繁榮의 세갈래 불길로 나뉘어 國土를 누비면서 繁榮의 불길이 내고장을 지날 때 보여 준 道民의 뜨거운 歡迎과 祝典을 보고 300萬의 和合으로 이룩된 襟度를 確認할 수 있었읍니다.

또한 같은 날 天安에서는 온 世界 學者들이 한 자리에 모인 스포츠科學 學術大會와 더불어 오늘 이 자리는 실로 아시아 競技大會에 따른 세가지의 祝典을 우리 고장에서 치뤘다는 道民的 自負와 矜持는 오늘을 사는 우리世代는 勿論 먼 훗날 우리 後世에까지 크나큰 자랑으로 남을 줄 압니다.

멀리서 이 고장을 찾아주신 各國選手團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이제 아시아人의 마음 속에 타오르는 저 聖火의 意味를 되새기는 것이 매우 所重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를 통한 單純한 競爭의 意味를 넘어 서로 皮膚를 맞대고 부비는 理解와 交流의 廣場이고 아세아의 傳統과 文化를 하나의 가마솥에 넣어 새로운 理想을 實現하는 創造의 마당이며 온世界 人類의 平和와 繁榮에 이바지하려는 아시아人 未來의 廣場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우리 韓國民으로서는 앞으로 2年後 이 땅에서 開催될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世界 人類의 祝典을 準備하는 크나큰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터입니다.

본디 모든 發展이나 榮光은 아무런 努力이나 代價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古今의 平凡한 眞理입니다.

우리 300萬 道民의 精誠으로 準備된 이 地方 蹴球豫選大會, 그리고 온國民이 參與한 이번 아시아 競技大會를 所重한 經驗과 거울로 삼아 서울 올림픽의 成功的인 開催는 勿論 世界史의 編纂에 寄與하려는 우리 韓國民의 意志를 보여 줄 것입니다.

우리모두 뜨거운 歡迎과 精誠을 다하는 祝典, 그리고 永遠한 前進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感謝합니다.

1986년 9월 26일

致 辭

오늘 그 옛날 아름답게 꽃피었던 百濟文化를 갈고 닦아, 겨레의 繁榮을 이룩하는데 寄與하려는 15萬 扶餘郡民의 意志를 담은 第32回 百濟文化祝典이 이처럼 盛大히 베풀어지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깊은 歷史와 傳統, 格調높은 藝術과 情趣를 간직한 百濟文化祭가 서른두돐의 나이테를 긋게 된 것은 그만큼 成熟되고 圓熟美를 자랑하게 되었음을 郡民 여러분과 더불어 自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滿足하지 말고 보다 正確하게 옛 先祖들의 슬기를 再現하고 오늘의 現代文明에 調和시키면서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는 能力을 키움으로써 훌륭한 祖上을 둔 後孫의 矜持를 다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날 우리 先代들의 榮光스러운 歷史와 簡簡했던 受難, 그리고 지금 先進祖國의 創造에 沒頭해 나가는 우리 世代의 意慾을 함께 알고 흐르는 저 白馬江의 흐름을 깊이 認識하려 합니다.

柔然하면서도 줄기차게 흐르는 저 江물의 끊임없는 流速, 때로는 急한 물살로 소용돌이치고 휘몰아가는 물굽이의 底力, 그리고 모든 것을 包容하고 沈默하는 저 白馬江의 물깊이를 本人은 百濟精神의 含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江물의 흐름은 바로 가볍게 表現하거나 行動하지 않는 우리 忠南道民의 무게나 쉽게 달구어지지 않으나 한번 불붙으면 끝없이 타오르는 끈기와 底力, 그리고 모든 것을 깊이 思惟하고 조용히 自足하는 百濟의 微笑와 無關하지 않다고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는 이 百濟精神의 繼承과 잔잔한 百濟微笑의 實現에서 내고장의 發展을 꾀하고 先進組國의 繁榮에 寄與하며 百濟文化에 버금가는 文化遺產을 우리의 後代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近世初에서 얼마 前까지 우리 스스로의 生存과 歷史와 文化를 가눌 수 없었던 試鍊期에는 할 수없이 남의 나라 것을 끝없이 받아드리고 남의 것이라면 다 좋아보이기도 했던 것이 事實이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自主精神으로 좋고 나쁜 것을 判斷하는 餘裕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于先 내 것을 알뜰히 찾고 가꾸고 이를 繼承하면서 꼭 必要한 것만큼 남의 文化나 價値를 受容하는 文化民族의 슬기가 지금 이 時代에 緊要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國民的 努力과 團結을 바탕으로 30億 아시아人의 祝典인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를 主導하고 있읍니다만, 華麗한 開幕式에 대한 世界의 讚辭나 感嘆은 남의 나라에서 받아드린 것이 아니라, 累千年 이 땅에서 自生된 우리의 傳統文化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開幕式을 갖고 多彩롭게 펼쳐지는 이 百濟文化祭도 이러한 觀點에서 많은 國內外 關光客이 지켜 보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鄕土文化의 한마당 잔치라는 點으로 우리 300萬 道民, 그리고 韓國人의 期待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品位와 秩序와 香氣높은 祝典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行事를 準備해 주신 百濟文化祭 宣揚委員會 人士 여러분, 그리고 郡民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9월 27일

祝 辭

오늘 大田文化放送에서 이 時代의 가장 값진 삶을 보여주신 올해 忠南文化市民賞 受賞者를 選定하고 아울러 그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衷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어느 時代 어느 社會나 그 時代와 사람들이 追求한 理想이나 價値觀은 存在하여 왔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歷史를 통해서 大義를 세우고 節槪를 지킨 수많은 偉人이나 人物을 많이 알고 있으며 또 尊敬해 오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國家와 民族을 위하여 크게 貢獻한 人物도 보고 또 君主時代에 臣下로서 忠誠을 다하거나 결코 名分을 저버리지 않은 훌륭한 先人들을 接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옛날 오랜 王朝時代의 가장 훌륭한 德目이나 價値觀은 윗사람에 대한 忠誠이나 自己 스스로의 一貫된 志操를 지키므로써 그 對象이 限定的이고 消極的인 善이었다고 解釋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追求하는 第一의 理想이나 價値는 그 對象이 限定되거나 消極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共同善을 自己 한사람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實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勸誘하는 大衆性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分野에서 오랫동안 社會德目의 啓蒙이나 奉仕 또는 地域社會發展에 直接 間接으로 큰 功을 쌓으신 受賞者 여러분도 이 社會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多樣한 共同善의 追求라는 點에서 讚辭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功績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오도록 啓導해 오셨으되 自己들의 功勞는

내세우지 않은 謙遜이 더욱 훌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忠南文化市民의 表象으로 發掘되신 여러분의 善行이나 業績은 그 뿌린 씨앗과 흘린 땀으로하여 이땅을 더욱 潤澤하게 하고 先進化의 過程을 더욱 加速시키는 結實을 가져올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 賞 받으신 분들에게 讚辭를 보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쌓은 德目이나 實踐에 同參하고 그 結實을 함께 나누어 갖자는 것이 오늘 이 施賞式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본받고 함께 實踐함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의 刻薄하고 複雜한 社會組織의 特徵으로 볼 때 實은 自己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도 簡單치 않음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물며 이 社會를 위하여 貢獻하고 奉仕한다는 것은 몇 培의 努力과 意志가 必要할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보람을 찾고 이 時代의 값진 理想을 實現하는데서 오늘 受賞者 여러분에게 尊意를 드리고 未來의 希望을 갖으려 합니다.

오늘 賞을 받으신 朴三用 先生님을 비롯하신 아홉분의 뜻이 우리 "으뜸忠南"을 目標로 하는 道政에도 크게 擴散되기를 期待하면서 이 뜻깊은 事業을 主管하신 宋善浩 社長님, 그리고 大田文化放送 社友 여러분에게 謝意를 표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1일

士氣振作과 實踐意慾 鼓吹

— 委託敎育을 마치고 —

正直, 秩序, 創造의 淨化理念이 우리 國民들의 마음 속에 타오른지도 6年이 지났읍니다.

그러나 淨化運動은 健全한 常識과 順理를 前提로 하여 先進國民意識을 涵養하여야 하는 精神運動이기 때문에 短時日內에 그 効果를 期待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運動이 보다 持續的으로 推進되어 자라나는 2世들에겐 健全한 價値觀을 심고 旣成世代들의 意識을 한 段階씩 改革해 나갈 때 우리가 指向하는 밝고 바른 正義社會가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道는 社會淨化運動의 効率的인 推進을 위해서 1次的으로 淨化推進委員들에 대한 敎育을 1千984年부터 重點的으로 實施하여 85年까지 2千120名을 淨化委員의 旗手로 精銳化한 바있읍니다.

今年에는 3月 10부터 4月 25일까지 14期에 걸쳐 1千910名에게 敎育을 實施하여 99.5%의 높은 參席率을 보이고 있읍니다.

敎育期間은 2泊3日에 120名式 11期를 實施하였고 女性淨化推進委員은 1日敎育으로 600名을 實施하였으며 敎育課程에 있어서는 合宿敎育은 講義 11時間, 自由討論 및 懇談 3時間, 分任討論 6時間 垂範事例發表 2時間, 視聽覺, 健全歌謠 2時間으로 配分하여 理論보다 討議事例中心敎育에 많은 期間을 割愛했읍니다. 敎育內容에 있어서도 安保意識과 社會安定, 地域淨化中心課題, 社會淨化運動의 實踐要領, 推進委員으로서의 使命과 役割 등에 重點을 두었읍니다.

그 結果

첫째, 淨化推進委員 自身들이 淨化運動에 대한 認識을 새로이 하는 좋은 契機가 되었읍니다.

이들 淨化委員들은 地域에서 淨化運動의 核心要員으로 活動하면서 各 分野에서 生業에 從事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自己職分을 잊어버려 淨化意志가 없어질 수도 있었으나 市·道委託教育을 통하여 淨化意志를 재다짐하고 또한 自己의 反省과 自覺의 契機가 된 것을 設文을 통하여도 알 수 있었읍니다.

設問調査結果 教育方法(講義, 討議, 視聽覺)이 잘 되었다고 應答한 것이 38%이며 講義水準이 理解하기 좋다고 하는 것이 98%에 達했읍니다.

또한 所定의 教育을 契機로 하여 淨化運動의 理念이나 實踐方法에 대하여 再認識하였다는 분이 97%에 達했음을 볼 때 多樣한 職業과 意識, 그리고 知的水準을 가진 이들 淨化委員들이 짧은 教育을 통하여 淨化運動에 대한 再認識과 實踐方法을 自覺케 함으로써 地域淨化組織의 核心要員이 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一線 淨化推進委員들의 士氣를 振作시키는 契機가 되었읍니다.

社會淨化運動의 一線擔當要員인 이들의 士氣에 따라 이 運動의 成敗가 크게 左右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教育入校出發前에 市長 郡守가 面談, 激勵 認定感을 賦與하고 市·郡버스나 其他 車輛을 提供하여 關係識員의 親切한 案內와 入校式에 道 韓部가 參席 激勵하며 自由討議時間에도 參與하여 45件의 建議 要望事項을 收斂, 誠意있게 處理 回信措置하는 등 淨化推進委員들의 士氣振作에도 크게 寄與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邑面淨化推進委員들의 指導力量 培養에 注力하여 分任討議를 통하여 發表能力을 培養했으며, 72%의 參加者들이 自己體驗의 反省과 他 經驗을 自己 것으로 間接經驗하게 되었다는 反應이었으며 이것이 곧 指導力量을 높여서 一線 淨化實踐運動에 크게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本人은 이번 委託教育을 통해 淨化委員들의 士氣가 振作되고 새로운 淨化雰圍氣를 造成하는 活力素가 됨으로써 各自 고장에 돌아가 一線에서 더욱 能力的으로 움직일 때 우리 社會보다 明朗하고 合理的인 價置觀이 支配하는 社會, 그리고 未來持向的이고 創造的인 意識으로 가득찬 先進國家로 發展될 것으로 굳게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1986년 10월 2일

追 悼 辭

오늘 나라와 故鄕을 잃고 멀리 異國 땅에서 一生을 마친 先人들의 靈前에 열한번째로 香을 피우는 이 자리에서 本人은 삼가 300萬 道民과 더불어 옷깃을 여밉니다.

나라와 계레는 있으되 主權이 없던 暗黑의 時代, 설움받으며 他國에서 사시던 怨魂들은 끝내 祖國의 光復을 보지 못하거나 光復 以後에도 祖國 땅을 밟아보지 못한채 幽明을 달리하신 분들이 여기 잠들어 계십니다.

또한 지난 3年前 우리 人間 社會에서는 도저히 容納될 수 없는 蘇聯의 KAL機 擊墜蠻行으로 어이없이 非命에 가신 寃魂들이 이곳 慰靈塔에 安息의 나래를 접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이 恨맺힌 生을 접은 靈前에 香을 피워 올리는 것은 不遇한 生涯를 마치고 가신 분들의 冥福을 비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世代나 우리의 後孫들이 다시는 똑같은 不幸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려는 다짐에 있는 줄 압니다.

魂들이시여!

이제 우리의 祖國은 지난 날 國力이 없었기에 설움을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 呼訴도 못하고 또한 呼訴하여도 우리 편이 되어줄 나라가 없었던 受難을 딛고 일어서 生動하는 나라 韓國, 繁榮하는 民族 倍達의 興隆을 온 世界에 떨치기 始作하였읍니다.

우리 계레의 跳躍과 隆盛은 5大洋 6大洲를 누비는 우리의 輸出 經濟에서 半萬年 歷史 속에 갈고 닦아온 우리 固有文化의 宣揚에서, 그리고 30億 아시아人의 祝典을 主導하고 있는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의 벅찬 成果에서 世界의 눈과 귀를 한곳으로 集中시키고 있는 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값진 經驗과 意志, 遠大한 希望과 알찬 設計를 바탕으로 우리 世代의 至上課業인 先進祖國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잠드신 魂들이시여!

앞으로 2年 後에는 오늘의 活氣찬 跳躍을 바탕으로 世界 人類의 祝典인 88 서울올림픽도 成功理에 치루어 祖國 大韓의 나래를 활짝 피워낼 것입니다.

그 때에는 저승에서도 이 땅의 繁榮을 祈願하는 님들의 加護에 報答하는 우리 6千萬 겨레의 자랑스런 모습, 저희 後代들의 줄기찬 底力과 力量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잠드신 魂 앞에 드리는 우리의 다짐이나 來日의 成就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땀흘리고 努力해온 것보다 더 많은 意志와 忍耐로, 우리의 課業인 先進祖國을 成就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 잠드신 寃魂들의 恨을 풀어 드리면서 떳떳한 後代의 任務를 다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그 祖國의 繁榮, 後代들의 永遠한 隆盛을 위해 靈魂들이시여 부디 굽어 살피소서!

그리고 고이 冥福을 누리소서!

第21回 全國 技能競技大會 出戰選手團 結團式

1986년 10월 9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名譽를 짊어진 靑少年 技能選手 여러분이 이번에 大邱에서 開催되는 第21回 全國技能競技大會에 參加하기 위한 結團式을 갖게 된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歡送하는 바입니다.

本人이 專門技能人을 目標로 工夫하고 있으며 先進技能에 人生을 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삼스러이 그 重要性을 强調하지 않더라도 最新技能과 科學技術의 必要性은 이미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本人이 이 자리에서 거듭 밝히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技能과 技術에 人生을 걸었듯이 우리의 國家도 科學技術의 振興과 尖端技能에 國運을 걸었다는 事實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西紀2千年까지는 우리 韓國이 世界 第10位圈內의科學技術 先進國으로 발돋음할 것을 다짐하고 政府는 이를 最優先의 政策으로 삼아 國民的인 參與와 聲援을 바라고 있는 터입니다.

이것은 바로 21世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별다른 資源이나 資本이 없이 生存과 繁榮을 追求하는 唯一한 길은 高級技術의 開發과 蓄積에 있다는 것을 우리 國民 모두가 認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個人的으로는 여러분의 人生, 크게는 國運의 明暗이 달린 先進技能과 技術의 振興과 發展에 있어서는 勿論 政府의 政策的인 配慮도 뒤따르겠지만, 여러분 技術人들의 意志로운 努力과 情熱이 成敗를 가늠한다는 것을 銘心해야할 줄 압니다.

오늘 全國技能競技大會에서 좋은 成績을 目標로 出戰하는 여러분입니다만 이 고장의 젊은 技能人들은 눈앞에 다가온 目標보다는 적어도 몇年 몇拾年의 앞을 내다보고 自己가 가는 分野에서 國內의 一人者 또는 世界의 頂上을 바라보는 遠大한 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꿈이 實現되기까지는 이번의 全國技能競技大會나 國際技能올림픽大會 出戰과 같은 段階的인 過程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단숨에 하나의 目標에 到達하거나 몇 段을 뛰어서 頂上에 우뚝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技能人의 길, 人生의 航路에 있어서 失敗는 있어도 敗北는 없다는 굳은 信念과 끈질긴 努力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여러분 앞에는 벅찬 榮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길은 다릅니다만 이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第10回 아시안게임에서 가난과 病魔와 외로움과의 끈질긴 싸움 끝에 끝내는 17歲의 少女로 陸上에서 3冠王을 차지한 人間勝利의 表象 林春愛孃을 비롯한 수많은 執念의 스포츠 選手들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技能 選手들도 그러한 執念과 誠實性, 그리고 希望을 가지고 努力하여 여러분의 人生도 빛내고 내고장의 이름도 높이고 더 나아가 先進祖國의 創造에도 寄與하는 賢明한 젊은이가 되어줄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그러자매 이번에 주어진 機會인 技能大會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能力을 遺憾없이發揮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壯途를 다시 한번 祝賀합니다.

感謝합니다.

제540돌 한글날

1986년 10월 9일

기 념 사

오늘 우리 배달 겨레의 생명이요, 전통문화와, 그리고 자주성의 터전인 한글 반포 오백 마흔 돐을 300만 도민과 더불어 이를 경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한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우리 고유의 글이 태어나게 된 의미와 발전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 말과 글의 성쇠를 통한 겨레의 생명력을 가늠해 보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글이 창제된 배경은 한글이 반포 되기 전에는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우리 말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기 좋은 우리의 고유 문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문자 역사이래 수 천년 동안 한자를 빌어 우리의 문화를 애써 일으켜 왔으나 그 한자는 이를 완전히 배워 이용하는 것은 그만두고,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데도 일생이 걸릴만큼 어렵고,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잘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자를 우리 말과 쉽게 연결시키려는 「이두」 등으로 토를 달아 쓰기도 하였으나 온 백성이 널리 배우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대중 문자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랜 역사나 문화는 그 기록의 한계성에 따라서, 한자를 이용했던 일부 상류 사회의 단편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한글이 일천년만 먼저 태어났더라도 우리 고유의 글인 한글을 통한 민족 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오히려 더 넓고, 깊고 다양한 서민층의 문화와 역사가 우

리 겨레의 생명력으로 꽃 필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태어난 후로는 나라의 주인적인 대접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선대들이 한글에 대한 천대와 소홀을 매우 아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불과 백년 전만 하여도 「언문」이나 암클이니 하여 공문서나 공식의 글로 쓰지 않고, 아녀자만이 사용하는 천한 글로 대접한 어리석음이 허다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오랜 왕조시대가 지나고 실용을 지향하는 서양의 진보사상과 과학문명이 들어온 20세기에 들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오히려 외국의 어문학자 들이 더 감탄한 사실을 우리 겨레는 깊이 반성하고, 우리 고유의 한글 사랑에 온 힘을 기울여야 옳다고 봅니다.

문자도 생명을 가진 것이어서 그 민족이 융성하면 글자 또한 따라 융성하고, 그 민족이 쇠잔하면 고유의 글도 쇠한다는 것은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읍니다.

중세기초 한때 만주 벌판에 대제국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이 쇠하자 지금 만주족의 말은 그들이 지배했던 티베트의 산 속에서나 채집이 가능 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이번 제 10 회 아시안게임에서 온 세계가 우리의 전통문화에 소스라쳐 놀랐듯이 우리는 세계의 인류가 한글에 대해서도 또다시 놀라도록 우리의 한글을 알뜰히 갈고 닦아 나갈 것을 도민과 더불어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林允洙의 著書「玄琴譜」發刊

1986년 10월 10일

祝　刊　辭

이번에 林允洙 大田市立燕亭國樂院長께서 우리 國樂振興에 하나의 길잡이가 될 玄琴譜를 發刊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林允洙 院長님이 우리 傳統化의 원줄기가 되는 國樂에 半世紀를 몸 바쳐온 專門 國樂人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읍니다.

弱冠이 되기 전인 17歲의 童顔으로부터 國樂의 길을 걸어오신 林 院長님은 言論人이란 本業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國樂이 本業으로 바뀌어버린 逸話를 지니게 되었읍니다.

一生을 통해서 모아온 7千餘卷의 所重한 國樂圖書와 樂器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만큼 애지중지 한던 것을 快히 公共機關에 獻納하여 오늘의 大田市立燕亭國樂院을 키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한 精誠과 情熱을 사루어 國樂에 몸바치면서 燕亭國樂解說集, 가야금譜, 단소譜 대금譜 등 4卷의 國樂關係 力著를 낸데 이어 이번의 玄琴譜는 다섯번째의 冊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 밖에도 燕亭 先生은 다른 國樂譜의 發刊도 構想하고 있다니 이 분의 國樂에 대한 情熱은 그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文學이나 美術 등 다른 文化藝術 分野와는 달리 比較的 뒤떨어졌던 이 고장의 國樂이 燕亭 先生, 그리고 이 분이 일하는 國樂院을 바탕으로 이 고장이 先進國樂의 고장으로 터를 잡아가고 있음을 自負하면서

力著, 玄琴譜의 發刊을 眞心으로 기뻐합니다.

1986년 10월 10일

激 勵 辭

오늘 平素 尊敬하는 이 고장 出身 金顯煜 議員님, 여러 機關·團體長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하신 가운데 우리 道內 農組 任職員들의 體育大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體育大會는 드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알찬 結實을 거두는 우리 農民들의 마음과 같이 하여 더욱 기쁘고 벅찬 感懷가 있읍니다.

우리가 6年 連續의 豊盛한 收獲을 얻기에는 造物主의 加護와 農民들을 위해서 갖가지 뒷바라지에 땀 흘려온 農組人 여러분의 勞苦, 그리고 農民들 스스로의 意志가 3位1體의 調和를 이루었다고 本人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조촐한 體育大會는 單純한 하나의 體育大會라기 보다는 올해의 豊年을 自祝하고 또 한걸음 나가서 農民과 이 地域社會, 그리고 國家에 보다더 奉仕하고 寄與하려는 農地改良組合 任職員들의 새로운 意慾과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장의 農組 任職員 여러분은 우리 行政公務員과 똑같이 道民을 相對로하여 恒時 農民들이 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能動的으로 도와주고 새로운 姿勢와 新鮮한 意慾으로 내고장을 위해서 貢獻해야 한다는 다짐이 必要한 줄 압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言論媒體의 迅速한 報道와 農業分野 書籍 등의 普及으로 農業技術이나 農事行政에 있어 오랫동안 일해왔다고 하는 여러분의 達觀된 見解나 單純한

自負는 禁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農民들이 앞서는 知識과 새로운 方法을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各已 여러 農地改良組合의 名譽를 걸고 出戰한 選手 여러분이 서로 技倆과 團結을 겨루는데 있어 누가 勝利하고 뽑낼지 모르는 것처럼 恒時 새로운 知識과 業務能力을 硏鑽하고 向上시킴으로써 組合員들의 信賴를 얻고 아울러 眞正한 奉仕者가 될 것으로 압니다.

어느 分野에서나 늘 새로운 情報와 知識이 끊임없이 發展하는 것이기에 모든 行政이나 業務에 있어서도 늘 未來와 發展을 향한 努力과 前進的인 姿勢가 아니라면 우리는 落伍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30億 아시아人의 祝典인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가 成功裡에 치뤄진 바 있읍니다만 이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보여준 우리 韓國人의 底力과 韓國이라는 國家의 成長에 世界는 勿論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努力의 代價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며 무엇이던지 끈질기게 追求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우리의 自信感을 일깨워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今年에 거두는 6年 連續의 豊年도 勿論 氣候나 여러 分野에 걸친 環境의 得을 본 것이 事實이지만, 豊年農事를 지으려는 우리들의 意志가 原動力이라는 點을 다시 한번 認識하려 합니다.

오늘 農組 任職員 여러분의 體育大會도 나와 내職場의 名譽를 위하여 끝까지 善戰하고 奮鬪하는 信念의 技倆을 十分 發揮함으로써 우리 고장 農地改良組合 任職員 여러분의 새로운 意慾이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10일

激 勵 辭

오늘 平素 尊敬하는 金東燮 國土統一院次官님과 洪性澈 民族統一 中央協議會 議長님이 激勵해 주시는 가운데 民族統一 忠淸南道 促進大會와 더불어 統一文藝優秀作品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고장 民統會員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平素 꾸준히 實踐하고 擴散시켜온 祖國의 平和統一에 대한 民間運動을 보다 效率的으로 結集하고 새로운 意慾을 充電하려는 굳은 다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共產主義가 무엇이며 그들이 허울좋게 宣傳하고 있는 統一方案과 凶計는 무엇인가를 共產主義를 體驗하지 못한 다음 世代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次元높은 民統會員들의 信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祖國統一은 單純한 念願이나 感傷的인 素望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冷酷한 國際情勢와 우리의 現實能力에 基因한 것이기에 여러분의 世代를 뛰어 넘는 이러한 實質的인 統一努力에 대하여 本人은 300萬 道民과 함께 致賀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80年代의 中半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歷史上 처음으로 輸出 300億弗을 突破하고 1人當 國民所得 2千弗을 넘어서는 驚異的인 國力의 伸長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國力의 成長에 힘입어 지난 해에는 對話가 中斷된지 無慮 12年만에 南北赤十字會談의 再開와 더불어 分斷 40年만에 처음으로 비록 制限된 人員이지만 꿈에

도 그리던 離散家族의 相逢이라는 벅찬 感激을 맛볼 수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政治와 經濟交流의 性格을 띤 國會會談과 經濟會談을 튼 바 있지만 北側의 一方的인 妨害로 因하여 지금은 이렇다할 進展이 없는 안타까운 現實을 우리가 經驗하고 있는 것입니다. 這間의 事情으로 미루어볼 때 저들의 制限된 對話愛諾이나 마지못한 交流는 眞正한 핏줄의 純粹한 發露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民主大韓을 속임수에 끌어 들이고 어떠한 方法으로 對南赤化統一을 追求할 것인가를 苦心하는 저들의 한 手段에 不過하다는 것을 如實히 證明하는 터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며칠 앞둔 金浦空港의 爆彈테러 事件만 보더라도 우리의 國力이 날로 커지고 南北間의 隔差가 벌어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先進祖國 創造가 國際的 地位向上을 저들은 같은 民族의 活躍으로 善意的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國力이 커질수록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共產統一 企圖가 不可能해질 것으로 알기에 모든 手段과 方法을 總動員하여 우리의 順調로운 進運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 前에 있었던 第70回 아시아 競技大會로 말미암아 안에서 內燃하고 있던 우리 民族의 知慧와 力量, 굳은 信念과 엄청난 底力이 活火山과 같이 밖으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 目擊하고 또한 온世界에 誇示한 바 있읍니다.

이 民族의 우렁찬 活氣와 團合된 底力이 순조롭게 前進해 나갈 수 있는 길에 障碍物만 없다면 統一된 祖國의 榮光된 모습도 우리의 눈앞에 서서히 다가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統一의 旗手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는 앞으로 우리의 約束된 前進에 障碍物이 될지도 모르는 北韓 共產主義集團의 挑發을 事前에 막아내는 國民的 努力의 先鋒이 되어주실 것으로 期待하는 마음으로 激勵의 말씀에 代하면서 祖國統一意志로 가득한 優秀文藝受賞 學生 여러분에게 祝賀를 보냅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11일

致　　辭

오늘 우리 고장 産業과 經濟의 主役인 勤勞者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第3回 大統領旗 爭奪 全國 勤勞者 體育大會 選拔戰 兼 忠南道 勤勞者 體育大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이 體育大會는 單純히 體力이나 技倆만을 다루는 運動會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精神과 知慧를 結集하고 團結과 協同을 極大化하여 얻는 기쁨과 結實이 무엇인가를 體驗하는 社會生活의 極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最善의 努力과 力量을 다하고도 맛볼 수 있는 正當한 敗北와 이를 承服할 줄 아는 雅量과 禮節, 그리고 남이 나보다 優秀하다는 것도 認定할 수 있는 規範과 忍耐도 함께 배우는 人生壓縮의 廣場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한마당 體育競技場의 覇氣滿滿한 勤勞者 여러분의 善戰과 奮鬪 속에서 勝利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敗北도 있고 寬容도 있으며 相對方을 尊敬할 줄 아는 人格과 民主市民의 力量도 함께 어울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훌륭한 體育人을 훌륭한 社會人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平素에 남보다 더 많은 努力과 技倆을 鍊磨하여 創造的인 力量을 發揮하거나 所屬팀에게 寄與하여 勝利를 차지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 비길 수 없는 榮光일 것입니다.

그러나 最善을 다하고도 남보다 뒤졌을 때 그 失望感을 忍耐하는 雅量과 相對方에

게 祝賀를 보낼 수 있는 禮節이야말로 體育人만이 가질 수 있는 紳士道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最善을 다하여 좋은 成績을 거두는 選手 여러분이나 出戰팀을 平素 여러분의 勤勞生活 속에서도 남보다 앞서가는 力量을 보여줄 것이라고 本人은 믿는 바입니다.

스포츠나 日常生活은 서로 個別의 것이 아니라, 다같이 우리 人間들의 꾸준한 努力과 誠實性을 要求하고 있으며 그 成果는 努力을 기울인 以下도 以上도 아니고 씨뿌리고 가꾼만큼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가 主導한 30億 아시아人의 祝典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經濟大國 日本을 누른 우리 民族의 숨은 힘과 10億의 中共을 이긴 슬기는 무엇인가 하고 世界는 勿論 우리 自身도 놀라고 있는 터입니다.

이것은 바로 體育뿐만 아니라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가진 文化와 精神遺産, 그리고 마음의 餘裕를 바탕으로 모든 力量이 一時에 溶解되고 噴出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今世紀에 漢江의 奇蹟을 이룩한 우리 韓國의 成長過程에서 또 하나의 神話를 創造한 아시안게임을 우리 고장 바로 이곳 한밭벌에서도 가진 바 있읍니다만 오늘의 勤勞者 體育大會는 이러한 우리 아시안게임의 主導한 底力을 再確認하는 道民의 力量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期待가 큽니다.

올 해에는 또 道民 體育大會를 치루지 않는 것이기에 가장 큰 規模의 이 體育大會가 道民體典을 代身하는 技倆과 秩序, 그리고 스포츠 精神이 한껏 發揮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善戰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15일

歡 迎 辭

오늘 우리는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끈기와 底力, 그리고 슬기로운 道民精神을 遺憾없이 發揮하여 經濟大國 日本을 제치고 綜合2位의 榮光을 차지하는데 크게 貢獻한 우리 忠南出身 選手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國民的 喊聲과 熱狂을 자아내게 했던 아시안게임의 莊嚴한 開會式이 있은지도 열흘이 지났읍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그 感激과 歡喜에 잠겨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애써 아시아 競技大會를 汎道民的 意志로 準備하고 멀리 南道를 달려온 聖火가 이곳 大田의 우리 道廳앞 廣場에 활활 타오를 때까지도 실로 우리는 우리의 勝利를 알지 못하였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 아시아드에 參加한 27個國 選手團, 그리고 30億의 아시아人은 勿論 온 世界도 韓國人의 底力, 韓國의 成長, 韓國의 그 爆發的인 旋風을 아무도 豫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금메달 금메달 또 금메달,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우쭐대고 傲慢한 日本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고 臥薪嘗膽하던 우리가 中半을 넘어서기도 前에 우리의 발밑으로 그들을 떨어뜨리고 10億을 넘는 中共과 雌雄을 겨루었던 것입니다.

親愛하는 이 고장 出身 選手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동안 온갖 精誠을 기울여 왔던 聖火奉送路 가꾸기, 市街地 丹粧에 쏟아왔던 그 귀한 땀,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選手 여러분을 뒷바라지 했던 父母님과 家族, 親知, 道民들의 뜨거운 期待가 이처럼 꽃으로 피어날 줄은 미처 몰랐읍니다.

그러나 選手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쁨과 絶頂의 瞬間에서 한걸음 물러서 오늘의 榮光이 있기까지 그 過程을 돌이켜 보면서 이 스포츠 韓國의 名聲, 格調높은 文化와 成熟된 市民의 모습을 收穫하면서 來日을 위한 再出發의 點檢에 나설 때라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選手 여러분의 自主的인 努力과 國民的인 聲援도 컸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國民的 潛在力과 可能性을 誘導하고 結集하는 데 求心點 役割을 다한 指導者의 力量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才能은 있으나 環境의 壓迫을 받는 運動選手들이 마음놓고 訓練에 임할 수 있도록 政策的으로 配慮해 주시고 果敢한 投資와 激勵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의 領導者 全斗煥 大統領閣下의 信念과 끊임없는 鞭撻이 오늘 이 國家的 榮光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는 單純히 그 스포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스포츠 力量이나 水準이 그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分野에 끼치는 影響과 그 나라의 國際的 地位에도 크나큰 몫을 한다는 것을 우리의 領導者는 일찌기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國民的 跳躍臺와 潛在力을 하나라도 헛되이 消費하지 말고 우리의 至上課題인 2千年代 先進祖國의 創造와 더불어 分斷祖國의 統一로 가는 길에 加速의 에너지로 삼을 것을 道民과 더불어 다짐합시다.

다시한번 우리 忠南出身 서울 아시아드 英雄들의 凱旋을 뜨겁게 歡迎합니다.

感謝합니다.

汎國民 올림픽 推進 忠淸南道協議會 結成總會

1986년 10월 15일

祝　　辭

오늘 平素 尊敬하는 金竣成 汎國民 올림픽 推進 中央協議會 副議長님, 우리 道의 各界 人士를 代表하는 代議員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汎民族 올림픽 推進 忠淸南道協議會를 結成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81年 9月 西獨의 "바덴바덴"에서 第24回 올림픽開催地로 서울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크나큰 기쁨을 안았지만 걱정도 앞섰던 것이 우리 國民들의 共通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해 11月 뉴델리에서는 第30回 아시아 競技大會마저 우리 韓國의 首都 서울에서 올림픽보다 2年앞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였을 때, 우리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意志가 以心傳心으로 불타오르기 始作하였읍니다.

그날로부터 5年 우리는 차근차근히, 그리고 묵묵히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거리, 食堂에서, 觀光遺跡地 淨化 등 밖으로부터 始作하여 우리의 意識을 높이고 親切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明朗하게 하려는 모든 精誠을 기울여 왔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競技場을 建設하고 選手들을 發掘하여 訓練하는 등 한 손에는 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運動器具를 잡는, 그야말로 全天候 올림픽 國民運動에 執念을 불사른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熱意와 꾸준한 實踐으로 하여 마침내는 서울 아시아드의 一大成功이라는 것입니다.

當初 우리의 期待보다도 훨씬 좋은 成績으로 그토록 우리를 얕보고 거드름을 피우던 日本을 누르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10億의 世界 第一 人口大國의 肝膽을 서늘하게 金메달 하나差異로 準優勝을 쌓아 올리는 20世紀의 奇蹟을 創造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奇蹟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 동안 우리가 우리의 領導者 全斗煥 大統領閣下를 中心으로 國民的인 一體感 위에서 얼마나 많은 땀과 意志와 希望을 불태워 왔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決코 當然한 結實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韓國人의 優秀性이나 오랜 歷史와 燦爛한 文化遺産을 否認하는 사람은 世界의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資質이나 與件, 그리고 可能性이 있다고 해서 모든 發展이나 成長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의 歷史的 體驗을 통해서 切實하게 經驗해온 터입니다.

우리의 潛在力을 일깨우고 可能性에 挑戰하는 國民的 智慧를 모으고 이를 擴散시켜 나가는 길잡이가 바로 指導者라는 것을 共感하는데 인색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國民的 力量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指導者의 信念과 哲學에 積極同參하고 이를 實踐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發展을 더욱 加速化시킬 수 있다는 것을 本人은 이 자리에서 强調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成功裡에 마치고 그 高貴한 經驗과 上昇氣運을 타고 앞으로 2年밖에 남지 않은 서울 올림픽을 향해 邁進하려 함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汎民族 올림픽 推進 忠淸南道 協議會의 結成을 祝賀드리면서 300萬 道民의 參與와 聲援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17일

大 會 辭

오늘 우리 겨레의 民謠 능수버들로 有名한 이곳 天安에서 第27回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가 온 國民의 注視 속에 300萬 忠南道民의 精誠으로 베풀어지게 되었읍니다.

本人은 먼저 지난 한해 동안 땀흘려 일한 수고가 6年 連續 豊年이라는 기쁨 속에 民俗藝術의 잔치를 베풀도록 配慮해 주신 李雄熙 文化公報部長官님께 感謝드리면서 저희 고장을 찾아주신 여러 고장의 民俗藝術人 여러분을 眞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民俗藝術 競演大會는 全國의 여러 地方에서 數百年 또는 數千年 동안 그 地方의 獨特한 民俗의 情趣와 歲時 또는 삶의 叡智를 昇華시켜온 鄕土藝術을 선보이고 이를 國民的인 民俗놀이로 擴散시켜온 傳統있는 大衆文化의 廣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民俗藝術祭를 통해서 하마트면 잃어버릴뻔 하거나 漸次 사라져가는 우리 先人들의 숨결과 格調높은 傳統文化를 再現하고 復元해 왔으며 더욱 活氣찬 生命力을 불어 넣어왔음을 自負하고 있는 터입니다.

올해의 民俗藝術競演大會에서도 그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民俗, 한 고장에서 數百年을 自生하면서 그 고장 住民들 삶의 韻致가 되고 團結과 和合의 求心點이 되어온 멋과 신명의 民俗들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民俗藝術의 祝典을 통해서 우리는 오랜 生命力과 높은 藝術性을 지니고 이 땅을 살다 가신 우리 先祖들의 文化와 藝術性을 고스란히 이어 받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民俗藝術을 創造할 수 있는 力量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번 서울의 잠실 벌에서 30億 아시안 家族을 感動케 하고 世界 人類를 놀라게 한 第10回 아시아競技大會에서는 勿論 우리 韓國人의 스포츠 水準도 評價를 받았지만 開會式과 閉會式, 그리고 갖가지 行事에서 보여준 우리의 文化와 藝術力量이 더 큰 役割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民俗藝術의 한마당 큰 잔치에서는 앞으로 우리 國民의 喝采를 받을 수 있는 出衆한 民俗, 그리고 世界人이 讚辭를 보낼 수 있는 個性과 品位가 있는 民俗이 선보여질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갈고 닦아온 여러 고장의 民俗藝術競演이 한껏 펼쳐질 것을 祈願하면서 저희 고장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平安한 日程이 되시길 빕니다.

感謝합니다.

第27回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 出演

1986년 10월 18일

人　　事

韓國의 멋과 傳統, 그리고 신명의 한마당 祝典인 第 27 回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를 우리 고장 天安에서 開催케 된 것을 300 萬 道民과 더불어 기뻐하고 歡迎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 民俗의 祝典에 參加하기 위하여 저희 고장을 찾아주신 全國의 25 個 民俗藝術出演團 여러분을 眞心으로 歡迎합니다.

이번 競演大會에서 여러분에게 선보일 우리 고장의 民俗은 「 苧山 8 邑길쌈놀이 」 입니다.

이 놀이는 紀元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모시길쌈의 本 고장인 韓山地方 住民들의 民俗놀이입니다.

길쌈놀이를 통하여 勤勉한 삶을 누리면서 餘興을 즐기고 삶 그 自體를 藝術로 昇華시킨 우리 先祖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地方住民들의 이 鄕土色 짙은 民俗을 통해서 「 藝鄕忠南 」의 眞隨를 理解하시고 뿌리깊은 옛 文化 속에서 새로운 文化와 오늘의 삶을 創造하는 겨레의 슬기를 모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聲援과 指導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986년 10월 18일

閉 會 辭

지난 이틀 동안 이곳 天安에서 아름답고 活氣차게 이루어졌던 第27回 全國 民俗藝術 競演大會가 그 幕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지난날의 民俗競演에서 그 優雅하면서도 生動感으로 喝采를 받았던 示演 出演團 여러분의 열띤 演出모습, 그리고 20個 出演팀이 하나같이 鄕土色 짙은 技倆과 藝術性을 보여 주신데 對하여 本人은 300萬 道民과 더불어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드립니다.

이번 民俗의 한마당 잔치에서 뛰어난 技倆으로 榮譽의 大統領賞을 받으신 京畿道 出演팀을 비롯한 入賞者 여러분에게 祝賀를 보내면서 비록 入賞은 하지 못하였으나 民俗藝術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全國의 民俗藝術出演團 여러분에게 讚辭를 보내는 바입니다.

本來 오늘의 이 民俗잔치가 優劣의 判定이나 席次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個性과 獨特한 興을 자아내는 千差萬紅의 가을 단풍과도 같은 調和와 멋의 表出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쉬운 作別의 時間이 다가옵니다만 이틀 동안 이곳 五龍벌에 펼쳐졌던 民俗의 一大 饗宴은 幕을 거두지만 그 追憶은 永遠히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의 民俗藝術도 한 고장에서만 住民들에게 보여지고 사랑을 받으면 때로는 新鮮感이나 새로운 맛이 엷어지는 것도 事實일 것입니다.

이렇게 形形色色의 여러고장 民俗이 한자리에 모여 各已 서로 다른 藝術性을 나타낼 때 그 民俗은 더욱 돋보이고 韻致를 더하게 되며 또한 發展의 領域을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民俗이나 傳統文化를 알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劃期的으로 많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고장에서 開催된 이 民俗藝術大會는 우리 民俗文化 人口의 底邊 擴大에 하나의 起爆濟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아시아競技大會를 通해서 온 世界를 向하여 활짝 핀 우리 韓國의 民俗文化가 이번 大會를 通해서 조용히 結實한 것으로 볼 때 올해가 우리 나라 民俗振興의 큰 발자국을 디딘 한해였음을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이제 惜別의 情을 나누려 합니다.

全國에서 오신 出演者 여러분! 그리고 天安市民 여러분! 수고많았읍니다.

來年 이맘때 다시 만날 것을 期待하면서 부디 안녕히 가십시요.

國家有功者 記章 授與式 .

1986년 10월 18일

激 勵 辭

오늘 겨레와 國家가 存立의 危機에 處해 있을 때 마음과 몸을 바쳐 憂國의 기둥이 되시고, 오늘날에는 先進과 福祉를 指向하는 國家發展의 旗手가 되는 國家有功者 여러분에게 나라와 國民의 고마운 뜻이 담긴 記章을 받으시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지난날에도 우리가 一身을 바쳐 愛國의 情熱을 불태운 여러분에게 國家나 國民이 尊敬하고 禮遇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한자리에 모시고 高貴한 뜻과 獻身을 기린 例는 드문 것으로 압니다.

이자리에 계신 國家有功者 여러분이 지난날 祖國의 光復運動을 통해서 또는 6.25라는 同族相殘의 悲劇 속에서, 그리고 自由의 十字軍으로 共産主義와 싸우거나 民主의 理念앞에 信念을 굽히지 않으신 여러분의 功勞를 밑거름으로 하여 오늘날 生存과 繁榮이 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獻身이나 犧牲에 比하여 이제까지 國家와 國民이 여러분을 위한 報答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어려운 事情으로 因하여 매우 아쉬웠던 것이 우리 모두의 心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政府나 우리 社會人 모두가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 지난날 國家와 民族을 위하여 苦生하고 犧牲한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多少라도 表現할 수 있는 餘裕를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으로도 國家有功者 여러분의 功勞나 犧牲을 報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愛國이나 獻身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發展, 그리고 祖國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希望도 어쩌면 存在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想像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愛國이나 貢獻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는 高貴하지만 個人的으로는 不幸일 수도 있어 實際生活이나 人生에 있어서는 挫折과 失意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試鍊과 難關을 意志와 슬기로 克服하시고 여러 分野에서 스스로의 人生을 開拓하고 地域社會와 國家에 貢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本人이나 道民 모두 가슴뭉클한 마음을 갖고 있읍니다.

앞으로 國家有功者 여러분은 지난날 나라와 겨레에게 바쳤던 그 義氣와 勇氣를 바탕으로 自負와 矜持를 가지고 꿋꿋이 여러분의 人生을 開拓하면서 鄕土와 國家의 일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마지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社會一角에서는 지난날 여러분이 몸바쳐 싸웠던 共產主義를 容認하려는 一部 左傾勢力도 登場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오늘 지난날의 憂國忠情이 새겨진 記章을 받으시는 國家有功者 여러분은 우리 社會 不純勢力의 追放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一身과 家庭에 幸運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國際 로타리 368地區 第9年次大會

1986년 10월 18일

祝　　辭

오늘 우리 忠淸地域 發展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國際로타리 忠南北地區의 第9年次大會가 이처럼 大田에서 盛大히 열리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紳士와 淑女 여러분은 오늘날 國家發展의 核心地域으로 脚光을 받고 있는 忠淸地域을 代表하는 知性과 社會的理念, 그리고 國家觀과 鄕土愛로 充滿된 組織과 모임이라는 點에서 期待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傳統과 文化, 그리고 이 고장이 輩出한 人物들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 忠南北地域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人的交流와 精神的 紐帶感, 그리고 鄕土愛의 共感을 가지고 있다 하겠읍니다. 더구나 오늘과 같이 地域과 時間的 距離가 좁아지는 日常生活圈의 推移로 볼 때 우리 忠南北은 하나의 生活圈이요, 한 故場이라는 點을 强하게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오늘 우리 고장 로타리안 여러분의 友情과 結束, 그리고 幅넓은 社會活動과 未來의 設計를 통해서 우리 忠淸地域의 發展은 더욱 加速化될 수 있다고 本人은 期待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鄕土나 國家의 發展이 國家의 直接支援이나 그 地方 行政力보다도 그 地域의 主人인 住民들 스스로의 信念과 努力이 더 큰 成果의 結實을 가져온다는 事實이 立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第10回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30億 아시아人의 祝典을 成功裡에

主導하고 깊고 넓은 歷史와 文化의 水準을 온 世界에 誇示한 바 있읍니다만 여기에서도 政府와 行政의 힘보다 國民 各者의 自發的인 參與와 聲援이 컸음을 보고도 우리는 이를 잘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豫想을 뛰어 넘은 우리의 成果에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있으며 우리가 團結하면 무엇이든지 成就할 수 있는 自信感과 無限한 可能性을 發見하고 새로운 跳躍의 轉機를 마련했다는 點입니다.

우리는 이 國家의 民族發展의 歷史的 契機와 噴水嶺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鄕土에 應用을 하고 擴散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模索하고 이를 위한 忠南北道民들의 힘을 結集하는 廣場의 하나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本人이 로타리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우리 고장은 國家發展의 中樞地域이기에 그 어느 고장보다도 能動的으로 努力하는 끈질기고 底力있으며 信念을 불태우는 忠淸人이 되어야 한다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國際로타리 클럽의 年次大會에서는 여러분 組織의 發展은 勿論 우리가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내고장 發展을 위해서도 크게 貢獻하는 契機가 되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22일

人　　事

佛教人 여러분을 今年初 3月頃에 한번 저희들이 모신 記憶이 있읍니다만 보다 자주 모시고 道政進行事項이라든가 이런 것을 報告드리고 더 좋은 高見도 들어서 道政에 反映을 하는 時間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여러 가지 國家的인 行事도 많았고 저희 道自體의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을 자주 못 모신 것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今年도 이제 10月 下旬으로 접어들었읍니다. 나머지 두달밖에 안 남아서 今年에 施行한 모든 것을 決算하는 이런 季節이 됐읍니다.

그래서 今年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聲援에 힘입어서 저희가 遂行한 道政을 報告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高見을 듣는 時間을 갖고자 해서 모셨읍니다.

저희 道政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잘 아시다시피 今年度에 國家的으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아시안게임을 아주 大成功裡에 끝을 맺었다는 事實일 것입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드려도 그 동안 여러 佛教指導者들께서도 같이 4千萬의 歡喜 속에 同參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깜짝 놀랄 程度로 亞洲게임에서 보여준 우리의 國力, 國民의 슬기, 그리고 우리의 傳統文化 또 우리 民族의 優秀性 또 우리 民族의 끈기 이런 것이 世界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快事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再發見했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뜻만 모으면

다 成就可能하다는 하나의 自信感을 再確認하는 이러한 慶事였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慶事가 여러 면에 擴散이 돼서 우리 國家의 發展에 큰 基盤이 될 것으로 모든 國民들이 바라고 있는 狀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亞洲게임을 分析해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새로운 것도 많이 發見을 했읍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奇蹟의 創出이나 갑자기 일어난 狀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은 人類 萬事가 그런 것으로 압니다.

投資를 한만큼의 結果이지 결코 投資를 안한 結果는 있을 수가 없읍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제대로 뿌리고 가꾸어서 收穫을 하는 것이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안했는데 偶然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收穫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읍니까?

亞洲게임에서 거둔 우리의 成果를 몇 가지 分野로 分析을 해 본다면 分明히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꾼것이 事實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例를 들면 첫째는 우리가 過去와는 달리 體育振興政策을 相當히 果敢하게 썼다는 것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過去에는 體育選手가 勿論 素質이 있고 趣味가 있어서 하지만은 젊은 時節에 選手生活을 하고 끝나면 事後保障이 없고 정말 좋은 머리, 좋은 體軀, 좋은 才能을 가졌지마는 結果的으로 그 동안에 다른 工夫를 해서 다른 分野에 進出한 사람보다 전혀 事後保障이 안됐다 하는데서 體育을 志望하는 사람이 적었고 優秀한 資質이 있었지마는 結局 生計維持 걱정때문에 體育을 忌避하는 境遇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5共和國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世界에 우리 民族을 빛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勿論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文化 藝術 다 있지마는 그 가운데서도 體育을 가지고 世界에 빛내는 것이 가장 돋보이고 또 國民의 一致感을 줄 수 있는 것이고 世界的으로 認定을 받고 國家를 빛내게 하는데 그것 以上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看破 하고 體育에 果敢한 投資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體育選手들에 대해서는 메달을 딸 때 年金도 支拂하고 支援金도 나가고 職

場도 斡旋이 되고 이렇게 體育振興策을 썼기 때문에 體育의 發展에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그마만큼 支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國家의 經濟的 餘力이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다고 봅니다. 勿論 支援이야 모든 國民, 各 企業體에서도 支援을 하고 公共團體도 支援을 했지마는 우리 나라가 지금과 같이 經濟的으로 成長을 못 했던들 그러한 엄청난 技倆向上과 優秀한 選手를 길러낼 수가 있었겠읍니까?

우리의 經濟가 發展되서 뒷받침된 것이 큰 效果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開幕式이나 閉幕式 또는 地方競技場에서 보여준 秩序整然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도 어디서 나왔겠읍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國民이 그렇게 쉽사리 先進秩序 意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신 指導者 여러분들도 協調해 주셨읍니다만은 우리가 한 4～5年間 對國民精神教育을 굉장히 强化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經濟教育, 安保教育, 民防衛教育, 새마을教育, 社會淨化教育 등 秩序에 대한 教育과 國民의 道德心昂揚을 위한 教育 이런 것을 굉장히 强化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講師委囑을 받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보이게 안보이게 國民들에 대한 精神教育이 그대로 잘 成果를 거두어서 이번에 우리가 國際行事를 치룰 때 그러한 것이 다 集約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亞洲게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4千萬 모든 國民이 정말 貧困에서 脫皮를 해서 이제 衣食쪽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狀態에 왔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모든 家電製品이나 電子通信分野도 發達이 돼서 山間僻地까지도 T V와 라디오가 普及이 돼서 게임 하나 하나를 그때 그때 現場과 똑같이 보고 鑑賞할 수 있는 그러한 通信과 매스매디아의 發達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國民이 歡呼를 하고 拍手를 치면서 그 現場과 瞬間을 直接滿喫하고 느낄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國家的인 總體의 發展과 여기에 4千萬 國民의 뜻이 한데 모일 수 있는 媒體가 다 聯關이 되서 이번 우리 亞洲大會는 정말 歷史上 처음 갖는 大會이면서도 歷史上 가장 두드러진 國民의 團合으로 이끄는 큰 慶事스런 잔치였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平素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國民들이 도와주시고 選手, 任員들이 땀을 흘린 結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冷情하게 생각하면 그마만한 投資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世上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저희 道政만 하더라도, 이따 報告를 드리겠읍니다만은 約 6 千億가량의 豫算을 投資해서 分野別로 着實하게 成果를 거두고 있읍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農事는 이제 秋收가 98 %가량 됐읍니다.

昨年度보다도 벼가 더 잘돼서 6年 連續 豊年의 大偉業을 達成할 것으로 지금 期待를 하고 있읍니다.

6年 豊年이라는게 檀君朝以來 없었읍니다. 그것도 勿論 하느님께서 雨順風調하게 날씨를 주신 것이 基本이 됐읍니다만은 우리 人力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水利灌漑施設, 山林綠化, 農地改良, 耕地整理, 水路擴充, 小形管井 發掘, 農民들에 대한 農事技術普及, 農機械普及 등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우리가 投資하고 가꾸어 온 것이 6年 連續豊年이라는 結果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이번 體育만 하더라도 忠南에서 가장 많은 寄與를 했읍니다.

이번에 日本의 콧대를 누르고 10 憶 中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成果를 거두었는데, 全體 選手 639 名이 參加를 했읍니다. 그 가운데 68 名이 우리 忠南選手들이고 68 名의 選手 가운데 40 名이 金銀銅메달 55 個를 땄읍니다.

그 가운데 金메달이 29 個입니다.

그래서 우리 道에 道勢로 보면 정말 全國에서 6,7 位圈에 있지마는 이번에 亞洲競技大會에 寄與한 寄與度는 서울 다음으로 우리 忠南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忠南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으뜸忠南"을 내걸고 여러분들의 指導와 300 萬 道民들의 同參을 애기하고 있읍니다만은 그야말로 忠南이 지금까지 기울여온 300 萬 道民의 그 結集된 努力의 代價도 이번에 亞洲게임에서 나타났읍니다.

우리 忠南은 그마만큼 여러 면에서 잘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다 偶然이 아니고 平素 나라를 사랑하고 이 地域發展과 道政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佛敎指導者 여러분들의 힘에 크게 鼓舞 됐다고 저는 確信을 해서 이 자

리에서 다시한번 여러분들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佛教指導者님들께 이런 말씀이야 必要없는지 모르지마는 事實 우리 나라 佛教는 1千600年前 新羅 때 처음 들어왔다고 歷史에 나와 있읍니다.

왜 護國佛教라고 하느냐?

그냥 글자가 좋고 듣기가 좋아서 護國佛教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4千萬 民族 가운데 지금 基督教를 믿는 분들이 줄잡아서7～800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1千600年前 佛教가 들어온 以來 高麗時代에는 너무 佛教를 崇尙을 해서 國家發展이 困難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읍니다.

李朝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高麗의 佛教가 너무 國民 속에 崇尙되므로써 다른 生業에 支障을 招來했기때문에 多少 排佛崇儒政策을 쓴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國民들의 마음 속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든 안하든 부처님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佛經을 외거나 工夫를 熱心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寺刹을 가면 부처님께 절을 하고 香을 피우고 또 그저 틈이 있을 때 아침에 呼吸을 가다듬고 坐禪을 하는 境遇도 있읍니다.

이런 것이 모두 形式을 떠나서 마음 한구석에는 全部 佛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 4月 초파일에는 全部 절에 가서 發願을 하고 所願을 비는 그러한 風習도 우리 國民들 모두의 가슴 속에 있읍니다.

이처럼 佛教가 우리 國家의 모든 發展, 國民精神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게 틀림이 없읍니다.

뿐만아니라 國家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佛教는 나라를 救하기 위해서 큰 몫을 했다는 것은 記錄으로 나와 있지 않읍니까?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 忠南에서 現在 자랑으로 삼고 있는 큰 佛教指導者 두분만 例를 들더라도 壬辰倭亂 때 바로 靈圭大師께서 民兵을 이끌고, 지금 七百義塚에 모셔 있지마는, 錦山에서 倭兵과 싸워 玉碎하셨고 또 萬海 韓龍雲 先生님만

하더라도 佛教指導者로서 우리가 얼마나 推仰을 하고 있읍니까?

어려울 때 우리 佛教가 우리 나라에 끼친 役割은 굉장히 컸고 決定的인 것이 많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護國佛教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文字그대로 護國佛教가 아니겠읍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佛教指導者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道政에 反映하고 國政에 反映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뜻에서 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社會의 모든 各界 指導者가 있지마는 그 가운데 佛教指導者 여러분도 늘 우리가 모셔서 高見을 듣는 것도 우리 佛教思想이 바로 護國에 있었기 때문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超然한 立場에서 오직 나라와 民族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 또는 高見을 듣고 싶은 것도 요즘 우리 國家의 現實的으로 볼 때 가장 큰 어려움 또는 重要視해야 하는 問題가 무엇이냐?

가장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가장 重要한 것을 바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世代의 指導者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重要한 것을 저는 두가지로 集約을 해 봅니다.

첫째는 亞洲게임에서 보여준 4千萬의 結集團合된 和合된 國民의 意志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昇華를 시켜서 2年後에 있는 보다 큰 世界的인 잔치인 서울 올림픽을 無事히 치루어서 世界에 우리 나라의 優秀性을 誇示하는 問題와 곁들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울 올림픽 以前에 88年 3月에 豫定되어 있는 우리 나라 歷史上 統治者가 스스로 政權을 後繼者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는 初有의 平和的인 政府移讓이라는 政治行事가 어떻게 하면은 無事히 國民들의 合意下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두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問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두가지를 우리가 成功的으로 成就하기 위해서 어떠한 國民意志가 必要할 것이냐, 저 나름대로 整理를 해보면 優先 우리 나라가 지니고 있는 國是, 요즘 國是 때문에 시비가 되고 있읍니다만은 우리 나라가 指向해야 할 國家的인 目標가 무엇이

냐? 이것을 分明히 알아야겠읍니다.

우리 나라가 指向하는 目標는 두가지로 要約을 해서 自由民主主義, 그리고 資本主義經濟體制 이 두가지가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國體요 實體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發展을 目標로 우리가 지금까지 努力을 했고 앞으로 努力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萬若에 이 두가지의 國家 目標가 흔들릴 境遇에는 우리는 어떠한 다른 것과도 妥協할 수 없는 國家의 非常狀態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서울大學에 北傀의 新聞 社說이 그대로 나붙고 國會에서 國是인 反共을 度外視하는 하나의 統一論이 國會議員의 입을 통해서 主張이 되고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左傾容共하는 것이 많은 國民들에게 念慮스럽게 비춰졌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저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이것이 부쩍 露骨的으로 北傀와 連繫된듯한 이러한 樣相이 學園街에서 또는 政治舞臺에서까지 表出되고 있읍니다.

그것이 얼마나 驚愕스럽고 그야말로 當惑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率直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政治的으로 政見이 다르고 政綱政策이 달라서 서로 싸움을 하고 政權을 뺏겠다. 안 놓겠다. 이것은 政治人이 當然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

政黨을 가지고 政治를 하는 사람이 政權을 繼續 維持하겠다 하는 것도 當然한 일이고 우리가 政權을 빼앗아야겠다는 것도 當然한 일입니다.

또 그것이 政治人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國民들의 支持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政策, 좋은 政綱을 가지고 國民들에게 支持를 받는 쪽이 政權을 維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維持하든 길게 維持하든 그것은 오직 政治를 하는 사람들의 內容如何에 따라서 그리고 國民支持如何에 따라서 決定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 日本의 境遇만 보더라도 解放後 40餘年이 됐지만은 自民黨이라는 것이 自由黨과 民主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保守黨입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首相이 바뀌고 長官이 바뀌었지만 또 自民黨이 繼續해서 政權을 지금까지 維持하고 그간에 革新政黨인 社會黨이 6個月인가 8個月 동안을 政權을

잡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건 뭐냐? 日本國民이 그 政黨들의 政策과 政治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해야만 우리 日本이 發展할 수 있겠다고 選擇을 했기 때문에 維持가 되는 것입니다.

美國의 境遇를 우리가 보면 共和黨과 民主黨의 兩大政黨이 우리가 보기에는 번갈아서 두어번 共和黨이 했다가, 두어번 民主黨이 했다가, 어떤 때는 1期만 하고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英國만 보더라도 保守黨과 社會黨이 왔다 갔다 하면서 集權하고 西獨만 보더라도 基民黨과 社會黨이 번갈아 執權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政治를 하는 사람들이 政權을 가지고 서로"維持하겠다,"뺏겠다,"하는 얘기를 저는 전혀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政權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國旗를 흔들지 않는 바탕 위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主義를 否定하는 그러한 方向에서의 鬪爭이라면 政權的 差異도 아니고 國家를 顚覆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分明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限界입니다.

與나 野가 政策을 가지고 對決을 하고 서로 입씨름을 하는 것을 國民들이 지켜보고, 이것을 나름대로 批判을 해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主義가 좋다, 어느 制度가 나쁘다, 이것도 民主主義社會에서 國民 各者가 批判의 自由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自由民主主義를 否定하고 社會主義革命을 해야 되겠다, 現在 우리가 지녀 오는 自由主義의 國基를 흔들어버리고 金日成의 體制라도 統一이 된다면은 可能하다 하는 理論은 우리가 容納할 수 없는 問題가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政治와 關係가 없읍니다.

이것은 바로 國家를 守護하고 國基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自由民主主義를 信奉한다는 前提가 된 그 狀況下에서 싸움을 해도 싸움을 하고 妥協을 해도 妥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時點에서 論難이 되고 있는 思想論爭은 무엇입니까? 바로 自由民主主義를 지켜야 하겠다는 것하고 自由民主主義가 아니더라도 無妨하다는 容共的인 勢力하고

사이에 지금 問題가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저는 指導者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時點에서 指導者 여러분들이 自由民主主義를 分明히 守護하고 信奉하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與든 野든 어느 쪽을 庇護하고 두둔하고 어느 한쪽에 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自由民主主義를 否定하는 勢力에 대한 이 定義만은 分明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指導者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가 많은 影響을 끼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自由民主主義를 否定하는 容共勢力은 이 땅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作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어떤 形態든 妥協이 있을 수 없읍니다.

妥協이 될래야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政界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社會一角 學園같은 곳을 보면 서로 어떤 政策的 意見을 가지고 어떻게 잘해 보자는 그러한 次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問題라도 좋으니 對話를 하자고 자꾸 끌어 내지만은 그것을 전혀 容納하지 않고 無條件 다 물러가라./ 너희만 물러 가야 하느냐? 그게 아니다. 所謂 부르조아 階級은 다 물러가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은 民衆基層 밖에는 살 資格이 없다. 勞動者, 農民, 都市 零細民 이것 밖에는 없다. 모든 知性人, 모든 知識人, 모든 指導者, 모든 資本家, 모든 企業人 다 날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金日成하고 손잡고 共產化시키겠다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大韓民國을 잘 하자는데 目的을 두고 서로 싸우자는게 아니라 大韓民國을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社會主義革命을 하고 金日成과 손을 잡아 共產化를 하겠다는데 目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境遇에도 妥協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어떠한 口實을 붙이더라도 妥協의 廣場에서 뛰어나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 社會實態고 政界의 實態가 아니냐 이것을 分明하게 分析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與든 野든 妥協을 하는 政策的인 次元이나 어떤 國家를 發展시키는 次元은 지금 段階에서 論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國家를 否認하고 自

由民主主義를 否認하는 그 階層에 대해서 이 問題가 正確하게 달라지고 自由民主主義를 보다 더 알차게 發展을 시켜야 되는데 "政治는 이렇고 政權은 이렇고 하니 고쳐라" "못 고친다" "고친다"하는 것으로 싸움의 장이 열려야 이 나라가 發展의 展望이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展望이 전혀 不可能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重要한 時期기 때문에 여러 佛教指導者들께서는 護國的인 意志를 가지시고 護國的인 立場에서 이나라의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기위해서 어떤 役割을 해주셔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道政이나 佛教指導者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佛教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忌憚없이 意見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國家를 걱정하고 道政을 걱정하고 여러 問題를 걱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平和的인 政府移讓을 할 수 있는 風土 이것을 達成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88年 올림픽도 無事히 치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簡略하게 부탁을 드릴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事實입니다.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큰 問題의 하나는 88年 서울 올림픽을 어떠한 形態로든 妨害하고 재를 뿌리겠다는 北傀의 挑發입니다.

金日成이가 22日날 蘇聯을 간다고 합니다.

新聞에 보니까 東海에서 蘇聯과 北傀가 이제 合同 海軍 訓練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6.25前에 여러 가지 狀況과 相當히 닮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北傀는 지금 亞洲大會의 成功을 정말 어떻게 評價했을 것이냐?

제가 金日成의 立場이라면 心臟痲庫가 걸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고 肝膽이 써늘했을 거예요. 中共에서 그 많은 選手가 參與를 했고 그래서 아시아의 27個國이 와서 엄청난 技倆들을 보이면서 大韓民國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世界 萬邦에 뻗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지금도 經濟的으로 5分의 1밖에 안된다는 北傀의 立場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읍니까? 큰일났구나, 亞洲大會에서부터 엄청난 成果가 나오니 88을 無事히 치룰 境遇에 우리가 설 땅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金日成의 立場이라도 그것을 分明히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防禦를 해서 재를 뿌려야지 그대로 두고는 이제는 對決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南韓側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들어가야 할 立場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毛骨이 悚然하고 잠이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蘇聯에 쫓아 가는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準備를 잘 해놓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 해 놔도 지난번 亞洲大會 때 北傀가 金浦에, 確證은 없읍니다만 모든 世界의 나라가 다 認定을 합니다.

爆發物을 던져 우리를 놀라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88을 진짜로 妨害를 할려면은 어느 한구석 戰爭을 挑發하거나 게릴라를 南派하거나 誘導彈을 發射하거나, 이런 짓 안한다고 누가 保障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準備해 가면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北傀의 挑發입니다.

그러니까 平常時에 우리가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團合된 모습을 가지고 對處할 때 北傀가 어떠한 挑發을 한다 해도 所用이 없다는 確信을 그대들에게 줄 때에 挑發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88年에 平和的인 政府 移讓을 위한 政治風土의 改善이랄까, 또 여러 가지 自由民主主義의 기틀을 지키기 위한 整地作業이랄까 이런 것과 아울러서 88서울 올림픽을 成功裡에 끝낼 수 있는 하나의 큰 障碍要素인 北傀의 挑發을 못하도록 잠재우는 이 두가지가 가장 큰 難題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課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여러 指導者들께서 이 두가지 問題에 關心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役割과 指導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高見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感謝합니다.

反共 建國 青年運動 紀念塔 竣工式

1986년 10월 23일

追 念 辭

오늘 이곳 90萬 大田市民의 思惟와 休息의 空間이 될 沙亭公園에서 이처럼 우람한 反共 建國 青年運動 殉國紀念塔을 세우게 되니 깊은 感懷를 갖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지난날 祖國의 光復과 6.25라는 뼈아픈 우리 民族의 受難期에 建國의 礎石이 되고 共產侵略의 防牌가 되신 愛國英靈들에게 300萬 道民과 더불어 삼가 追慕의 默念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敬虔한 記念塔에 奉安된 1千401位의 英靈과 더불어 自由의 횃불을 높이 들고 共產主義者들과 싸웠던 生存 同志 여러분의 精誠과 道民의 聲援으로 記念塔을 여기에 세우는 意味를 헤아리는 것이 매우 所重한 줄 압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라와 겨레의 聖스러운 이름 위에 殺身成仁하신 英靈들의 高貴한 犧牲을 우리가 永遠히 기리고자 함이요, 또한 그 高貴한 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滅共의 굳은 信念을 바탕으로 祖國과 民族의 繁榮에 寄與해 나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自由大韓의 國基를 닦은지 41周年, 그리고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韓半島 赤化野欲을 紛碎한지도 30餘年을 거듭했읍니다만, 이 나라를 둘러싼 國際情勢는 더욱 複雜 微妙하여 우리 스스로 生存의 歷史를 헤쳐나가기에는 더욱 어려운 狀況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分斷과 苦痛을 안겨 준 北方의 끈질긴 對 아시아 南進策이나 決코

우리의 友邦이라고 굳게 믿기에는 釋然치 않은 이웃나라의 最近 움직임을 目擊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들의 國益이 없다고 判斷될 때에 언제든지 우리를 저버리거나 등을 돌릴 수 있는 世界 여러 나라들의 角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反共과 團結, 그리고 國力의 바탕 위에서만이 來日을 保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國民이 지난날 反共青年運動과 같은 愛國으로 先進祖國의 創造, 그리고 祖國의 平和統一에 邁進한다 해도 그 앞날이 不透明한 이 때에 共產主義를 體驗하지 못한 一部 젊은이들과 旣成世代의 左傾化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읍니다.

오늘 우리 忠節의 道民들은 永遠한 反共 無窮한 民主의 信念을 象徵하는 이 記念塔을 세우면서 결코 어떠한 美名의 容共이나 左傾勢力도 이 땅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決意와 理念의 武裝이 必要한 줄 압니다.

이것이 곧 여기 奉安된 英靈들에 대한 우리의 報恩이고 우리 世代 生存의 길이며, 繁榮된 祖國을 다음 世代에게 물려 주려는 우리들의 責務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다짐을 英靈들이시여, 굽어 살피시고 길이 冥福을 누리소서./

이 塔을 세우기에 精誠을 다한 反共 愛國青年運動 殉國記念碑 建立推進 委員 여러분, 그리고 온 道民이 옷깃을 여며 告하나이다.

社會淨化委員의 勞苦에 대한

1986년 10월 25일

書　　翰

親愛하는 社會淨化推進委員 여러분!

그간 農村과 都市, 職場에서 確固한 信念과 透徹한 國家觀으로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國家 發展과 繁榮을 위하여 獻身해오신 委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衷心으로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特히 지난번 第10回 서울 아시아競技大會를 成功的으로 마치게 된 것은 委員 여러분이 各者 맡은 分野에서 渾身의 努力을 다해 道民을 啓導해주신데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믿어지며 그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淨化委員 여러분!

우리는 이번 大會를 契機로 우리가 보여준 國民 體育 力量과 競技場 秩序와 觀戰 態度의 水準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民族分斷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民族의 無限한 潛在力과 平和意志를 世界에 보여주었다는 點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滿足하지 말고 88 올림픽을 對備하여 더욱 더 國民意識을 先進化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하겠읍니다.

촛불이 스스로를 태움으로써 周圍를 밝혀 주듯이 委員 여러분께서는 來日의 榮光된 祖國을 위하여 스스로 보람찬 奉仕의 길을 擇하여 高貴한 땀을 흘리고 있는 이 時代의 主人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時代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는 期待가 格別한 바 있다고 봅니다.

社會淨化推進委員 · 여러분!

오늘 本人은 國運上昇의 새 氣運이 물결치는 이 時點에서 앞으로 重點을 두고 繼續 推進되어야 할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의 社會淨化運動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遵法秩序의 定着을 통해서 社會를 安定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勤儉, 節約, 貯蓄, 國產品愛用, 敬老孝親 靑少年善導, 親切, 淸潔 등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淨化課題를 하나 하나 着實히 實踐해 나감으로써 서로 믿고 和合하는 社會雰圍氣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必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時代가 要求하는 새로운 價値觀을 定立하고 實踐하는 意識改革運動에 加一層 力點을 두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意識改革運動은 사람의 생각과 價値觀을 고쳐나가는 精神運動이기 때문에 短時日內에 性急한 成果를 期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을 단지 時流에 맡기고 기다릴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職場이나 마을에서 忍耐와 使命感을 가지고 꾸준히 努力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成果를 가져온다는 確信을 가지고 全體國民의 共感帶形成을 위해서 恒常 率先垂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大統領閣下께서 이 나라와 이 民族의 將來를 위한 愛國衷情의 英斷이신 平和的 政權交替를 향해 改憲을 비롯한 政治的 大事가 安定과 和合의 雰圍氣 속에서 順調롭게 進行되는 일과 5千年 民族史의 分水嶺이 될 88 서울올림픽을 이번 아시아 競技大會보다 더 훌륭하고 알차게 치르는 일입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우리는 이번의 아시아 競技大會가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跳躍을 향한 힘찬 出發點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機會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같은 時代에 사는 모든 民族에게 똑같은 機會를 賦與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자 努力하는 民族에게만 發展과 榮光의 結實을 안겨 주었읍니다.

民族史의 大運이 펼쳐질 오늘의 時代야말로 우리 國民 모두가 一大覺醒과 加一層

의 奮發이 要請되는 時點이며 特히 社會淨化委員 여러분의 獻身的인 努力이 더욱 要請되는 時期입니다.

淨化委員 여러분!

地域의 發展과 經濟成長은 國民의 和合과 安定없이는 이룩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委員 여러분들은 地域安定과 發展을 위하여 確固한 姿勢와 決然한 意志로 住民啓導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아시아 競技大會를 民族의 榮光으로 昇化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어 온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感謝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25일

激 勵 辭

全國에서 우리 고장을 찾아 주신 出岳人 여러분!

예로부터 名山中의 名山으로 膾炙되고 있는 이곳 鷄龍山을 찾아 주신 여러분을 眞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第19回 大統領閣下賜旗爭奪 全國 山岳大會가 함께 베풀어지게 된 것을 祝賀드립니다.

名山 大刹을 찾아 心身을 修鍊하고 大自然에 歸依하려 함은 우리 民族 精神文化의 根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世俗의 利害를 훌훌히 벗어버리고 山과 물과 나무와 微物을 벗하면서 神秘의 山景에 接하면 바로 그 生活이 神仙놀음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一生을 自然과 벗하며 살다 간 우리의 先人들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現代 物質文明과 人間이 만들어낸 都市는 自然과 벗하며 自然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原初的인 삶을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複雜한 文明의 울타리 속에 限定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脆弱性을 지닌 우리네 삶을 보다 넓은 生活의 空間, 純粹한 삶의 方法, 淳朴한 自然에 人間의 心性을 近接시키려는 發露가 바로 山岳人 여러분의 活動이 아닌가 합니다.

山行은 바로 착하고 順理를 좇는 아름다운 人間性의 還元을 뜻하며, 스스로 努力

한 만큼 目標에 到達할 수 있는 삶의 法則에 대한 터득이며, 아름다운 風光에 醉하려는 우리들 本然의 感性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全國에서 모이신 山岳人 여러분의 山行과 人格의 만남을 통해서 이 社會와 國民精神의 醇化를 期待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고장을 찾아주신 山岳人 여러분을 歡迎합니다.

感謝합니다.

第30回 忠淸南道 새마을 靑少年 競進大會 施賞式

1986년 10월 27일

致 辭

오늘 우리의 福祉農村 建設을 위해서 애쓰시는 農村 指導者와 來賓 여러분,有關機關 任·職員, 關係公務員들이 盛況을 이룬 가운데 새마을 靑少年競進大會의 施賞式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 고장 10萬 새마을 靑少年會員 여러분의 競進이라기 보다는 지난 1年 동안 여러분의 새로운 意欲과 營農에 關한 갖가지 技術을 서로 比較해 보고 보다 나은 來日을 爲한 硏讚이라는 點에서 本人은 300萬 道民과 함께 致賀를 보냅니다.

또한 今年度 靑少年會員 여러분의 이 잔치는 우리가 有史以來 初有의 6年連續 豊年을 가꿀 것을 다짐하는 새로운 決意와 出發이라는 意味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豊年이란 하늘의 뜻이지, 어찌 人間의 마음대로 가꿀 수 있느냐 하고 疑問을 表示할는지 모르지만 實際로는 끈질긴 우리의 努力이 本質的인 것이요, 하늘의 도움은 2次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해에 다시 한번 느낀 바 있읍니다.

지난 초가을 우리가 1年내내 온갖 精誠을 기울여 온 보람으로 막 여물어가는 農作物에 갑자기 颱風「베레」號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 農民들은 勿論 온 國民이 6年連續 豊年의 希望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온 國民이 智慧와 力量을 모아 被害의 事前 對備와 復舊에 心血을 기울인 바 天災도 人間의 努力에 따라서는 물러서게 할 수 있다는 좋은 經驗을 얻기에 이르렀

읍니다.

이러한 意志와 힘을 모아주신 求心力의 하나가 우리 고장의 새마을 靑少年會員 여러분이었음을 本人은 자랑스럽고 마음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執念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불태워 나간다면 우리 全斗煥 大統領閣下께서 이른 봄에 視察하신 스위스나 「베네룩스」 3國과 같은 「先進農業國」이 될 날도 그리 멀지는 않다고 봅니다.

特히 우리 고장은 2千年代 先進祖國의 創造와 더불어 國家發展의 核心地域으로서 中部圈 開發을 비롯한 牙山灣의 國內 最大의 國際港口 建設 등 눈부신 成長이 進行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地域의 開發은 先進農業發展의 튼튼한 土臺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堅固한 것이지 農村의 發展을 外面한 그 어떤 發展도 假分數와 같이 安定이 保障되지 못한다는 事實입니다.

따라서 내 고장 發展은 먼저 잘 사는 福祉農村의 建設이 앞서거나 併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本人은 늘 强調해 온 바 있읍니다.

우리 農村의 發展은 또 農村 開發의 主人公인 農民들 特히 來日의 主人公인 새마을 靑少年 會員 여러분의 主人的인 努力이 原動力임을 오늘의 이 施賞式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한번씩 여러분이 1年 동안 땀흘려 익힌 話題와 目標들을 견주고 討議하는 이 자리도 來日을 向한 여러분의 主人的인 努力이라고 믿기에 道民의 聲援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智慧와 피땀이 어린 受賞에 祝賀를 보내면서 우리 來年 이맘때 다시 만날 것을 期約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읍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28일

祝　　辭

오늘 우리 忠南의 보배라고 말씀을 드려 失禮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忠南 文藝振興에 아주 決定的인 役割을 해주신 燕亭 林允洙 院長님의 「현금보」, 그리고 「대금보」를 發刊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祝辭를 드리게 돼서 아주 榮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와서 보니까 오늘 出刊뿐이 아니라 燕亭 先生의 古稀를 慶祝하는 그러한 자리도 兼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저희 들이 平素 뵙기에 정말 젊음을 아직도 조금도 잃지 않고 계신 燕亭께서 벌써 古稀가 되셨는가 疑訝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經歷紹介하신 先生님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17歲에 國樂의 門을 두드렸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半世紀 동안을 이 國樂에 몸을 바쳤읍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외골수人生으로서 國樂에 몸을 담고 獻身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우리 나라의 國樂機能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우기 우리 忠南으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地方 國樂院이 燕亭 先生의 손에 의해서 創設이 됐고 또 燕亭先生의 손에 의해서 直接 指導, 運營이 돼서 오늘 朝野에서 높이 評價를 받는 우리 燕亭國樂院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랑을 또 할 수가 있읍니다.

燕亭國樂院이 이렇게 크게 發展한 것도 事實은 燕亭 先生의 오직 獻身 그리고 情熱, 藝魂,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成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燕亭 先生이 그렇게 獻身的으로 國樂을 發展시키고 活性化시키다 보니까 우리 忠南이 한때는 藝術이 아주 枯渴된 메마른 곳으로 이름이 났읍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音樂, 文學, 美術, 舞踊 모든 면에서 아주 中央에서도 높이 評價를 하고 또 많이 發展을 하는 地方으로서 現在 評價를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다 燕亭 先生의 愛情과 그 努力이 발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燕亭 先生이 創設한 우리 燕亭國樂院의 活動內容을 暫間 紹介를 하면 5年 동안에 400餘回의 演奏를 해 주셨읍니다.

事實 大田市立燕亭國樂院이기 때문에 公式的으로 大田市廳 傘下에 있읍니다.

그러나 燕亭 先生은 이것이 大田市廳管內에서만 活動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忠南 5個市 15個郡 20個 市郡을 다 도시면서 演奏를 많이 해주셔서 國樂에 대한 認識을 굉장히 높여 주셨읍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때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마는 우리 公設運動場 蹴球場에서 간간이 蹴球가 始作되기 전 幕間을 利用해서 國樂을 紹介해주셨고 또 選手村으로 되어 있는 儒城호텔에서도 機會있을 때 가셔서 國樂院生들로 하여금 演奏를 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道民들은 勿論이고 여기에 參與했던 外國人들이 國樂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돌아가기도 했읍니다.

이렇게 燕亭 先生의 活動이 아주 눈부십니다.

또한 지난번 七百義塚 祭享 때에는 우리 燕亭國樂院生들이 燕亭 先生의 指揮下에 祭禮樂을 울렸읍니다.

過去에는 쭉 中央의 國立國樂院이 와서 演奏를 하던 것인데 今年에 처음으로 우리 燕亭國樂院에 依賴가 돼서 祭禮樂을 울릴 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마만큼 燕亭國樂院의 여러 가지 品格이 格上이 됐다는 얘기고 中央 여러 人士들이 지난번 七百義塚 때에 演奏하는 내용을 보고 크게 激讚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紹介를 해드립니다.

이제 古稀를 맞이하시기는 했지마는 燕亭 先生은 그 情熱, 그 藝魂 더욱더 發展을 시키셔서 적게는 우리 忠南의 國樂發展 또 藝術發展, 그리고 크게는 우리 大韓民國의 國樂發展에 더욱더 많은 寄與와 보탬이 되도록 努力을 해 주실 것을 祈願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滿場하신 賀客 여러분들은 燕亭 先生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정말 마음 속으로부터 祝賀를 해 주시고 燕亭 先生의 無窮한 發展과 함께 다시한번 두번째 古稀까지 맞도록 우리 다함께 祝賀해 주실 것을 祈願드리면서 제 祝辭에 가름하겠읍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28일

紀 念 辭

오늘 스물세번째로 記念하는 貯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確固한 未來와 先進社會를 國民貯蓄으로부터 保障받을 수 있게 되기를 300萬 道民과 더불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더우기나 올해는 우리의 經濟史에 投資財源 自立調達의 元年으로 記錄될 뜻깊은 이 時點에서 貯蓄에 대한 道民의 意志를 모으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가슴 뿌듯한 바 있읍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9月現在 처음으로 國民貯蓄率이 總投資率을 앞서게 되므로서 祖國 光復以後 外國의 援助로 始作된 投資財源의 海外借入 時代가 31年만에 終焉을 告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國民投資基金의 自律時代 到來는 지난 한 世代 동안 國家經濟의 自立運用을 念願해온 國民的 努力의 結果라는 點을 道民과 더불어 自祝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래 前에 한자리 數字의 物價安定을 이룩한 바 있으며, 國際收支의 黑字基盤 構築과 더불어 國民投資의 自給時代를 열음으로서 自立經濟의 有利한 高地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스로 이룩한 이 自立經濟의 3大基盤 構築을 너무 過信하고 貯蓄을 게을리한다거나 外制商品의 選好習慣 또는 浪費主義的 要素를 지닌다면 결코 우리는 持續的인 國家經濟의 成長을 圖謀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요 며칠 前에는 "巨視經濟的 計劃豫測"으로 80年度 노벨 經濟學賞을 받은 美國의 世界的 經濟學者인 "클라인"博士가 우리 나라를 다녀간 바 있읍니다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韓國이 最初로 이룩한 國際收支의 黑字를 浪費해서는 안된다"고 忠告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이 老 經濟學者의 銳利한 忠告를 깊이 共感하면서, 우리가 갖기 쉬운 自立經濟基盤의 自慢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勤儉節約, 그리고 貯蓄精神을 一大 國民運動으로 昇華시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本人이 여러분과 더불어 "으뜸忠南"을 指向하는 道政을 始作하면서부터 重點을 두어 道民의 貯蓄運動을 가장 重要한 施策으로 推進해 오고 있으며 道民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呼應에 힘입어 繼續 貯蓄推進 "으뜸"의 名譽를 지니고 있는 터입니다.

今年에도 우리 忠南道가 貯蓄活動 優秀道로 選定되었음을 道民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내 스스로와 家庭, 그리고 國家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끈질기고 底力있는 道民精神을 貯蓄運動의 原動力으로 삼아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貯蓄運動은 누구보다도 公職人들이 앞장서서 實踐하고 道民을 啓蒙해 나갈 때 크나큰 效果가 있을 것으로 確信하면서 우리 道傘下 公務員들이 지금 推進하고 있는 "한 책상 한 貯金桶 놓기 運動"을 300萬 道民運動으로 擴散되었으면 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貯蓄運動에 숨은 功이 있어 表彰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祝賀를 보내면서 우리의 福祉와 幸福은 貯蓄을 통해서 成就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0월 30일

追 悼 辭

오늘 여섯 돌을 맞는 反共犧牲者 合同慰靈祭에 즈음하여 本人은 300萬 道民과 더불어 北韓 共産集團의 南侵으로 因한 民族의 試鍊期에 滅私報國하신 英靈의 靈前에 삼가 머리숙여 冥福을 빕니다.

더우기 오늘 이 자리는 40餘年前 英靈들께서 붉은 魔手들의 온갖 惡辣한 蠻行을 當하면서도 끝내 屈하지 아니 하시고 自由民主主義의 꽃을 피우신 거룩한 歷史의 現場이기에 더욱 큰 感懷에 젖습니다.

그러기에 本人은 오늘의 이 合同慰靈祭가 每年 回를 거듭하는 年例祭享의 자리이거나 슬픔만을 되풀이하는 한낱 感傷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신님들의 高貴한 뜻을 받들고 反共의 武裝을 새롭게 다지는 決意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날 英靈들의 高貴하신 犧牲의 代價로 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國運속에 살고 있으며 더욱 올해에는 아시아 競技大會를 留置하여 우리 國民의 成熟된 意識과 燦爛한 文化, 그리고 發展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30億 아시아人의 絶讚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의 젊은이들도 善戰奮鬪하여 經濟大國인 日本을 앞섰고 10億 人口의 中共과 先頭를 다투는 놀라운 成果를 올림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國民의 無限한 底力을 誇示하였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大會의 經驗과 底力을 바탕으로 88年의 世界올림픽은 非但 아

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全世界 모든 人類의 가슴 속에 자랑스러운 韓國을 심어줌으로써 幽明을 달리 하신 英靈들의 값진 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報答할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 共産集團은 아직도 南侵野慾을 버리지 못한채 온갖 可憎스런 術策으로 團合된 우리의 分裂을 劃策하면서 虎視眈眈 南侵의 機會를 엿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緊迫한 狀況 속에서 6.25의 慘狀을 體驗하지 못한 一部 戰後世代들이 北傀의 主張에 同調하여 이른 바 左傾勢力에 휘말리는 分別없는 行動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慨嘆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時期가 그 어느 때보다도 民族의 生存을 左右하는 重要한 때임을 自覺하고 더욱 굳건한 國民의 和合, 더욱 鐵桶같은 安保觀을 가지고 榮光된 統一祖國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힘찬 前進을 거듭하므로써 이땅에 6.25와 같은 民族的 悲劇이 再燃되지 않도록 護國의 英靈 앞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護國英靈들의 靈前에 삼가 머리숙여 冥福을 빌면서 遺家族 여러분에게도 하느님의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祈願합니다.

'86 불조심 行事의 날

1986년 11월 1일

致 辭

오늘 불을 많이 使用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가 不意의 火災로 因한 道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려는 불조심의 날 行事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每年 11月 한달을 불조심 强調의 달로 定하고 初·中·高等學生들의 自己家庭 防火點檢은 勿論 職場人들의 防火點檢과 多衆集合場所, 그리고 大型建物의 定期的 火災豫防 등 汎道民的 불조심 生活化 運動을 展開해 오고 있읍니다.

오늘 여러 義勇消防隊員, 消防公務員과 더불어 이 行事를 갖는 것도 平素 火災豫防에 대한 關心과 注意를 좀더 기울임으로써 큰 不幸을 事前에 막는데 있다고 봅니다.

불은 우리 生活과 暫時라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貴重한 文明의 利器로서 불이 人類文化의 創造와 發展에 寄與한 바는 실로 거의 全部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火災로 變하면 우리의 生命과 財産을 송두리채 앗아가는 무서운 災殃을 가져올 수 있는 兩面性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처럼 創造와 破壞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불을 使用함에 있어 그 有效性만을 살리고 불이 주는 被害를 미리 막아서 스스로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일이야말로 불을 恒時 다루고 活用하는 現代人의 必須的인 常識이며 知慧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나 先進 産業國家로 발돋음하고 있는 우리의 處地로 볼 때 火災를 豫防하는 일이야말로 豫期치 않은 發展 障碍要因을 미리 除去함으로써 우리의 成長을 加速化하는 슬기라고 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火災를 豫防하고 火災로 부터의 被害를 最小限으로 輕減시키기 위한 모든 努力을 한시라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大部分의 災難이 그렇듯이 그 分野에 從事하는 特定人들의 努力만으로는 이를 完璧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불을 쓰는 사람 모두가 火災의 監視者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火災에 대한 警覺心을 가지고 防火에 必要한 諸般 常識들을 平素에 익혀둠으로써 有事時에 效率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하는 것은 現代人 生活의 한 部分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있는 民防衛의 날 訓練이나 災難對備 訓練時에 火災鎭壓이나 待避訓練을 實施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消防勇士들은 그러한 道民的 訓練 熟達過程에서 恒時 先導者가 되고 啓蒙要員이 됨은 勿論 먼저 豫防活動을 위한 弘報要員이 되어야 한다고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迅速한 火災鎭壓이나 對處能力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平素 豫防活動을 통한 火災의 未然防止에는 그 무엇으로도 앞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消防勇士 여러분은 不意의 火災가 發生하였을 境遇 迅速하고도 完璧한 鎭火보다 今年 겨울철에는 火災豫防活動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本人의 거듭된 당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大會가 300萬 道民 모두가 火災豫防의 不寢番이 되도록 일깨우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1月 月例朝會

1986년 11월 3일

訓 示

今年도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雪嶽山, 漢拏山에는 벌써 눈이 내리고 零下의 날씨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읍니다.

이 달은 지난 1年間 땀흘려 推進한 모든 事業을 決算하고 反省하여 來年度業務計劃을 構想하는 달입니다.

지난 달에는 아시아 競技大會 參加 選手團 歡迎式, 全國民俗藝術 競演大會와 새마을 指導者大會를 비롯한 各種 大會와 文化 體育行事 등 많은 行事가 있었는데 關係者들을 비롯하여 職員 여러분들 勞苦가 많았읍니다.

또한 지난 21日은 41돐 警察의 날이었는데 特히 治安需要가 增加하여 警察公務員들의 役割이 컸읍니다.

社會安定과 秩序維持를 위하여 수고하는 警察公務員들의 勞苦를 다시 한번 致賀합니다.

지난 달을 回顧해 보면 아시아 競技大會의 成功的인 完遂를 들 수 있읍니다. 40億 아시아人의 祝祭였던 아시안게임을 成功的으로 마침으로써 우리 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向上되고 아시아의 스포츠 强國으로 浮上하여 88서울올림픽 開催에 自信感을 갖게 되었고 우리 民族의 底力을 對內外에 誇示하면서 民族的 自矜心을 鼓吹시키는 成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나라 經濟가 投資財源, 自立調達이라는 新紀元을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9月末 現在 國民貯蓄率이 31.5%로서 總 投資率 30.4%를 上廻하고 있어 앞으로 外債에 依存하지 않고서도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는 第5共和國 出帆以後 꾸준히 展開한 汎 國民的 貯蓄 增大 努力의 結果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웃 臺灣이나 日本에 比하여 貯蓄率이 낮은만큼 새로운 貯蓄運動의 始發點으로 삼아 貯蓄의 生活化를 定着시키고 健全 消費風潮造成 努力을 加一層 强化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道의 貯蓄 活動을 살펴보면, 今年度 貯蓄 目標가 5千億원인데 9月末까지의 實績이 4千454億원으로 이대로 나간다면 今年末까지는 當初 目標를 10%程度 上廻하는 5千500億원의 貯蓄 實績을 올릴 것으로 展望되며 우리 公務員들의 册床 貯金桶 놓기 運動이 큰 成果를 거둬 全國으로 擴散되고 있으며 우리 道가 貯蓄活動 最優秀道로 選定된 바도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本人이 憂慮하던 事態가 드디어 大學街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急進 左傾 學生들이 급기야 마르크스 레닌主義黨 結成을 企圖하고 大學街에 反 國家的 赤色 大字報가 出現하고 있으며 建國大 集團籠城事件 등 極烈化하고 이들의 口號가 北傀의 對南宣傳 口號와 一致한다는 것입니다.

例를 들면 6.25戰爭은 "反美 解放鬪爭이었다"든가 "反共이데올로기를 까부수자"는 등 지금까지 到底히 想像도 할 수 없었던 말과 行動을 서슴치 않고 있읍니다.

恒常 南侵挑發을 劃策하고 있는 北韓 共產集團과 對峙하고 있는 現 狀況에서 自由民主主義體制 否定과 北傀의 對南赤化 戰略에 同調하는 것은 反 國家的인 行動으로 絶對로 容納못할 일이며, 이번 機會에 이들 左傾 容共勢力들을 뿌리뽑아 國家安保態勢를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北韓 金日成이 지난 10月 22日 蘇聯을 訪問하고 고르바초프 共產黨 書記長과 會談하였고 10月 中旬에는 東海에서 北韓과 蘇聯이 史上 最大의 合同軍事訓練을 實施하는 등 兩國間의 軍事紐帶를 더욱 强化하여 大韓民國을 侵犯하고 88올림픽을 妨害하기 위하여 갖은 수작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金剛山댐 問題만 하더라도 經濟性이 없는 事業으로 對南軍事戰略으로만 構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時局이 南北關係가 얼마나 重要한 때인가 하는 것을 公務員 스스로 認識하여야 하겠읍니다.

地方的으로 볼 때 여러분이 잘 指導해 주어 6年 連續豊年이 達成되었읍니다.

지금까지 報告받기로는 昨年度 對比 3%, 目標對比 8% 增收하여 640萬石을 突破할 것으로 報告를 받고 있읍니다.

내가 確認한 바로는 "논보다는 마당에서 더 豊年이고, 마당보다는 精米所에서 더 豊年이다"라는 것은 結實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6年 連續豊年은 大韓民國의 國運이 隆盛하고, 上昇期에 있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歷史上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連6年 豊年農事의 마무리를 잘해야 하겠읍니다.

農民들이 秋穀收買에서 좋은 等級을 받아야 합니다.

秋穀收買價 策定은 여러 가지 國家財政이 어려운데도 農民들의 營農意慾을 鼓吹시키기 위하여 實質的으로 7% 引上하였읍니다.

農民들은 多多益善이겠지만 物價上昇幅을 考慮할 때 相當히 果敢한 政策이라는 것을 認識하고 秋穀收買에 對備하여 잘 말리고 좋은 等級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잘 指導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年末이 되어 우리가 지난 몇年間 쌓아 올린 으뜸忠南 行政實績을 다시 評價받을 時期가 왔읍니다.

그동안 몇가지 全國單位 評價가 있었는데, 民俗藝術 競演大會는 3年 連續 國務總理賞을 받았읍니다.

大統領賞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그런대로 좋은 成果를 거두었고 全國消防王選拔大會에서는 2年 連覇, 아니 3年 連續 1位를 하고, 새마을指導者 體育大會는 아쉽게도 리레이 바톤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따놓은 金메달이 銀메달로 돼버렸지만 實質的으로 金메달과 다름이 없고, 또 貯蓄活動은 最優秀賞을 받았고, 앞으로 23個 程度가 評價받을 것이 남아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으뜸忠南 자리를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賞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올려 놓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제 全國에서도 으뜸忠南을 認定하고 있읍니다.

300萬 道民은 으뜸忠南에 발맞추어 民間部門에서도 1等을 많이 합니다. 全國市道에서도 忠南하면 모든 것을 잘하는 道이고 示範의 道로서 行政自律示範道로 指定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爲民行政에 있어서도 副知事가 長官님에게 불려가서 忠南이 여러 가지로 잘하니 爲民室 示範道로 指定해 줄테니 잘해봐라 指定을 받아 왔읍니다.

얼마나 榮光스러운 일입니까?

榮光의 뒤에는 많은 苦生과 땀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으뜸忠南을 이룩하는데 1萬7千餘名의 公職者가 앞장을 서고 300萬 道民이 熱心히 支援해 주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11月달에 하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11月 1日字로 爲民室이 開設되었읍니다.

長官님께서 赴任하면서 行政哲學으로 내건 爲民行政이 꼭 成功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各 市道가 나름대로 實踐하고 있읍니다.

爲民行政이라는 것을 法規에 의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은 勿論이고,法規에 關係없이 모든 國民의 若情을 함께 議論하고 誠意를 갖고 最大限의 豫算을 投入하여 解決하는데에 本 趣旨가 있읍니다.

國民이 疏外感을 갖지 않고 어떠한 일도 爲民室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成果를 얻을 수 있다는 信賴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爲民室에서 일하는 몇사람의 職員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新聞이나 라디오에 記事를 몇번 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萬7千餘 公務員이 한결같이 基本趣旨를 理解하고 爲民行政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地方官署, 警察官署 41個所에 爲民室이 開設되었읍니다.

爲民室에 接受되는 住民들의 억울하고 딱한 事情中 他機關과 關係되는 일은 他 機關과 잘 協調하여 어떠한 일도 爲民室에 찾아오면 잘 解決된다는 認識이 심어질 수 있도록 끈기있게 追跡하여 解決해 주어야 합니다.

市長·郡守·警察署長 등이 爲民行政에 恪別한 關心을 갖고 機會있을 때마다 爲民

室에 들러 激勵를 하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完璧한 越冬對策인데, 所管部署에서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겨울이 되면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每年 하는 일이 火災, 交通事故 등 災難防止對策과 零細民에 對한 越冬對策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읍니다.

10月 26日 曉星學院에서 불이 나서 1사람이 重傷을 입고 8사람이 負傷을 입는 被害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平素에 豫防活動을 徹底히 해서 火災事故를 防止해야 합니다.

가스 安全事故, 交通事故, 煉炭가스 등 分野別로 點檢을 하고 特히 低所得層 生活保護分野, 煉炭需給關係, 上·下水道關係, 쓰레기 關係 등을 點檢하여 훈훈하고 큰 問題없는 겨울이 되도록 準備해 주기 바랍니다.

農土培養 問題는 收穫한 다음에 徹底한 管理를 하여 地力을 增進해야 來年農事가 더욱 豊年이 될 것입니다.

客土事業, 논 깊이갈이, 짚 썰어 넣는 것을 잘 履行할 수 있도록 指導하여 農土培養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各種 工事의 마무리를 徹底히 하여야 하겠읍니다.

모든 工事는 竣工檢査를 徹底히 하여 不實工事를 事前豫防하고, 겨울철을 넘겨야 하는 모든 工事는 工事現場의 安全對策을 講究하여 安全事故가 發生되지 않도록 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제 丙寅年도 두달도 안 남았지만 來年度 業務는 今年보다 더욱 짜임새 있게 計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6년 11월 6일

人 事

오늘 저희 忠淸南道의 各界 指導者 여러분들께서 公私間 바쁘신 중에 저희 12次 安保情勢 報告會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參席해 주셔서 大端히 感謝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國政이 바쁘셔서 寸刻의 餘裕가 없으신데도 盧信永 國務總理께서 忠淸南道 安保情勢 報告會를 主宰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枉臨해 주신데 대하여 300萬 道民과 함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契機로 다시한번 우리는 安保現實을 正確하게 認識을 하고 나라의 安保는 勿論이고 이 地域 安保에 우리가 한치의 虛點도 없이 完璧을 期할 것을 다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盧信永 國務總理를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여러분들! 盧信永 國務總理를 拍手로 맞이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第13回 大日飛號大賞 施賞式

1986년 11월 7일

祝 辭

오늘 우리 地域社會를 위해 묵묵히 貢獻하는 분들을 發掘하여 그 뜻과 功績을 宣揚하는 第13回 大日飛虎大賞의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이 施賞式에서 우리는 우리의 生活 속에서, 그리고 人生의 成就過程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있는 길을 가시는 분들과 만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이 施賞式이 우리에게 주는 意味는 이 社會의 여러 分野에서 自己 스스로를 沒入하고 精進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地域社會에 寄與한 功勞를 致賀드리는 뜻도 있지만, 이분들의 참다운 精神을 모든 사람이 본받는데 있다고 믿어집니다.

特히, 오늘날과 같이 삶의 價値가 混沌되고 誤導되며 僞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은 時代에서 여기 다섯분이 追求해온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無言의 敎訓이 되고 분수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警鍾과 길잡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 보건대 오늘 受賞의 榮譽를 가진 다섯분은 어느 企業을 거느리는 經濟도 높은 職銜을 가진 社會의 有志도 아니며, 하나의 組織이나 團體를 이끄는 影響力있는 人士가 아니라는 點입니다.

이분들은 다만 平凡한 우리 社會의 小市民으로서 平素 自己人生을 成就해가는 職業을 통해서 最善을 다하고 새로운 것을 追求하고 쌓아가는 創造와 忍耐의 共通點을 지닌 참된 人間像의 所有者들이라는 것에 우리가 留意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고장에 獻身하고 奉仕하고 또 寄與하는 것은 經濟的으로나 精神的으로 커다란 能力을 가진 有能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領域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大日飛虎施賞式에서 우리는 이웃이나 職場에 대한 寄與 더 나아가 地域社會나 國家에 대한 獻身은 바로 내가 몸담그는 分野 내가 責任지고 있는 業務에 最善을 다함으로서 그러한 創意와 誠實과 奉仕가 結局 이 社會와 國家의 發展을 뒷받침하는 礎石이 되고 滋養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共感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섯 가지의 分野에 걸쳐서 가장 훌륭한 功勞를 쌓았다고 보는 受賞者들에게 本人은 이 社會를 이끌어가는 "작은英雄들"이라는 稱號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特히 오늘날의 우리 社會가 어떤 絕對的인 能力과 英雄的인 指導力을 지닌 한사람의 指導者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發展될 수 있는 社會라기 보다는 오늘 受賞者들과 같이 自己스스로를 이기고 能力을 發揮함으로써 작은 英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社會가 좋아지는 時代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本人이 300萬 道民과 더불어 成就해 나가는 「으뜸忠南」의 道政도 한사람이나 한分野의 特出한 努力에 의한 均等한 結果 속에서 先進社會를 다같이 共有하고 共感할 수 있는 「으뜸의 結實」에 目標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리 다함께 이 榮譽의 受賞者들과 같이 이 작은 英雄들의 길에 同參할 것을 約束하면서,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安世永 大田日報社長님을 비롯하신 社友 여러분에게 致賀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1월 7일

致 辭

오늘 이곳 唐津郡廳에서 民防衛家族이 한 자리에 모여 民防衛行政 研究 發表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나 이 자리에서는 昨年度 優秀民防衛隊로서 內務部長官賞을 受賞한 唐津郡 石門面長, 古項1里地域 民防衛隊 金雲奎隊長께서 垂範事例를 發表해 주시는 것이 實務的으로 우리 公務員들에게 좋은 參考가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民防衛隊는 民防衛隊 本然의 任務뿐만 아니라 地域社會 發展이나 地方行政에도 큰 寄與를 해 왔음은 自他가 公認하는 까닭에 이 자리를 빌어서 市·郡民防衛關係者 여러분과 더불어 큰 自負와 矜持를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民防衛隊가 1975年 創設할 當時에는 國內外的으로 매우 어렵고 緊迫한 時期였다고 돌이켜집니다.

越南 등 一部 東南亞 國家가 여지없이 共產化되는 衝擊과 北傀의 南侵野慾이 露骨化되고 前後方이 없는 現代의 國家總力戰에 비추어 볼 때 限定된 軍警戰力만으로 國土防衛를 堪當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기에 災難이나 國家 非常時에 國民의 힘을 組織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 하나의 組織이 必要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狀況 아래서 創設된 우리 民防衛隊가 해가 바뀌면서 그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땀흘리는 努力과 透徹한 使命感으로 우리 民防衛隊의 力量을 키워왔다고 하겠읍니다.

民防衛業務에 精進하는 公務員 여러분!

지금 이 時間에도 北韓 共産集團은 그들 軍事戰力의 大部分을 休戰線 近方에 前進配置해 놓고 있으며 最近 太平洋地域 進出에 注力하고 있는 蘇聯 膨脹主義의 下手人 노릇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그 軍事的 底意가 分明한 金剛山댐을 쌓아 瞬息間에 自由大韓을 人爲的 洪水로 焦土化시키려는 野慾을 불태우고 있는 實情입니다.

또한 저들은 86 아시안게임이 크게 成功하여 世界의 讚辭와 더불어 南北韓의 國力差異가 더욱 深化되는 契機가 되자 크게 唐慌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88 올림픽의 沮止를 위해 手段과 方法으로 放害策動을 激化시킬 것으로 豫想됩니다.

이토록 우리가 緊迫한 狀況을 안고 있음에도 一部 젊은 學生들이 幻想的인 共産主義 理論에 빠지더니 이제는 共産主義 手法에 의한 暴力手段으로 이 社會를 顚覆시키려는 無謀한 企圖를 서슴없이 行動에 옮기기에 이르렀읍니다.

우리 社會에서 이들 左傾勢力이 極小數라 하더라도 그대로 放置한다면 結局은 國家의 안위가 危殆롭게 된다는 것은 지난 날 우리가 體驗한 共産主義 手法에서 能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읍니다.

이처럼 重且大한 時期에 우리 民防衛隊員으로 하여금 國家安保와 地域社會安保의 核心要員으로서 確固한 信念과 精神武裝을 바탕으로 道民의 安保意志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 民防衛關係者들이 이끌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뜻에서 民防衛業務의 보다 새로운 活氣와 意慾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契機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眞摯하고 意慾的인 雰圍氣 속에서 民防衛行政 硏構 發表會가 進行되기를 期待합니다.

그 동안 民防衛業務의 새로운 方向을 硏鑽하여 同僚公務員들에게 이를 發表를 해 줄 여러분에게 激勵를 보내면서 이 뜻깊은 硏鑽會를 後援해준 盧完九 唐津郡守를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 致賀를 보냅니다.

1986년 11월 10일

臥 碑 文

수당 이남규 선생은 고려말 목은 이색 선생의 후예로 1855년 서울 미동(尾洞)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 벼슬은 궁내부 특진관에 올랐다.

일제의 침략마수가 이땅을 죄어들자 일찌기 척왜항일의 굳은 신념을 불태워온 수당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영흥부사직을 박차고 왜적을 물리칠 것과 적신의 머리를 베라는 추상같은 상소와 실제의 행동은 당대의 추앙을 받았다.

1906년 의병들의 홍주성 봉기를 뒤에서 후원하고 의병장 민종식을 숨겨준 일로 왜군에 의해 공주옥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1907년 9월 26일 선생을 두고는 그들의 침략이 뜻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안 백여명의 왜군은 이곳에서 20여리 떨어진 대술면 상항리 선생의 사저 평원정을 에워싸고 묶으려 했다.

선생은 이에 "선비는 죽을 수 있으되 욕된 일은 당하지 않으리라"하고 외치며 가마를 타고 나섰다.

해가 지기를 바라 뒤따르던 왜졸들이 이곳 평촌 냇가에 이르러 선생을 마지막으로 회유하자 "죽을 수는 있어도 너희에게 굽히지 않겠다"는 선생의 호령이 떨어지자 저녁놀에 반짝이는 칼을 높이 쳐들었다.

뒤따르던 맏아들 충구가 몸으로 선생을 감싸자 내리친 칼에 쓰러지니 가마를 멘 하인 김응길 가수복이 또 선생을 에워싸는 순간 칼날이 어지러히 비껴 아들도 하인도 선생도 모두 쓰러지니 향년 쉰셋이었다.

오호라! 이 어찌 천추에 빛날 충절이요, 효도이며 충복이 아닐손가. 사람은 갔으되 그 불멸의 정신은 여기 해지는 석양 지나는 길손의 피를 끓이고 옷깃을 여미게 한다.

實業 體育팀 創團을 勸誘하는

1986년 11월 11일

書 翰

貴體 錦安하심을 仰祝하오며 恒常 本道 體育 振興에 積極的인 支援을 아끼지 않으시는 貴下에게 깊은 敬意를 표합니다.

더우기 지난번 우리 고장에서 開幕되었던 아시아 競技大會 蹴球豫選時의 따스한 보살핌과 協調에 힘입어 알차고 보람있게 아시안게임에 一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感謝드립니다.

이미 周知의 事實입니다마는 서울 아시안게임에서는, 競技面에서 스포츠强國인 日本을 제치고 中共과 不過 메달 1個 差異로 肉迫하는 大成功을 거둔 것은 우리 大韓民國의 國力伸長의 快擧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結果의 裏面은 亦是 地方 體育의 튼튼한 바탕 위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믿어 疑心치 않으면서 다가오는 88서울 올림픽을 對備하고 本道 體育振興 向上을 위하여 本道出身 優秀選手의 育成策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에 따라 貴社에 ○○部를 創團 依賴하오니 여러 가지 어려운 形便임에도 무거운 負擔을 드리는 것 같으나 우리 고장의 體育振興과 나아가서 國家體育의 向上을 위하시는 尊意에서 積極的인 配慮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貴下의 家庭과 經營하는 事業이 더욱 繁昌하시기를 祈願합니다.

基督教 聖職者 세미나아

1986년 11월 13일

人 事

오늘 우리 時代의 가장 切實한 課題이며 國民精神 運動의 目標가 되고 있는 意識先進化를 위한 韓國 教會의 役割 등을 眞執하게 討論하는 基督教 聖職者 세미나아를 갖게 된 것을 本人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요즈음의 社會的 現實에 비추어 이 時宜適切한 세미나아를 마련해 주신 朴善圭 道淨化推進 協議會長님, 또 바쁘신 가운데도 參與해 주신 李聖根 培材大學長님을 비롯한 여러 教授님들과 聖職者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社會는 여러 가지 면에서 轉換期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産業과 經濟的인 면에서 先進化를 指向하고 社會的으로나 政治的인 면에서 民主化의 熱望이 클 뿐더러 住民의 多樣한 欲求가 充滿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目標나 欲求가 瞬間이나 不過 몇年 사이에 充足될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 國民 모두의 和合과 團結, 때로는 忍耐와 自制를 앞세운 꾸준한 成就 속에서 漸進的으로 到達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의 社會淨化運動은 지난 5年餘 동안 우리의 모든 分野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옳은 것을 찾아내어 이를 우리의 삶의 指標로 삼거나 生活의 德目이나 規範으로 體質化하려는 끈질긴 努力이 集中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努力에 의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르고 人間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自肅의 社會的 雰圍氣는 造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릇된 意識이 바뀌어 올바른 意識이 定着되거나 行動이 體質化되

기까지는 많은 時間과 努力이 더 必要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住民들의 意識改革이나 올바른 社會價値觀 定立에 대한 基督敎 聖職者 여러분들의 役割은 정말 推定을 벗어나는 크나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오늘날 一部 大學街에서 擡頭되고 있는 容共을 벗어난 親共的인 壁報, 그리고 大膽한 行動에 큰 憂慮를 禁할 수 없으며 우리가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이에 對處하지 않으면 國家의 앞날에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豫想을 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共產黨에게 먹히지 않고 自由民主主義 體制 속에서 安定과 繁榮을 希求하는 大多數 國民과 더불어 先進韓國을 創造해야 하며 결코 이를 沮害하는 混亂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宗敎는 이러한 社會現象과 直接 關係는 없지만 그 本質에 있어서 人間의 內面的인 精神生活과 社會活動을 包含한 삶의 모든 領域에 대한 비젼과 解答을 주고 그에 대한 絶對的인 確信과 自己信念을 불어 넣어 주기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宗敎를 통해서도 이러한 그릇된 理念의 醇化가 可能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本人의 생각입니다.

일찌기 基督敎가 自由와 平等, 博愛思想을 根本으로 福音化 運動을 통해서 오늘날 이만큼의 民主社會建設에 直接 間接으로 끼친 功勞를 否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聖職者 여러분들은 事實上 우리 고장의 精神的 指導者이며 하나님의 福音化 事業을 통해서 이미 次元높은 이 社會의 淨化運動을 오래 전부터 해 오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미나아와는 直接 關聯이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오늘날의 一部 知識人들은 政府나 行政機關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지도 確認해 보지도 않고 反旗를 드는 것이 마치 知性人의 姿勢인 양 處身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이는 지난날 異民族의 抑壓등 아픈 時代를 살아온 우리의 傷痕으로서 오늘날은 우리 겨레의 政府인만큼 이제는 씻어져야 할 痕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自己 스스로가 이 社會의 構成員임을 認識하고 모든 것을 肯定的으로 思考하고 判斷하며 參與하는 意識들이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委員님들은 道民과 宗教界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러한 점도 念頭에 두시고 指導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뜻깊은 세미나아를 다시 한번 祝賀를 드리며 많은 成果있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온 國民이 함께 부르는 노래 忠淸南道 合唱競演大會

1986년 11월 14일

大 會 辭

우리가 즐겨 부르는 밝고 健全한 노래는 언제나 草原의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新鮮하게 해 줍니다.

特히 마음을 모아 함께 부르는 合唱은 생각과 感情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라는 共感帶를 形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우리가 國民 누구나가 쉽고 뜻있게 부를 수 있는 온 國民이 함께 부르는 노래의 普及과 宣揚을 통한 밝고 正義로운 社會建設에 寄與하려는 이 合唱競演大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音樂은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自己의 感情을 多衆에게 소리로 表現하려는 慾求에서 "功同勤勞의 現場에서 步調를 맞추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서"또는 出戰하는 勇士들의 士氣를 振作하는 등 여러 가지 目的아래 生成되고 發展되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上古時代에는 部族國家들도 秋收를 다하거나 혹은 씨를 뿌릴 때는 꼭 하늘에 祭祀를 지내고 男女老少가 함께 모여 밤낮없이 춤과 노래를 즐기었으며, 이런 祭天儀式을 扶餘에서는 迎鼓, 高句麗에서는 東盟, 동예에서는 舞天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겨레는 音樂을 즐기며 살아온 民族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傳統音樂이 世界로부터 注目받는 事實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읍니다.

우리의 祖上들은 예로부터 以禮樂治天下라 하여 禮와 樂을 나라를 다스리는 根本

으로 삼아왔기에 그만큼 우리의 音樂이 發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音樂의 崇尙은 國家나 民族의 興隆과도 깊은 關係가 있어 우리의 祖上들이 大陸을 주름잡던 高句麗時代의 音樂이 莊重하고 豪放하였으며, 文化의 꽃을 피웠던 世宗大王 때에는 優雅하고 圓熟했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歷史的 敎訓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노래의 普及과 歌唱을 통해서 進取的이고 밝은 社會를 建設할 수 있다는 하나의 可能性을 터득하게 됩니다.

音樂은 우리의 生活을 潤澤하게 하고 慰安과 勇氣를 불어넣어 주어 協同性, 友愛性 生産性을 向上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健全하고 鄕土色어린 忠南讚歌 등의 普及과 皆唱運動을 통하여 道民의 愛鄕心과 進取的인 精神을 涵養하는데 힘쓰고 있다 하겠읍니다.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10億 人口의 中共과 금메달 하나로 1, 2位를 다투었고, 經濟大國 日本을 금메달 서른다섯個 差異로 誇示한 바 있읍니다.

그 때에 大韓 健兒들이 목에 금메달을 거는 瞬間 瞬間마다 온 國民이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다함께 노래를 合唱한 感激과 歡喜를 보더라도 노래가 우리의 團結과 和合의 求心的 役割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音樂은 國民의 一體感을 造成시키고 民族의 自負心을 일깨우는 機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鄕土의 名譽를 걸고 出演한 市·郡·區合唱團 여러분께서는 平素 닦은 技倆과 自然스럽게 다듬어진 能力을 遺憾없이 發揮하여 우리 忠南 音樂發展에 寄與하는 한편, 밝고 明朗한 地域社會雰圍氣 造成에도 一助를 하게 되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이 合唱競演大會에 出演하신 合唱團 여러분이 그 동안 練習과 더불어 道民皆唱運動에 끼친 功勞를 높이 致賀하면서 우리 社會에 健全하고 밝은 노래가 널리 불러워져서 우리 모두가 生動感이 넘치는 社會의 建設을 加速化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合唱大會를 뒷받침해 주신 各界 各層과 여러 音樂人들의 聲援에 謝意를 표합니다.

感謝합니다.

青石修練院 新築廳舍 竣工式

1986년 11월 15일

祝　　辭

오늘 이곳 風光 秀麗한 龍鳳山 기슭에 새마을 精神의 搖籃이요, 鄕土愛 發揚의 産室이 될 青石修練院이 아담한 터전을 마련하고 그 竣工式을 갖게 된 것을 마음깊이 祝賀드립니다.

꼭 1年前인 昨年 이맘 때 本人이 起工의 삽질을 위하여 이곳을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精神教育의 道場을 建立하고 竣工式을 갖는 것은 깊은 意味와 感懷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우선 青石修練院은 20餘年前 純粹한 젊음과 意志로 뭉친 이 고장의 몇몇 젊은이들이 農村奉仕에 힘을 쏟는가 하면 움막을 짓고 夜學의 門을 연以來 지게품을 팔아가면서 國民精神教育 道場의 礎石을 쌓아온 點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 修練院의 開院을 아름다운 龍鳳山의 自然景觀으로 하여 누구던지 이곳에 오면 浩然之氣가 길러질 터전으로서 崔瀅 將軍이 어릴적 心身을 닦은 곳이라고 傳해오는가 하면 白冶 金佐鎭 將軍의 銅像이 가르키고 있는 地點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이 고장이 輩出한 歷史의 人物들을 생각할 때 앞날의 人材를 키우려는 이 고장 住民들의 意志와 긴 眼目의 結集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産業社會가 急速度로 發展하고 物質文化 追求의 趨勢가 짙어감에 比例하여 우리의 精神은 메말라지고 傳統的인 道德이나 價値觀이 무너져간다는 것이 一般的인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個人主義와 利己主義가 澎湃해지는 이 時代의 特徵이라고 말해지는 오늘날, 自己를 무릅쓰고 이 社會와 남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일을 學窓時節부터 뜻을 세우고 젊음을 바쳐 오직 한길을 걸어온 鄭德泳 院長님과 同志 여러분의 壯한 意志는 결코 무엇과도 比較할 수 없는 이 社會의 등불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 社會는 이렇게 남을 위하여 일하는 숨은 일꾼들에 의하여 새로운 創造의 活力이 샘솟으며 또 前進해 나간다고 믿어집니다.

이 青石修練院은 그 동안 이 고장 青少年들에게 굳센 意志와 進取的인 氣相을 키워주고 올바른 價値觀을 認識시켜주는가 하면 우리 一線行政의 核心力인 統·里長과 後繼指導者들에 대한 새마을精神과 自治 自律能力을 북돋아 주는데도 큰 役割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役割이 곧 우리 道民에게 擴散되고 定着된다고 볼 때 青石修練院은 오늘의 竣工을 契機로 그 동안 씨뿌리고 가꾼 努力이 더욱 꽃피고 열매맺는 成熟의 새 章을 열게 될 것으로 期待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時代的 召命과 役割을 認識치 못하는 左傾 容共勢力이 고개를 드는가 하면, 無分別한 打算과 便益爲主의 바람직하지 못한 消費文化의 汚染이 念慮된다 하더라도 青石修練院과 같은 心身修鍊의 道場이 있고 여기를 거쳐간 많은 일꾼들이 社會곳곳에서 健在한다고 볼 때 이 社會와 國家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跳躍의 地平을 여는 修練院竣工이 우리 으뜸 忠南과 先進祖國 創造에 寄與하는 하나의 出發이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오늘 이처럼 훌륭한 터전을 이루기까지 모든 精誠을 기울여 주신 조부영 理事長님과 後援人士 여러분, 그리고 鄭德泳 院長을 비롯한 青石修練院 家族 여러분의 意志에 讚辭를 보내면서 이 教育 道場의 無窮한 發展을 빕니다.

感謝합니다.

김장菜蔬 消費處 斡旋 勸奬을 위한

1986년 11월 17일

書 翰

小雪을 앞둔 초겨울의 날씨가 따뜻한 人情과 겨우살이를 재촉하고 있읍니다.

平素 貴下의 聲援과 參與 속에 우리의 으뜸忠南 道政이 括目할 만큼의 成長을 거하고 있음을 貴下와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우리 忠南은 傳統的인 農業生産에 크게 依存을 하고 있는 農業道로서 우리 道政도 農業의 振興과 農村施策에 무엇보다도 큰 比重을 두고 있음은 貴下께서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農村經濟는 主穀의 生産과 더불어 이맘때면 김장菜蔬 栽培로서 큰 所得源을 갖는데 今年따라 무우와 배추 등 菜蔬가 例年에 없는 큰 豊作을 이루고 있읍니다.

우리 道만 해도 一大豊作을 이룬데다가 栽培面積마저 昨年보다 13%나 增加한 때문에 우리 고장의 김장菜蔬 栽培農家는 生産費도 안되는 出荷價格으로 지금 울상을 짓고 있는 形便입니다.

이같은 農民들의 어려움은 비단 우리 道內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現象으로 政府에서는 輸送車輛의 支援, 直去來의 推進 등 多角的인 施策을 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支援策도 限界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 道民의 擧道的인 理解와 支援이 매우 아쉬운 實情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貴機關의 構內食堂이나 隣近 아파트 등 多少 많은 量의 消費가 可能한 消費者와의 直接 去來를 斡旋해 주시기를 懇曲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貴下의 조그만 誠意가 어려움을 겪는 우리 農民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十分

理解하시고 積極的인 協調와 聲援을 期待합니다.

貴下의 모든 일이 順調롭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1월 20일

祝　　辭

萬山 紅葉도 지고 찬서리 菊花 香氣만 높은 晩秋의 季節입니다.

모든 꾸밈을 떨구고 맨몸이 되어가는 樹木을 바라볼 때는 우리 人間들도 謙虛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反省하고 思惟하는 契機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쁜 日常 속에서 이러한 自然과 接하지 못할 때 한 點 壽石을 바라보는 마음도 縮少된 大自然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릇 自然과 마주한다는 것은 純粹한 人間 本然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人間 本然의 마음이란 착하고 아름답고 謙虛한 心性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壽石을 찾고 즐기는 活動은 스스로를 가다듬고 人格을 陶冶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社會生活의 順理와 秩序를 찾고 醇化하는 좋은 趣味活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社會와 모든 精神文化는 우리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左右되고 生成되며 이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우리 고장 壽石同好人들이 壽石聯合 展示會를 갖고 그 빼어난 作品의 寫眞帖을 發刊하게 된 것은 매우 뜻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發展이 있기를 빕니다.

1986년 11월 23일

致　　辭

親愛하는 새마을 蹴球 同好人 여러분!

本人은 오늘 6年이나 繼續된 豊年의 기쁨 속에 忠南의 蹴球 愛好人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忠淸南道聯合會長旗 爭奪 市·郡·區 蹴球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地域社會 發展과 이 고장 體育 發展에 寄與해 오신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도 致賀를 드립니다.

새마을 蹴球家族 여러분!

우리는 지난 달 서울에서 가진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놀라는 國民體育의 力量과 成熟된 市民 意識을 바탕으로 無限한 國力伸長의 可能性을 誇示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동안 굳은 決意와 꿋꿋한 意志로 새 歷史 創造를 위해 渾身의 努力을 다해 온 國民的 力量의 結晶이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努力은 아시아 競技大會의 成功에 이어, 物價의 安定과 輸出의 增大, 國際收支의 黑字 轉換 등 많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先進國의 隊列에 성큼 다가선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같이 健全한 精神과 健康한 活動을 土台로 이루어진 國民的 努力의 結集이라고 볼 때 이 자리에 모이신 새마을 體育人 여러분의 活氣야말로 來日을 위한 成就의 原動力이라고 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만, 이제 스포츠는 우리의 日常生活 中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生活의 手段이 아닌 目的이 되고 있다고 봄이 옳을 것입니다.

이러한 點으로 볼 때 오늘의 이 새마을 蹴球大會는 이 地域社會와 道民의 活力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넓고 푸른 이 廣場에서 所屬팀의 名譽와 榮光을 위해 各者가 그 동안 갈고 닦아 온 技倆을 마음껏 發揮해 줄 것으로 압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蹴球大會가 勤勉, 自助, 協同의 새마을 精神을 이 고장에 샘솟게 하고 擴散시키는 觸媒의 役割이 되었으면 하는 期待도 있읍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體育大會를 契機로 하여 汎道民的인 參與와 呼應 속에 蹴球中興의 기틀을 가지고 "으뜸忠南" 具現에 우리 새마을 蹴球 同好人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出戰하신 選手 여러분 모두가 正正堂堂한 가운데 고장의 名譽를 걸고 끝까지 善戰奮鬪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大會를 開催하기까지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朴世烈 새마을 朝起蹴球 忠南聯合會長님을 비롯한 同好人 여러분에게 致賀와 激勵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1월 25일

人　　事

오래간만에 뵙게 됐읍니다.

벌써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동안의 道政을 報告드려야 할텐데 여러 가지 일이 重疊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모시게 된 것을 優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없는 사이에 이미 會議를 많이 進行하셨기 때문에 簡單하게 人事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企劃室長으로부터 今年度 業務成果, 그리고 來年度의 여러 가지 業務計劃이랄까 道政方向을 報告받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今年度도 한달밖에는 안 남았읍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聲援해 주신 德澤으로 아주 모든 分野에 많은 發展을 가져 왔고 저희들이 計劃했던 그러한 成果를 거두었다고 自負를 하고 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金麟濟 委員長님, 韓其洙 副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앞으로 今年이 한달 조금 더 남았읍니다마는 보다더 完璧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겠읍니다.

우리 나라가 國運 上昇期를 맞이해서 알차게 發展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 열쇠가 앞으로 한 2~3年이 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登山을 하는 것을 比較한다면 이제 어려운 길을 다 지나서 頂上이 앞에 보이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아픈 다리를 참고 견디면 頂上에 올라 갈 수가 있는 것이 앞으로

2~3年이 아닌가 합니다.

頂上이라는 것이 永遠한 頂上이 아니다손치더라도 一旦 우리가 計劃돼 있는 先進國 門턱에 들어서는 이러한 基礎的인 作業이 앞으로 2~3年이 가장 重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年이 왜 重要하냐 하는 것은 여러 委員님들이 저보다 더 正確한 判斷과 知識과 經綸과 眼目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안드리겠읍니다마는 크게 두가지 면에서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現在도 民主化하자는 口號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政治的인 發展 이것도 事實은 88年 3月에 있을 平和的인 政府移讓 이것이 正確하게 成功的으로 履行이 될 때 한발짝 政治發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政治發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0年間을 分析해 보면 宏壯히 좋은 말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나서 모든 國民이 느끼는 것은 우리 國力도 많이 伸張이 됐고 國民의 意識도 많이 成長이 됐는데 向上이 덜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政治分野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政治的인 發展이 相當히 遲遲不振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누구의 責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기 以前에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課題든 어떤 分野든 이것이 發展을 하기 위해서는 各自가 努力을 하고 實踐에 옮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甲論乙駁 空理空談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것이 萬古의 眞理입니다.

政治發展만 하더라도 制度를 몰라서가 아니고 또 條文이 나빠서가 아니고 다 制度도 좋았고 內容도 좋았읍니다.

世界에서 가장 좋다는 制度를 다 우리는 갖다가 우리 實情에 한번 심어 봤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됐읍니다.

그 理由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政治를 하는 爲政者들 統治를 맡은 統治者가 意志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政治人들을 包含한 우리 國民의 意識 水準이 發展하게끔 뒷받침이 되고 向上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條文만 몇個 羅列하고 憲法이 아주 理想的이다 해서 政治發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經濟政策에 條文이 좋다고 해서 輸出이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結局은 모든 制度의 勝敗는 爲政者의 意志에 많이 달려 있고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國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事實上 88年 平和的 政府移讓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 歷史上 政治 指導者가 한번도 實踐을 못해 본 制度입니다.

그것이 主觀的이었던 客觀的이었던 간에 어느 政治指導者도 自己가 가지고 있는 權力을 내놓고 또 後任者에게 물려주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意志를 핀 政治指導者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 歷史의 큰 不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全 大統領께서 어쨌든 우리 國民이 渴望하고 있는 政治發展을 가로막는 큰 要因中의 하나가 一人 長期集權 卽 永久 執權을 企圖한 것이기 때문에 單任制를 憲法에 마련하고 이것을 實踐에 옮긴다고 하는 모든 意志表明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歷史的인 事實을 分析을 해보며는 平和的 政府移讓 一人 長期集權 封鎖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도 이것을 全 大統領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건 當然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國民들의 姿勢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며 歷史的으로 크게 評價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友邦들이 우리 나라를 보는 눈이 비율빈과도 다르다. 어느 後進國과도 다르다. 어느 中進國과도 다르다는 것은 바로 一人 長期集權을 안하겠다는 現 集權者가 後任者에게 權力을 移讓을 하고 물러나겠다는 그 意思表示가 우리 나라를 다른 나라와 달리 보는 큰 하나의 尺度라고 國民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큰 政治的인 發展의 契機가 될 平和的인 政府移讓 節次가 和合과 安定속에 無事히 치루어져야 그 다음 段階에 더욱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더욱더 發展시킬수 있는게 무엇이냐 하는 것도 順調롭게 論議가 되고 順調롭게 發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도 없던 處地에 모든 걸 다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成就될 수 있겠읍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勿論 平和的인 政府移讓말고도 더 많이 必要한 發展要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漸次的으로 할 일이고 一段階는 平和的인 政府移讓 그 政治行事가 無事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하나는 88서울 올림픽이 成功裡에 치뤄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歷史的인 事實입니다. 86아시안게임도 5千年 歷史以來 처음 치룬 行事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成功裡에 멋지게 치뤘읍니다.

그래서 大統領閣下께서도 機會있을 때 마다 國民에게 다 功勞者로 金메달을 드려야 할만한 成功的인 行事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86아시안게임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읍니까?

마지막에는 金浦에 爆發事故까지 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치뤄 냈읍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몇年 前부터 86아시안게임 誘致 以後에 쌓아 올린 努力의 結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공짜는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88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은 86아시안게임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行事입니다.

아시아 29個國이 參加한 게임을 치루고 난 以後에 지금 11月 末까지는 모든 호텔이 다 豫約 滿員이 되어 가지고 전혀 餘裕가 없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 期間 동안에는 많이 안 왔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韓國의 發展된 모습, 秩序있는 모습, 또 여러 가지 產業分野, 電子分野 이런 걸 보고 全部 한번 가 봐라 그래서 붐이 났답니다.

아시아 모든 國家에서 韓國을 한번 와 보는 것이 붐이 나서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만큼 興味를 갖게 하기 위해서 宣傳費를 썼다면은 이거 돈으로 計算하기 어려울 程度일 것입니다.

88올림픽의 重要性은 그런 뜻에서 얼마나 重要하냐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또 이것도 蹉跌없이 치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가지를 다 妨害하기 위해서 策動을 하고 있는 北傀가 요즘 金剛山댐과 뭔가 水沒作戰을 위한 對備를 하는 것이 지금 萬天下에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民族的인 忿怒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건 金日成의 立場이라면 누구나 다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金日成이가 이것을 끝까지 妨害하고 戰爭이라도 不辭하리라는 程度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國內的으로는 容共 急進勢力이 表出되어 가지고 또 旣存 우리 旣成勢力을 다 물리치겠다고 날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2~3年間은 어떤 일이 있어도 克服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86年度 後半期 우리의 課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國政의 方向이나 道政方向도 여기에 맞추어서 計劃이 돼가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報告를 받으셨겠지만 政府에서 策定된 87年度 國政方向을 제가 紹介를 드리면 民主制度의 確固한 定着, 그 다음에 安定을 基調로 해서 適正成長을 維持해야 되겠다. 세째번은 果敢한 福祉 施策과 農漁村 綜合對策을 해서 國民生活을 고루 向上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國政의 큰 세가지 方向입니다.

여기에 道政의 方向도 맞추어서 여기에 대한 對備와 함께 中央政策의 地方的 具現을 위해서 方向을 잡았읍니다.

그것이 平和的 政府移讓을 위한 諸般 準備, 앞으로 憲法이 改正되면은 國民投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地方自治制를 實施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道 議員 選擧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準備가 必要하죠

그 다음에 우리 忠南道는 뭐니 뭐니 해도 中部圈 開發施策을 能動的으로 受容을 하고 여기에 對應한 여러 가지 計劃이 제대로 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國民 福祉 綜合對策 이것도 農漁民 綜合對策의 發表에 따라서 우리가 段階的으로 施行해야 될 課題입니다.

國民 福祉 綜合對策의 重要 內容이 醫療保險, 國民 年金制, 最低賃金制 이 세가지

인데 이것이 一部는 88年度부터, 나머지는 89年부터 施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準備가 87年度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農·漁村 綜合對策推進도 今年에 綜合對策이 發表가 됐고 來年부터 이제 하나 하나 細部計劃이 樹立이 되서 實踐에 옮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農漁村에 支援하는 規模만 보더라도 今年에 767億$이였는데 87年度 政府 豫算을 보면 4千428億이 이미 豫算에 計上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實質的으로 우리의 農·漁村을 돕는 施策으로서 零細 農·漁民의 子女가 實業界 高校를 갈 때에는 無料로 갈 수 있도록 支援을 해야 되고 零細 農·漁民이 農機具를 購入할 때 資金을 支援하고 營農機構 擴大造成을 해서 農民所得도 增大하고 이런 具體的인 作業이 來年度에 우리가 施行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88올림픽을 對備한 여러 가지 秩序 運動이라든가 또는 各 接客業所의 水準向上이라든가 道路 整備 등도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國·道政 基本方向을 잡았읍니다.

여러 가지 內容이 있읍니다마는 題目만 簡單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地域의 安定과 和合을 모든 問題의 最優先에서 推進되어야 할 課題로 삼고 이를 推進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地域 社會의 安定을 바탕으로 均衡開發을 推進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重點開發을 하다 보니까 疏外된 데도 많고 不均衡的인 데가 많이 있어서 제가 就任한 以後에 우리 忠南圈內를 20個 力點事業을 만들어 놓은게 있읍니다.

이것이 來年度에는 3次年度가 되는데 그 동안에 推進된 것도 一部 있읍니다만 나머지를 알차게 推進하기 위해서 中央과 잘 連結을 해서 推進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福祉施策도 우리가 可及的이면 豫算의 範圍內에서 擴大를 해 가지고 住民生活의 向上을 이룰 수 있는 方向으로 道政을 펴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方向을 基礎로 해서 저희 道政을 마련하고 오늘 報告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計劃은 計劃段階에서 緻密하게 생각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結果를 創出한다는 것은 亦是 여기에 계신 委員님들의 助言과 300萬 道民들의 絕對的인 參與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지금까지 支援해 주신、그러한 積極的인 參與意識을 가지고 앞으로도 繼續 잘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國家的인 大事나 地方道政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마무리해서 꼭 한 가지를 제가 부탁을 한다면 當面해 있는 問題 中에 容共勢力을 꼭 발라내서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가 大前提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機會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容共勢力이 相當히 表出되어 있고 擴散이 되어 있는데 많은 國民들과 知識人들이 그게 事實이냐?하고 疑心들을 합니다.

學生들이 떠드는 것은 分明히 容共的인 口號고 主張하는 것이 社會主義 革命인데도 이것을 아니라고 否認하는 그 同調勢力들의 말에 귀를 솔깃하는 傾向이 있다 하는데 그게 가장 危險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病을 고치더라도 診斷을 正確히 하면 藥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診斷을 잘못해 놓으면 百藥이 無效이죠, 病은 못 고치는 거예요,

分明히 容共勢力으로 볼 때 우리國民들의 意志가 結集이 되고 이것을 剔決해 내는데 蹉跌이 없는 것이지 容共勢力을 容共勢力으로 안 본다면 이건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結局은 共產化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몸에 七首가 닿아서 딱 찌를 때에 "아이고 이게 정말 빨갱이 였구나" 이때는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診斷을 分明히 해야 할 때요,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은 國·道政을 늘 念慮해 주시는데 道政의 細部的인 內容에 神經을 쓰시겠지만 크게는 國家的으로 當面하고 있는 狀況인 容共勢力을 발라내고 混亂을 막아야 하는 이 두가지 問題에 대해서 次元높게 여러 委員님들이 關心을 가지시고 國民들이 다 共感할 수 있도록 높은 高見을 擴散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道政에 대해서는 모처럼 委員님들을 모신 자리이니까 오늘 여러 高見을 듣고 그 高見을 저희 道政計劃에 많이 反映하도록 하겠읍니다.

무슨 問題든지 忌憚없이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人事를 끝내겠읍니다.

感謝합니다.

'86 鄕軍 安保 講演會

1986년 11월 25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 安保의 堡壘요 鄕土愛의 結果인 忠淸南道 在鄕軍人會에서 平素 尊敬하는 崔慶祿 將軍님을 招請하여 우리의 安保와 周邊情勢에 대한 高見을 듣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恒時 自己가 삶을 누리고 있는 그 時點을 가장 所重하고 또 어려운 難局이며 來日을 가름하는 고비라고 主張해 왔읍니다.

모든 時代와 歷史는 한 瞬間이라도 無意味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때는 없었고 다만 그 時點의 輕重이나 정말 重要한 고비라는 것은 後世의 史家들이 評價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時點만큼은 累代를 흐른뒤 우리의 後世들이나 史家들의 評價에 있어서도 焦眉를 다퉜던 매우 어렵고 緊迫한 時期였다고 記錄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本人뿐만아니라 여기 崔慶祿 將軍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鄕軍同志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共通된 見解라고 생각합니다.

韓半島戰爭以後 유럽의 共產化 등에 第1의 比重을 두었던 蘇聯이 近來에 와서 아시아의 南進과 太平洋을 支配하려는 속셈에 血眼이 되어 있고 이에 便乘한 北韓共產集團의 跋扈가 時時 刻刻으로 우리의 安保를 威脅하고 있읍니다.

仔細한 內容이야 將軍님께서 昭詳히 말씀해 주시겠읍니다만 저들 北韓當局은 이번

우리의 아시안게임의 成功에서 두발을 구르게 되었읍니다.

그들의 處地가 앉아있지못할 焦燥感에 휩싸이자 金日成은 모스코바로 뛰어가 머리를 조아리고 哀乞하는 등 坐不安席의 모습을 世界의 言論들은 指摘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제 2年後로 다가온 우리의 88年 서울 올림픽이 順調롭기만 하면 所謂 40餘年 동안이나 그들이 공들여온 對南民族解放 乃至 赤化統一은 아침 안개로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形便은 恒時 相對的이어서 逆說的으로 말하여 조금의 失手를 저지르거나 虛點을 보인다면 우리가 40餘年 동안 애써 쌓아놓은 自由民主主義와 民族正統性의 공든 塔도 저들의 跳發에 의해 一時에 무너질 수 있는 想定에 미칠 수 있읍니다.

우리의 平凡한 眞理중에 「무엇을 얻고 쌓아올리기보다는 지키고 가꾸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 鄕軍同志들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先進國의 문턱에 이르러서는 跳戰이 北韓 共產集團뿐만 아니라 世界의 到處에서 韓國의 發展 韓國의 成長에 挑戰狀을 내고 있는 形便입니다.

그것이 善意든 惡意든 어쩔 수 없는 適者生存의 嚴然한 國際社會의 生存競爭입니다.

그들의 國家主席이라는 者의 暗殺欺瞞과 金剛山댐 水功戰略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갖가지 挑戰과 國際政勢에 賢明하게 對處하는 方法도 여기모신 崔慶祿 將軍님으로부터 조용히 傾聽하고자 합니다.

그옛날 國防과 國政의 一線에서 몸바치신後 韓國外交界의 巨木으로 일하신 將軍님의 말씀을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1월 28일

人　　事

먼저 오늘 多少 쌀쌀한 날씨에도 不拘하고 安保情勢 報告會에 많이 參席해 주신 扶餘郡의 有志, 指導者 여러분들께 感謝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今年도 例年과 다름없이 저희 扶餘郡政을 잘 돌봐 주시고 저희 忠南道政을 많이 도와 주셔서 今年에 저희 忠南道政이 더욱더 좋은 成績을 거두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每年 저희가 安保情勢 報告會를 다니는데 今年에 12번째입니다.

우리 나라의 安保的인 狀況이나 與件 그리고 여러 가지 國內外 情勢 또 國家가 當面한 問題 앞으로 2～3年 동안에 치뤄야 할 國家的인 大行事 등등해서 여러분들 오늘 두時間 동안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 報告를 받으셨고 또 總理指示를 代身하면서 제가 朗讀을 해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늘 많은 것을 들으시고 느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內容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이러한 情勢報告가 있을 때 우리 指導級에서 다시 한번 覺悟를 새로이 하는 이러한 契機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果然 앞으로 2～3年이 가장 重要하냐 하는 問題를 여러분들께서 잘 整理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北傀의 挑發 樣相 이라든가 심지어 天下에 하나 밖에 없는 民族의 太陽이시고, 世

界 人類의 指導者이시고, 2千萬 人民을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地上에서 第一 幸福하게 해 준다고 해서 日本時代에 天皇陛下보다도 더 받드는 金日成을 죽었다고 放送까지 해대는 지금 그 어떠한 瑤池鏡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北傀의 實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言及을 했지마는 지금 北傀 內部가 무언가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軍事的으로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막바지에 와 있으면 그야말로 별 짓을 다합니다.

죽기를 覺悟하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할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北傀가 侵略을 못하고 挑發을 못한 것이 우리가 이러한 安保情勢 報告會를 每年 갖고 北傀의 實相을 正確하게 理解를 하면서 거기에 適切한 對應을 하고 또 우리 모든 4千萬 國民이 똘똘 뭉쳐서 經濟 發展을 해 가지고 國力을 北傀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게 伸長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友邦인 美軍이 우리 나라에 駐屯을 하고 象徵的이긴 하지만 集團安保에 대한 決意를 또 北傀의 對南挑發에 대한 應懲決意를 確固하게 하기 때문에 北傀가 지금까지 쳐 내려오지 못한게 事實입니다.

그러나 北傀의 처음부터 끝까지 窮極的인 目標가 赤化統一입니다.

赤化統一의 問題는 對話를 통해서는 到底히 不可能한 것입니다.

지금 이 地球上에서 共產主義 좋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共產主義를 採擇하는 나라 몇 안됩니다.

일부 共產主義가 돼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回復할 수 없는, 그러한 壓制와 彈壓의 쇠사슬로써 强制로 다스리니까 할 수 없이 끌려 가는 것 뿐이지 지금 어느 나라든 共產主義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기 때문에 對話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武力으로 해야 되는데 武力으로 統一을 생각할 때에는 勝算이 있느냐 하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래도 亡하고 저래도 亡한다는 判斷이 될 때 자칫하면 불장난을 하기 쉽습니다.

정말 2~3年 동안 우리가 잘 和合과 安定을 維持하면서 國家發展을 하고 國家的인 大行事인 88올림픽을 치루고 나면 北傀로서는 國際的인 地位 또는 經濟的인 成長, 軍事的인 면에서까지 우리 大韓民國을 이길 道理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金日成이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전에 무언가 일을 내야 할게 아니냐 하는 미친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安保情勢 報告會가 每年 비슷한 것을 하는 것 같고 或 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하고 여러분 중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 우리는 每年 달라지는 國內外 情勢, 北傀의 對南 挑發相을 正確하게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조금의 虛點도 두질 않고 對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安保情勢 報告會는 12次가 아니라 앞으로 1千200次까지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勿論 自由 民主主義旗幟下에 統一이 된 以後라면 우리 나라의 安保的인 槪念은 다시 再定立이 되겠지만 비록 民主主義 統一이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周邊國家들과의 關係 때문에 우리는 永遠한 安保態勢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過去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5千年 歷史 중에 931回나 外侵을 받은 것 아닙니까?

外侵을 받을 때 마다 對備를 잘 했을 때에는 그나마 우리 民族을 제대로 保存했고 그걸 잘못 할 때에는 임금이 나와서 降服도 하고 降服文書에 싸인도 하고 人質로 公主가 잡혀 가고 사람도 몇백名씩 보내는 이런 受侮를 당하면서 이어 내려 온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때문에 이 安保情勢 報告會라는 것은 정말 永遠히 國家가 存續하는 限 있어야 되고 이 安保情勢 報告會를 제대로 하는 나라만이 그 國家가 잘 維持되고 그 民族이 제대로 發展을 할 수가 있다고 確信을 합니다.

이것은 現在 現存하는 世界 國家 가운데서도 바로 이 安保狀況을 正確하게 다루느냐 못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成長과 保存이 左右가 된 여러 가지 例를 찾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時間 동안이나 報告를 받으셨읍니다만 우리가 그렇다면 現在 位置에서 가장 優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國際情勢가 매우 複雜하고 國內外를 莫論하고 우리에게 挑戰的인 勢力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一般 家庭을 꾸려 나가는데도 그렇고 個人의 健康管理를 하는데도 그렇고 심지어 바둑을 한 수 놓는데도 重要度, 큰 것, 手順 이런 것이 제대로 되

면 바둑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萬苦에 手順을 그르치면 다시 말해서 輕重緩急을 제대로 못가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成果도 못 거두고 敗北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는 現在 安保現實이나 여러 가지 經濟 政策 면에서 重要한게 많습니다.

또 政治的으로 發展해야 할 것도 많고 經濟的으로 補完해야 할 것도 많고 또 國民이 바라는 欲求를 充足시켜야 할 分野도 아직 많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가 手順을 제대로 두어야겠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어티 選定을 正確히 해야만 우리 나라의 國基도 保存을 하고 經濟도 繼續 成長을 하고 國民의 欲求도 멀지않아 解決할 수 있는 것이지 이 手順을 잘못 두거나 重要度를 잘못 認識하고 對處를 한다면 그나마 國基가 흔들려서 나라는 亡해버리고 우리는 없어져버리고 말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分析을 해 보면 무엇이 가장 重要하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現在 政府에서는 許諾을 안했지마는 來日 野黨에서 野外集會를 한다고 지금 온통 新聞에 야단입니다.

政治的인 欲求不滿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指向하는 自由民主主義의 極致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指向하는 것은 與든 野든 健全한 4千萬 國民은 全部가 自由民主主義의 유토피아 입니다. 우리가 現在 自由民主主義를 完璧하게 했다고 政府나 爲政者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또 이 地球上에서 完璧한 自由民主主義의 꽃을 다 피웠다고 自信있게 얘기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피겠읍니까? 그 나라의 歷史的인 背景,文化的인 背景, 그리고 國民의 意識水準 여러 가지 風土가 다르기 때문에 이 地球上에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그 나라 土壤에 맞는, 水準에 맞는 政治制度를 擇해서 가는 것은 亦是 自由民主主義의 큰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個人的인 意見입니다마는 政治的으로도 아직 더 많이 發展을 시켜야 되고 經濟的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우리가 成長을 해야 되고 文化的으로

도 藝術的으로도 우리가 어느 部分 할 것 없이 더 많이 發展을 해야 정말로 4千萬 國民이 고루 살 수 있고 均等하게 幸福을 누리면서 큰 不滿없이 欲求 充足 속에서 우리 生을 세대로 維持하고 우리 國家를 維持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報告內容에서도 있었읍니다.

오늘 제가 午前에 輸出의 날 行事에 參席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64年度 지금부터 23年 전에 1億$ 輸出을 하고 온 나라가 慶祝의 무드에 쌓여 있었읍니다.

여러분들 記憶하실 겁니다.

5.16 革命 전 張勉 政府時代에 우리가 輸出한 것이 한 500萬$ 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64年에 1億을 突破했다는 것은 그 當時로서는 相當히 엄청난 事件이 아 수 없었읍니다. 그런데 23年 後인 오늘 350億$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 이 時點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안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 동안 5個年 經濟成長 計劃을 세워서 거기에 매달 月間 經濟動向報告를 國家元首가 直接 主宰를 하고 輸出品目을 直接 點檢하고 그렇게 하면서 不足한 分野를 메꾸고 外製를 쓰지 말자고, 그리고 비록 좋지 않더라도 國產品을 愛用하자고 呼訴를 하면서 우리는 20餘年間 努力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時代에 出發을 한 後進國家, 開發途上國家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印度나 東南亞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던 나라들이 現在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저 밑으로 처지지 않았읍니까?

그마만큼 爲政者나 企業人이나 國民이 한덩어리가 돼서 努力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中進國의 先頭走者로서 先進國의 門을 두드리는 그 位置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萬若에 우리가 이러한 過程에서 手順을 잘못 뒤가지고 國家의 安全인 安保를 疎忽히 했다거나 또는 輸出主導國인 우리가 남의 돈이라도 또 빌려서 世界 市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努力을 안했던들 어떻게 우리가 國民所得 2千$ 時代에 왔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같은 時代에 出發한 방글라데시가 1千960年度에 우리가 80$, 방글라데시가100$인데 現 時點에서 방글라데시가 200$입니다.

個人所得이 우리 나라는 2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差異가 날 수 있었읍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手順을 제대로 두고 輕重을 제대로 가려서 努力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2千$이라는 水準이 우리가 出發할 當時에 貨幣價値로 2千$은 아직 안됐읍니다.

그런데 2千$이라는 時代가 第一 어려운 고비라고 모든 先進國들이 經驗을 했읍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길게 말씀드릴 必要는 없고 우선 欲求가 많아집니다.

지금 電話없는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텔레비젼 안 보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都農間에 隔差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똑같은 文化圈 속에서 生活을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니고 있는 財產은 懸隔한 差異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自由國家이기 때문에 資本主義經濟體制 自由經濟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번 사람 덜 번 사람이 같이 있을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같은 文化圈에서 같이 보고 느끼는데 所有한 건 다르기 때문에 葛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意識水準도 내가 사는 것은 내 能力것 살아야 되겠다는 분수에 맞는 思考를 分明히 가지면 그러한 分裂이나 違和感은 덜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國民의 全體水準이, 지금 敎育을 많이 시키고 있지마는, 아직은 그러한 先進國 國民의 意識水準까지 내 일에 熱中하고 남의 일에 干涉 안 하면서 내 分福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탈렌트 즉 내 才幹을 가지고 이 程度 살면 滿足한다는 그러한 意識까지는 못 왔읍니다.

남이 잘 사는 것 조금 猜忌도 하고 배아파도 하고, 아직 사촌이 땅사면 배아파 하는 그러한 俗談이 우리 生活周邊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程度로 아직은 意識이 깨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欲求不滿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欲求不滿이 많으니까 全體的인 水準은 올랐지만은 國民間에 違和感이 싹트고 그러한 欲求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解決하지 못하니까 葛藤이 있을 수 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全部가 압니다.

診斷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다 안되는거 아닙니까?

길을 鋪裝을 하고 싶은데 1㎞에 2億5千 입니다.

10㎞만 하더라도 25億이 있어야 됩니다.

忠淸南道에서 우리 稅金 내는 거 가지고 1年間에 道에서 쓰는 豫算보면 38%밖에 우리는 充當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2%를 政府에 依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내면 全部 다 鋪裝을 하고 싶어합니다.

鋪裝을 一時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結局은 이것도 優先順位에 의해서 産業道路를 먼저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를 먼저 하고 덜 다니는데는 뒤로 미루어서 할 수 밖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의 길은 그렇게 産業的으로 急하지도 않고 重要하지도 않으니 한 3年 後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웃 동네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不滿부터 하는데 解決이 되겠읍니까?

이런 저런 問題가 現在 2千$을 넘어가는 이 고개에서 相當히 가파르게 우리한테 부닥치고 있읍니다.

이것이 비단 國民經濟的인 生活에서만 있는게 아니라 政治的인 欲求, 文化的인 欲求 모두가 다 이러한 發展途上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2~3年間이 가장 重要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셨읍니다.

바로 앞으로 2~3年間의 고비를 넘기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國家가 成長하는 좋은 與件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므로써 國家가 하루 빨리 成長을 해서 지금 우리가 欲求不滿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빨리 解決이 될 것이다. 이런 展望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다 들으셨읍니다.

거기에 가장 重要한 것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優先順位로 定한다면 첫째는 北傀의 挑發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金剛山댐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난 서로의 經濟的인 消耗를 무릅쓰고 對應댐을 만든다고 6千億원을 들인다고 建設部長官이 發表를 했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包含해서 어쨌든 北傀가 쳐내려 오면 끝장납니다.

自由民主主義를 더 하자든가 政治的인 欲求를 더 채우라든가 經濟的으로 不足한 것을 더 낫게 살자든가 하는 그러한 類의 우리 國民들의 欲求는 아주 亡해버리고 共產 魔手에 들어가서 4千萬이,어떤 學會서는 그러더군요, 萬若에 共產 魔手에 우리가 들어가면 2千萬은 肅淸되어서 生命을 잃을 것이고 나머지 2千萬은 永遠한 監視對象 속에서 强制勞動에 呻吟하면서 永遠히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診斷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地球上에서 가장 못 사는 制度가 共產主義요, 이 地球上에서 목숨을 가장 헌 신짝같이 取扱하는 主義가 金日成의 共產主義集團이라는 것을 分明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同族이면서 이데올로기의 差異 때문에 우리가 永遠한 우리 後孫들에게 그야말로 幸福한 터전을 물려 주기 위해서 共產集團만은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當爲性, 絶對性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不足한 것 보다도 어느 不平 不滿이 있는 分野보다도 第一 먼저 手順을 먼저 두어서 解決해야 할 것이 對北傀 南侵 野欲을 粉碎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國內에 表出되고 있는 容共 左傾勢力 이것은 金日成이와 똑같은 主張을 합니다.

이것도 容納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政治的으로 1年 後에 民主發展이 되더라도, 3年 後에 되더라도, 經濟成長을 1年쯤 덜 빨리 하더라도, 이 容共勢力만은 第一 優先的으로 발라내야 합니다.

그러한 勢力이 있어가지고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當面한 問題가운데 手順을 먼저 두어야 할 곳입니다.

그 다음에 手順을 둔다면 經濟的인 對應입니다.

오늘 우리가 40億$의 國際經常收支 黑字를 낸 것을 가지고 國家的으로 큰 잔치를 하고 있읍니다.

經濟人들을 包含해서 얼마나 이것이 慶賀스러운 일입니까?

40年前 祖國光復 以後에 그야말로 每年 赤字를 내다가 40億$ 黑字를 냈읍니다.

그런데 얼마나 앞으로 經濟環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마만큼 쌓아 올린 것은 3低現象이라는 것에 힘도 많이 입었읍니다. 3低現象은 우리의 能力을 가지고 左右 하는게 아닙니다.

기름값,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딸러 값도 마음대로 못해요. 國際金利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것은 남들이 뛰는 장단에 우리가 같이 놀아날 수 밖에 없는 所謂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狀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3高時代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黑字가 언제 赤字로 變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國產品을 愛用하고, 있는 대로 貯蓄을 많이 하고 정말 耐乏生活을 해서 體質을 强化해가지고 어떤 境遇에도 이길 수 있는 經濟體制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繼續的인 成長을 할 수가 없다그 얘기입니다.

今年에 貯蓄目標가 當初 30%였는데 32%가 됐읍니다.

國民 여러분들이 많이 協調해 주셔서 저희 忠淸南道도 5千億 目標를 超過達成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제 投資資源 內資調達이 되고도 2% 가량이 남습니다.

이러한 貯蓄心理가 더욱 더 强化되고 더욱 더 耐乏生活을 해서 우리 經濟體制를 强化해야 합니다.

國產品을 繼續 愛用해 주셔야 합니다.

양담배 輸入을 開放했을 때 온 國民이 깜짝 놀랐고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愛國心에 呼訴했읍니다.

"國產담배 피우자" 양담배를 피워서 되겠느냐 그것 하나 못하겠느냐?

事實 이것 政府에서 앞장선 것은 아니지만 民間團體에서 各社會團體에서 國民 各自가 呼應을 해 주셔서 現在 양담배 販賣實績이 얼마냐?

全體 담배 판 實績 中에 0.04 % 밖에 안됩니다.

이거 전혀 影響이 없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國民의 水準이 이만큼 올랐고 所謂 國產品을 愛用하는 精神이 이렇게 强化가 됐읍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貿易의 門戶開放을 100 % 해야 합니다.

다 開放을 해 놓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現在 아무리 黑字가 났고 經濟與件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 絕對로 放心해서는 안됩니다.

南美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지금 外債를 第一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와 같은 2千$ 時代를 60年代 中半에 이미 겪었읍니다.

先進國에 꼭 突入한다고 그 사람들 아우성을 치다가 바로 그런 優先順位를 잘 못 두어서 國民들의 意識이 外製의 選好思想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開放政策에 의한 外製品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國內 企業이 全部 亡하고 인플레가 치솟고 物價安定을 못해 가지고 그나라는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進入하려다 오히려 外債를 담뿍 쓴 形便없는 그러한 나라로 轉落을 하고 말았읍니다.

때문에 經濟的인 問題도 그렇게 對應하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重要한 時期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手順을 우리가 正確하게 區分을 하고 定立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當面하고 있는 어려운 問題는 能히 解決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安定을 어떻게 하든지 維持해야겠다.

安定을 위해서 必要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理解하는 問題입니다.

民主主義를 하자고 하면서 내가 主張하는 것은 100 % 다 要求를 하고 남이 主張하는 것은 하나도 認定하지 않는 그러한 姿勢를 가지고는 民主主義가 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요전에 누가 이런 얘기 하더군요

日本 사람과 韓國 사람을 比較해서 얘기를 하는데 1對1 싸우면 100 % 韓國 사람이 이긴답니다.

2對2로 싸우면 50對50, 3對3이면 70對30으로 韓國 사람이 지고 그 이상많은 사람을 같이 놓고 5對5라든가 10對10으로 싸우면 韓國사람 百戰百敗라는 겁니다.

바로 늘 얘기하는 團結力이 없다, 서로 理解心이 不足하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比較를 하더군요

이것은 지나친 誇張된 比較라고 생각이 되고 氣分은 좋지 않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닌 것이 바로 和合의 名手가 아니고 和合을 제대로 못하고 分裂을 잘하는 民族이라고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어떻게 내가 아니면 안됩니까?

꼭 나야 되고 딴 사람은 다 안되고 그러한 我執을 버리고 和合과 同參을 하는 이런 雰圍氣만 좀 더 補强을 한다면 世界에서 가장 優秀한 民族으로서 그야말로 世界를 주름잡고 主導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중언부언이 되겠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懇曲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報告 받으신 것을 잘 整理를 하셔서 여러분들 周邊에 많이 擴散을 시키시고 指導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해야 할 것을 國民的인 共感帶를 形成하셔서 빨갱이는 뿌리를 못 붙이게 다 발라내야 하고 安定을 해치는 어떠한 作態도 容納을 안 하는 그러한 國民的인 輿論이 形成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려운 難局을 슬기롭게 克服을 할 수 있으리라 確信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長時間 安保情勢 報告會를 傾聽해 주신데 感謝를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今年 한 해 扶餘郡政 잘 도와 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알찬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人事에 가름하겠읍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2월 4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에서 김일환 韓國 어린이財團 代表理事님, 차윤근 財團會長님, 그리고 崔佛岩 全國後援會長님이 자리를 같이 하신 가운데 韓國 어린이財團의 밤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는 우리가 한해를 보내는 歲暮에 平素 어른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얼마만큼 關心과 精誠을 기울였는지를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마음을 쓸 것을 다짐하는 契機라고 생각을 합니다.

特히 똑같은 時代와 이 社會에 태어났으면서도 따스한 어버이와 家族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旣成世代와 社會가 自己들이 낳은 子息과 똑같은 溫情을 베풀자는 것이 韓國어린이財團의 活動目的이요 오늘이 모임의 뜻이라고 믿어집니다.

平素 우리 어른들의 아주 조그만 關心이나 配慮가 이들 不遇한 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勇氣와 希望을 부어주고 또 아늑한 사랑을 갖게 되는지를 어느 經驗을 통해서 느낀 바 있읍니다.

또 오늘 이곳 大田에 오신 崔佛岩 全國後援會長께서 바쁜 時間을 틈내어 어린이를 돕고자 東奔西走하시게 된 動機를 本人은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時間에 萬一 社會의 그늘에서 사랑에 굶주리거나 배고픔에 굶주린 어린이가 울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이 社會의 責任입니다.

우리는 비단 年末이나 어느 名節뿐만 아니라, 恒常 자라나는 어린이를 생각하고 不

遇한 이웃을 생각하는 人間主義와 이웃사랑이 가득할 때 더없이 밝고 福된 社會가 이룩될 것으로 압니다.

이 問題는 國民所得이 얼마이고 經濟成長이 어떻다는 것과는 無關하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며 이 社會의 雰圍氣라고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盲目의 사랑이나 무엇을 베풀자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希望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고 成長하며 이 社會의 主人으로 完成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役割이 매우 所重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남의 子息 내子息 할 것 없이 지나친 保護와 干涉, 그리고 父母의 虛榮心으로 因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이 懦弱하고 自立意志가 없으며 個性이 없어진다는 걱정도 여러 어른들은 들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지나친 干涉이나 統制, 그리고 저마다 타고난 個性이나 素質을 外面한 父母들의 教育熱은 오히려 한 어린이가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둠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깊은 關心을 갖되 멀리서 바라보고 삐둘어질 때 바로 잡아주며 自己 스스로 成長하도록 하되 그러한 環境을 은연중에 造成해 주는 그러한 役割을 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2世들에 대한 그러한 어른들의 關心과 사랑도 생각하는 機會가 되었으면 하면서 指導級人士들께서 韓國 어린이財團에 대한 많은 後援이 계시기를 期待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신 李智榮 忠南後援會長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致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大學進學子女를 둔 公務員에게 보내는

1986년 12월 8일

書 翰

이제 多事多難하고 喜悲가 엇갈렸던 丙寅 한 해가 아쉽게 저무는 이때 貴職과 貴職의 家庭에 幸運과 健康이 있기를 祈願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우리의 現代史에 永遠히 記錄될만한 뜻깊은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의 成功的인 開催와 世界人은 勿論 우리 스스로도 놀란 對日本의 優位와 中共을 바짝 따라잡은 우리의 底力, 劃期的인 輸出의 增大, 그리고 貿易黑字時代와 自律投資時代의 開幕 등 實로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한 丙寅年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國政의 成果와 발맞추어 우리 "으뜸충남"의 道政도 住民福祉와 所得向上을 바탕으로한 道勢擴張의 갖가지 分野에서 알찬 結實과 成熟된 面貌를 보여준 것을 貴職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反面에 社會의 一角에서는 世界 어느 나라도 그 類例가 없을만큼 어렵고 緊迫한 國家의 安保的 現實과 危急한 狀況을 認識치 못하고, 幻想的인 理念과 自己陶醉에 빠져 이른 바 左傾思想에 기울고 급기야는 急進暴力革命도 不辭하는 一部 大學生들과 旣成世代가 있음을 우리는 저으기 놀라고 있읍니다.

그 동안 貴職을 비롯한 우리 公務員들은 薄俸의 어려움을 堪耐하면서도 오로지 이 社會와 國家에 獻身하는 一念으로 맡은 바 業務에 充實해 왔는데, 이러한 社會一角의 不安要素는 그 동안 우리 公務員들의 피땀어린 勞苦와 그 結實을 송두리채 否定하고

霧散시키며, 또한 國家와 民族의 將來를 가로막는 沮害要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特히 이처럼 極히 危險한 思想은, 아직 아무런 思想과 歷史意識이 貧弱하여 마음이 비워져 있는 高等學校를 갓 卒業하고 大學에 進學하는 靑少年들이 가장 물들기 쉬운 脆弱點을 안고 있다는 것을 貴職이 銘心하고, 이번에 學校를 卒業하고 大學에 가기를 기다리는 貴 子女에 대한 細心한 關心과 事前善導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大學에 入學하고나서 1學年 때가 所謂 先輩 運動圈 學生들로부터 意識化되기 쉬운 가장 危險한 脆弱時期이므로 學父母인 貴職의 깊은 關心과 家庭教育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이 意識化 運動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地境에 빠지는 點을 留意하시고 착하고 純眞한 學生일수록 이러한 左傾理念에 더 쉽게 물들기 쉽다는 것도 事實입니다.

아무쪼록 貴職이 道政과 國家에 貢獻한 보람이 子女의 教育에서도 어긋나지 않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는 貴職의 뜻하는 바 모두를 所願成就하시고 家庭에 밝은 웃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養豚經營 安定 決意大會

1986년 12월 8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養豚農家 여러분, 有關團體 任職員, 그리고 關係公務員이 한자리에 모여 養豚 經營과 需給安定을 爲한 決意大會를 갖게 된데 대하여 本人은 激勵와 더불어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달인 12月에 접어들어 中旬으로 넘어서고 있읍니다.

今年農事가 6年連續 豊年이라는 기쁨과 아시안게임의 成功的인 開催, 黑字時代의 元年을 여는 등 우리의 國運 活氣차게 뻗어가고 있음을 우리 畜産人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國運의 上昇에는 여러 畜産人을 비롯한 300萬 道民이 땀흘려 일하고 또 智慧를 發揮한 으뜸忠南의 道政이 크게 寄與하였음을 自負하면서 여러분의 精進과 勞苦를 致賀드립니다.

이 고장의 養豚農家 여러분!

그 동안 우리의 經濟와 社會發展이 驚異的인 成長과 發展을 거듭함으로써 國民所得水準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와 速度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食生活도 크게 變化를 가져와 畜産物의 需要는 날로 增加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우리의 畜産業 또한 貧弱한 飼料資源과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持續的인 發展으로 農業所得中 畜産比重이 10年前의 11.4%에서 지금은 25.6%로 두倍以上이나 크게 늘어났고 農家粗收益도 그와 비슷한 比重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 畜産業은 農家所得面이나 食糧消費 次元의 需要에서 漸次 그 比重이 무거워지고 있으며 이에 比例하여 畜産人의 責務도 그만큼 重要해져 간다고 보겠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畜産은 그간 量的인 增殖과 技術的인 面에서 크게 向上되었으나 經營과 流通, 需給과 價格의 側面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하겠읍니다.

2年前의 소값 下落과 昨年 下半期부터의 牛乳 滯貨現象은 우리에게 큰 試鍊을 안겨주고 있으며, 特히 養豚의 境遇는 2～3年을 週期로한 波動이 우리 畜産人들에게 어둠을 주고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이러한 問題의 解決은 飼育農家의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參與와 對策없이 成果를 期待할 수 없을 것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읍니다.

價格이 좋으면 無限定으로 飼育을 늘리고 이에 따른 不況이 오면 洪水出荷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一般的인 畜産傾向으로 이는 스스로 畜産物 價格의 波動과 不況을 自招케 하는 惡循環만 되풀이하게 하였다고 보겠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決意는 이제까지의 不合理한 점을 果敢히 씻어버리고 스스로 生産을 調節하여 安定的 畜産經營을 다지는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려 一時的 好況에 便乘하여 無謀하게 畜産事業을 擴張하거나 生産을 늘리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不況을 自招한다는 뜻이 되겠읍니다.

特히 짧은 期間에 多量增殖이 可能한 것이 養豚의 特性일진대 急激한 量的膨張에서 오는 衝擊이 우리에게 되돌아온 지난 날의 經驗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모든 流通情報와 弘報媒體를 活用하여 돼지飼育의 適正水準維持가 우리 畜産에는 賢明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비롯한 養豚의 經營安定이 先進畜産고장으로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協力해 주실 것을 懇曲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參席하신 養豚農家 여러분, 그리고 道民 모두의 家庭에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오늘 이 畜産經營合理化의 決意가 끝까지 實踐되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2월 12일

致　　辭

오늘 今年 한해를 結實하는 12月달에 主婦가 뽑은 親切한 택시技士의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日常生活中에서 가장 密接한 것이 都市의 交通 問題이고, 그중에서도 택시야말로 市民의 발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社會의 秩序와 水準은 손쉽게 交通秩序에서 찾을 수 있고, 交通秩序의 代名詞가 바로 택시 運送秩序라고 볼 때 오늘 賞을 받으신 受賞者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고장의 交通文化의 先驅者이시고, 모든 택시 運轉技士들이 본받아야 할 職業人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本人은 이 자리에서 오늘 榮譽의 交通部長官賞을 받으신 두분을 비롯한 受賞者 여러분과 같이 우리 社會의 모든 運轉技士분들이 親切하고, 誠實하며 透徹한 職業意識을 갖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보며 이러한 택시 運送秩序 創造를 이룩하는 道民들의 協調가 아쉽다고 하겠읍니다.

親切한 택시技士는 勿論 이 分野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主人的인 努力도 重要하지만 이것을 利用하는 相對的인 位置의 市民들의 協調가 매우 必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親切한 택시에 대한 主婦들의 關心, 그리고 道民들의 關心과 靜振이 깊어질 때, 택시技士 여러분의 意志와 더불어 우리의 택시 運送秩序는 先進國과 견주어 不足함이 없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 國民的 合意와 精誠으로 成就해 나가고 있는 「先進祖國」

의 創造에 對한 寄與가 되고, 原動力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초가을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韓國民들의 秩序와 國民的 底力 그리고 未來의 創造에 對한 無限한 可能性을 世界에 遺憾없이 誇示한 바 있읍니다.

이 때에도 우리 택시技士들이 보여준 眞實한 親切과 案內, 그리고 참된 奉仕의 모습이 世界 모든 나라의 言論媒體를 통하여 報道된 바 있읍니다.

우리는 이에 滿足하지말고 앞으로 다가오는 88年 서울올림픽에서도 아시안게임 때보다 더 圓熟하고 自然스럽고 아름다운 韓國 택시의 모습, 그리고 先進韓國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目標라고 하겠읍니다.

오늘 이 뜻깊은 親切한 택시技士의 選拔과 그 施賞式도 그러한 뜻과 目的에 合致되는 것으로 本人은 믿고 있읍니다.

오늘 賞을 받으신 분들이 그 동안 賞을 받기 위해서 努力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充實한 人生을 가꾸고 또한 社會에 奉仕하기 위한 過程中에서 發見되었듯이 우리 고장의 모든 技士 여러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서로 智慧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뜻깊은 施賞式을 마련해 주신 黃圭煥 韓國放送公社 大田總局長님, 社友 여러분, 全國主婦敎室 忠南道支部, 忠南道 社會淨化推進協議會 여러분에게 致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86 地域새마을 綜合評價 施賞式

1986년 12월 12일

致 辭

오늘 本人이 우리 고장의 마을과 職場에서 眞實로 말없이 새마을 精神을 심어주고 實踐하면서 또 結實해오신 一線 指導者 여러분과 마주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多事多難이란 말을 정말로 實感시켜준 丙寅年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時點에서 내 自身과 내마을, 그리고 職場을 위해서 後悔없이 일해온 것을 決算하고 點檢해 보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年初에는 새로운 意志와 希望으로 計劃을 세우고 靑寫眞을 그리지만 이를 實踐하는 한해의 勞苦와 過程은 꼭 順但할 수 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크게는 國家的으로 볼 때에 3低時代의 經濟的인 好機가 到來하였지마는 經濟大國을 비롯한 世界의 各나라들이 自國의 産業保護를 위해서 貿易障壁을 높이 쌓는 바람에 우리의 輸出에 큰 試鍊을 주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民的인 슬기와 意志를 모아서 光復以後 처음으로 黑字 元年時代의 開幕, 自律投資의 成就,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世界를 舞臺로 한 韓國의 참모습을 보여준 한해였음을 指導者 여러분과 더불어 自負하는 바입니다.

또한 反面에 北韓 共産集團은 金剛山댐을 쌓기 始作하여 우리 自由大韓의 生存과 繁榮에 深大한 威脅을 주는가 하면 그들 集團의 首領이라 하는 金日成의 死亡說까지 流布하는 高度의 心理戰略으로 우리의 混亂과 分裂을 劃策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처럼 어려운 國內外의 挑戰 속에서 우리 300萬 道民은 나 自身에게 充實하고 마

을과 職場에 獻身하는 것이 잘사는 내고장, 先進祖國 成就의 열쇠임을 認識한 一線指導者 여러분의 精進에 힘입어 그야말로 「으뜸忠南」의 滿足할 結實을 거둔한해였음을 여러분과 함께 自祝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底力의 所産은 바로 새마을 精神이요 새마을 運動의 實踐이라는 方法과 手段과 解答 모두를 우리는 새마을에서 찾고 열매 맺는 것이라고 本人은 疑心치 않습니다.

새마을 運動 16年 이것은 바로 停滯와 締念의 韓國史에 終止符를 찍고 하면 되고 야마는 肯定과 可能, 成就와 跳躍을 보여준 새歷史編纂의 神話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世界 現代史의 神話는 오늘에 自足하지 않고 永遠히 우리 겨레가 昇華시키고 子孫萬代에 물려 주어야 할 聖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새마을 運動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눈에 의해서 計劃되고 推進되며 確認된다는 點에서 오늘 綜合評價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年 동안 推進했던 새마을 運動을 評價하고 點檢해 보는 것은 한해 동안의 成果를 거두는데도 目的이 있지만 이를 土台로 하여 알찬 結實을 골라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데에 더큰 意味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새마을 運動이 이제는 確固한 國家觀 確立과 國民의 一體感造成에 求心點이 되도록 새로운 地平을 열어 나갈 것을 指導者 여러분과 더불어 다짐합니다.

感謝합니다.

大田環境支廳 開廳式

1986년 12월 12일

祝　　辭

오늘 우리 고장 大田을 中心으로한 忠淸圈과 全北 一部地域의 環境保全 業務를 總括하게 될 大田環境支廳의 開廳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本人은 먼저 이곳 大田環境支廳의 開廳은 勿論 環境保全에 對한 國民的 關心을 높이는데 心血을 기울여 주신 朴判劑 環境廳長님,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貴賓 여러분에게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는 生活環境의 保全을 優先 생각하기 보다는, 國運의 開拓과 國民的 活路를 위해서 工業化에 注力한 나머지 이제 大都市는 勿論 시골까지도 아름다웠던 우리의 生活環境이 많이 毁損되고 汚染되는 狀況을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生活環境 變化는 우리 國民生活의 情緖의 枯渴과 本人의 健康까지도 걱정할 程度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分野 專門家들의 見解라고 봅니다.

이에 政府에서는 環境保全과 復舊의 劃期的인 對策을 위해서 環境廳의 機構의 豫算을 大幅 補强하고 오늘 이와 같은 地方廳의 發足을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고장은 國家發展의 核心地域으로 脚光받고 있으며 새로운 錦江文化와 經濟圈을 創造하려는 時點에서 錦江水源의 保全이야말로 우리의 이같은 期待에 成敗를 가름하는 열쇠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젖줄인 錦江은 大淸댐의 完工과 扶餘의 錦江廣域上水道 工事 등으로 錦江의 맑고 깨끗한 물을 利用하는 地域이 擴大되면서 멀리 全北道民들까지 食水源으로 活用하게 됨으로서 錦江水質保護의 重要性은 더욱 切實한 課題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大田環境支廳이 誕生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生活環境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契機로 하여 우리 300萬 道民은 勿論 錦江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이웃 道民들까지도 모두 힘을 합쳐 毁損되고 汚染된 環境을 本來의 모습으로 되찾고 또 깨끗한 自然環境을 지키는데 앞장섬으로서만이 快適한 環境은 保障될 것입니다.

環境廳은 그간 生活環境의 保護에 크게 寄與하였을 뿐만 아니라 環境保全의 國民的 認識 提高에 큰 役割을 한 것이 事實이지만 環境保全事業은 當局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며 全行政機關, 各企業體, 온 國民 모두가 서로 協調하고 參與해야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自然環境을 우리 世代에 깨끗이 利用하고 後孫에게 고이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값진 일임을 오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開廳을 보는 大田環境支廳은 本然의 業務뿐만 아니라 이곳 地域社會 發展에도 큰 寄與와 貢獻이 있을 것으로 期待하면서 오늘의 이 開廳式이 내고장 發展에 디딤돌이 되고 加速化가 되기를 300萬 道民과 더불어 歡迎하고 自祝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大田環境支廳의 無窮한 發展과 同僚 公務員 여러분의 앞날에 幸運과 發展이 크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第30回 忠淸南道 文化賞 施賞式

1986년 12월 15일

式 辭

오늘 우리는 한 해의 道政을 마무리하는 時點에서 뜻깊은 第30回 文化賞施賞式을 갖게 되었읍니다.

本人은 먼저 그 동안 學問과 藝術이라는 孤獨한 歷程 속에서도 默默히 地域社會發展과 鄕土文化暢達에 精進해 오신 오늘의 受賞者 여러분께 300萬 道民과 더불어 祝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參席해 주신 各級 機關長님과 來賓 여러분에게도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 道가 地域社會의 숨은 일꾼을 찾아 道民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業績을 기리고 앞으로의 보다 많은 進展을 鼓舞하고자 하는 文化賞을 施賞해 온 것이 어느덧 한 世代의 成熟한 年輪을 헤아리게 되었읍니다.

그 동안 여러번의 새로운 模索이 있었읍니다만 이 모두는 보다 나은 向上, 그리고 보다 權威있는 賞으로 만들기 爲한 우리의 努力이었다고 하겠으며, 이제는 本 文化賞이야말로 우리 道가 主管하는 가장 보람있는 賞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努力은 곧 鄕土文化의 發展, 鄕土藝術의 振興으로 直結됨으로써 우리의 經濟的 成長과 어울어져 이 나라의 先進化에 밑거름이 되고 原動力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今年,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의 成功的 完遂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努力이 어떻게 結實되고 어떻게 國家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가를 分明히 確認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우기나 우리 고장 忠南은 그 옛날 燦爛했던 百濟文化의 원 터전이기에 民族文化 暢達에 寄與하는 우리의 이같은 努力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偉大했던 우리 先人의 後裔인 오늘의 우리가 그 文化的 傳統의 脈을 제대로 잇고 있느냐 하는 評價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 奮發해야 한다는 것이 本人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受賞者 여러분과 같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意志와 獻身으로 꿋꿋이 學問과 藝術의 길을 가지고 傳統의 脈을 잇고자 하는 분들의 勞苦는 더욱 높이 讚揚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道 文化賞 受賞者 여러분의 그러한 努力이 작게는 鄕土文化의 育成, 크게는 民族文化의 暢達로 이어지는데는 勿論 이처럼 그 分野의 專門的인 길을 걸으시는 분들의 努力이 必要하지만 이를 깊이 理解하고 聲援하며 함께 同參해 나가는 道民 모두의 뒷받침을 本人은 이 자리에서 强調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忠南은 行政은 勿論 經濟, 教育, 그리고 文化에 이르기까지 國家의 中樞的 機能을 受容하는 發展段階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넓은 發展의 幅과 보다 빠른 發展의 速度가 期待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오늘의 忠南이 있기까지에는 여러분을 비롯한 過去의 受賞者 여러분들과 같은 숨은 일꾼들의 애쓰심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本人은 잘 알고 있읍니다.

비록 오늘의 이 賞이 그 동안의 勞苦, 그리고 빛나는 功績에 比해서는 모자람이 있겠읍니다만, 그러나 이 賞에는 300萬 忠南道民의 精誠과 聲援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또한 受賞者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의 숨은 努力이 결코 오늘의 受賞을 위한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의 榮光스러운 受賞이 여러분 活動의 終點을 意味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受賞者로서의 名譽와 矜持를 爲해서는 勿論 本文化賞이 名實相符하게 우리 道의 地域開發과 鄕土文化暢達에 寄與하는 價値있고 보람있는 賞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奮發, 精進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受賞者 여러분을 眞心으로 祝賀드리고 그 동안 남모르는 精誠으로 오늘

의 榮光을 뒷받침하여 주신 家族과 親知, 여러분에게 敬意를 표하면서 受賞者 여러분의 앞날에 健康과 幸運이 늘 함께 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86 全國 技能競技大會 入賞者 施賞式

1986년 12월 17일

致 辭

먼저 今年度 全國 技能競技大會에서 入賞을 한 여러분들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今年에는 昨年보다 入賞者數가 많아 底邊擴大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全國上位圈 入賞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거기에는 잘 미치지 못해서 多少 우리가 期待한 것 만큼의 큰 發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그러나 國家 全體로 볼 때에는 大企業이 養成을 하든, 中企業이 養成을 하든, 中央의 企業이 養成을 하든 또 地方의 企業이 養成을 하든 전혀 關係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與件下에서 最善을 다해서 技能向上을 위해 努力을 한다는 데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事實上 우리가 世界 技能人 競技大會에서 **7連覇**의 偉業을 達成했읍니다.

過去 한 40～50年 前만 하더라도 韓國의 技能은 거의 零點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읍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가 李朝 500年 동안 儒教만을 崇尙을 하고 文을 爲主로 모든 統治를 했기 때문에 技能이 發達할 餘地가 없었다 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歷史的인 事實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優秀한 才質과 技倆을타고났다하더라도 이것을 向上시키고 또 開發할 수 있는 與件이 못되었기 때문에 解放될 때까지 우리 나라는 技能面에 있어서 또 技術面에 있어서 전혀 不毛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以後에 解放이 되면서 世界의 經濟市場에서 우리가 競爭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經濟伸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技術向上만이 目的達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政府에서 그 동안 많은 努力을 해서 이제는 事實 아까 말씀드린대로 技能 競技大會에서 連續 覇權을 잡는 그러한 技能 韓國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참으로 隔世之感이 있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忠淸南道도 여러분들의 努力에 의해서 韓國技術 向上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經濟大家들의 展望을 보면 結局은 이제 世界의 經濟가 무엇으로써 판가름이 날 것이냐? 資源도 거의 있는대로 드러나 있고 또 貿易이라든가 商品市場도 全部 다 開放이 되고 서로 交流하는, 어떻게 보면 世界 市場이 하나의 市場으로 化했다고 볼 수 있는 狀況인데, 그러한 市場 競爭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정말 資本도 많지 않고 地下資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밖에 없는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技術을 向上하지 않고는 競爭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 自明한 事實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現在의 經濟 成長에 滿足할 것이 아니라, 정말 先進國隊列에 들어서서 보다더 確固한 先進國水準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高度의 精密技能이 維持되지 않고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現實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지금 推進하고 있는 것은 技術 向上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科學技術 向上을 위해서 相當히 投資를 하고 力點을 둬야 하는 그러한 現實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共和國이 樹立된 以後에 科學技術 分野에 0.2%밖에 投資를 안하던 것을 이제 總GNP의 2.8%라는 아주 莫大한 豫算을 技術 分野에 投資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걷고 있는 技能의 길 이것은 결코 다른 人文界 分野에 비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여러분의 存在가 所重히 여겨지고 充分히 待遇를 해야 할 이러한 時代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 忠淸南道는 事實上 다른 道보다도 技能人을 어떻게 하면 더 빛을 내 줄까 하는 데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行政을 합니다.

今年에 이 名匠制度가 생겼는데 이 名匠制度도 昨年에 우리가 中央勞動部에 建議를 한겁니다.

勿論 獨逸의 마이스타 制度라든가 이런 外國의 技能匠制度 같은 걸 參酌을 한 겁니다만은 우리 나라의 技能이 무언가 보람을 갖고 또 더욱더 技能 向上을 위해서 技能人에 志願者가 많아질려면 技能人 優待制度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名匠制度도 우리가 建議를 해서 採擇이 된 것이고 또 우리 道 自體로 技能人의 底邊擴大를 위해 여러 가지 施策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入賞者에 대한 施賞金도 昨年에 비해서 越等히 上向 調整을 했고 또 「기능인의 집」 標札을 만든 것도 今年에 처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包含해서 忠淸南道에서 技能을 갖고 빛낸분들을 앞으로 道誌에다 全部 收錄을 해서 歷史的으로 여러분을 빛내주기 위한 그런 措置도 計劃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技能人들의 士氣를 높이기 위한 年金制度라든가 其他 政府, 中央單位에서 實施를 해야 할 施策 네가지 程度를 지금 建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다 採擇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採擇이 되는 境遇에 全國的으로 技能人은 待遇를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技能人들의 여러 가지 努力 또 技能人을 키우고 있는 指導敎師나 學校 또는 企業體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問題를 서로 議論하고 解決하기 위해서 多幸히 우리 忠淸南道는 大德硏究團地라는 하나의 싸이언스 타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連結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어떤 어려움, 問題點, 이런 걸 解決할 수 있도록 우리가 産業體, 硏究所, 學校, 이렇게 세 機能을 協同을 하는 方案을 지금 構想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忠淸南道의 여러 가지 施策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配慮하고 있다는 것을 優先 알려드리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어렵고, 또 외롭고 보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發展이 많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絶對로 그렇지 않으며 외롭지도 않고 보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展望은 宏壯히 밝다는 것을 여러분이 自負를 하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技能 向上에 精進을 해주기를 나는 付託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賞을 받은 것도, 中央에서 入賞金을 傳達받았지만, 現在水準에 絶

對 滿足할 여러분도 아니겠지만 滿足해서도 絕對 안된다는 것을 내가 더 强調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分野든 投身을 했으면 最少限度 우리 나라에서 第一人者되는 것은 當然하고 世界의 一人者가 되봐야 될 것 아니겠읍니까?

最小限 그런 目標를 가지고 여러분이 努力을 해줘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技能人의 집 牌를 받은 두분 그 程度만 될래도 相當한 努力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지나서 우리 나라의 一人者 그리고 世界의 一人者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뼈깎는 努力이 있어야 되겠느냐, 제가 說明을 안 해도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問題는 그만한 才質과 健康과 意志가 있느냐를 여러분이 스스로 確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가 합쳐져 있고 與件이 웬만만 하다면 지금 조그맣게 이루어 놓은 技術水準에서 밥이나 먹고 살겠다는 조그만 欲心만 갖고 있지 말고 좀더 큰 欲心을 가지고 큰欲心 元來 大欲은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큰 欲心을 갖고 世界의 一人者가 되보겠다. 이래서 밥먹고 자는데에만 置重하지 말고 좀더 技術을 硏磨하는 데로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册을 보고 工夫를 하고 피나는 努力을 한다면 몇年더 苦生을 한 뒤에는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이 어떠한 報償이나 待遇보다는 깜짝 놀랄만큼 큰 待遇를 받고 이름을 떨치고 여러분의 感情을 滿足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忠淸南道를 빛내고 여러분 家門을 빛내고 大韓民國을 빛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施賞이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지날 것이 아니라, 持續的으로 技能分野에 投身한 여러분들 또 指導敎師님들 또 學校 校長先生님, 그리고 硏究院 院長님, 또 우리 各級 企業人 모두가 그러한 뜻에 마음을 합쳐서 努力을 한다면 相當한 效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道에서 세워 놓은 技能人 優待方案도 그것의 一環으로 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정말 技術硏磨에 精進을 해서 道 次元에서의 受賞을 目標로 하는 것이 아니라 世界의 舞臺에서 빛나는 技能人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指導敎師 先生님들, 學校 校長 先生님들 選手養成해 주시는데 苦生이 많았읍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1986년 12월 17일

祝　　辭

우리 나라 最高의 權威와 創作水準을 갖고 있는 大韓民國 建築大展의 受賞作品들을 昨年에 이어 또다시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80 年代에 들어와서 우리 고장은 國土의 中心部로서 다른 어느곳 보다도 急激한 開發과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大田을 비롯한 隣接한 都市들이 漸次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過去 놀라운 速度로 進展되어온 우리의 經濟成長過程에서 많은 都市들이 나름대로 地域의 特性과 技能, 그리고 美觀을 갖추지 못하고 市勢의 膨脹에만 置重되어 劃一的인 建築物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分野 專門家들의 見解라고 봅니다.

한 都市의 發展에 있어서는 量的膨脹과 아울러 훌륭한 建築文化藝術이 뒷받침된 都市計劃과 여기에 調和된 建築과 美觀的 側面에서의 깊은 硏究와 이에 따른 實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展示되는 作品들은 이와 같은 面에서 바람직한 都市의 모습, 그리고 都市建築物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가를 提示해 주는, 格調높은 建築文化藝術作品들이라고 믿어지며, 建築家들은 勿論 많은 道民들의 關心과 觀覽을 勸誘하는 바입니다.

이번 展示會가 알찬 成果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建築家協會 忠南支部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 여러분의 精進을 期待합니다.

「忠南警察史」冊子 發刊

1986년 12월 18일

序 文

이번에 우리 國立警察의 分身으로서 忠南警察이 誕生되고 成長해온 발자취를 昭詳하게 엮은 忠南警察史를 發刊하게 된 것을 警察家族 여러분과 더불어 自祝하는 바입니다.

우리 警察史는 바로 祖國의 光復과 더불어 우리 겨레가 겪은 모든 試鍊과 보람, 榮과 辱의 過程을 거친 近世 民族史의 縮少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建國과 더불어 呱呱의 聲을 울린 우리 警察이 民心을 收拾하고 社會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면서 住民과 함께 呼吸하는 國家機關 組織으로 실로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는 40餘年前 激動의 感懷를 지니고 있읍니다.

特히 6.25라는 同族相爭의 不幸한 戰亂을 겪으면서 우리 先輩들은 戰線에서 수없이 散華하고 戰爭의 廢墟에서 이 社會와 國家를 再建하기에 우리가 바친 땀과 精誠은 또 얼마인지 感慨가 無量합니다.

우리 忠南警察은 國土의 中心部에 位置한 地理的인 與件과 地域의 特殊性으로 因하여 다른 어느 地方보다도 더큰 試鍊과 曲折을 겪어야 했던 歷史는 이 冊子가 說明해 주고 있읍니다.

今年에 大屯山의 勝戰遺跡地에 碑를 세워 우리 忠南警察의 氣象을 永遠히 기리고자 하는 素望의 碑를 세운 바도 있읍니다만 이 冊子야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 40餘年의 傳統과 歷史 속에 새로운 民主警察로 成熟하려는 새로운 里程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共產黨과 싸우면서 나라와 住民을 지키는 일에 身命을 바쳐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共產主義와의 싸움이 繼續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住民의 斬新한 길잡이로서 새로운 姿勢를 定立해야 하는 벅찬 課題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警察家族은 地域 警察로는 最初로 이 忠南警察史의 發刊이 지난 날 우리 警察史의 記錄이라는 意味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롭고 자랑스러운 忠南警察像 創造의 起點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忠南警察의 無窮한 發展과 幸運이 있기를 警察家族 여러분과 함께 祈願하고 다짐하면서 이 값진 册子의 發刊에 獻身해온 李鍾國 警察局長을 비롯한 編輯實務者 여러분의 勞苦에 致賀를 보냅니다.

道政 聲援人士에 대한

1986년 12월 18일

書 翰

저물어가는 丙寅年의 歲暮에 언제나 내고장의 開發과 道政發展에 아낌없는 參與와 聲援을 보내주신 貴下에게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領導者이신 全斗煥 大統領閣下의 卓越하신 指導를 바탕으로한 國政의 方向에 맞추어 우리 300萬 道民이 和合과 安定을 바탕으로 땀흘려일해온 結果 道民의 底力과 優秀性을 遺憾없이 誇示한 한 해였으며 活氣찬"으뜸 忠南" 建設을 加速化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貴下와 더불어 自負합니다.

지난 1年을 돌이켜 볼 때 今年이야말로 國內外的으로 榮光과 試鍊이 크게 엇갈린 한 해였으며 우리 道政史에도 벅찬 感激과 보람을 안겨준 前進의 한 해였다고 봅니다.

國家的으로는 韓民族의 矜持와 力量을 마음껏 드높인 아시아 競技大會의 成功이라는 神話를 創造하였으며 驚異的인 物價의 安定과 6年 연이은 豊年農事,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더불어 自律投資時代의 開幕과 國際收支 黑字의 元年을 記錄하는 新紀元을 이룩한 바 있읍니다.

우리 道政에 있어서는 全國公務員素養考査의 綜合優勝을 비롯하여 農漁民 後繼者體育大會, 全國모내기 中央競進大會, 貯蓄活動全國大會, 全國消防王選拔大會, 水產增產大會 등 中央單位 競爭事業에서 全國을 制覇하였고, 特히,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忠南出身選手가 33個라는 가장 많은 金메달을 따서 忠南人의 優秀性과 底力을 드높인 바 있읍니다.

地域開發面에서도 300萬 道民의 오랜 宿願이었던 公州, 大川, 溫陽 등 3個市의

昇格과 2個 出張所의 面昇格, 燕岐郡 全義面 小井出張所의 發足, 道內 10個 地域의 行政區域 改編計劃의 確定 등 括目할만한 行政의 成果가 있었읍니다.

또한 中部高速道路工事의 推進, 公州 黃山大橋의 竣工, 한밭圖書館工事의 活潑한 推進, 自然學習園의 開園, 農工團地造成事業, 中央部處의 地方移轉計劃에 따른 專賣廳 移轉 등 "으뜸忠南"이 跳躍으로 치닫는 榮光의 한 해였읍니다.

이처럼 빛나는 道政의 成果는 오직 貴下께서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熱火같은 愛鄕心을 비롯한 300萬 道民의 結集된 意志와 努力의 所產으로서 우리는 큰 自負와 矜持를 불러 일으키고 있읍니다.

다가오는 丁卯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强大國들의 利害相衝과 北韓 共產集團의 露骨的인 挑發策動이 豫想되며 左傾容共勢力의 蠢動을 비롯한 社會安定 沮害要因 등은 우리가 넘고 克服해야 할 課題들이며, 特히 5千年 民族史에 劃期的인 里程標가 될 88서울올림픽과 우리의 政治史에 큰 劃을 그을 平和的 政府移讓의 大業을 눈앞에 두고 道民 모두가 서로 團結하고 온갖 精誠과 智慧를 한데 모아야 할 重大한 한해가 바로 丁卯年이라고 봅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그간 다져진 和合과 團結을 바탕으로 安保力量을 보다 强化하고 勤儉節約을 體質化하여 遵法秩序를 우리 社會에 定着시켜 나간다면 國力의 伸張과 先進祖國 創造에 寄與하는 우리 忠南 道民의 力量은 한층 더 成熟해질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榮光스러운 丁卯年과 더 큰 未來를 向하여 奮發하고 前進할 것을 貴下와 더불어 다짐하면서, 丁卯年 새해에는 貴下와 貴下의 家庭에 幸運이 넘치시기를 祈願합니다.

1986년 12월 19일

人　　事

李大富 副議長님, 運營委員님, 그리고 常任委員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86年度 여러분들의 活動實績을 評價하고 또 來年度의 事業을 議論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압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여러분들께서 政府의 平和統一意志, 平和統一政策 또 우리가 平和統一을 해야 할 當爲性에 대해서 國民에게 認識시키기 위한 弘報를 그 동안 1年間 꾸준하게 해 주셨읍니다.

아울러 平和統一基盤 構築을 위해서 가장重要한 地域의 安定과 우리들의 和合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앞장을 서 주셨읍니다.

그래서 우리 300萬 道民의 和合을 위해 地域 安定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신 德에 저희 忠淸南道 86 道政이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게 고루 고루 發展을 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道政에 協調해 주신데 대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丙寅年도 이제 한 열흘 남았읍니다. 文字 그대로 多事多難했던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世界的으로도 아주 刻薄하고 一觸卽發의 危險한 그러한 狀況도 많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몇가지 우리가 回顧를 해보면, 아이슬랜드에서 美·蘇頂上이 對談을 하고 무엇인

가 平和의 무드를 잡는게 아니냐 期待를 했지만 失敗로 돌아갔읍니다.

亦是 東西陣營間의 和解協議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한번 實感을 했읍니다.

아울러 우리가 美國이 宥和政策 乃至는 寬大한 政策만 써오는 걸로만 봤지마는 리비아에 대한 힘의 應懲을 보고 亦是 世界를 主導하는 强한 國家라는 印象을 우리들에게 준 바가 있읍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政變이 일어나서 政府가 바뀌는 이런 것도 우리는 보았읍니다.

最近에 美國은 이란의 武器販賣 때문에 相當히 政治的으로 紅疫을 치루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남의 일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事實上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는 우리 大韓民國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결코 남의 일이라고 돌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緣由에서든 우리와는 相當한 關係가 있고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激動 속에서도 우리 나라는 아주 歷史的으로 크게 記錄할만한 大快擧들이 몇가지 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86 아시안게임은 30億 아시아人들의 모든 가슴을 울려 주고 世界에 大韓民國의 底力과 그리고 우리들의 疑集된 힘을 그리고 體育韓國의 眞面貌를 아주 痛快하게 보여 준 快擧였읍니다.

그러므로써 88올림픽을 主管 主催 하는 나라로서의 여러 가지 力量이 未洽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疑懼心을 한꺼번에 拂拭한 快擧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가 歷史的으로 評價해야 될 것은 建國以後 지금까지 國際收支面에서 每年 赤字가 累增이 되고 外債가 늘어났던 것이 事實입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發展을 거듭해온 結果 今年에 드디어 세가지 分野에서 新記錄을 樹立했읍니다.

하나는 무려 45億$ 가량의 國際收支 黑字를 記錄을 했읍니다.

이는 當初 15億가량의 黑字를 豫想했던 것이 여러 가지 國際的 經濟與件도 좋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蓄積해온 企業人들의 實力, 技術向上, 國民들의 經濟政策에 呼應하는 여러 가지 힘을 입어서 무려 45億$의 黑字를 냈읍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바탕이 되서 今年度에 約 12億$ 乃至 15億$의 純外債를 償還한 이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今年에는 貯蓄高가 32%가량 될 것으로 展望이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國內 投資 財源을 自體的으로 調達할 수 있는 이러한 元年을 記錄하게 됐읍니다.

經濟的으로 이 세가지 記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建國 40年 以來에 가장 값지고 우리가 自主獨立國家로서 정말 自主的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비로소 잡은 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國家的인 大慶事와 歷史的인 記錄에 힘입어서 저희 忠淸南道도 많은 發展과 알찬 結實을 거두었읍니다.

勿論 計數的으로 다 지금 말씀드릴 時間은 없읍니다만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몇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우리 忠淸南道는 今年에 모든 分野에 發展이 많았읍니다.

특히 農事는 全國的으로 6年 連續 豊年의 凱歌를 올렸읍니다.

저희 忠淸南道가 先頭的으로 段步當 收穫이 500 kg가량의 優秀한 農業生産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우리가 特記해야 될 것은 農民의 所得을 向上시키는 農工團地 造成에 있어서 全國 13個市道 가운데 忠淸南道만이 農工團地 造成에 크게 發展을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公州의 農工團地는 이미 造成이 完了되었고 入住者도 折半 假量은 稼動을 하고 있읍니다.

그 以外에 天原工團 그리고 燕岐, 錦山, 그리고 論山 地域의 特別工團까지 合해서 87年度까지 工團을 造成하면 約 1千 600名 假量의 雇傭이 增大되고 400億假量의 純收入이 있을 것으로 推算이 되는 基盤을 잡아 놨읍니다.

事實上 忠南의 産業構造에서 2次産業이 不足했던 것이 많이 伸張이 되고 있읍니다.

또 하나 크게 忠南이 寄與한 것은, 86 아시안게임에서 金메달 93個중 그 가운데 33個를 忠南出身 選手가 땄고 서울出身이 28個, 全南出身이 27個 이렇게 해서 이번 아시안게임 메달獲得에 있어서 忠南出身이 가장 寄與를 했다는 것을 報告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道勢가 6位乃至 7位程度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體育을 위해서 꾸준하게 投

資를 하고 힘을 기울인 結果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나타났다고 하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으뜸忠南이라는 하나의 케치프레이지에 걸맞는 또 實際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86年度에 우리 忠南 道政 實績은 그야말로 刮目할 만큼 發展을 했읍니다.

中央評價 事業만 하더라도 32個 가운데 17個가 完成 됐는데, 17個 가운데 우리가 1等이 여덟個, 他道가 到底히 따라 올 수 없는 成果를 거두고 있읍니다.

이제 丙寅年이 다 저물어 갑니다.

87年을 展望을 해보면 잘아시다시피 우리는 크게 政治的인 두가지 行事를 위한準備를 해야 할 해입니다.

하나는 88年에 憲政史上 처음 記錄될 平和的 政府移讓을 위한 準備 또 하나는 88年에 우리가 開催하는 24回 서울 올림픽에 대한 準備 이 두가지가 着實하게 準備가 돼야 될 해가 87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現在 表出되어 있는 左傾容共勢力을 말끔히 芟除를 해야 할 그러한 重要한 일도 87年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울러서 經濟成長이 順調롭게 持續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黑字 時代를 맞았다고 해서 결코 허리띠를 끌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87年度에도 持續的인 安定成長을 위해서 貯蓄, 節約, 國產品愛用 등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우리의 經濟生活資勢를 더 深化 發展시켜서 언제 어떠한 國際的인 與件變動에도 흔들림이 없는 탄탄한 經濟與件을 確立해 놓아야 할 것이 87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보다도 가장 重要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88 서울올림픽을 妨害를 해야 되겠다고 作心을 하고 있는 北傀의 장난을 막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現在 金剛山땜이라는 怪常한 땜을 建設해 가지고 水攻作戰을 펴는 것까지도 包含을 해서 모든 手段을 動員해서 88 서울올림픽을 妨害를 하려고 하고 赤化野慾을 불태우고 있읍니다.

來年이야말로 88年에 그 重要한 두가지 政治的인 行事, 國際的인 行事를 앞두고 어떠한 形態든지 北傀는 發惡的인 姿態를 보일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結局 우리가 모든 國政을 圓滿히 遂行을 하고 結實을 거두기 위해서는 北傀의 對南作態 이것은 어떠한 境遇라도 粉碎를 해야 할 이러한 것이 來年度의 가장 큰 課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平統 諮問委員 여러분들께서는 今年에 活動을 하셔서 많은 成果를 거두신 거와 마찬가지로 來年度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리 나라의 位置와 座標를 分明하게 理解를 하시고 또한 우리가 指向해야 할 모든 國力伸張 國家目標를 그야말로 成功的으로 達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굳은 信念과 意志를 가다듬으셔서 對國民弘報와 아울러 指導를 해 주셔야 할 해가 來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임은 값진 評價會가 되고 來年을 위한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今年의 指導 聲援에 感謝를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丙寅年 여러분들 計劃하신 것들을 말끔하게 마무리를 지시고 87年도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고 여러분께서 計劃하신 일이 順調롭게 될 것을 바라면서 人事에 가름하겠읍니다.

感謝합니다.

이웃돕기 誠金 募金에 대한

1986년 12월 19일

談 話 文

親愛하는 道民 여러분!

激動의 丙寅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때 道民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祈願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으뜸忠南」의 알찬 成長에 參與해 주신 道民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衷心으로 感謝드립니다.

우리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期待하는 希望 속에서도 우리 周邊의 어려운 이웃을 恒時 생각해 왔읍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 어려운 이웃돕기 運動을 벌이는 것은 平素 바쁜 生活에 쫓기며 살아 왔으나 이 歲暮에는 서로 사랑과 人情을 꼭 나누어 갖자는 우리의 傳統的인 美風良俗이라고 봅니다.

人情과 和合의 傳統을 지닌 우리 300萬 道民이 지난 해에도 따스한 이웃 情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이웃돕기 運動으로 薰薰한 세밑을 보낸 바 있읍니다.

바로 道民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로 3千500餘世帶 60餘個所의 社會福祉施設에게 사랑과 希望을 나누어 준 것이 그것입니다.

올해에도 道民 여러분의 뜨거운 兄弟愛와 이웃사랑이 베풀어지게 되기를 懇切히 期待하면서 새해에 道民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과 榮光이 充滿하시기를 빕니다.

1986년 12월 19일

人　　事

그 동안 여러분들이 誠心껏 도와 주셔서 忠淸南道 道政이 着實하게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읍니다.

86年 이 今年은 歷史的으로 엄청난 國家의 發展을 이룩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世界의 刻薄한 國際競爭 속에서도 今年에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分野의 成果는 檀君朝以來 가장 빛나는 業績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86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이 事實上 4千萬 民族이 한마음 한뜻이되어 持續的으로 다져온 國家發展, 그리고 모든 면에서의 意識改革, 先進國을 向한 努力이 아주 適切하게 잘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經濟的으로는 기름값이 多少 떨어지는 등 3低現象이 있었기 때문에 與件도 좋았지만 좋은 與件을 活用을 해서 우리가 努力한 結果 金字塔을 세운 해가 今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國家 經濟 發展을 위해서 外債를 많이 썼고 그 結果 450億$의 外債가 있는데 今年에야 비로소 外債를 줄이는, 外債를 償還하는 그야말로 奇蹟같은 일이 創造가 되었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86年은 分明히 歷史的으로 크게 記錄될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國際收支 黑字만 하더라도 當初 15億$ 程度를 豫想을 했는데 45億$의 黑字가 記錄되기도 했고 또 國內 投資財源을 마련하는 것도 昨年까지만 하더라도 27～8%의 貯蓄率이던 것이 이제 貨幣價値가 安定이 되므로써 今年에는 이미 30%가 突破가 됐고 年末

까지 가면 32%程度 될 것으로 專門家들이 보고 있읍니다.

國內 投資率은 普通 30%程度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 自體로 國內 投資財源을 마련하고도 좀 더 餘裕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이런 것이 事實上 이루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偶然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全斗煥 大統領閣下를 中心으로 우리 모든 國民, 그리고 모든 分野에 있는 분들이 自己가 맡은 일은 120% 完遂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綜合的으로 이루어진 큰 成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念慮스럽던 일도 今年에 많았읍니다. 世界的으로 보면 美蘇 頂上이 캐레이타비스에서 마주 앉았지만 亦是 核 問題라든가 이런 問題에 異見이 있어서 結局은 有終의 美를 거두지 못하고 決裂이 되고 만 것이 있읍니다.

아울러서 리비아에 대해서 美國이 힘에 의한 하나의 應懲을 한 것도 記錄할만한 事實이고 또 요즘 이란에 대한 武器密賣때문에 美國이 政治的으로 크게 紅疫을 치루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友邦國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國內的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改憲政局이 開始가 되어서 무언가 與野間에 실마리를 푸는가 했더니 아직까지는 그렇게 希望的으로만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다 더 政治的으로 한발자국 發展하기 위한 88 平和的인 政府移讓을 위해서 무엇이 더 民主化를 하는데 가까운 길이냐 하는 것이 지금 與野間에 攻防이 벌어지고는 있읍니다만 亦是 對話가 아직 梗塞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國民들이 念慮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크게 念慮가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今年에 露骨的으로 表出된 左傾容共勢力의 挑戰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우리가 젊은이들이 하나의 正義感에서 하는, 그리고 學窓時節에 있을 수 있는 學生運動의 一環이라고 寬大하게 보아왔던 것 속에 北傀와 똑 같은 路線을 걷고 있는 容共勢力이 숨어 있었고 또 이것을 一部 조종하는 宗教人 不法團體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國民들이 念慮를 했읍니다만 이것은 政府의 强한 意志로 現在 容共勢

力을 芟除하는 作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머지않아 背後라든가 뿌리를 뽑는데 큰 効果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今年度에 크게 國民들의 關心을 불러 일으킨 것은 亦是 北傀의 對南戰略입니다.

金剛山 땜이라는 하나의 怪物을 創案을 해서 88 올림픽을 妨害하고 赤化野慾의 手段으로 쓰기 위한 水攻作戰을 꿈꾸는, 이런 蠻行을 꿈꾸는 作業이 始作되었고 이것이 國民들의 忿怒를 사서 요즘 平和의 땜 建立誠金 募金에 많은 國民들이 參與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國內外的으로 複雜하고 여러운 일이 많았읍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序頭에 말씀드린 그러한 큰 國家的인 成果를 거두었다는 것은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 委員님들을 비롯한 모든 指導層에 계신 분들이 國民들에게 바르게 認識을 시키고 現實을 正確하게 理解를 하면서 國家의 發展이나 모든 分野의 發展이 短時日內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段階的으로 이룩된다는 하나의 原理를 잘 理解를 하시고 協調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많이 發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忠南의 境遇는 어느 道보다도 安定되고 和合된 雰圍氣 속에서 道政이 잘 이루어졌고 많은 成果를 거두었읍니다.

몇 가지 忠南道政의 成果를 말씀드리면 우선 中部圈 開發戰略에 의해 檢討되어 온 大田市의 再整備計劃이 머지 않아서 具體的인 開發計劃으로 發表가 될 것이며 그 以外에 大田發展을 前提로한 中部高速道路의 建設이 87年末까지를 目標로 하고 있읍니다.

또한 公州大橋, 黃山大橋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大單位 農業 開發事業이 大湖池라든가 揷橋 農產地區에서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大田近郊 新灘津 文坪里에 第3工團 3萬坪이 確定됐고 아울러서 鳥致院에 纖維工團, 瑞山 大山에 精油工場의 建立, 그리고 여덟군데의 農工團地가 다른 道에 비해서 早速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工團이 다 이루어지면, 完全히 完工이 되려면 아직도 1～2年間 所要될 것으로 알지마는, 約 1萬7千名의 雇傭能力이 增大가 되고 純粹한 勞賃으로 거기에서 稼得되는 돈이 400億가량 될 것으로 展望이 됩니다.

아울러 今年度에 이룩한 6年 連續 豊年이라는 것도 檀君朝以來 처음 記錄되는 하

나의 快擧라고 하겠읍니다.

忠南의 境遇에는 全國單位 評價事業도 連 3年째 휩쓸고 있읍니다. 昨年까지 實績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마는 今年에 32個 가운데 17個 事業이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중에 여덟個가 最優秀, 4個가 2位, 그 다음에 3個가 3位, 等外는 2個 밖에 없읍니다.

앞으로 나머지 15個 事業도 大部分 上位圈이기 때문에 今年度에도 行政實績이 좋아서 우리 忠南이 斷然코 全國에서 1位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忠南이 크게 이룩해 놓은 快擧는,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 無慮 204名의 選手가 93個의 금메달을 땄는데 그중에 33名이 우리 忠南出身입니다. 서울이 크지마는 서울出身이 28名 全南出身이 27名 이렇게 해서 아시안게임에 있어서도 忠南이 가장많은 寄與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內務行政 分野에서 크게 今年에 記錄을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參與하고 계신 이 共通民願 業務도 今年에 始作이 된 것이지마는, 이 共通民願 業務와 脈을 같이 하는 爲民室이 金宗鎬 長官께서 就任하시면서 開設이 됐읍니다.

11月 1日부터 開設을 해가지고 한달 半 가량 運營을 했는데 모든 內務公務員이 國民들의 어렵고 억울하고 딱한 事情을 完全히 收斂을 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 드리는 爲民行政을 펴자 이렇게 方向設定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忠南에도 41個 機關에 爲民室이 設置가 되었고 過去에는 民願室을 통해서 法規에 關係된 또 政府의 行政行爲에 의해서 이루어진 問題에 대한 民願만을 取扱을 했는데 지금의 爲民室은 法的인 次元을 떠나서 여러 가지 人情的인 次元까지도 全部 取扱하는 爲民行政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억울하고 답답하고 딱한 일을 당한 國民들이 모두가 찾아 오셔서 相議를 하고 解決策을 論議를 하는데, 특히 여기에 參與한 各界 各層에 있는 분들께서 自願奉仕를 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解決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統計를 보면 지금까지 約 2千 300餘件이 接受가 되어서 處理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74%가 解決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劃期的인 일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政府의 어느 機能을 莫論하고 最終的으로는 國民을 위하고 國家利益을 위해서 奉仕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爲民奉仕 行政은 强化가 되면 될 수록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共通民願 分野에 있어서는 여러 委員님들이 地域의 事情을 그때 그때 反映해 주시고 忌憚없이 率直하게 意見을 交換해 주심으로써 忠淸南道는 일찍부터 民願이 極히 적었고 조그맣게 있는 民願도 많이 解決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委員님들 今年도 정말 여러 가지로 感謝합니다.

이제 87年은 잘 아시다시피 88年의 平和的인 政府移讓, 서울 올림픽 開催 이것을 위한 準備를 着實히 해야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서 來年에는 여러 가지 政治狀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豫想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分明하게 정해진 國家의 目標는 있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88年에 平和的인 政府移讓은 해야 되고 88 올림픽을 成功裡에 開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北傀의 挑發을 여하한 境遇에도 막아야 되고 또 政治的으로 與野間에 攻防이야 있겠지만 그 攻防은 安定과 秩序가 維持되는 가운데 許容이 된다 하는 分明한 方向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安定을 해친다면 아까도 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經濟的으로 이렇게 우리가 括目할만한 成果를 거둘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發展한 큰 原動力은 安定과 和合입니다. 勿論 政治하는데 異見이 있고 서로 싸움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할 것은 法秩序와 安定입니다.

그 속에서 싸움도 하고 政治도 하고 競爭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來年度에 安定을 해치는 일은 絶對로 容納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安定과 和合을 바탕으로한 그 위에서 우리가 정해 놓고 國家的인 大行事를 向해서 來年은 完璧한 準備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國民들의 共感 形成이 重要한데 安定을 해치거나 自由民主主義를 否定하거나 이러

한 것을 絶對로 容納안하는 이러한 國民의 意識을 꼭 우리는 維持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委員 여러분들께서 來年에도 그러한 國家的인 目標를 잘 理解를 하시고 地域 道民들을 啓導하셔서 우리가 無秩序한 混亂의 遇를 犯하지 않도록 國民들의 意識을 堅固히 하는데 앞장을 서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今年 한해도 한 1週日 남았읍니다만 個人的으로 하시는 일도 成功的으로 마무리하시고 來年에는 더 많은 幸運을 여러 委員님들이 차지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國家的으로 큰 일, 그리고 저희 道政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協調와 채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委員님들 忌憚없이 그 동안 準備하신 여러 가지 事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會議가 今年 마지막 會議이니까 有終의 美를 거두는 會議가 되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새마을 指導者에게 보내는

1986년 12월 21일

書 翰

한해가 저무는 이 歲暮에 貴 指導者와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祝願합니다.

우리에게 試練과 보람을 안겨준 丙寅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읍니다.

그 동안 으뜸충남의 道政成就와 地域社會 發展을 위해 앞장서 오신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의 獻身的인 奉仕와 勞苦에 대하여 慰勞와 더불어 致賀를 드립니다.

喜悲가 엇갈린 지난 한해를 貴 指導者와 함께 돌이켜 볼 때 今年 한해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國家的으로는 많은 試練과 逆境 속에서도 成功的으로 치룬 第10回 아시아 競技大會를 비롯하여 物價의 安定과 經濟成長史上 처음이었던 國際收支의 黑字 時代의 開幕과 自律投資 時代의 成就 등 榮光과 보람을 안겨주는 가슴벅찬 일들도 많았읍니다만 한편으로는 온 國民을 奮怒케 하였던 北韓 共産集團의 金剛山댐 着手와 左傾意識化되어가는 一部 極烈 學生들의 過激한 示威와 政局의 不安定한 狀況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기도 하였읍니다.

이러한 榮光과 試練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忠南 道政은 6年이나 連續된 豊年의 기쁨 속에서 새마을精神을 바탕으로 道政의 여러 分野에서 빛나는 業績을 이룩함으로써 300萬 道民의 底力을 遺憾없이 發揮한 한해였읍니다.

우리의 道政史에 길이 빛날 이같은 業績은 그 동안 地域과 職場에서 自身을 돌보지 않고 오직 祖國과 民族을 위해 獻身해 오신 指導者 여러분의 피땀어린 努力의 結晶體이기에 더욱 값지고 보람된 일이라 하겠읍니다.

돌이켜 보면 새마을運動은 그 동안 國民的 共感과 參與 속에 16年間 줄기차게 展開되어 오면서 오랜 가난과 停滯의 늪에서 허덕이던 우리에게 豊饒와 發展의 母體가 되어 農村에는 새로운 活力을 都市에는 秩序와 淸潔의 美德을, 그리고 職場에서는 意慾과 活力을 불어 넣어 이 時代의 새로운 歷史를 創造해 나가는 原動力이 되어 왔읍니다.

모든 分野에 끼친 새마을運動의 成果를 勘案해 볼 때 祖國 近代化의 횃불을 높히 밝히신 새마을指導者 여러분이야 말로 眞正한 오늘날의 愛國者요, 國運開拓의 旗手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새마을運動은 先進祖國의 創造라는 우리의 至上課業을 成就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아니될 精神的인 德目이요 實踐運動의 指針이며 나아가 意識의 先進化를 이끌어 가는 國民和合과 未來指向 同參 運動으로 昇華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先進跳躍의 原動力이 되고 있는 새마을 運動과 이 運動의 튼튼한 牽引車 役割을 하고 계신 指導者 여러분의 意慾과 指導力, 그리고 住民의 呼應은 바로 앞으로 다음 世代에게 물려 줄 우리 遺産이 豊足한 것인가 아니면 貧弱한 것인가를 가름하는 열쇠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運動의 民間的 組織이나 成就能力, 그리고 可能性은 어떠한 國家組織이나 行政도 따라 갈 수 없는 偉大한 힘과 底力을 지니고 있음을 本人은 잘알고 있읍니다.

그 동안 여러 分野에서 貴 指導者를 비롯한 많은 새마을家族들이 많은 努力을 기울여 오셨지만 새해에도 더욱 奮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指導者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 그리고 直接 이끄신 마을과 地域社會에 無窮한 發展과 幸運이 함께 하시길 祈願합니다.

忠南體育會 理事會

1986년 12월 23일

致　　辭

오늘 年末이 돼서 아주 바쁘실텐데 우리 理事님들 이렇게 많이 參席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今年 한해에도 國內外的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았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理事님들이 잘 協調를 해 주셔서 저희 忠南 道政이 알차게 마무리를 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感謝를 드립니다.

뭐니뭐니해도 今年度에 우리 國家的인 큰 收穫이라고 하면 第 10 回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거둔 成功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豫想을 뒤엎고 日本을 멀리 따돌리고 中共과 金메달 한個差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國民이 豫想하지 못했던 그런 큰 結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經濟的으로는 物價가 繼續的으로 安定을 期하고 國際經常收支面에서 45億$이라는 아주 큰 黑字를 記錄했고 外債를 12億$이나 今年에 償還을 하게 된 그러한 아주 큰 收穫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한 特定 分野의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4千萬이 各己 맡은 分野에서 모든 責任을 다하고 熱意를 다한 그런 結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忠淸南道만 하더라도 今年에 아주 많은 結實을 했읍니다.

첫째는, 1月 1日字로 公州, 溫陽, 大川 3個市가 새로 昇格이 됐고 大田市의 都

市 再整備計劃이 몇年 동안 檢討끝에 確定이 됐읍니다.

그리고 大田市의 行政機構도 直轄市와 같은 水準으로 擴大 改編됐고 科學技術大學이 6月달에 學生募集을 하고 門을 열었읍니다.

아울러서 專賣廳의 新築廳舍가 完工이 되어서 지난 11月달에 移轉을 했읍니다.

또 農工地區 造成事業도 公州農工團地를 비롯해서 우리 忠南이 다른 市道보다도 越等하게 많은 農工地區가 造成이 되고 있읍니다.

現在 推進되고 있는 農工團地가 完工이 되면 約 萬 7千名의 雇傭增大를 가져오고 400 億원假量의 收入이 增大될 것으로 展望이 됩니다.

또한 再昨年부터 우리가 全國에서 가장 行政實積이 優秀한 道로 浮刻이 되고 있읍니다. 今年에도 亦是 中央 評價事業에 있어서 그 어느 道보다도 저희 忠南이 좋은 成果를 거두고 있읍니다.

現在 完了된 評價事業을 보면 19 個中에 9 個가 最優秀, 5 個가 2位, 3位가 3 個 等外가 2 個로 돼 있읍니다.

現在 評價가 되지 않은 13個 事業이 남아 있읍니다만, 이것도 最優秀가 한 10 個 假量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名實共히 으뜸忠南이 實現이 되고 있읍니다.

그걸로 인해서 今年度에 內務部에서 自律行政 示範道로 저희 忠淸南道가 指定을 받기도 했읍니다.

여러 가지 成果가 分野別로 잘 되었읍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特記할것은 여러 理事님들이 參與하고 계신 體育部門이라고 하겠읍니다.

全國 少年體典에서 우리가 85年度에 7位로 後退했던 것을 다시 3位로 끌어올렸고 全國體典에서는 多少 不振하긴 했읍니다만 이것은 아시안게임에 選手가 많이 參與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狀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體育關係에서 第一 忠南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에서 93 個의 金메달을 땄고 거기에 參加選手가 204 名입니다만, 그中에 우리 忠南이 33 個를 땄고 서울이 28個 全南이 '27 個입니다.

그 동안 우리 忠南이 꿈나무를 키워왔고 또 體育에 모든 精力을 쏟아넣은 것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分明히 드러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오랜 歲月 우리 忠南體育界가

300萬 道民의 聲援에 힘을 입고 꾸준하게 體育에 힘을 기울여온 結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忠南 出身의 選手가 拔群의 成績을 냈다는 것은 미처 다른사람들도 다 몰랐읍니다.

이번에 出戰選手의 記錄을 갖고 分析을 해 본 結果 忠南이 가장 優秀했다는 結果가 나왔읍니다.

또한 今年度에 實施한 全國單位의 여러 가지 種別大會에 있어서도 忠南 選手들이 좋은 成果를 거두어서 優勝이 20個分野, 그리고 準優勝이 10個分野, 3位가 5個分野, 이렇게 種目別로 忠南이 宏壯히 좋은 成果를 거두었읍니다.

앞으로 우리 忠南의 體育 振興方向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聲援을 해 주셔서 成績이 이렇게 좋았지만,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陸上 8連覇라는 偉業을 達成했으면서도 記錄面에서는 아직 아시아를 制覇하거나 世界水準에는 到達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忠南 體育을 보다더 向上시키는 基本方向은 勿論 分野別로 다 잘해야 되겠지만 特히 記錄競技에 있어서 아시아를 制覇하고 나아가 世界記錄을 향한 이런 執念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理事님들께서도 그러한 우리 體育 振興方向을 理解를 하시고 우리가 모든 面에 다 投資를 해서 다함께 좋은 成果를 거두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 또 여러 가지 財政形便이라든가 選手資源이라든가 이런 것이 充分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分野는 戰略種目으로 우리가 記錄에 挑戰하는 이러한 힘도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今年에 그런 좋은 成果를 거두고 特히 體育에 있어서 最高의 結實을 거뒀다는 것은 여기에 言論界에서도 많이 參席을 했지만 言論에서도 늘 體育에 대한 여러 가지 忠告와 아울러 助言을 해 주신 그런 힘도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言論人 여러분께도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모임은 今年 한해 우리 道의 體育을 決算을 하고 來年度의 事業을 檢討하기 위해서 입니다.

87年度의 事業計劃과 豫算案에 대한 審議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의 우리 忠

南 體育 發展을 위한 보다 虛心坦懷하고 率直한 意見들을 開陳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今年도 이제 1 週日 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여러 理事님들 計劃하셨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를 지으시고 87年 밝은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所願成就하는 한해가 되실 것을 바라면서 人事에 가름하겠읍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2월 23일

人　　事

저희 忠南體育을 振興시켜주신 여러 代議員님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參席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今年도 이제 한 一週日程度 남은 것 같읍니다.

86年度를 決算을 해보면 國家的으로나 저희 忠南道 自體를 보더라도 아주 劃期的인 한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事實上 今年에 우리 國家가 거둔 成果는 檀君朝以來 가장 큰 業績이라고 後世 史家들이 記錄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들이 管掌하고 계신 體育分野에 있어서 10回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우리가 떨친 그 國威宣揚은 앞으로도 相當期間 그대로 잘 維持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以外에 事實上 우리가 建國以來 지금까지 每年 外債가 累積만 돼 왔고 國際收支는 恒常赤字 속에서, 비록 發展을 하고 있지만은 무언가 不安한 一面을 안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런데 今年에 45億$의 國際收支 黑字, 12億$의 外債 償還, 그리고 國內 投資資源의 自體調達 可能 이렇게 세가지 아주 큰 記錄을 세우게 됐다고 하는 것은 歷史的으로 劃期的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國家的으로 보면은 改憲政局이 아직도 실마리를 제대로 못풀고 있는 이러한 걱정스러운 一面이 있고 또 容共左傾勢力이 그

야말로 엄청나게 表出이 돼가지고 國民들이 宏壯히 걱정을 했던 一面도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改憲政局은 어떤 形態로든 잘 풀려야만 될거고 풀릴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展望을 해 봅니다.

그것은 저희 나라가 處해있는 여러 가지 與件이 88年에 平和的인 政府移讓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成就를 해야 하고 88年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開催를 해야 할 當面 課題가 있기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左傾容共 勢力만 하더라도 지금 까지 우리가 學生들에 대한 寬容的인 視覺 다시 말해서 學生들이 지금까지 부르짖던 겉으로의 口號나 主張이 自由民主主義에 正反對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봐왔지만 事實은 金日成의 路線을 걷고 있다는 明確한 態度가 表出된 以上 더 以上의 寬容이나 包容만 갖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全體 國民들의 意思고 또 政府의 意志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左傾容共 勢力도 이제 拔本하는 作業이 始作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國民들께서 念慮를 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與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歷史的으로 큰 記錄이 될만한 業績을 86年에 세우게 됐다, 하는 것은 모든 國民들께서 各己 自己 맡은 分野에 最善을 다하고 여러 해 동안 政府와 國民이 함께 努力을 해온 보람이 今年에 다 表出이 된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더해서 3低現象이라는 外的인 與件도 많이 作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忠淸南道의 境遇만 보더라도 每年 道政이 잘되고 있읍니다만은, 今年이야 말로 여러 가지 面에서 알찬 收穫을 거둔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全 國家的인 慶事이긴 합니다만 6年 連續豊年을 이룩했읍니다.

이것은 저희 忠淸南道가 農業에 關한 한 가장 先導的인 位置에 있기 때문에 우리 道가 더욱더 돋보이는 그러한 6年 連續豊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今年에는 저희 忠淸南道에 3個 市가 昇格이 되면서 道民들의 오랜 宿願이 解決이 됐고 公務員들의 士氣도 많이 振作이 됐읍니다.

그리고 大單位 農業 開發事業도 大湖池라든가 論山, 瑞山, 揷橋 등에서 活潑히 進

行이 됐고 또 農工團地 造成도 우리 忠淸南道가 그 어느 道에 비해서도 많이 더 活潑히 推進된 그런 한해입니다.

지금 公州는 이미 完了가 됐읍니다만, 天原, 天安, 燕岐, 錦山, 論山, 이쪽에 8個의 農工團地와 特別 農工地區가 推進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다 順調롭게 計劃이 確定이 되고 經濟企劃院에서 一部 資金도 나왔읍니다. 만은 이 農工團地만 다 造成이 되면 約 1萬 6千名 假量의 雇傭能力이 생기고 여기에서 所得이 한 400億원 假量이 될 것이라고 推算이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農村 收入에 宏壯히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以外 大單位 事業이라든가 公州大橋, 黃山大橋 등의 事業도 蹉跌없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苦楚를 겪고 있던 大田 再整備 計劃도 確定이 돼서, 勿論 아직 開發에 本格的인 着手는 안됐읍니다만은, 앞으로 本格的인 開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新灘津에는 34萬坪의 第3工團이 計劃 確定이 돼서 이것도 새해에 着手가 되면 不足한 工團 利用率이 많이 改善될 것으로 이렇게 展望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面에서 成果를 거두었는데 특히 體育分野에서는 정말 여기 앉아계신 代議員 여러분을 包含해서 體育人들, 그리고 指導敎師 크게는 300萬 道民의 聲援을 입어서 알찬 收穫을 거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少年體典에서 우리가 昨年에 7位했던 것을 今年에 3位로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全國體典에서는 좀 遺憾스럽지만은 再昨年에 3位, 昨年에 4位, 今年에 5位, 한 等級씩 내려갔읍니다.

今年에는 事實上 아시안게임에 代表選手가 많이 選拔이 됐기 때문에 特히 우리 忠南이 더 많은 選手를 뺏겼기 때문에 損害를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全國體典에서 우리가 成績이 上位圈에 못 갔지만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그것을 挽回하고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204名의 選手가 93個의 金메달을 땄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忠南出身 選手가 33個, 서울 出身이 28個, 京畿道가 27個, 全南이 27個 이렇게 해서 우리가 文字 그대로 으뜸 體育忠南을 誇示한 한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大韓體育會에서도 公式的으로 認定이 되어서 저와 事務局長이 感謝牌를 받아 왔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忠南은 그 동안 道勢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不拘하고 體育振興을 위해서 온 道民이 精誠을 쏟고 選手, 任員, 코치, 그리고 加盟團體長 여러분들께서 정말 情熱을 쏟았다는 것이 이번에 如實히 證明이 됐읍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千萬 서울出身 28個보다 300萬 道民 밖에 안갖고 있는 우리가 33個를 땄다는게 정말 括目할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건 "으뜸忠南 우리가 만들자"는 道政 口號는 캐치프레이지에 끝난 것이 아니고 實際 하나하나 實績으로 證明을 했고 實際 으뜸의 자리를 完全히 構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行政 公務員이 遂行하는 行政 實績만 보더라도 昨年과 再昨年에 賞을 휩쓸은 것을 잘아실 겁니다.

今年에도 現在 19個 事業이 審査가 完了가 됐는데 그 中에 9個가 1等이고 5個가 2等 또 3個가 3等입니다.

2個만 等外지 나머지는 다 入賞인데 上位圈입니다.

나머지 15個가 남았는데 15個중에 한 열個쯤 1等을 할 것으로 豫想을 하고 等外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道勢가 큰 다른 道에서 따라 오려 해도 忠南을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完全한 獨走를 하고 있는 그런 狀況에 있다고 저는 報告를 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忠淸南道가 정말 和合과 團結, 그리고 安定 속에서 모든 分野가 이렇게 括目할 만큼 發展이 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아까도 報告를 드렸읍니다만 加盟團體長 여러분들께서 直接 選手를 督勵하시고 訓練費를 調達을 하시고 몸과 마음과 그리고 經濟的으로 이 모든 것을 犧牲的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結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今年의 좋은 成果를 다시한번 吟味를 하면서 決算을 해 보았읍니다만, 來年度에는 體育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面에서 今年度보다도 더 여러 가지 일이 많고

複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政治的으로 보더래도 우리가 88年 平和的인 政府移讓을 위한 準備作業과 改憲政局 어쩌면 또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地方議會까지도 構成이 되야 되지않겠느냐,하는 展望이 서고 아울러서 北傀는 今年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金剛山 댐을 構築하는 등 더욱 더 88 올림픽을 妨害하기 위한 對南挑發이 極甚해질 것으로 豫想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걸 다 克服을 할 수 밖에는 없고 할 수 있는 底力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을 克服을 함으로서 우리가 挫折하지 않고 繼續 發展도 期約이 되고 그야말로 先進國에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問題가 있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問題를 어떻게 해서든 슬기롭게 克服을 하는 그러한 意志가 必要하다고 봅니다.

다아시는 얘기지만은 南美에 지금 外債로 허덕이는 여러 나라들이 50年代 後半부터 60年代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低開發國家 後進國 第一 끝에서 所得 80 $에 헤매일 때 그 사람들은 3千$線에 肉迫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요즘와서 거꾸로 外債不渡를 내고 다시 2千$臺로 後退를 하면서 그 2千$臺도 不確實하고 不安한 나라로서 陣痛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3千$時代 때의 國民들 意志나 政府의 開發方向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苦痛을 겪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成就한 經濟的인 成長이라든가 또는 來年度 여러가지 課業은 그야말로 남의 나라에서 밟은 前轍 이걸 밟지 말고, 後退함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發展을 할려면은 相當한 우리의 意志가 必要한 것입니다.

結局 이렇게 發展이 되고 어려움을 克服한 것도 모든 國民들이 우리가 處한 現位置를 正確하게 理解를 하시고 協調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段階的인 發展, 漸進的인 改善 다시말해서 安定과 和合을 害치지않는 그런 範圍內에서 相互競爭과 挑戰이 必要한 것이지 安定을 害치는 그러한 일은 如何한 境遇에도 容納이 안된다는 이러한 國民的인 共感帶가 있었기 때문에 86年度에 우리가 이런 成果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代議員님들께서는 事務局長이 앞으로 報告를 드리겠읍니다만, 今年度 우리

體育의 成果를 決算을 하시고, 來年度에 豫算案에 대한 審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付託을 덧붙여서 드린다면 그 동안 많은 有志들의 協調에 의해서 21億이라는 體育 基金이 지금 積立이 돼 있읍니다.

여기서 나오는 果實도 적지는 않읍니다마는 道에서 體育會 基金으로 支援하는 豫算이 그렇게 充分하지 못하기 때문에 加盟團體長 여러분들께서 例年과 다름 없이 來年에도 아마 後援團體와 더불어 選手 强化訓練費 調達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않나 또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會議를 始作하겠읍니다.

1986年末 大統領閣下 下賜品 傳達式

1986년 12월 24일

人　　事

바쁘신데도 各級 機關長님, 各級 教育機關에 계신 분들 이렇게 나와 주셔서感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各界 各層에서 苦生을 많이 하고 계시는 道民 여러분!

大統領閣下께서 年末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 아주 꿋꿋하게 自己主觀을 잘 確立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膳物을 주셨읍니다.

方今 여러분들이 입어 보셨읍니다만 全國的으로 約 12萬餘名에게 大統領閣下께서 下賜品을 주셨읍니다. 우리는 다함께 國家元首께서 家族처럼 대해 주시는 仔詳한 配慮에 優先感謝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年末이 되고 名節이 될 때마다 우리는 이웃에 어렵게 지내는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多少 餘裕있게 사는 분 또는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그 自體가 自由民主主義의 長點입니다. 하나의 多樣性이라고 할까요, 萬若 이것이 劃一的으로 먹고 입는 것이 똑같이 주어진다면 아마 人生은 아무런 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北韓 共產治下에서 約5年間을 살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共產主義體制 다시 말해서 所謂 말하는 公平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것인가를 經驗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北韓社會는 지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서 工夫하고 일을하는 過程, 그리고 職場을 갖는 過程이 自己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태어나며는 託兒所에 먼저 갑니다.

어린애가 託兒所에 가는 것은 어머니의 勞動力을 100% 活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學校를 가는데 勿論 工夫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 工夫도 自己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工業高等學校, 商業 또는 人文界 自己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國家에서 指定해 주는대로 工夫를 해야 되요. 工夫가 끝난 뒤에 일자리를 갖는 것도 全혀 自己 意思와 素質과는 關係없이 配當하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받는 賃金은 名目上 賃金일 뿐이지 決코 個人의 財產은 蓄積하거나 必要한 만큼의 賃金을 주는 것이 아네요, 代身에 잘먹든 못먹든 간에 一定한 量의 食糧配給과 옷과, 그리고 合宿所와 같은 그런 共同宿舍를 提供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衣食住를 所謂 自己네들 國家에서 해 주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雜穀 7割에 쌀 3割 그리고 배가 고파서 못견딜 程度의 量만을 配給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物資는 政府에서 다가지고 必要할 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千500萬 北韓人民은 조금도 自由라든가 自己의 個人生活을 營爲하는 이러한 餘裕가 없이 살아가는게 北韓의 現實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에 좀 잘사는 사람이 있고 내 處地가 좀 못산다 하더라도 나만 熱心히 일을하고 또 計劃을 잘 세워서 着實하게 努力을 하면 잘살 수 있다는 希望을 갖는 社會하고 이건 아무리 내가 努力을 해도 별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또 남보다 熱心히 일을해도 아무런 希望이 없이 똑같은 方法으로 平生을 살아야 하는 社會를 놓고 한번 比較를 할 때 어떤 것이 더 사람이 살만한 社會입니까? 이 答은 自明한 것입니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 社會가 그러한 機會均等과 個人의 能力에 의해서 發展할 수 있는 機會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現實的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고 또 不遇한 사람이 많을 때에는 우리 서로가 도와서 그 不遇한 處地에 多少나마 도움을 주는 그런 人情을 베푸는것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膳物은 國家 元首께서 우리 社會가 지금 2千$에서 3千$臺로 發展하는 아주 飛躍的인 發展을 하는 國家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問題가 다 解決이 되지 않고 解決過程에 있기 때문에 우리 周邊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意志를 가지고 꿋꿋하게 사는 분들께 希望과 勇氣를 주기 위한 이런 膳物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여러분에게 이 機會에 付託을 드린다면 이제 말씀드린대로 어떤 삶을 살아 가는

데 있어서 남의 도움만 가지고 산다는 것 같이 無意味한 것은 없읍니다.

나는 雪嶽山을 요전에 같다 왔는데 雪嶽山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큼직한 봉우리를 올라 갔다 와서 느낀 것은 그저 雪嶽山 봉우리에 내가 갔다 왔다 하는 것이지 그 山을 올라 征服을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왜 그러냐 機械의 힘에 의해서 땀한방울 안 흘리고 걸음 한발짝 안 걷고 올라 갔다 이거예요.

돈만 그저 몇 百원 내고서 갔다 왔으니 그것은 登山의 意味에서 보면 아무 價値가 없는 것이죠.

險한 길을 딛고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아픈다리를 쉬어 가면서 그러면서 高地 하나 하나를 더듬어서 정상을 올라갔을 때에는 그 頂上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그 喜悅, 自己 自身이 成就한 그 기쁨, 이것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多少 比較的으로 볼 때 有福한 處地가못되고 넉넉치 못하며, 여러분과 같이 낮에 일하고 밤에 工夫하는 學生이라든가, 또는 家庭을 가지고 남의 일을 도와주는 派出生活을 하는 분 이라든가 또는 國民의 生命, 財產을 保護하는 警察을 補助하는 防犯業務를 擔當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아주 많은 努力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그런 어려운 分野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야 말로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고 어려운 環境 속에 계신 분들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現實에 대한 不滿이나 不平이나 挫折感을 갖는다면 조금도 發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世上에는 좋은 家庭에서 태어나서 自己의 努力이 아니고 父母의 遺產을 가지고 잘사는 사람도있고, 또는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自己의 努力에 의해서 成功을 해서 잘사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나는 可及的이면 사람이 後者의 境遇 즉, 自己의 힘으로 努力을 해서 잘 사는 사람 편에 더 拍手를 치고싶고 그것이 참 人生의 價値를 맛보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後者의 境遇 스스로 努力을 해서 成就를 해야 하는 立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牛先 周邊에 어떤 狀況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워논 計劃에 전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을하나 짓더라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建物이 되는 것이지 當場 하루아침에 큰 建物이 誕生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組立式 建物이라 해가지고 그건 아무 價値도 없는 建物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成就를 해야 할 課程은 한段階 한段階 올라가서 成就를 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루어 지

는 것이 하나도 없다.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도 쉬지 말고 서둘지 말고 꾸준하게 努力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여러분이 努力을 하는 그러한 與件 속에서 마음의 姿勢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한가지만 제가 付託을 드린다면 언제나 밝은 마음과 분수에 산다는 그리고 順理에 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付託 을 드립니다.

"내가 現在는 多少 滿足치 못한 處地지만 이렇게 이렇게 努力을 하고 이렇게 工夫를 하고 이렇게 貯蓄을 하고 나가면 몇年 後에는 나는 이런 일을 成就할 것이다." 이 얼마나 勇氣좋은 일입니까?

恒常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일도 잘되고 工夫도 잘되는 것이지 "나는 왜 남같이 富者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遺産도 없고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렇게 自己 自身을 悲觀하거나 現實에 대해서 挫折感만을 갖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工夫를 해도 재미가 없고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人生이라면 그건 아무 價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來日의 希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恒常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工夫도 더 잘되고 雜念도 안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서서 지금 얘기하는 道知事도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處地에서 苦生도 해 봤고 저밑바닥부터 努力을 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

나는 여러분의 處地를 그 누구보다도 몸소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理解가 갑니다.

한가지 내가 例를 든다면 내가 52年度에 軍隊 除隊를 하고 나와서 職場을 잡기 위해 돌아 다니는데 그때 職場이 없어요 工場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을때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나이는 젊고 그렇지만 쓸모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대로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職場을 찾아 다니는데 하루는 내가 仁川을 갔어요. 仁川에 왜 갔느냐면 내가 거기서 國民學校 先生을 조금 했어요. 6.25날때까지 그래서 學校에 다시 復職을 해서 先生노릇을 다시 해 볼까 해서 내가 仁川을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配定을 못받고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 오는데 주머니에 내가 손을 넣어 보니까 旅費가 다 떨어졌어요. 仁川에 아는 사람도 없었읍니다. 그때 나의 目的地는 바로 이 忠南 公州郡 維鳩面이었읍니다. 거기에 내 親戚중의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는 길이었죠.

仁川에서 나오면 水原가는 길하고 서울가는 길하고 갈림길이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下宿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그만 旅館들도 있었고 돈은 없었지만 날은 저물었고 거기 하룻

밤을 자는데 하룻밤 자는 宿泊費하고 食費 두끼 먹는 것에 折半 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게 없었어요. 그래도 들어가서 자는데 그 下宿집에 여러 사람이 있었읍니다. 내가그 主人 아주머니를 불러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게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만 받고 나를 하룻밤 재워 주쇼, 애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 그러러면 밥을 한끼 밖에 못 드시는데 한끼 밥을 두번에 나누어 줄까 아니면 한끼먹고 말겠느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아주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애기를 했어요, 그리고 있었더니 조금 있다 아랫목에 누워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主人 아주머니를 불러요, "여기 밥 두상하고 담배 두갑하고 소주 한甁 주쇼"하고 注文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사람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一行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旅費가 半밖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 自己는 좀餘裕가 있었는지 밥을 시켜서 밥을 나하고 같이 먹자고 그래요. "兄氏! 客地에 나오면 사람이 돈이 떨어지는 境遇도 있는데 그 相關없소 내가 지금 좀 餘裕가 있으니까 같이 밥먹읍시다"

그래서 내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술 한잔도 따라서 먹고 담배도 한갑 얻었읍니다. 그때 내가 두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것 참 내가 거지와 같은 身世가 아니냐, 하룻밤 잘 돈도 없어서 남한테 밥얻어 먹고 담배 얻어 피고 이게 乞人이나 다름없다" 하는 생각이 한쪽으로 들고 또 한쪽은 "亦是 젊었을 때의 苦生은 사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비록 지금 밥 한그릇 담배 한가치를 얻어 피는 處地지만 내가 熱心히 앞으로 일을 해서 充分히 나는 내가 自立할 수가 있다.

挫折하지 말고 이런 環境을 조금도 悲觀하지 말고 熱心히 살아서 이렇게 고맙게 해주는 분을 위해서 내가 熱心히 살아야 겠다"하는 굳은 決心을 했어요. 그때 그분의 住所를 적어 놨는데 京幾道 華城郡 사람인데 내가 治安本部長할 때 찾아 보려다 못찾았어요. 朴무슨 서인데 가운데 字는 내가 잃어 버렸어요. 그 때 그 분이 왜 거기서 잤느냐하면 當時 그 사람이 警察學校 試驗을 쳐서 京幾道 警察學校에 合格通知書를 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不合格 됐다면서 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가지고 갔던 거 이불 가지고 갔던 거 全部 걸머지고서 京幾道 忽城 水原으로 오는 길에 그 下宿집에서 자게 됐던 것인데 사람이 아주 融通性있고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나하고 그날 먹으면서 쭉 애기를 했어요.

하면서 하는 애기가 "兄氏! 그 얼굴 보니까 꽤 똑똑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旅費도

한푼 없느냐 ?" 그래요. 그래서 내가 外形은 뭐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내 處地는 지금 故鄕이 以北이고 이렇게 避難나와서 軍隊生活하고 나왔는데 就職이 안되니까 별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내가 努力을 해서 잘 살겠다" 하니까 그 분이 自己 집엘 가자고 그래요. 自己 집이 農事해서 먹고 살만 하니까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것은 辭讓을 했어요. "내가 身世를 지더라도 그렇게 100% 막 질 수야 없지 않느냐, 아무리 내가 現在 處地가 어렵더라도 내 手足이 멀쩡하고 精神이 살아 있는 한 나는 내 손으로 한번 自立을 해보겠다. 내가 自立을 하면 當身을 찾아가겠읍니다" 하고는 住所를 한번 적어 주십사 해서 住所를 적었단 말예요. 그 후에 나는 警察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警察에서 第1 높은 治安本部長이 되었고 그때 그분 생각이 문득 나서 "이분을 꼭 찾아 보고 그 때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水原警察署長 華城 警察署長한테 付託을 해가지고 찾아 보았지만 結局은 찾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身世를 못 갚고 말았는데, 내가 그러한 經路를 겪으면서 오늘에 있는것은 뭐냐 조금도 挫折하지 않았어요, 恒常 내가 마음을 밝게 가지고 그리고 正義롭게 살았어요. 그 代身에 꼭 實踐에 옮긴것은 남보다 내가 努力을 많이 했어요. 남이 劇場구경갈때 册보고 남이 술 한잔 먹을 때 册보고 남이 옷 사 입을 때 나는 헌옷 입고 남이 택시 타고 가면 나는 버스타거나 걸어갔고 節約하고 機會만 있으면 恒常 工夫했어요. 왜 工夫를 했느냐? 競爭社會이기 때문에 언제나 昇進試驗 같은게 있을 것을 對備해서 미리미리 工夫를 안해 두면 내가 언제 工夫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언제나 工夫를 熱心히 했기 때문에 昇進試驗이 있을 때마다 合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階級이 空狀히 빨리 올라 갔어요. 그래서 내가 巡警에서부터 12年만에 總警이 됐어요.

그때 나하고 같이 出發한 사람은 巡警 그대로 있었어요.

册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差異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努力을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差異가 그렇게 큰 겁니다.

내가 뭐 天才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努力을 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夜間學校에 다니는 學生들이 많이 있는데, 結局은 어떤 處地에 있느냐가 問題가 아니고, 얼마 만큼 마음의 姿勢를 바로 가지고 努力을 하느냐에 따라서 發展할 수 있고 發展 못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도 現在의 處地를 悲觀하거나 不平을 하거나 그럴 必要 없어요. 不平을 한다고 現在 處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悲觀한다고 누가 當場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悲觀하고 不平하면 그만 만큼 마음만 상하고 오히려 精神的으로 健康만 나빠지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도움 되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恒常 밝은 마음을 가져요. 來日에 대한 希望을 가지고 그 成就를 위해서 남달리 努力을 繼續하되, 그러면서 너무 꿈을 크게 가지면 안돼요. 그저 現實에 滿足하면서 한발자국만 더 가자 이렇게 해야 白頭山 꼭대기도 갈 수 있는 것이지 當場 白頭山 꼭대기만 바라 보면 그거 숨차서 못 올라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한階段 올라 가고 또 한階段 올라 가야지 當場 열階段 뛰어 올라 가야 겠다. 하면 그건 못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하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付託하는 것은 大統領閣下께서 이렇게 配慮하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周邊에 있는 분들이 많이는 못 도와 주더라도 여러분의 處地는 理解를 하고 恒常 마음으로 聲援을 보내 주고 있다는 것을 크게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 世上을 살아가야 여러분 앞으로 큰 成功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今年 한해 여러분이 計劃했던거 이제 一週日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 지시고 87年에는 보다 더 希望을 갖는 그리고 아주 熱心히 사는 이러한 새해가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 家庭에 萬福이 깃들길 바라고 大統領閣下의 下賜品을 傳達하면서 大統領閣下 께서도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심시오.

'86 下半期 停年退任式

1986년 12월 26일

致　　辭

오늘 丙寅年의 마지막 週입니다.

며칠 안있으면 한 해가 또 바뀌는 歲暮에 우리와 같이 同苦同樂을 하면서 이 地域 社會發展과 國家 發展에 寄與한 同僚 네분과 停年이라는 榮光스러운 자리에서 惜別을 나누게 되었읍니다.

略歷 紹介에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羅 利柱 同志, 李 五建 同志, 宋 必永 同志, 崔 相鉉 同志 이 네분은 길게는 38年間, 또 좀 덜 길게는 17 年間 어떻게 보면 本人의 生에 좋은 時節이랄까 情熱이 있는 時間을 全部 이 地域 社會 發展과 나라의 發展을 위해서 奉職을 하시고 여기 이렇게 停年退任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停年 退任式을 가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優先 여기 主人公들인 네분은 一次的으로 人生으로서는 一但 成功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眞心으로 祝賀를 합니다.

事實上 우리가 解放後 지금까지 40餘年間 나라를 지키고 發展시켜 오는 過程이 順坦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停年으로 公務員을 끝내는 분이 그 많은 同僚 가운데 그리 많지가 않았읍니다.

最近에 와서야 우리 國家가 여러 가지 面에서 發展을 하고 安定期에 접어들면서 停年退職을 하는 同僚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말 다함께 慶賀를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過去에 우리 많은 同僚들이 停年이라는 榮光을 안지 못하고 中間에 公職을 그만두고 나갔읍니다만, 그 同志들도 크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크게 일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激動期가 하도 많았고 變化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公務員을 하는 過程에서 他意, 自意에 의해서 中間에 公職을 그만두고 나가는 同志가 너무나 많았읍니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여기 오늘의 主人公 네분은 정말 보람있고 또 榮光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읍니다.

勿論 오늘의 榮光을 처지하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네분이 다 오늘 略歷紹介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一般 平凡한 行政職과는 달리 全部가 硏究士, 또는 敎官, 이런 專門分野 아니면 남이 하기 어려운 孤獨한 이러한 職責을 오래 堪當을 하시면서 일해 왔읍니다.

또한 이 분들이 그 동안에 華麗한 經歷 여러가지 職責 또 여러 地域을 다니면서 우리 忠南發展을 위해서 各己 工夫하신 專門知識을 最大限으로 活用해서 奉職을 했읍니다.

어떻네 보면 우리 오늘의 "으뜸 충남"에는 바로 여기에 네 同志가 心血을 기울여서 쌓은 벽돌장이 제일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어딜 가나 同僚, 部下, 上司로 부터 信任과 尊敬을 받으면서 誠實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榮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그마한 感謝牌를 드렸지만 오늘 그러한 主人公이 誕生되기까지는 本人의 誠實은 勿論이었지만 옆에 앉아 계신 令夫人들께서, 그리고 家族들께서 本人 못지 않은 努力과 誠意를 다해서 補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榮光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令夫人과 家族 여러분에게도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네분은 이제 一旦 公職은 떠나게 됩니다. 定해진 時間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간 硏究하고 또 가르치고, 이러한 職責을 맡으면서 쌓아 올린 그 발자국은 永遠히 남을 것이고, 또 이것을 이어받은 여러분의 後輩들이 繼續 벽돌 하나 하나를 쌓으면서 작게는 忠南地域 發展 크게는 國家發展에 繼續 脈을 이어서 갈 것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永遠히 存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읍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無慮 38年間 작게는 17年間貢獻한 地域이기 때문에 한번쯤 이제 過去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過去에 있던 자리, 地域, 그리고여러분이 心血를 기울여서 남겨 놓은 業績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이제 다시 한번 再吟味를 해 보면서 忠南의 구석 구석을 다닐수 있는 餘裕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꼭 그

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36年 前 本人이 勤務하면서 어떤일을 해 놓은 자국이 오늘에 와서 크게 發展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停年으로 退任했다는 것 보다는 本人의 脈博이 살아 숨쉬고 있는 터전에서 느끼는 感懷가 더한層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남아있는 同僚들은 바로 여러분이 쌓아올린 業績, 功績을 조금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繼續 努力을 하고 또 努力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過去에 우리 先輩들이 努力을 한 그 結果로 오늘의 繁榮이 있듯이 바로 우리가 더 繁榮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쌓아올린 功에다 現在 남아 있는 우리들 또 앞으로 우리 後輩들이 繼續的인 努力을 기울일 때 우리 後代에게 아주 멋진 이 地域을 물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더라도 永遠한 忠南道廳 同僚로서 繼續 現職을 잘 鞭撻해 주시고 聲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個人的으로는 停年이라는 이름 自體가 "뭔가 늙었지 않았느냐! 人生이 거의 마무리가 된게 아니냐!" 하는 錯覺을 하기가 쉬운데 이 停年이라는 것은 公職者로서 여러 가지 人事의 순환 또는 後輩들의 公職 就業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事實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能力이나 健康을 봐서는 앞으로도 또 한번의 停年을 맞아도 充分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程度로 좋습니다.

이 停年이 人生을 마무리짓는게 아니라 이제 第2의 人生을 始作하는 하나의 出發點이라 생각을 하시고 公職生活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전혀 못했을 거에요.

家族을 위해서 婦人을 위해서 무언가 베풀고 싶었던 것도 많이 있었을거고 또 本人이 公職 以外의 다른 分野에 대한 關心이나 하고 싶었던 欲望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第2의 人生은 이미 子女도 成長을 했을 것이고 때문에 그 동안 多情하게 잡아 보지도 못했던 婦人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적게는 忠南의 구석 구석을 다녀 보시고 大韓民國 全體를 돌아 보시면서 여러분이 公職으로 바빠서 못했던일, 여러가지 構想했던일, 하고싶었던 일을 이제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아직도 健康과 情熱이 있기 때문에 꼭 지금과 같은 業務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分野에서든 나라와, 그리고 民族, 여러분의 同僚들을 위해서 할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또 사람은 일을 안하면 정말 빨리 늙기가 쉽습니다.

리듬이 깨지면 病도 나기가 쉬워요 하니까 健康을 위해서도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해왔던 公職生活과 비슷한 生活을 繼續하시고 그 情熱을 조금도 식히지 말고 第2의 人生을 잘 構想해서 公職에 있을때 보다 더 값진 人生을 살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現職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 더욱 더 기쁘고 반갑고 더 보람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業績이 길이 남을 겁니다.

다시한번 榮光스런 자리를 祝賀드리고 家族에게도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면서 또 때가 年末이기 때문에 今年度 마무리 잘 지시고 丁卯年에는 여러분 家庭에 健康과 萬福이 담뿍하기를 빌면서 제 惜別의 人事를 끝내겠읍니다.

感謝합니다.

溫陽 室內水泳場 竣工式

1986년 12월 27일

祝　　辭

오늘 觀光의 名所로 이름난 이곳 溫陽에서 國內體育界의 關心과 耳目이 모아진 가운데 溫陽 室內水泳場의 竣工式을 갖게 된 것을 300萬 道民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溫陽 水泳場이 우리 고장에 建立되기까지 아낌없는 配慮와 指導를 아끼지 않으신 李世基 體育部長官님과 金宗河 大韓體育會 會長님, 이 고장 出身 國會議員님, 그리고 모든 後援人士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 水泳界와 體育人들의 期待 속에 竣工을 보게 되는 室內 水泳場은 國內에서는 처음으로 溫泉水를 利用한 國際規模의 施設로서 競泳, 다이빙, 水球 등 水泳과 關係되는 모든 競技를 할 수 있는 地方에 施設된 最初의 綜合 水泳場이라는 큰 意味가 있다고 봅니다.

이 새로운 水泳場에서는 冬節期는 勿論 年中 언제라도 利用이 可能한 施設이며, 또한 이 地方 特有의 溫泉水를 利用함으로써 우리의 健康 增進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는 室內水泳場이라는 點에서 더욱 우리에 期待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水泳은 우리의 고른 身體發達을 圖謀하고 餘暇를 즐기는 運動으로서 요즈음 가장 빠른 速度로 水泳人口의 擴大趨勢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韓國의 水泳이 比較的 世界水準에 比하여 뒤지고 있어서 우리의 奮發과 精進을 要請받고 있는 이때 이와 같은 室內水泳場의 竣工은 韓國 水泳 發展에 劃期

的인 디딤돌이 되고 水泳人口의 底邊擴大에도 큰 契機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 이 室內水泳場 竣工을 契機로 우리 올림픽 꿈나무들이 이같은 좋은 施設에서 마음껏 技倆을 쌓아서 다가오는 88 올림픽에서는 많은 메달을 獲得하여 祖國의 名譽를 한껏 드높이고 體育 韓國의 대들보役割을 다하여 주게 될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기쁜 竣工이 있기까지 工事에 心血을 기울여 주신 施工者와 關係人士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며 溫陽 室內水泳場 竣工을 道民과 더불어 歡迎하고 기뻐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6년 12월 31일

式 辭

多事多難했던 丙寅年 오늘로 이제 마감을 짓게 됐읍니다.

지난 一年 동안을 回顧해 보면 먼저 世界的으로 큰 事件 事故들이 많았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美國의 宇宙船 챌린저號가 爆發이 돼서 人類에게 큰 衝擊을 주었고 또 蘇聯의 체르노빌 原電 事故가 發生하여 核에 대한 恐怖랄까 危險性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도 했읍니다.

또한 南美의 엘살바도르에서 큰 地震이 났고 火山爆發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相當히 많은 人命被害를 냈고 그런가하면 아프리카 大陸에서는 旱魃이 甚해서 千萬에 가까운 人命이 餓死하는 그러한 苦痛을 갖는 등 災害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란과 이라크가 6年째 아주 끝없는 戰爭을 繼續하고 있고 그 以外에 世界 곳곳에서도 여러 가지 紛爭과 테러 이런 것이 잇달아 일어남으로써 自由 愛護人들의 忿怒와 慨嘆을 산 바가 있읍니다.

우리 國內的으로 보면 바로 우리 忠淸南道 天原管內에 있던 獨立紀念館에 不意의 火災事故가 일어남으로써 國民들에게 큰 걱정을 끼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颱風이라든가 하는 災害가 있었지만 6年 連續 豊年農事라는 이것도 檀君以來 처음 創造한 神話를 이룩했고 또 政治, 經濟的으로 큰 發展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月 5日부터 約 3週間에 걸쳐서 全斗煥 大統領閣下께서 美國, 불란서, 西獨 그리고 벨기에 등 유럽 4個國을 巡訪을 하시고 修交 2世紀를 맞는 西歐 諸國家에 同伴者

的 協力關係를 한層 確固히 하므로써 韓國의 國際的인 地位를 크게 向上을 지키신 바 있읍니다.

다음에 憲政史上 처음으로 平和的 政府 移讓을 公約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政治的인 發展을 위한 合議改憲의 斷案을 내리셨는가 하면 地方自治制 實施方案도 確定을 해서 發表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므로써, 아직까지는 큰 進展을 못 봤지만, 國民의 輿望 속에 合議改憲과 아울러 民主化 日程이 순조롭게 進行이 되고 있읍니다.

今年에 國政成果를 우리가 크게 두가지로 마무리를 해본다면 첫째, 아시아 競技大會의 成功的인 完遂입니다. 이것은 北傀의 끊임없는 妨害策動에도 不拘하고 30億 아시아人의 祝祭를 우리가 成功的으로 完遂를 해서 우리 國民의 力量을 全世界人에게 誇示를 하고 88 올림픽 開催에 自信感을 갖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스포츠史上 처음으로 우리가 想像도 못했던 日本을 앞지르고 10億이 넘는 中共과 어깨를 겨누면서 金메달 1個 差異로 2位로 浮上을 하므로써 우리가 모든 分野에서 世界 頂上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 하는 하나의 可能性을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큰 得을 얻은 것이라면 역시 經濟發展입니다. 흔히 우리가 3低時代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經濟的인 好機를 잘 活用을 해서 우리는 歷史上 크게 記錄될만한 이러한 經濟的 成果를 거둔 바가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物價는 都賣物價가 마이너스가 될 程度로 安定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經濟의 가장 어려운 根幹인 物價를 잡아 나가면서 한 편으로 先進國들의 保護貿易 政策과 開放壓力이 심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 輸出이 昨年에 비해서 무려 30%나 增加를 했읍니다.

그래서 經濟成長率은 85年度에 5%程度 밖에 못한 것을 今年에는 12.3% 이것은 아주 驚異的인 成長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國際收支가 처음으로 無慮 50億이라는 黑字를 記錄한 것도 정말 우리 歷史上 처음있는 일이며 우리 經濟에 가장 큰 問題인 外債가 每年 늘어나기만 하였는데 처음으로 14億$인가를 갚아서 435億$로 純外債가 減少가 되는 驚異的인 成果를 거두게 됐읍니다.

아울러서 國民 貯蓄率이 總投資率을 앞질러서 32～33%를 自立成長의 基盤을 만들기도 했읍니다.

한마디로 今年은 우리 나라가 中進國에서 先進國 隊列로 발돋음을 할 수 있는 土臺를 完璧하게 構築한 한해다 라고 할 수 있읍니다. 地方的으로 우리 忠南의 境遇만 보더라도

忠淸南道는 道政에서 今年도 그 어느 해 못지 않게 큰 발자취를 남긴 한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月 1日字로 公州, 大川, 溫陽, 3個市가 昇格이 되어 地域的인 여러 均衡發展 面에 있어서 기틀을 잡게 됐고 公務員들의 士氣도 振作이 됐읍니다. 아울러서 大田 都市再政備計劃이 確定이 되고 大德硏究團地造成 事業도 順調롭게 進行이 되고 있읍니다. 中部高速道路의 擴張建設 事業도 87年 來年 새해末이면 竣工이 돼서 大田圈과의 連繫가 이제 몇時間圈內로 접어드는 그러한 時期가 올 것이며 公州, 黃山 두 大橋가 마무리를 거의 저가고 있고 農工團地造成은 劃期的으로 우리 忠淸南道가 많이 造成을 해서 그야말로 農村에 農外所得의 基盤을 確固히 다지는 그러한 한해였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計劃했던 한밭圖書館도 順調롭게 建築이 돼 가고 있고 瑞山 AB 地區를 비롯한 大單位 農業綜合開發事業도 順調롭게 잘 推進이 되고 있읍니다.

6年 連續 豊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忠淸南道야말로 6年 連續 豊年에 가장 先導的인 役割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今年度에도 農政에 있어서 綜合大賞을 한번 바라다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늘 關心을 가지고 道民들의 協調下에 推進하고 있는 全國單位 評價 事業은 今年 3年째 모든 賞을 휩쓸고 있는 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3個 가운데 23個가 끝이 났는데 그중에 20個 部門을 우리가 賞을 타고 3個部門 만이 等外라 하는 것만 보아도 엄청난 賞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 內容을 보더라도 11個가 最優秀, 어느道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야말로 으뜸의 자리를 確固히 굳힌 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今年에 우리가 두가지 示範道로 指定을 받았읍니다. 하나는 自律行政示範, 그리고 金宗鎬 長官께서 赴任하셔서 하나의 哲學으로 提示한 爲民行政에 있어서도 "우리道의 爲民室을 示範的으로 運營을 해보라" 이렇게 指定을 받았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忠淸南道의 底力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實績이 뒷받침이 돼서 指定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成果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1萬7千 道傘下 公務員들의 團結과 和合을 바탕으로 한 끈질긴 業務推進과 아울러서 300萬 道民의 聲援의 結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分野든 게을리 한다면 이런 좋은 成果는 날 수가 없읍니다. 맡은 分野에서 各自가 自己 責任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總體的으로 좋은 結果로 나타났읍니다.

아시안게임에 우리가 좋은 成果를 거뒀듯이 우리 忠南道政도 모든 分野에 맡은 일을 그야말로 하나도 漏水없이 處理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結果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의 勞苦를 다시 한번 致賀합니다.

今年에 國家發展에 新紀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룩을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밝아 오는 새해는 이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한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아다시피 새해는 두가지의 큰 國家的인 政治行事, 國際行事를 完璧하게 準備를 해야 하는 해입니다.

平和的인 政府移讓을 위한 여러 가지 政治行事가 많을 것으로, 豫想이 되고 또 88서울올림픽을 우리가 치루기 위한 마지막 準備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複雜한 政治的인 行事가 많이 豫想이 되니까 國民들의 여러 가지 意識도 들떠 있는 것이 事實이고 때문에 來年度에는 보다 더 우리 行政力이 求心點이 돼서 흔들림없이 和合과 安定을 絕對 해치지 않는 이러한 바탕 위에 이 두가지의 큰 行事에 挑戰을 해오고 妨害가 될 수 있는 北傀挑發 策略, 그리고 國內의 挑發勢力 이런 것을 다 制御해 가면서 完璧한 準備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時間만 있으면 丙寅年도 完全히 저물고 希望찬 丁卯年이 밝아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해를 보내면서 後悔없이 일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人生은 完決이 없읍니다. 언제나 未決로 사는 것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公的으로나 私的으로 未盡한 것 勿論 다 解決은 안되겠지만 마음 속으로라도 잘 整理를 하고 새해 丁卯年에 보다 더 나은 公職生活, 보다 더 나은 私生活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잘 가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햇동안 苦生많이 했고 많이 도와 주셔서 感謝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이 丙寅年 몇 時間 안남았지만 정말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여러분 福많이 받고 여러분 家庭에 幸運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送年辭에 가름합니다.

1986년 12월 31일

送　年　辭

丙寅年이 저무는 이 歲暮에 여러분의 家庭에 보람과 榮光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참으로 試鍊과 激浪이 우리 앞에 가로 놓였지만, 우리 모두의 슬기와 忍耐, 그리고 底力으로 이를 克服하고 끝내는 前進과 成就의 金字塔을 세운 한해였읍니다.

우리는 北韓共產集團의 끊임없는 挑發 속에서도 아시안게임의 成功, 黑字元年과 自體投資時代, 그리고 6年連續 豊年을 이룩한 바 있읍니다.

우리 "으뜸忠南"의 道政에 있어서도 公州 등 3個市의 昇格과 갖가지 地域開發事業과 道民 所得向上, 鄕土文化의 振興 등을 바탕으로 全國 市·道 行政에서 3年 連續 으뜸을 차지한 것을 道民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이 모두 道民 여러분의 參與와 精進, 그리고 團結과 和合의 값진 結實로서 땀흘려 일해 주신 한해 동안의 勞苦에 對하여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무는 세밑에는 家庭에 多福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情을 나누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7년 1월 1일

新 年 辭

親愛하는 道民 여러분!

希望찬 丁卯年의 새해 아침이 밝았읍니다.

本人은 먼저 300萬 道民 여러분의 家庭마다 萬福이 넘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새로운 意慾으로 가득찬 이 새 아침에 本人은 300萬 道民과 으뜸 道政에 더욱 邁進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今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年代의 마무리를 2～3年 앞둔 해로서 北傀의 排發을 粉碎하면서 88올림픽 準備의 마무리와 3千$ 時代를 向한 道民의 多樣한 慾求充足에 最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莫重한 課題 앞에서 우리의 道政은 國民福祉 綜合施行에 따른 地方的 뒷받침과 農·漁村의 生活水準向上을 위한 重點施策, 그리고 88年 서울올림픽 準備에 內實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우리의 새해 抱負가 活氣차게 推進될 수 있도록 道民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聲援을 期待하여 마지않습니다.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를 所願成就하시고 道民 여러분의 健康과 幸運이 깃드시기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1987년 1월 5일

離 任 辭

會者定離라는 얘기가 萬古의 眞理이기 때문에 역시 安應模도 언제인가는 떠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作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가 2年 9個月前 이 자리에 서서 就任辭를 하면서 우리 熱心히 일을 해보자 하고 으뜸忠南 道政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여러분에게 많은 知慧를 提供해 줄 것을 付託을 하면서 다함께 될 것을 다짐을 한 바가 있읍니다.

2年 9個月이 지나고 이제 떠나는 이 자리에서 回顧를 해 보면 정말 말대로 한번 뛰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分明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정말 無限한 底力과, 그리고 가장 뛰어난 推進力을 가진 우리 忠南 公務員 同志라고 나는 確信합니다.

왜냐 하면 地方行政에 門外漢인 내가 赴任을 한 後에 여러분들이 높은 知慧와 經綸을 나한테 提供을 안해주고 또 定해진 道政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誠實히 遂行하지 않았던들 이 3年間 勤務하는 동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成果를 거둘 수가 어떻게 있었겠으며 정말 우리가 期待한만큼의 "으뜸忠南"의 位置를 차지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긴 얘기를 않고 여러분이 眞心으로 나를 도와준데 대해서 우리 地方行政 公務員, 그리고 이 地域을 安定 속에 우리가 行政을 하도록 도와준 治安行政 分野의 警察官公務員 同志들에게 다함께 感謝를 드리고 아울러서 3百萬 道民, 그리고 言論, 各級機關의 隔意없는 協調에 이 자리를 빌어서 感謝를 드리고자 합니다.

울어야 좋을지 웃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웃는 것을 우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요.

또 하나 생각을 해 보면 얼마나 뛰었느냐? 勿論 記錄을 나의 出張回數나 距離 여러 가지가 다 統計로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統計가 必要없이 어쨌든 忠南 구석구석을 道路가 있는데는 거의다 누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 行事는 어떤 행사든 내 時間이 자라는데 까지는 參席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以外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分野別로 檢討를 해서 좋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 할려고 慾心을 부린 것도 事實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情熱과 모든 努力을 아낌없이 쏟아 넣었다. 그래서 나는 後悔없이 뛰고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步調를 맞춰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苦生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感謝를 드립니다.

어차피 人生이 有限하고 公職은 더군다나 有限합니다.

道知事의 자리로서 2年 9個月 참으로 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代로 내가 就任을 했는데 나보다 더 오랜 期間을 在任하신 분이 두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銅메달을 땄읍니다.

여러분이 뛰어준 3年間의 忠南行政의 治績은 金메달을 땄는데 道知事의 在任은 銅메달입니다.

이 銅메달은 엄청나게 긴 期間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보람도 많이 느꼈읍니다만 그러나 2年 9個月 동안 努力했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았고 아쉬운 것이 더 많이 있읍니다.

나의 生活哲學이 그렇듯이,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룩할 수는 없으며, 歷史는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의 힘이나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벽돌 한장을 쌓는 그 精誠으로 忠南道政을 하고 떠납니다.

내가 쌓아놓은 한장의 벽돌 한장의 벽돌, 이것을 여러분이 所重하게 간직을 하고 이어서 繼續 쌓아 주기를 付託입니다.

정말 多幸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내 後任을 맡으실 韓陽洙 知事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고장 出身이요, 또 여러분과 같이 實務局長級을 거쳐서 副知事까지 歷任하신 정말 內務行政에서 가장 에리트의 한분입니다.

우리가 指向하고 있는 "으뜸 忠南" 이것은 有限하지 않습니다. 해도 해도 "으뜸忠南"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 韓知事를 모시고 또 熱心히 일을 해주시기를 付託을 드립니다.

87년 今年은 그 어느 해보다도 할일이 많고 複雜할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健康에도 留意하시면서 정말 일을 많이 해주시고 어느 市.道보다도 우리가 앞서가는 忠南의 名譽를 繼續 維持해 주실 것을 付託을 드리고 저는 떠나가겠읍니다.

多幸히 知事일을 끝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게 되어 또 새로운 곳에서 일을하게 됐읍니다. 榮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나 제가 맡은 일은 또 熱心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보였듯이 誠實과 忠誠心을 갖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熱心히 發展시켜 나가는데 渾身의 努力을 기울이겠읍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忠南은 잊을 수가 없읍니다.

내 公務員生活 34年 동안에 地方勤務가 오직 두번, 그것은 다 忠南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文子그대로 내 故鄕입니다.

탯줄을 끊지 않았을 뿐이지 내 故鄕이 틀림이 없고 그래서 언제나 忠南을 생각하며 다른데 가서도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게 얘기않고 한 세가지 말로 付託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맺은 因緣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絕對로 잊지맙시다.

또 잊지만 않으면 되느냐?

또 두번째 付託은 서로 아낍시다.

세번째는 우리 서로 도웁시다.

우리는 언제 어떤 形態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調達廳을 가면서 그 職員名簿를 봤더니 經濟企劃院에서 일하던 몇분 아는 분이 거기 있는 것을 봤읍니다.

내가 警察에서 豫算 業務를 맡으면서 그 분들과 業務協調한 記憶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과 나와 公務員의 身分을 갖고 한 울타리에서 한 집안에서 만날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읍니다.

근데 이번에 調達廳에 가면서 純經濟部處에서 成長한 분과 만나서 이제 한 食口가 되게 됐읍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形態로 또다시 만날려는지 이것은 우리 人間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尊重을 하고 아끼면서 서로가 돕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人間關係는 重要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을 할 때 萬人에게 다 滿足이 어렵고 每事에 다 보람을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形態의 結果가 있든지 내가 最善을 다했다는 그간에 表

그러나 어떤 形態의 結果가 있든지 간에 내가 最善을 다했다는 그간에 衷情만은 여러분이 理解를 하시고 友情을 維持해 주기를 付託을 합니다.

정말 그 동안 感謝했고 정말 울고 싶은 心情인데 눈물을 보이기 보다는 웃음을 보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울지를 않고 웃습니다.

여러분 安寧히 계십시오.

安應模知事演說文選集

1987年　5月　15日　印刷
1987年　5月　20日　發行

發行：忠　清　南　道
編輯：文化公報擔當官室
印刷：忠南印刷工業協同組合

〈非賣品〉

CHUNG CHEONG NAM – DO
AM000991